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지역별 활동과 성격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지역별 활동과 성격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 학 농 민 혁 명 연 구 소

## 발간사

동학농민혁명이 역사적 빛을 보게 된 것은 수십만에 있는 동학농민군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동학농민혁명은 한동안 동학란으로 불리어지고 참여자들은 반역도로 치부되어, 유족들은 자랑스러운 선조들을 말하지 못하고 혹 그분들의 참여사실이 집안에 해가 될까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1994년 100주년을 기점으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인식이 크게 전환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2004년 3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사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 개개인에 대해 국가 차원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반역도의 후예라는 낙인을 없애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동학농민군의 후손임을 자랑스럽게 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2004년 구성을 시작으로 2017년 12월에 개정된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재출범되어, 현재까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현재 등록된 참여자는 모두 4,033명이고 유족 등록자는 13,839명입니다.

아직 발굴되지 않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이 많겠으나, 지금까지 확인된 참여자와 지역별 특징 등을 중간 점검 차원에서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학계의 의견에 따라, 저희 연구소에서는 2025년 6월 정읍시의 지원을 받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지역별 활동과 성격’을 주제로 학술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발표자는 그동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을 조사하고 등록하는 과정에 직접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분들로 역할 분담을 하여 지역별 참여자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004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된 참여자 발굴·등록 현황은 물론, 참여자의 지역별 활동상과 특징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참여자 명예회복사업은 물론 동학농민혁명 연구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학술 연구 결과를 널리 알리고자 학술대회의 성과물을 한데 묶어 『동학농민혁명연구소 학술총서』 제3권으로 발간합니다. 학술총서가 발간되기까지 발표와 토론에 함께하신 분들, 그리고 정읍시를 비롯해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학농민혁명 연구의 질적 향상과 대중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12.

동학농민혁명연구소장 김 양 식

## 차례

발간사 / 4

###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참여자 등록과정과 그 의의

9

1. 머리말 / 11
2. 국무총리 소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 11
3.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자체 조사 / 32
4. 문체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 구성과 활동 / 33
5. 참여자 등록현황과 그 의의 / 40
6. 맺음말 / 42

### 전북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사회적 배경과 통계적 특성 분석

45

1. 머리말 / 47
2. 전라북도 참여자 데이터 구성과 분석 기준 / 49
3. 전북 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분석 / 55
4. 참여 양상의 특징과 시사점 / 66
5. 맺음말 / 77

전라도 서남부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활동과 성격  
- 무안·함평·영광을 중심으로

---

83

1. 머리말 / 85
2. 무안·함평·영광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활동 / 87
3. 무안·함평·영광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성격 / 97
4. 맺음말 / 112

충청 지역 동학농민혁명  
등록 참여자의 활동과 성격

---

143

1. 머리말 / 145
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출생과 사망 / 146
3.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참여 지역과 활동 / 155
4. 동학농민혁명 이후의 삶 / 168
5. 맺음말 / 175

경상우도 동학농민군  
등록 참여자의 활동과 특징

181

1. 머리말 / 183
2. 상주진 등록 참여자의 활동 / 186
3. 성주진 등록 참여자의 활동 / 196
4. 진주진 등록 참여자의 활동 / 199
5. 창원진 등록 참여자의 활동 / 207
6. 맺음말 : 경상우도 동학농민군 등록 참여자의 특징 / 208

경기·강원·황해도 지역  
동학농민군 참여자의 활동과 성격

219

1. 머리말 / 221
2. 경기도 / 223
3. 강원도 / 239
4. 황해도 / 255
5. 맺음말 / 277

종합토론

287

#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참여자 등록과정과 그 의의

이 병 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 1. 머리말

## 2. 국무총리 소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 3.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자체 조사

## 4. 문체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 구성과 활동

## 5. 참여자 등록현황과 그 의의

## 6. 맺음말



## 1. 머리말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이에 따라 구성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 개개인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명예를 회복시켰다. 이러한 사업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등록의 과정을 살펴보고 이와 함께 그것이 가지는 의의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sup>1)</sup>

## 2. 국무총리 소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활동<sup>2)</sup>

### 1) 특별법 제정과 심의위원회의 구성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봉건제도의 개혁과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수호를 위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 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기 위해 출범

---

1) 필자는 2005년 10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심사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등록 업무를 수행했으며, 2010년 이후에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으로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을 조사하고 등록하는 업무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

2) 국무총리 소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은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2009년 12월 발간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백서』의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하였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국무총리의 민간위원 위촉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2004년 9월 17일 설치, 출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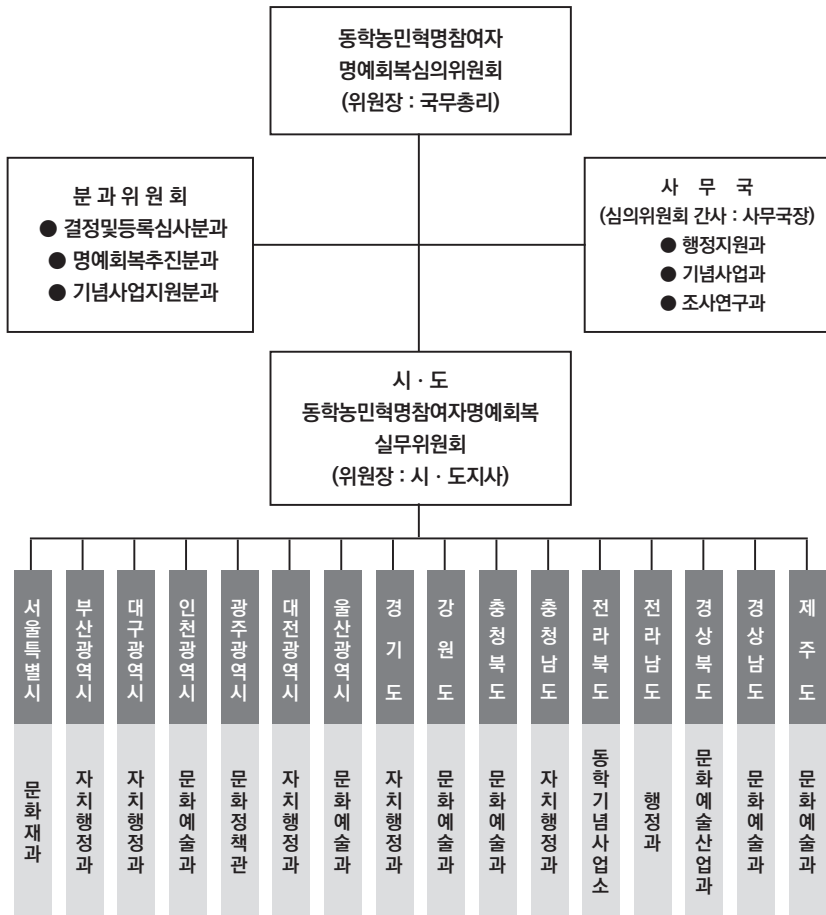
위원회 설치 근거인 <특별법>이 2002년 10월 21일 민주당 김태식 의원 등 163명의 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2003년 11월 21일 국회 과거사진상규명특별위원회 특별법안 회부 및 공청회를 거쳐 2004년 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2004년 3월 5일 공포되었다. 2004년 3월 10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동 <특별법> 집행기관으로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되었고, 동 <특별법> 시행령이 2004년 7월 24일 공포됨으로써 2004년 9월 6일부터 동 <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2004년 9월 13일 위원회 사무국이 구성되었고, 2004년 9월 17일 심의위원회 위원 15명 및 분과위원회 위원 15명을 위촉하였다. 2004년 11월 15일 각 시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국 16개 시도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또한,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활동 및 운영을 위해 <특별법> 시행세칙을 2004년 12월 30일 마련하고, 16개 시도 실무위원회에 송부하였다.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특별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위원장 등 정부 위원 7인, 민간위원 8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결정 및 등록, 명예회복, 기념사업 등에 관한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갖는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정부위원은 기획예산처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국가보훈처장이며, 민간위원은 유



족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였다. 위원회는 2004년 9월 17일 구성되었으며, 위원회 내에 결정 및 등록심사분과, 명예회복추진분과, 기념사업지원분과 등 3개 분과위원회(민간위촉직 분과별 5인의 이원으로 구성)가 있다.

〈그림 1〉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구성체계



분과위원회는 <특별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하여 결정및등록심사분과, 명예회복추진분과, 기념사업지원분과의 3개 분과로 나누어지며 분과별 5인으로 조직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 8인이 겸직하였다. 분과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활동을 지원하는데 있다. 결정및등록심사분과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결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관장하였다. 명예회복추진분과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관장하였다. 기념사업지원분과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관장하였다.

<특별법> 제4조에 근거하여 전국 주요 16개 시도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원장은 각 시도지사가 맡고 위원은 8인으로 관계공무원, 유족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였다. 시도 실무위원회는 각 시도별 유족의 등록 신청, 1차 심사 및 심의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였다. 16개 시도에 시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로 줄임)가 2004년 10월~11월 중 구성되었으며, 이에 앞서 2004년 10월 시도별로 소속 실무위원회를 지원하는 행정부서가 지정되었다.

## 2) 심의위원회와 분과위원회 개최

심의위원회는 최고 의결기구로써 2004년 12월 30일부터 2009년 11월 15일까지 총 10회 개최되었다. 주요 내용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유족

결정/등록, 특별법 시행세칙 제정 및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하였다. 활동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차수	일자	방 법	안건
1차	2004.12.30	서면 심의	특별법 시행세칙 개정(안)
2차	2005.12.27 (정부중앙청사)	참석 심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유족의 결정/등록(안): 50건
3차	2006. 6.16	서면 심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유족의 결정/등록(안): 3건
4차	2006.10. 4	서면 심의	특별법 시행세칙 개정(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유족의 결정/등록(안): 21건
5차	2006.11.20	서면 심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유족의 결정/등록(안): 189건
6차	2007.10. 2	서면 심의	특별법 시행세칙 개정(안)
7차	2008. 5.20	서면 심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유족의 결정/등록(안): 258건
8차	2008. 9.10	서면 심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유족의 결정/등록(안): 104건
9차	2009. 1.16	서면 심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유족의 결정/등록(안): 149건
10차	2009.11.17	서면 심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결정/등록(안): 3,146건 특별법 시행세칙 개정(안)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결정 및 등록심사분과위원회는 2004년 11월 2일부터 2009년 10월 23일까지 총40회 개최되었으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유족 심사를 주요 안건으로 하여 유족등록 신청에 대한 심사 등에 대해 논의, 결정하였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결정 및 등록심사분과위원회 회의개최 현황

차수	개최일	개최장소	회의 안건
1차	2004.11. 2	위원회 회의실	특별법 시행세칙(안) 검토
2차	2004.11. 3	위원회 회의실	유족 없는 참여자 심의기준 검토
3차	2004.11.23	위원회 회의실	참여자 및 유족 심의 기준안 검토
4차	2004.12. 6	위원회 회의실	참여자 및 유족 심의 기준안 검토
5차	2005. 1.26	위원회 회의실	유족등록 현안문제 검토 및 방안마련
6차	2005. 4.29	위원회 회의실	참여자 및 유족 심의 기준안 마련
7차	2005. 5.22	위원회 회의실	참여자 및 유족 심의 세부기준안 마련
8차	2005. 9.14	위원회 회의실	유족등록 신청 20건 심사
9차	2005. 9.29	위원회 회의실	유족등록 신청 34건 심사
10차	2005.10.31	위원회 회의실	유족등록 신청 18건 심사
11차	2005.11.14	위원회 회의실	심의위원회 2차 회의 계획 검토
12차	2006. 1.25	위원회 회의실	유족등록 신청 31건 심사
13차	2006. 5.10	위원회 회의실	유족등록 신청 37건 심사
14차	2006. 5.22	위원회 회의실	유족등록 신청 24건 심사
15차	2006. 7. 5	위원회 회의실	유족등록 신청 30건 심사
16차	2006. 8.12	위원회 회의실	유족등록 신청 35건 심사
17차	2006. 9.15	위원회 회의실	유족등록 신청 39건 심사
18차	2006.11. 3	위원회 회의실	유족등록 신청 32건 심사
19차	2006.12. 4	위원회 회의실	유족 없는 참여자 등록 검토
20차	2007. 1.29	위원회 회의실	특별법 개정에 따른 유족등록계획 검토
21차	2007. 2.12	위원회 회의실	특별법 시행세칙 개정안 검토
22차	2007. 6.29	위원회 회의실	특별법 시행세칙 및 서식 개정안 검토
23차	2007. 9.28	위원회 회의실	유족등록 신청 36건 심사
24차	2007.11. 2	위원회 회의실	유족등록 신청 45건 심사
25차	2007.12.14	위원회 회의실	유족등록 신청 55건 심사
26차	2008. 2.28	위원회 회의실	유족등록 신청 60건 심사
27차	2008. 4.18	위원회 회의실	유족등록 신청 33건 심사
28차	2008. 4.25	위원회 회의실	유족등록 신청 32건 심사
29차	2008. 7. 4	위원회 회의실	유족등록 신청 40건 심사
30차	2008. 8.14	위원회 회의실	유족등록 신청 55건 심사
31차	2008. 8.16	위원회 회의실	유족등록 신청 9건 심사
32차	2008.10.10	위원회 회의실	유족등록 신청 70건 심사
33차	2008.11.15	위원회 회의실	유족등록 신청 36건 심사
34차	2008.12.18	위원회 회의실	유족등록 신청 43건 심사

35차	2009. 2.13	위원회 회의실	참여자등록 추진계획(안) 검토
36차	2009. 4.24	위원회 회의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976건 심사
37차	2009. 6. 5	위원회 회의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786건 심사
38차	2009. 8.10	위원회 회의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708건 심사
39차	2009. 9.25	위원회 회의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502건 심사
40차	2009.10.23	위원회 회의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203건 심사

### 3) 1차 등록 과정

#### (1) 심사절차

##### ① 신청

〈특별법〉 부칙 제2조에 의거 동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행령 제 8조 제1항에서 규정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각 해당 시도 실무 위원회에 참여자 및 유족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신청기간은 2004년 11월 3일부터 2005년 9월 5일까지 10개월간이었다. 다만 〈특별법〉 시행 세칙 제16조에 의거 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유족(손자/손자녀) 이외 의 자가 각 시/도 실무위원회에 참여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상기 절차를 준용하되 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의결 기간에 제한받지 않고 처리하게 된다. 신청 기간에 접수된 유족등록신청은 총 263건이었다. 주요 지역의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울산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이루어 졌고, 전북 61건, 전남 51건, 서울 49건, 충남 40건, 기타 62건 등이었다. 유족이 아닌 사람들이 신청한 경우는 200건에 달하였다.

## ② 시도 실무위원회 조사

시도 실무위원회는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접수일로 180일 이내 즉 2006년 3월 5일까지 동법 제5조, 시행세칙 제12조에서 규정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신청인과 관계자에 대한 면담을 통해 참여자로 신청한 사람 개개인에 대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실 유무와 유족등록신청자와 참여자 간에 자녀, 손자녀 등의 관계가 성립하는 근거와 이유를 6하 원칙에 따라 기술하고 사실조사자의 판단의견을 제시한 사실조사결과서를 작성하였다. 이를 시행세칙 제12조 제5항에 따라 실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거쳤다. 그 결과를 시행세칙 제13조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실무위원회위원장의 명의로 유족여부 의견서를 첨부한 서류원본을 심의위원회에 송부하였다.

## ③ 심사조서 작성

심의위원회는 동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 즉 2007년 3월 5일까지, 시행세칙 제13조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조사연구과에서 심사조서를 작성하였다. 먼저 시/도 실무위원회에서 송부된 유족등록신청건의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였다. 확인이 미흡하거나 불명확한 사안에 대해 실무위원회에 재조사를 요구하거나 월 1회 직접 현지 사실조사를 실시하였다. 실무위원회의 의견서 및 사실보완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심사조서를 작성하고 전문가조사팀 회의에 상정하였다.

#### ④ 전문가조사팀 회의 및 보완조사

시도 실무위원회에서 이송한 유족등록신청에 대해 심의위원회 조사연구팀에서 검토 분석한 후 기초 자료를 작성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사건이 110여년이나 지났고 근거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아 심사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전문가들로 전문가조사팀을 구성하였다. 전문가조사팀에서는 심사담당관이 기초 작성한 내용을 검토하여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건은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분과위원회에 보내고 문헌근거가 전혀 없거나 정밀한 판단이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보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전문가조사팀 검토회의는 총 15회 실시하였다. 전문가조사팀 검토회의에서 검토된 유족등록 신청 건은 263건이며 검토결과, 인정 235건, 불인정 28건의 결정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검토된 것도 있다. 전문가조사팀 검토회의 결과, 보완의 결정이 내려지면 현지 보완조사를 실시하였다.

보완조사를 하게 된 것은 구전만이 전해지고 정확한 사료적 근거가 미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완조사는 대개 전문가조사팀 2명, 심사담당관 1명, 조사원 1명 등 총 4명이 한조가 되어 실시하였다. 보완조사는 총 30회 실시되었으며 조사기간은 총 82일, 조사건수 155건, 조사연인원 96명에 달하였다.

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은 먼저 참여사실이 어떻게 전승되어 왔는가 하는 것이다. 참여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누구를 통해 알게 되었는지 하는 점에 대한 정밀한 역사적 판단을 통해 전해지는 내용의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참여사실 전승과정을 자세히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전해지고 있는 참여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정리하였다. 실제 신청서에 제시한 내용과 신청인이나 관련자들이 알고 있는 사실에 차이가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유족으로부터 직접 참여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참여자가 동학농민혁명 이후까지 생존했을 경우, 참여 이후 어떻게 살아 왔는지, 그리고 가족들은 어떻게 생활했는지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여러 가지를 조사 확인하고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과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참여여부를 판단하였다. 다음 이러한 조사내용을 기초로 하여 전문가조사팀원 중 한사람이 대표로 ‘전문가조사팀 검토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뒤 다시 전문가조사팀 검토회의에서 이를 검토하여 수정한 뒤 전문가조사팀 전원이 합의하여 서명하였다. ‘전문가조사팀 검토결과 보고서’에는 참여사실 전승, 참여내용, 동학과 천도교 활동, 참여이후의 삶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전문가조사팀회의를 통과한 유족등록신청건은 대해서 결정및등록심사분과위원회에 보내어 심사토록 하였다.

#### ⑤ 분과위원회 심사

전문가조사팀에서 서명 제출한 심사조서를 결정및등록심사분과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하였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인정, 불인정 여부를 결정하였다. 만약 분과위원회에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유보 내지 보완, 재검토 등의 조치가 내려지고, 다시 전문가조사팀에게 재조사를 통하여 보완하도록 하였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총10회에 걸쳐 302건을 심의하여 인정 224건, 불인정 28건, 유보 50건으로 결정하였다.



## ⑥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분과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동법 제4조, 시행세칙 제13조 제6항과 제7항에 의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유족등록 여부 결정하였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총 4회에 걸쳐 263건의 참여자 및 유족등록건을 심의, 의결하였다. 263건 중 235건은 유족으로 결정하고 28건은 부결하였다.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한 「결정서」를 작성한 뒤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등록통지서」를 제작하여 심의/의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실무위원회에 통보하였고 실무위원회는 이를 각 신청인에게 통보하였다.

## (2) 참여자명단 색인작업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등록 및 참여자결정 신청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단 색인작업을 추진하였다. 2005년 5월부터 동년 7월까지 약 60일 동안 동학 전공 연구자 4명을 임시 채용하여,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동학농민전쟁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편저, 전 30권)에 기록된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명단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우선 대상 자료에서 참여자의 성명 및 직위, 활동지역, 사망지역 등을 기준으로 색인어를 추출하였다. 이를 다시 사무국 심사담당관이 추출된 인물의 참여자 여부 검토, 관련 지역 연관성 등 색인어 검토 작업을 하였다. 이어 참여자의 성명, 직위, 활동지역, 사망지역, 사망날짜 등 색인 입력 작업을 마쳤다. 그 결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단 색인’ 자료집 50부를 발간하여 시도 실무위원회 16부,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 24부, 기타

10부 등 비치하였다. 또한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시/도/군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였다.

또한 2005년 8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결정 및 유족등록신청 참고자료』를 500부 발간하여, 각 시도, 시군구(256개) 및 동학관계단체(21개)에 비치하여 신청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각 시도에서 진행 중인 유족등록 및 참여자결정 업무의 신청기한(2005. 9. 5)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자료의 부족 등으로 인해 신청인의 접수가 저조한 상황이므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결정 및 유족등록 참고자료’를 배부하여 신청인의 유족등록 및 참여자결정 신청의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였다.

### (3) 심의기준안 마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유족의 결정/등록에 대한 결정및등록심사분과위원회의 심의기준을 명확히 하여 심의의 객관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심의기준안을 마련하였다. 제2차와 제3차 결정및등록심사분과위원회(2004. 11. 13, 2004. 11. 23)에서 우윤 위원이 작성한 심의기준안을 검토하였고, 제4차 결정및등록심사분과위원회에서 심의기준을 결정하였다. 이후 심의기준의 구체적 적용을 위한 심의세부기준안을 모색하였다. 마침내 제7차 결정및등록심사분과위원회(2005. 5. 23)에서 심의세부기준안을 검토하여 분과위원의 수정의견 등을 수렴하여 최종 심의세부기준안을 확정하였다. 이를 2005년 6월 15일 시도 실무위원회 업무담당관회의에서 시도 실무위원회 담당자에게 업무추진에 활용하도록 설명하였다.

### <표 3>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유족의 결정/등록 심의세부기준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유족의 결정/등록 심의세부기준>

##### 1. 참여자의 범위

가. 특별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 ‘동학농민혁명참여자’라 함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의 개혁을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고자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중심의 혁명참여자를 말한다.

- 1차 봉기의 기점은 무장기포일인 1894년 3월 20일(음)로 하며, 2차 봉기의 종점은 최후전투인 금산 대둔산전투 종료시점인 1895년 2월 24일(음)로 함

나. 농민중심의 혁명참여자에 지주와 부농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집강소 시기 동안 2차 봉기 준비에 참여한 자도 참여자의 범위에 포함

- ‘농민중심의 혁명참여자’에는 동학농민혁명에 참가한 지주, 부농, 관료, 양반, 백정 등도 포함됨

- 집강소 시기 동안 2차 봉기 준비에 참여한 자의 범위에는 사회개혁 참여자 및 이 시기 전국 각지의 국지적인 전투에 참여한 자도 포함

##### 2. 참여자의 유형 구분

가. 1차 및 2차 봉기에 가담하여 실제 전투에 참여한 자

나. 1차 및 2차 봉기 시 물자를 제공한 자

- 물자의 범위에는 정보도 포함된다. 물자제공자의 범위에서 강제로 징수/제공 당한 것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자는 제외됨

다. 1차 및 2차 봉기 시 노동력 제공자

라. 기타 1차 및 2차 봉기 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것이 명백한 자

※ 참여자 결정 심사 시 제외대상자(학술적 연구자료 제시)

○ 동학농민혁명의 취지와 관계없이 사적 이해관계로 끼어든 자

○ 재산이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일시적 비자발적 참여자와 강제적 참여자

○ 변절자, 친일자, 교인으로 단순가담자, 무고한 희생자 등

- 변절자/친일자는 동학농민혁명 전개기간 동안 변절 및 친일행위를 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자를 말함

- 동학농민혁명 전개기간 이후에 친일을 한 혐의가 있는 자의 경우, 그 친일행위가 공신력 있는 유관기관에 의해 인정된 경우에만 친일자 범주에 포함함

- ‘교인으로 단순가담자’란 단순한 동학교도, 즉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지 않은 동학교도를 말함

- 무고한 희생자란 관군의 수색과정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을 말함

##### 3. 유족의 범위

-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자녀 및 손자녀

- 손자녀 : 친손, 외손, 양자손
- 양자(養子) : 참여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
- 양자손은 참여자 직계비속의 그의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함
- <특별법> 공포(2004.3.5) 이후에 입양된 자의 경우 참여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한함

#### 4. 유족등록 신청 시 근거자료

- 가. 유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신청인)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문헌
  - 자료 또는 문헌의 범위에는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 및 그 직후에 기록·작성된 관찬사료, 재판기록, 신문기사, 일기자료, 편지, 자서전 등을 말함.
  -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1996) 30권의 소장자료는 가장 대표적인 자료 또는 문헌에 속함.
  - 동학농민혁명 당시 발급된 접주임명장도 ‘자료 또는 문헌’에 포함됨
- 나.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호적과 관련된 서류[호구단자(戶口單子) 등]
- 다. 신청인의 호적등본
- 라. 그 밖에 유족임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 참여자의 실명과 관찬사료와 이름이 다른 경우, 양자가 동일인임을 보증하는 전공연구자 3인 이상의 확인서
  - 기 발표된 연구논문 또는 연구서에서 밝혀진 자료
  - 전공연구자 3인 이상이 보증하는 증언록
  - 전공연구자 3인 이상이 보증하는 족보
  - 동학농민혁명 후 참여자의 행적을 기록한 개인자료

#### 5. 유족등록 신청시 대표유족 선정기준 및 관할 실무위원회

- 가. 참여자 및 유족의 사실조사와 심사는 유족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대표 유족 주소지의 실무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나. 대표 유족을 선정하지 않고, 여러 유족들이 신청하였을 경우 유족의 대표자를 선정
  - 참여자와 가장 가까운 직계 유족이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 실무위원회
  - 유족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의 주소지 관할 실무위원회
  - 참여자의 주소지(옛 지명 명시)의 관할 실무위원회

### (4) 봉사손 유권해석

〈특별법〉 제2조에서 유족이라 함은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자녀 및 손자녀’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위원회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이 112

년이 된 오래된 일이고 유족에 대한 보상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호적이나 족보에서 양자 또는 양손자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유족으로 인정하는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유족 심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6년 이와 관련하여 특정 종친회로부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봉사손(奉祀孫)으로 인정받아 족보에 고손의 자리에 봉사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 대개 봉사손이란 후손이 없거나 사라졌을 때 종중(宗中)으로부터 해당자의 제사를 지내고 묘지를 관리하는 역할을 부여받고 족보상 봉사손이라고 기록된 자를 말한다. 위의 종친회는 첫째 봉사손을 양손자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둘째 봉사손을 양손자로 인정한다면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유족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셋째 봉사손이 족보에 고손의 자리에 기재되어 있을 경우, 이를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유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문의하였던 것이다.

이에 위원회는 봉사손으로 기록된 자가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유족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종중으로부터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제사를 지내고 묘지를 관리하는 역할을 부여받고 족보상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고손에 해당하는 자리에 봉사손으로 기록된 자는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유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별법> 제2조 제2항에서는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자녀 및 손자녀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바, 친족의 범위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둘째, <민법>에 따르면 직계혈족을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규정하고, 직계비

속은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양자와 양부모의 친계와 존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별법〉의 ‘자녀 및 손자녀’는 입양된 자녀 및 손자녀를 포함하여 동학농민혁명참여자자와 1촌 또는 2촌의 관계에 있는 직계비속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셋째, 〈특별법〉의 국회입법과정에서 유족의 범위를 당초 초안에서는 ‘직계비속 또는 그 형제자매의 자녀나 손자녀’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자녀 및 손자녀’로 축소하여 규정한 것인바, 유족의 범위를 확대해석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넷째, 〈민법〉 시행 이후에 봉사손이 된 자는 동법에 규정된 입양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면 동법에 의한 양자로 볼 수 없으나, 동법 시행 이전에 봉사손이 된 자는 그 당시의 관습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양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봉사손이 양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안에서 봉사손은 고손에 해당하게 되는바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유족인 ‘자녀 및 손자녀’는 동학농민혁명참여자자와 1촌 또는 2촌 관계에 있는 직계비속만을 의미하므로, 고손에 해당하는 봉사손은 동학농민혁명참여자자의 유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 4) 2차 등록 과정

2007년 1월 26일 특별법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 범위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손자녀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자녀/손자녀/

증손자녀/고손자녀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후속조치로서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등록 2차 신청이 시작되었다.

## (1) 심사절차

### ① 신청

개정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의거 동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규정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각 해당 시도 실무위원회에 참여자 및 유족등록 신청하도록 하였다. 신청기간은 2007년 2월 15일부터 2007년 7월 25일까지 6개월간이었다.

### ② 참여자 신청건 시도 실무위원회 반송 및 처리

<특별법>이 개정되어 유족의 범위가 자녀 및 손자녀에서 증손자녀 및 고손자녀까지 확대됨에 따라, 우선 2004년 11월 3일부터 2005년 9월 5일까지 시도 실무위원회에서 접수받아 심의위원회에 송부했던 참여자 신청 200건을 각 시도실무위원회에 반송하였다. 이에 대한 처리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다. 심의위원회 ⇒ 실무위원회 ⇒ 신청인 ⇒ 실무위원회 ⇒ 심의위원회 ⇒ 실무위원회 ⇒ 신청인 등의 순이다.

〈표 4〉 시도별 반송 현황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합계
건수	49	1	1	4	6	12	4	14	21	37	38	4	9	200

각 시도실무위원회에서는 참여사실만을 결정하여 심의위원회에 송부하였고 유족관계를 심사하지는 않았다. 또 실무위원회에서는 신청인에게 법률 개정 내용, 유족의 범위, 제출서류,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설명하여 통지하였다. 손부, 종증손 등과 같이 유족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인인 경우는 유족에 해당하는 사람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유족등록신청서를 다시 접수하게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사무국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신청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시도 실무위원회에 송부하였다.

### ③ 실무위원회 조사

이렇게 하여 접수된 유족등록 신청건에 대해 시도 실무위원회는 동법 제 5조 제2항에 의거 접수일로 180일 이내 즉 2008년 1월 21일까지 동법 제 5조, 시행세칙 제12조에서 규정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환>, <추가>, <신규> 세가지 분류를 적용하였다. 첫째, 전환이란 1차 등록 당시 유족등록 신청건 중 심사대상이 아니었던 것이 <특별법> 개정으로 심사대상이 되어 <전환>으로 표기한 것이다. 둘째, 추가는 1차 등록 때 유족으로 인정받았던 건 중에서 <특별법> 개정으로 증손, 고손까지 유족의 범위가 확대되어 서류를 추가 요청한 것이다. 셋째, 신규는 2차 등록 때 새로 받은 유족등록 신청건을 말한다. 이러한 기준과 분류로 실무위원회에서 재조사한 결과 총 245건(전환 118건, 추가 108건, 신규 19건)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등록 결정자 명단을 송부받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실무위원회 58건(신규 6, 추가 37, 전환 15), 인천 실무위원회 8건(전환 4, 추가 2, 신규 2), 경기 실무위원회 10건(전환 9, 추가 1), 대구 실



무위원회 2건(전환 1, 추가 1), 광주 실무위원회 20건(전환 2, 신규 7, 추가 11), 대전 실무위원회 3건(추가 3), 강원 실무위원회 5건(전환 4, 추가 1), 충북 실무위원회 12건(전환 7, 추가 3, 신규 2), 충남 실무위원회 19건(전환 18, 추가 1), 전북 실무위원회의 62건(전환 30, 추가 30, 신규 2), 전남 실무위원회 19건(전환 17, 추가 2), 경북 실무위원회 11건(추가 7, 전환 4), 경남 실무위원회 16건(추가 9, 전환 7) 등이었다.

#### ④ 심사조서 작성

심의위원회는 동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 즉 2009년 1월 22일까지, 시행세칙 제13조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조사연구팀에서 심사조서를 작성하였다. 조서작성은 1차 때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 ⑤ 전문가조사팀 회의 및 보완조사

1차 때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전문가조사팀 회의와 현지 보완조사도 계속 실시하였다. 전문가조사팀 회의는 2007년 12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총 10회 실시하였고, 현지 방문 및 신청자 직접방문 등을 포함한 보완조사는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총 28회가 되었다.

#### ⑥ 분과위원회 심사

전문가조사팀에서 제출한 심사조서를 결정및등록심사분과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하였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인정, 불인정 여부를 최

종적으로 결정하였다. 만약 분과위원회에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유보조치가 내려지고, 다시 전문가조사팀에게 재조사를 통하여 보완하도록 하였다. 2007년 9월부터 2008년 12월 18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516건을 심사 인정 473건, 불인정 38건, 유보 5건 등을 결정하였다.

#### ⑦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결정및등록심사분과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동법 제4조, 시행세칙 제13조 제6항과 제7항에 의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유족등록 여부 결정하였다. 2008년 5월부터 2009년 1월까지 511건을 심의, 의결하였다. 473건 9,776명은 결정되었고 38건 563명은 부결되었다. 이에 따라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한 결정서』를 작성한 뒤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등록통지서』를 제작하여 심의/의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실무위원회에 통보하였고 실무위원회는 이를 각 신청인에게 통보하였다.

### 5) 참여자 직권등록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중 유족등록 신청이 없는 참여자에 대해 위원회가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인물들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함으로써 참여자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이는 특별법 시행세칙 제15조(2007. 10. 2) ‘직권조사에 의한 참여자 등록’에 근거한 것으로 조사 및 등록기간은 2009년 2월부터 동년 11월까지이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 〈표 5〉 참여자 조사 등록과정

참여자 조사 · 분석 · 정리(사무국) → 전문가조사팀 검토 → 결정및등록분과위원회 심사  
→ 심의위원회 심의 · 의결 → 등록

심의위원회 사무국에서는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 30권, 『사법품보』 20권 등 동학농민혁명 관련자료를 총망라하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참여사실을 확인하였다. 총 7,279건의 자료를 추출하여 이를 복사한 뒤 개별파일로 편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참여자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전문가조사팀회의에서 상정하였다. 전문가조사팀에서는 사무국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참여자심사조서를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검토내용은 제시한 근거자료의 신빙성, 제시한 내용에 대한 참여사실 여부, 참여지역과 시기 등이었다. 2009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5회에 걸쳐 3,241건을 검토하여 3,175건에서 참여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결정및등록심사분과위원회에 보내 심사토록 하였다. 전문가조사팀에서 검토하여 제출한 참여자심사조서를 결정및등록심사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 참여사실에 대한 근거자료가 무엇이며 참여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참여여부를 결정하였다. 2009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5회에 걸쳐 3,175건을 심사하여 3,146건에 대해 동학농민혁명참여자로 인정하였다. 분과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동법 시행세칙 제15조4항에 의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을 통해 참여자여부를 결정하였다. 2009년 11월 15일 3,146명을 심의하여 동학농민혁명참여자로 결정하였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3,146명에 대해 동학농민혁명참여자로 등록하였다.

### 3.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자체 조사

심의위원회가 2009년 12월 활동을 종료하고 이후 개정된 특별법에 따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2010년 2월 24일 설립되었다.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념재단은 민간으로 활동했던 (재)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국무총리가 위원장이었던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계승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함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을 조사하거나 등록할 수 있는 기구나 조직이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념재단은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참여자 및 유족등록업무를 승계하고 참여자 및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참여자조사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재단 내에 참여자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010년 6월 10일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다. 동학농민혁명 연구자 등 7인으로 구성된 참여자조사위원회는 참여자 및 유족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조사한 내용에 대해 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후 그 결과를 매년 기념재단 이사회에 보고하였다. 참여자조사위원회를 위해 유족이 거주하고 있는 현지를 방문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실조사는 참여자조사위원, 연구조사부장, 연구조사부 직원이 함께 동행하여 참여자의 후손을 만나 증언을 듣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참여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유족들은 유족으로 등록되지 못한 것에 대해 많은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참여자조사위원회의 활동을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참여자조사위원회 활동 현황(2010~ 2017)

차수	일자	장소	안건	결과
1차	2010. 7. 27	재단 회의실	위원장 선출 등	위원장 선출
2차	2010. 12. 22	재단 회의실	참여자조사 7건	인정3, 유보4
3차	2011. 2. 18	재단 회의실	참여자조사 계획검토	계획 검토
4차	2012. 2. 3	재단 자료실	참여자조사 39건	인정25, 불인정3, 유보 11
5차	2012. 12. 21	재단 회의실	참여자조사 11건	인정4, 유보7
6차	2013. 10. 25	성균관대 회의실	위원장 선출/참여자조사 8건	인정4, 불인정3, 유보1
7차	2014. 2. 14	성균관대 회의실	참여자조사 14건	인정13, 유보1
8차	2015. 12. 23	용산역 회의실	참여자조사 281건	인정269, 불인정4, 유보 7, 심사제외 1
9차	2016. 12. 13	서울역 회의실	참여자조사 29건	인정24, 불인정1, 유보4
10차	2017. 12. 7	용산역 회의실	참여자조사 40건	인정32, 유보8

참여자조사위원회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운영되었다. 이 과정에서 10 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참여자조사 429건에 대해 심의하여 인정 274건, 불인정 11건, 유보 43건, 심사제외 1건 으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참여자조사위원회의 활동은 참여자와 유족의 추가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단으로 문의해온 많은 참여자의 유족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는 이후 추가등록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 4. 문체부 소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 1) 심의위원회 재구성

한시적으로 진행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등록은 이후 그 사실을 알게된 많은 유족으로부터 추가 등록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발의되어

2017년 12월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 동학특별법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여부의 결정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런데 위원회의 주요 기능 중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 등록 결정의 경우, 그 신청기한이 2007년 7월에 종료됨에 따라 유족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위원회 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다만, 조사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규모에 비하여 그 유족 등록 신청 건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유족 등록 신청을 계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면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유족 등록 관련 업무 등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결국 통과되었다.

이렇게 개정된 특별법에 의해 2018년 9월 1일 문체부 장관 소속으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 위원회는 정부위원으로 문체부, 기재부, 행안부, 국가보훈처의 국장급 공무원 4인과 민간위원 5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되었다. 위원장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이 맡게 되었다. 이와 함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원회의 사무와 업무처리를 문체부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위탁하여 실질적으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등록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신청에 의한 참여자 및 유족등록은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무처에서 이를 접수받고, 사무처에서는 신청된 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사실조사는 조사위원과 조사관이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한 뒤 유족신청

인을 직접 만나 증언을 듣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후 이를 조사위원회에 올려 조사된 안전에 대해 조사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진행한다. 조사위원회에서 인정, 불인정을 결정하고 이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인정 불인정을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보류의 결정을 하여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조사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진행한다. 조사위원회를 통과한 안전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최종적으로 인정, 불인정이 결정된다. 여기서 인정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유족등록통지서가 전달되고 불인정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공문으로 불인정을 통지한다. 이후 사무처에서는 참여자 및 유족 결정서와 참여자 및 유족명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 2) 조사위원회의 활동

2018년 위원회가 재출범한 이후 실무위원회가 사전심의를 하였으나 위원 수를 늘리고 수행업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운영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조사위원회로 개편하여 운영하였다. 실무위원회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4회 개최되었다. 실무위원회와 조사위원회의 활동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7〉 실무위원회 활동현황(2018.12.1.~2019.12.31.)

차수	일자	장소	안전(사전심의)	결과
1차	2018.12. 4	기념재단 회의실	위원장 선출	위원장 선출
2차	2019. 5. 2	기념재단 회의실	유족등록신청 39건	인정30, 불인정4, 유보5
3차	2019.10. 2	기념재단 회의실	시행세칙 개정안	개정안 검토
4차	2019.11.19	기념재단 회의실	유족등록신청 35건	인정25, 불인정4, 유보6

〈표 8〉 조사위원회 활동현황(2020. 1. 1~현재)

차수	일자	장소	안건(사전심의)	결과
1차	2020. 4. 29	기념재단 회의실	유족 신청 30건	인정28, 불인정2
2차	2020. 9. 23	기념재단 회의실	유족 신청 30건	인정14, 불인정12, 보류4
3차	2020. 11.19	기념재단 회의실	유족 신청 15건	인정5, 불인정8, 보류2
4차	2020. 12.10	기념재단 회의실	유족 신청 8건	인정2, 불인정2, 보류4
5차	2021. 4. 8	기념재단 회의실	유족 신청 29건	인정23, 불인정5, 보류1
6차	2021. 6. 3	기념재단 회의실	전봉준유족신청 처리방안	처리방안 검토
7차	2021. 7. 1	기념재단 회의실	유족 신청 28건	인정22, 불인정6
8차	2021. 10. 7	기념재단 회의실	유족 신청 21건	인정7, 불인정12, 보류2
9차	2021. 11.24	기념재단 회의실	유족 신청 7건	인정5, 불인정2
10차	2022. 3.30	기념재단 회의실	유족 신청 13건	인정10, 불인정1, 보류2
11차	2022. 8.25	기념재단 회의실	유족 신청 19건	인정14, 불인정5
12차	2022. 10.27	기념재단 회의실	유족 신청 19건	인정15, 불인정3, 보류1
13차	2022. 12. 2	기념재단 회의실	유족 신청 49건	인정45, 불인정1, 보류3
14차	2023. 3.30	기념재단 회의실	유족 신청 22건	인정21, 보류1
15차	2023. 7. 6	기념재단 회의실	유족 및 직권 32건	인정22, 불인정4, 보류6
16차	2023. 9. 21	기념재단 회의실	유족 및 직권 32건	인정27, 불인정5
17차	2023. 11.23	기념재단 회의실	유족 및 직권 35건	인정31, 불인정2, 보류2
18차	2024. 3.28	기념재단 회의실	유족 신청 24건	인정24
19차	2024. 7. 3	기념재단 회의실	유족 및 직권 33건	인정31, 보류2
20차	2024. 8.29	기념재단 회의실	유족 및 직권 34건	인정32, 불인정2
21차	2024. 11.29	기념재단 회의실	유족 및 직권 36건	인정33, 불인정3
22차	2025. 3.20	기념재단 회의실	유족 신청 26건	인정24, 불인정2

조사위원회는 2020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22회 개최되었으며 이때 유족신청 542건에 대해 사전심의 하여 435건을 인정하였고 77건 불인정하였으며 30건을 보류하여 추가조사하였다. 조사위원들은 조사관과 함께 신청인을 직접 만나 증언을 듣고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해 조사위원들이 조사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인정, 불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이를 결정하기 애매한 경우에는 보류로 결정한 후에 추가조사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인정, 불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 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 3) 심의위원회의 활동

심의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심의위원회는 2018년 재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총 23회 걸쳐 회의가 개최되었다. 583건을 심의하여 487건을 인정하고 85건을 불인정하였으며 11건을 보류로 의결하였다. 참여자가 이미 등록된 상태에서 유족만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고려하면 불인정 85건은 매우 많은 편이다. 이는 심의위원회 결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매우 엄격하게 심의 의결한 결과이기도 하다. 심의위원회는 매년 4회 정도 개최되고 있다.

〈표 9〉 심의위원회 개최 현황(2018. 9. 1 ~ 현재)

차수	일자	장소	안건(심의·의결)	결과
1차	2018. 9. 4	달개비	위원회 시행세칙안	개정안 통과
2차	2019. 6.12	오송컨퍼런스	유족신청 34건	인정30, 불인정4
3차	2019.12. 4	기념재단 회의실	유족신청 31건	인정23, 불인정4, 보류4
4차	2020. 6. 4	기념재단 회의실	유족신청 30건	인정28, 불인정2
5차	2020.10.22	기념재단 회의실	유족신청 26건	인정14, 불인정12
6차	2020.12.22	서면심의	유족신청 23건	인정7, 불인정10,보류6
7차	2021. 4.28	서면심의	유족신청 28건	인정23, 불인정5
8차	2021. 7.29	서면심의	유족신청 28건	인정22, 불인정6
9차	2021.11. 2	오송세종컨퍼런스	유족신청 19건	인정7, 불인정12
10차	2021.12.14	기념재단 회의실	유족신청 7건	인정5, 불인정2
11차	2022. 4.14	기념재단 회의실	유족신청 11건	인정10, 불인정1
12차	2022. 9.16	기념재단 회의실	유족신청 19건	인정14, 불인정5
13차	2022.11.10	기념재단 회의실	유족 및 직권 18건	인정14, 불인정3, 보류1
14차	2022.11.15	기념재단 회의실	유족 및 직권 46건	인정45, 불인정1
15차	2023. 4.13	기념재단 회의실	유족신청 21건	인정21
16차	2023. 7.27	기념재단 회의실	유족 및 직권 26건	인정22, 불인정4
17차	2023.10.13	기념재단 회의실	유족 및 직권 32건	인정27, 불인정5
18차	2023.12. 7	기념재단 회의실	유족 신청 33건	인정31, 불인정2
19차	2024. 4.11	기념재단 회의실	유족 및 직권 24건	인정24

20차	2024. 7.25	기념재단 회의실	유족 및 직권 31건	인정 31건
21차	2024.10.31	기념재단 회의실	유족 및 직권 34건	인정32, 불인정2
22차	2024.12. 5	기념재단 회의실	유족 및 직권 36건	인정33, 불인정3
23차	2025. 4.10	기념재단 회의실	유족신청 26건	인정24, 불인정2

#### 4) 심의 기준

참여자 및 유족등록 심의 기준을 명확하고 엄격하게 적용하였다. 참여자는 1차 또는 2차 봉기에 가담하여 실제 전투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참여자로 결정하였다. 또한 1차 또는 2차 봉기에 물자를 제공한 자 및 노동력을 제공한 경우에도 참여자로 인정하였다. 이 경우에는 그 적용을 엄격하게 하였다. 동학농민혁명 기간 동안 변절하였거나 일제강점하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정된 경우에는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참여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참여자로 인정하는 자료의 기준은 동학농민혁명 기간 및 그 이후 일제강점기까지 기록된 자료에서 인명이 확인되면 인정하였다. 해방이후 1994년(동학농민혁명 백주년)까지 기록된 자료의 경우에는 역사적 사실과 부합된다고 판단된 경우 참여자로 인정하였다. 1994년 이후 기록된 자료는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고 족보나 호적(제적부) 등 방증자료에서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참여자로 인정하였다. 이 경우에는 전승(진술) 과정의 명확성, 전승(진술) 내용의 신빙성, 역사적 사실과의 부합여부, 족보(사망일자)나 호적 등 방증자료, 제3자의 진술, 비문, 책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였다. 증언이나 구술만 있는 경우에는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고 족

보나 호적 등 방증자료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된 경우 인정하였다. 이 경우에도 전승(진술) 과정의 명확성, 전승(진술) 내용의 신빙성, 역사적 사실과의 부합여부, 족보(사망기록)나 호적 방증자료, 사실조사 등에 의해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참여자를 결정하였다.

유족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고손자녀로 외손, 외증손, 외고손도 포함된다. 참여자의 직계비속이 없거나 여(女)만 있는 경우 1인에 한해 양자를 인정하였다. 또 참여자의 직계비속의 직계비속이 없거나 여(女)만 있는 경우 1인에 한해 양자손을 인정하였다. 유족의 입증근거는 호적(제적부), 가족관계증명서가 우선이며 족보로 이를 보완할 수 있다.

〈표 10〉 참여자 유족등록 심의기준

구분	참여자 · 유족등록 심의기준
참여자 기준	<p>가) 참여자로 인정되는 자</p> <p>① 1차 또는 2차 봉기에 가담하여 실제 전투에 참여한 자</p> <p>② 1차 또는 2차 봉기 시 물자를 제공한 자(정보 포함) 및 노동력 제공자</p> <p>③ 기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것이 명백한 자</p> <p>나) 참여자로 인정되지 않는 자</p> <p>① 동학농민혁명 기간 변절한 자</p> <p>②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6조 및 제27조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정된 자</p>
유족 기준	<p>①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자녀 · 손자녀 · 증손자녀 · 고손자녀(외손, 외증손, 외고손 포함)</p> <p>② 양자(養子) : 참여자가 직계비속이 없거나, 여(女)만 있는 경우에 입양(入養)한 자(1인 한함)</p> <p>③ 양자손 : 참여자 직계비속의 직계비속이 없거나, 여(女)만 있는 경우에 입양(入養)한 자(1인 한함)</p> <p>※ 자부(子婦), 서(壻), 손부(孫婦), 손서(孫壻)는 유족으로 인정되지 않음</p>
참여자 유족 입증 기준	<p>① 동학농민혁명 기간 및 그 이후 일제강점기까지 기록된 자료</p> <p>② 해방 이후 1994년(동학농민혁명 백주년)까지 기록된 자료로 역사적 사실과 부합된다고 판단된 경우</p> <p>③ 1994년 이후 기록된 자료로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고 족보나 호적(제적부) 등 방증자료에서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p> <p>④ 증언 · 구술이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고 족보나 호적 등 방증자료 또는 사실조사 등에 의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된 경우</p> <p>⑤ 호적(제적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족보 등</p>

## 5) 직권조사에 의한 참여자등록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참여자를 조사하여 등록하고 있다. 직권참여자등록이라도 유족등록 신청 절차에 준거하여 사실조사 실시 후 사실조사 결과보고 및 사실조사 검토의견서 작성 후 심사안을 작성하여 조사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한 후에 이것이 완료되면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의결하고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직권등록 된 참여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참여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다.

## 5. 참여자 등록현황과 그 의의

현재까지 심의위원회가 조사하여 등록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총 3,913명이다. 이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143명(3%), 충청도 1,109명(28%), 전라도 2,083명(53%), 경상도 204명(5%), 강원도 76명(3%), 황해도 111명(3%)로 전라도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충청도 그리고 경상도, 황해도, 강원도에서도 많은 동학농민군이 확인되고 있다.

〈표 11〉 도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록 현황 (단위 : 명)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미상	합계
143 (3%)	1,109 (28%)	2,083 (53%)	212 (5%)	105 (3%)	111 (3%)	2 (0%)	1 (0%)	147 (5%)	3,913 (100%)

〈표 12〉 1차·2차 봉기 참여자 현황 (단위 : 명)

1차 봉기 참여자	2차 봉기 참여자	미구분	합계
224	3,364	325	3,913

1차 봉기 참여자와 2차 봉기 참여자를 구분해 보면 2차 봉기 참여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는 1차 봉기가 전라도를 중심으로 펼쳐진 데 반하여 2차 봉기는 전국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러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등록은 다음 몇 가지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다.

첫째, 반란자라고 하여 낙인 찍고 억압을 일삼던 상황에서 국가가 참여자와 유족 개개인에게 역사발전에 이바지했다고 평가하고 그 명예를 회복시켜주었다는 점이다. 비록 시간이 흐르고 참여자들은 이땅에 남아 있지 않지만 국가가 직접 나서서 명예를 회복시켜 준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둘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개개인을 역사적 인물로 부활시켰다는 점이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가 수십만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중에서 겨우 3,913명의 이름이 확인된 것이다. 매우 적은 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료와 기록을 통해 동학농민군의 이름이 확인되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역사속에서 잊혀지고 사라져버릴 동학농민군 개개인의 이름이 참여자와 유족등록 과정에서 드러나고 그것이 공식적으로 국가차원에서 기록된 것이다.

셋째, 참여자와 유족등록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으로서 근거지를 잃고, 삶의 기반을 잃고, 교육의 기회를 잃고,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왔던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유족들은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조상 때문에 고난과 고초를 당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넷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등록은 그동안 동학농민혁명을 알지

못했던 국민들에게 동학농민혁명의 가치와 의미를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다. 국민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에 내포되어 있는 민주, 평등, 자주, 인간존중의 정신을 알게 해 주었다.

## 6. 맺음말

이상에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록과정과 그 의의를 살펴보았다. 2004년 3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이 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국가 차원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을 등록하였다. 2009년 12월까지 총 참여자 3,644명, 유족 10,567명을 등록하였다. 이후 추가등록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7년 특별법을 개정하고 다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2018년 9월 재구성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 업무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위탁하였다. 이후 기념재단은 현재까지 참여자 269명, 유족 3,194명을 조사하여 등록하였다. 현재까지 참여자는 3,913명, 유족은 13,761명이 등록되었다. 이러한 등록작업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등록 업무는 2004년 이후 2025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새롭게 등록해야 할 참여자와 유족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이 과정에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많은 유족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해 주었다. 그것들이 켜켜이 쌓여 역사적 사

건으로 재구성되었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렇게 조사되고 정리된 내용을 잘 활용하는 것이다. 시와 소설로, 영화로, 음악으로, 그림으로, 콘텐츠로 재탄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 전북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사회적 배경과 통계적 특성 분석

박 정 민

전북대학교 교수

1. 머리말

2. 전라북도 참여자 데이터 구성과 분석 기준

3. 전북 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분석

4. 참여 양상의 특징과 시사점

5. 맺음말



## 1. 머리말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에 반봉건·반외세라는 기치를 내걸고 전국으로 확산된 대규모 민중운동이었다. 특히, 전라북도(이하 전북)는 1차 고부 봉기에서 무장 봉기, 백산 대회, 황토현 전투, 전주 화약에 이르기까지 동학군의 주요 활동 무대였다. 이는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과정에서 전북 지역이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했음을 보여준다. 2차 봉기에서도 전봉준이 이끄는 남접은 논산에서 북접과 합류하였고, 김개남을 중심으로 한 남원 일대의 농민군은 청주 방면으로 진격하는 등 전라도의 농민군은 주력으로 자리하였다.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선행 연구는 주로 사상과 전개 과정, 지도부의 활동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참여자 개개인의 구체적인 사회적 구성과 지역적 분포를 통계적으로 접근하여 혁명의 실질적 기반을 규명하려는 시도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특히, 전북 지역에 한정된 참여자 규모, 연령, 출신지, 직업, 피해 양상 등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한 구체적인 사회사 분석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에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사료 아카이브를 활용하여 연구 동향 자체를 계량정보학적 방법으로 분석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동학농민혁명 연구가 최근 들어 사상 중심의 거시적 접근에서 지역 사례와 사회사적 접근으로 다층화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예를 들어, ‘동학’을 제목 키워드로 포함하는 논문 2,000여 편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지역 사례 연구가 급증하였다. 또한, 참여자의 사회적 구성, 지역

별 참여 양상 등 미시적·실증적 주제가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sup>1)</sup>

기존 연구는 동학농민군의 봉기 배경과 이념, 지도자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하지만 봉기가 끝난 후 ‘이 일만 아니었으면 우리 집은 안 망했을 것’이라는 후손들의 증언은 가족 단위의 생계와 기억의 붕괴를 드러낸다.<sup>2)</sup> 즉, 동학농민혁명이 단순한 민중 봉기가 아니라 지역사회 내부의 구조와 계층적 다양성을 반영한 집합적 운동이었다는 인식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국가기관이 구축한 공적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 연구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4년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이러한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공적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3,900여 명의 참여자와 약 1만 명의 유족을 등록하면서 참여자의 신상, 활동 이력, 희생 양상 등에 대한 통계자료를 축적하였다.<sup>3)</sup>

이 자료는 단지 국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참여자 목록이 아니다. 혁명의 사회적 기반과 지역 분포, 계층적 구성 등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

1) 녹두팀·박정민, 「데이터로 본 동학농민혁명 연구 동향-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료(史料) 아카이브 수록 국내학술논문을 중심으로-」, 『동학농민혁명연구』 3, 2024.

2)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유족 증언을 통해 본 동학농민군의 삶』,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24.

3)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https://cdpr.go.kr/commit/>) 검색일 : 2025년 5월 25일.

본고는 위원회에서 제공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전북 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통계적 구조와 사회적 특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통계 분석은 전북 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실질적 전개 양상을 구조적으로 파악할 실증적 단서를 제공하며 그 성격과 지역 기반 동원 역량을 재구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동학농민혁명이 단순한 우발적 민중 봉기가 아닌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조직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전개된 것이었음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 2. 전라북도 참여자 데이터 구성과 분석 기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는 2004년부터 2024년까지 위원회에서 구축한 자료를 기반한 것이다. 여기에는 전국적으로 총 3,908명<sup>4)</sup>의 참여자 정보가 구성되어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유족 증언, 고문서, 판결문, 각종 관련 도서 등 다양한 사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신뢰성 높은 자료이다. 위원회는 참여자 개개인에 대해 최대 24개 항목의 정보를 기입하였으나, 모든 항목이 완전히 채워진 사례는 없었다. 해당 데이터는 Excel 형식으로 제공되며 각 행은 1명의 참여자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총 24개 열(column)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료에는 일부 열의 셀 병합, 비표준 표기, 중복 표기 등 형식적 오류가 포함되어 있었다.

각 참여자에 대해 입력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 참여자 ID, 구분(1차등록/

---

4) 이 인원은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의 2024년 참여자 명폐수와 일치한다.

직권등록), 성명(한글 및 한자), 출생연도, 사망연도, 본적, 성별, 참여 지역(도·시), 당시 연령, 직업, 직책, 참여 일자, 참여 내용, 신상변동 등이다. 3,908명 가운데 모든 항목을 다 채운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옛참여지역’ 부분만 빼고 23개 항목을 채운 사람도 상당히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손화중이다. 그는 출생연월일과 사망연월일, 본적과 참여연도, 당시 연령과 직업, 직책 등 모든 내용이 다 채워져 있다. 이는 그에 대한 기록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전체 데이터에서 가장 많이 기입된 항목은 성명, 성별, 참여 지역, 참여 내용 등이며 출생연도나 직업·직책은 기록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는 문헌 기록 및 유족 증언의 편중성, 조사 당시 확보 가능한 사료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참여자 등록’을 목적으로 구축되었으므로 최소한의 등록 요건이 설정되어 있다. 이 가운데 필수적으로 들어 있는 부분은 참여자 ID, 구분, 성명(한자 포함), 성별, 참여지역(도), 참여내용이다. 이 항목들이 갖춰진 경우 출생연도, 직업, 직책 등의 정보가 없더라도 등록이 이루어진다. 이는 동학농민혁명 당시의 구체적 활동이 확인될 경우, 생애 전반에 대한 정보가 미흡하더라도 명예회복 대상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참여자 목록은 성명을 기준으로 가나다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따라서 ‘가덕중’, ‘가무현’, ‘가병기’와 같이 ‘가’ 성을 가진 인물부터 시작하며 개인의 사회적 지위나 전투 공헌도 등은 정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참여자 등록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1차등록’은 유족이나 지역사회 인사가 직접 위원회에 증거 자료와 진술을 제출하여 등록된

경우이다. 둘째, ‘2차등록’은 2009년 국무총리 직속에서 문체부 이관되면서 1차등록 당시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심의에서 누락된 인물에 대해 추가적인 사료 및 증언이 확보된 뒤 재심사를 거쳐 등록된 것이다. 셋째, ‘직권등록’은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판결문, 고문서, 관련 도서 등의 공적 자료를 통해 참여 사실이 확인된 인물을 추출해 등록한 경우이다.

전체 참여자 3,908명 중 약 70% 이상은 직권등록이며 1차등록은 약 25%, 2차등록은 5% 수준이다. 이는 당시 참여자 대부분이 후손의 적극적 신고보다 위원회 주도의 문헌 조사로 등록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직권등록 참여자는 신상변동(예: 처형, 유배) 정보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경향을 보이며 1차등록자는 구술 증언 기반의 기록이 많아 참여 내용이 구체적이지만 정형적이지 않은 표현도 포함된다.

본 연구는 전체 참여자 명단 중 전라북도 지역에 해당하는 인물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원자료에는 지역 정보에 다양한 오류와 혼동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비 및 보정 작업을 병행하였다.

원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오류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첫째, 행정구역 오기이다(예: 전북 능주, 전북 무안 등). 둘째, 전투지 혹은 활동지 중심의 표기이다(예: 백산, 우금치). 셋째, 과거 지명과 현대 지명의 혼재이다(예: 웅포, 대둔산 등). 넷째, 참여지역(도)과 (시) 항목 간 불일치 혹은 누락 등이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오기 수정의 차원을 넘어 사료적 타당성과 통계적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제 기준 수립이 필수적이었다.

① 「참여지역(도)」 항목에 ‘전라북도’ 또는 ‘전라도’로 기재된 경우를 1차

필터링 기준으로 삼았다. 단, '전라도'로만 표기된 경우에는 전남 지역과의 혼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참여지역(시)」 및 「참여내용」 항목과의 교차 검증을 통해 전북 여부를 추가로 판별하였다.

② 「참여지역(시)」 또는 「참여내용」 항목에 전라북도 소속 지명이 명시된 경우를 추가 선별 기준으로 삼았다. 기존 자료는 현재의 14개 시·군명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나, 일부 항목에는 과거 지명인 '웅포', '대둔산', '고산', '임피' 등이 사용되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북 지역의 당대 행정구역인 26개 군현명을 기준으로 지명을 정비하였다. 예를 들어, '웅포'는 당시 함열에 속했으므로 '함열'로, '대둔산'은 고산 지역이므로 '고산'으로 조정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은 당시의 지리적 맥락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③ 표기된 지명이 단순한 집결지 또는 전투지에 불과하고, 실제 활동 지역과 불일치할 경우에는 활동지를 기준으로 수정하였다. 예를 들어, 김주환은 '백산(전북)'으로 표기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장성 지역의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백산 대회에 참여한 인물이다. 따라서 그의 주요 활동지를 반영하여 '장성'으로 수정하였고, 전북의 참여자가 아닌 전남의 참여자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이 백산 대회에 참여한 사례라도 주도 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④ 명백한 지리적 오류가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였다. 예컨대 김학준은 '전북 능주', 송관호는 '전북 무안'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었으나, 두 지역 모두 전남이다. 이러한 오류 사례는 행정구역 일람표를 기반으로 검토하여 적절히 수정하였다.



⑤ 「참여지역(도)」 및 「참여지역(시)」 항목이 누락되거나 상호 간 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보다 엄밀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전라도’처럼 광역 명칭만 기재된 경우에는, ‘남원’, ‘정읍’ 등 전북 소속 지명이 다른 항목에 함께 언급되어야만 전북 참여자로 분류하였다. 반대로 도 항목이 불완전하거나 광역 단위만 존재할 경우에는 전남 지역과의 혼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참여내용, 활동지, 본적 등의 정보를 교차 검토하여 최종 판단하였다.

여기에서는 상기 기준에 따라 총 868명의 전북 지역 참여자를 선별하였다. 다만, 일부 사례는 지역 정보의 불확실성으로 통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예를 들어, 최익동은 원본 데이터의 「참여지역(시)」에 ‘전라남도’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참여 내용에는 무장봉기 시 모병 활동과 황룡촌 전투에서 화승포 사수로 참여한 사실이 언급되어 있다. 정황상 전북 출신일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단정하기 어려워 본고의 통계에서는 제외하였다. 마찬가지로 정재찬은 손화중 대접주의 재무 담당으로 활동하며 은신했다는 기록이 있으나, 구체적인 활동 지역이 명확하지 않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후 데이터 정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전처리 작업을 실시하였다.

① 연령 정보는 10세 단위 구간(10대~60대)으로 범주화하였다. ② 직업과 직책은 유사 항목을 통합하여 대표 명칭으로 정제하였다. ③ 지역 항목은 고산/고산(대둔산), 옹포/함열 등 조선시대 기준 군현명으로 병합하였다. ④ 성별, 신상변동, 등록 구분 등은 누락 값을 제거하고 기입된 값만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신상변동 항목의 분류에 있어 ‘처형’, ‘전사’, ‘사망’, ‘피신’, ‘살해’ 등은 원표기의 혼동과 자료 간 상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재분류 기준을 마련하였다. 예를 들어 김낙철과 임노홍은 원표기상 ‘사망’이나, 실제 사망연도가 각각 1918년과 1912년으로 확인되어 ‘피신’으로 재분류하였다. 한편, 김원숙은 1894년 11월 논산에서 경군과 전투 중 전사한 사실이 확인되어 ‘전사’로 재구분하였다. 이는 단순 집계 오류를 넘어 사료 간 교차검증을 통한 자료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한 조치였다. 이렇게 정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북 참여자의 연령, 성별, 직업, 직책, 참여 시기, 신상변동, 지역별 분포 등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본 논문의 실증적 기반을 형성하였다.

원자료는 수집 과정에서 지역 표기 방식의 불일치, 지명 변천의 반영 부족, 사료 해석의 차이 등으로 인해 다양한 오류와 혼동을 내포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단순한 오기 수정의 차원을 넘어, 사료적 타당성과 통계적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제 기준을 수립하고 적용하였다.

한편, 전체 데이터의 기입률은 항목별로 편차가 존재하였다. 예를 들어, 전체 868명 중 연령 정보가 기입된 사례는 235명, 직업 기재는 165명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수치는 이후 분석 시 각 항목별로 기준 모수가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각 항목별 분석 시 실제 기입된 사례수를 기준으로 통계를 집계하였다. 아울러 원자료의 지역 표기 오류 및 지명 변천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체계적인 정제 기준을 수립하고 적용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북 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통계적 특성을 본격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 3. 전북 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분석과 사례

본 장에서는 명부에 수록된 전북 지역 참여자 868명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동학농민혁명 참여 양상의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 명부는 당시의 기록 환경 및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며 일부 정보의 누락이나 기재 방식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음을 전제한다.

첫째, 성별 분포이다. 전북 참여자 868명 중 명부상 확인되는 여성은 없으며 전부 남성으로 기록되었다. 이를 통해 전북 지역 참여자는 거의 전원이 남성으로, 여성의 공식 참여는 극히 드물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명부의 특성과 기록 당시의 사회적 성별 인식에 기인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여성은 후방 지원, 보급 활동 등의 간접적 방식으로 참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sup>5)</sup>

둘째, 출생년을 토대로 연령대를 분석할 수 있다. 참여자 중 연령이 확인된 총 235명을 10대, 20대 등 10년 단위로 구분한 연령대별 통계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연령대 분포

연령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합계
인원수	12	61	84	58	15	5	235
비율(%)	5.1	26.0	35.7	24.7	6.4	2.1	100

5) 박상란, 「동학농민혁명담의 전승과 젠더」, 『동학학보』 42, 2017. 또한, 무안 고막포의 사례를 보면 동학농민군에 참여했던 여성들이 관군에게 학살당하고 시신이 훼손된 사건을 주목할 수 있다. (배항섭, 「1894년 무안 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古幕浦 전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5, 2015. 이처럼 공식적인 통계 데이터에 온전히 포함되지 않았지만, 실제 여성들이 참여했던 양상을 이해할 수 있다.

235명을 기준으로 보면, 20대(26.0%), 30대(35.7%), 40대(24.7%)가 중심을 이루며 20~40대 청장년층이 전체의 약 86.4%를 차지한다. 이는 동학농민군의 주력이 단순한 농민층이 아니라 조직화된 사회적 역량을 갖춘 청장년층이었음을 시사한다. 실제 직업 항목에서 ‘대접주’로 확인된 인물은 부안 지역의 김낙철(37세)과 손화중(35세)이 있으며 이들은 지역 중심 인물로서 동학 조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전봉준과 김개남은 직업이 ‘농업’으로만 기재되어 직업 정보를 통한 분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업 정보의 제한성을 인지하고, 직책 정보를 중심으로 참여자의 역할을 분석하는 것이 보다 유의미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명단은 작성 시점의 한계 등으로 모든 정보를 온전히 반영하지는 못하며 실제 직책이나 역할이 누락된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 특히 직업 항목에 ‘농업’으로 기재된 인물 중에는 김덕명, 오시영 등 조직 운영의 핵심 인물도 포함되어 있다. 직책 명단에 기재된 대접주는 김개남(42세), 김낙철(37세), 김흥기(39세), 손화중(35세), 송대화(36세), 김인배(25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책은 공란이나 전봉준(42세) 역시 대접주로 파악되므로, 대접주 그룹의 연령 분포는 40대 2명, 30대 3명, 20대 1명으로 30~40대가 중심이다.

접주 명단으로는 민영진(19세), 국인영(24세), 김연호(38세), 김재홍(40세), 김춘필(36세), 김행범(41세), 박성근(40세), 송경찬(37세), 이형택(36세), 정동훈(34세), 김치범(36세) 등이 있다. 이 중 30대가 6명으로 가장 많고, 40대 3명, 20대와 10대가 각 1명이다. 이 외에도 기포장 김수병(28

세), 교수 박진화(51세), 이재두(35세), 부관 전익호(50세), 접사 송광호(32세), 도집 허현(55세), 비서 정근영(25세), 영솔장 최경선(36세), 사수 최윤주(25세) 등이 확인된다. 이 가운데 박진화, 전익호, 허현을 제외한 대부분이 20~40대에 속한다.

60대 이상 인물로는 김기병(64세), 김상흠(68세), 송두호(67세), 최영두(66세), 최재신(65세) 등 총 5명이다. 이 중 김상흠은 직업 기재가 없고, 김기병·최영두·최재신은 모두 ‘농업’으로 기입되어 있다. 주목할 만한 인물은 송두호로 1893년 11월 사발통문에 서명하고 고부·백산봉기에 참여한 중심인물이다. 그는 ‘교수’로 기재되어 있으며 고부봉기 직전 사발통문을 자신의 집에서 작성하고, 전봉준, 아들 송대화, 송주성과 함께 서명하였다. 이후 피신 중 체포되어 1895년 1월 나주에서 처형되었다. 송두호는 고령 참여자 중에서도 핵심 지도자로 평가할 수 있지만, 나머지 인물들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아 보인다. 이 점은 앞서 살펴본 청장년층 중심 구조와도 부합한다.

셋째, 주요 직업 분포를 살펴보겠다. 직업이 기재된 총 166명 가운데 농업이 총 153명으로 92.2%를 차지한다. 이외 대접주 2명, 훈장, 농업(훈장), 교장, 현감 등으로 표기된 사람이 각각 1명이다. 이는 동학농민군이 압도적으로 농촌 기반 민중에 의해 구성되었음을 뚜렷이 보여준다. 특히 일부는 ‘농업(훈장)’처럼 복합 표기된 경우도 있어, 실제 직업과 사회적 역할의 중첩 가능성도 엿보인다. 위에서 본 것처럼 접주와 대부분의 대접주도 농업으로 기재되어 있어 구성원의 실제 직업은 농업을 중심으로 하며 대접주와 접주, 이외 주요 직책을 겸임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이한 사항으로 민충식을 꼽을 수 있다. 그는 당시 임실헨감이었는데 1894년 10월 임실에서 김개남에게 항복하여 行軍都省察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된 뒤 1895년 1월 5일에 충청도 천안에서 탈출하였다고 한다.<sup>6)</sup> 그는 목민관으로 재직 중인데도 동학교도와 결속하여 김개남과 형제가 되기로 약속하고 스스로 선봉이 되어 전주로 달려가 얼굴을 드러내고 符信을 차고 다니며 행패를 부렸다고 한다.<sup>7)</sup> 이 내용은 과장이 있을 수 있지만 그가 김개남과 협력관계였던 것은 확실해 보인다. 이처럼 지방관이었던 그가 참여자 목록에 수록된 것만으로도 상당히 특이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전북지역 참여자의 군현별 분포를 살펴보겠다. 지금의 14개 시·군이 아닌, 동학농민혁명 당시의 26개 군현 체계를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며 용안현은 참여자가 없어 제외하였다. 군현별 참여자 수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전북지역 참여자 군현별 분포(용안현은 0명)

연번	군현	인원수	비율(%)	연번	군현	인원수	비율(%)
1	남원	98	11.3	14	김제	27	3.1
2	태인	74	8.5	15	순창	22	2.5
3	정읍	70	8.1	16	흥덕	16	1.8
4	임실	69	7.9	17	만경	15	1.7
5	무장	63	7.3	18	함열	15	1.7
6	익산	60	6.9	19	무주	14	1.6
7	전주	55	6.3	20	임피	11	1.3
8	부안	45	5.2	21	장수	11	1.3
9	고산(대둔산)	44	5.1	22	진안	9	1.0
10	고부	39	4.5	23	용담	6	0.7
11	고창	35	4.0	24	옥구	5	0.6
12	금구	30	3.5	25	운봉	3	0.3
13	여산	28	3.2	26	미상	4	0.5

전체 868명 중 군현별 참여자 수는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남원이 98명(11.3%)으로 가장 많으며 그 뒤를 태인(74명, 8.5%), 정읍(70명, 8.1%), 임실(69명, 7.9%) 등이 잇는다. 이들 상위 네 지역만으로 전체의 약 35.8%를 차지한다. 반면, 운봉은 3명으로 가장 적은 참여자를 보인다.

남원은 김개남의 대도소가 설치되었던 핵심 거점이자 운봉 민보군과의 격전지였다는 점에서 높은 참여자 수는 충분히 납득 가능하다.<sup>8)</sup> 현재는 임실로 분류되지만, 당시에는 남원에 속했던 오수 지역까지 포함하면 남원의 실질 참여자는 더 늘어난다.<sup>9)</sup> 이 때문에 임실 역시 69명에 달하며 남원·임실·운봉을 동일한 세력권으로 간주할 경우 총 170명(19.5%), 즉 전체 참여자의 약 1/5에 해당한다.

한편, 김개남의 고향인 태인, 손화중의 근거지였던 정읍과 무장, 전봉준이 집결한 고부를 포함한 현재의 정읍권 일대(정읍·태인·고부<sup>10)</sup>)는 총 183명(21.1%)에 달한다. 여기에 무장봉기 중심지인 고창(무장·흥덕·고창)은 114명(13.1%)까지 포함하면, 이 지역만으로 전북 남부에서 전체의 53.4%를 차지한다. 순창(22명)까지 포함하면 55.9%에 달하며 이는 참여자의 과반 이상이 전북 남부권에 집중되어 있었음을 뜻한다.

---

6) 「양호우선선봉일기」 3, 1894년 12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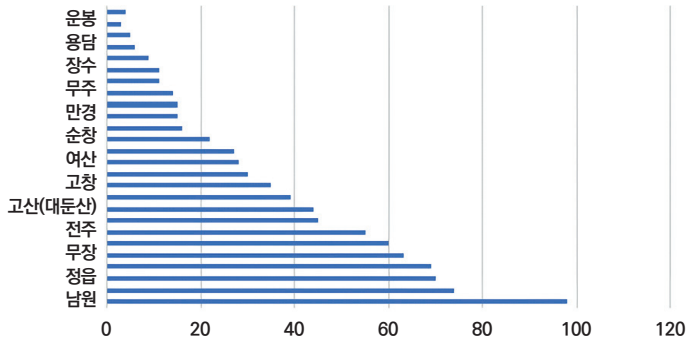
7) 「갑오군정실기」 권8, 1894년 12월 14일.

8) 표영삼, 「남원의 동학혁명운동 연구」, 『동학연구』 5, 1999.

9) 이병규, 「남원지역 토착 동학농민군의 활동-김흥기와 유태홍을 중심으로」, 『동학학보』 33, 2014.

10) 고부봉기가 있었던 고부군이 39명으로 생각보다 적다. 하지만 당시 고부군이었던 백산면 일대가 1914년에 부안군에 편입되었고, 그 여파로 부안의 참여자가 45명으로 고부보다 많았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실상 당시 고부군의 참여자는 <표 1>보다 많고, 부안은 적을 것이다.

〈그림 1〉 전북지역 참여자 군현별 분포



특히 정읍·고창 중심의 서남권은 전체의 1/3을 차지할 정도로 동학농민혁명의 공간적 핵심지였음을 보여준다.

중서부권의 김제 지역(금구 30명, 김제 27명, 만경 15명)은 총 72명(8.3%)으로 중간 규모의 참여자 분포를 보인다. 부안(45명)을 포함할 경우 중서부권의 비중 또한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전북 동북부 지역인 무주(14명), 장수(11명), 진안(9명), 용담(6명) 등은 총 40명(4.6%)으로, 참여자 수가 가장 적은 지역에 해당한다. 이는 지리적 접근성의 한계, 동학조직망의 미약함, 관군·향촌세력의 강력한 통제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전북 지역 참여자 분포는 단순한 인원수 차이를 넘어, 고부 봉기, 무장 봉기, 황토현 전투와 같은 혁명 초기의 핵심 사건이 전개된 서남부 지역에 동학농민군의 실질적인 지역 기반과 조직 동원 등이 집중되었음을 드러낸다. 아울러 김개남 군의 핵심 지역이자 농민군과 민보군의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남원 역시 참여자가 많았다. 의외로 전라도의 수부이자 전주



화약이 있었던 전주는 삼례를 포함해 총 55명의 참여자가 확인된다. 그 중요성에 비해 참여자의 수가 많지 않은데, 이는 혁명 주체 세력의 주요 근거지라기보다는 점령 이후 통치 중심지로 기능한 결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은 동학농민군의 실질적인 지역 기반, 그리고 조직 동원과 투쟁 역량이 어디에 집중되었는가를 잘 드러낸다. 즉, 동학농민혁명의 공간 네트워크가 어떻게 형성되고 작동했는지를 파악하는 핵심 단서로 기능한다. 결국 동학농민혁명의 공간적 지형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분포가 아니라 조직과 봉기, 점령과 통치, 전투와 협상의 복합적 국면이 응축된 역사적 공간 네트워크로 이해할 수 있다.

다섯째, 참여 내용과 신상변동이다. 신상변동이 명시된 인물은 365명으로, 전북 지역 전체 참여자 868명 중 약 42%에 해당한다. 이들의 신상변동 내용을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처형(201명), 피신(43명, 도피, 부상 후 피신, 피신 후 부상 포함), 전사(32명), 사망(24명, 처별 후 사망, 옥중 사망 포함), 처별(20명), 살해(11명), 부상(11명), 기타(23명)<sup>11)</sup>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표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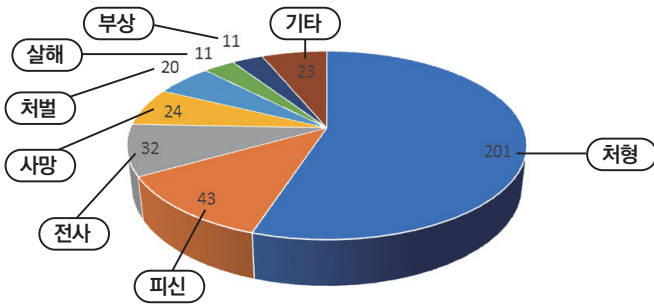
<표 3> 참여 내용과 신상변동

신상변동	처형	피신	전사	사망	처별	살해	부상	기타	합계
인원수	201	43	32	24	20	11	11	23	365

이와 같은 분포는 당시 각종 사료에 나타나는 “수천 명의 사망자”라는 기술이 실제 전공 과시를 위한 과장된 수치일 가능성이 높음을 반증한다.

11) 나머지 7대 신상변동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모두 기타로 처리하였다.

〈그림 2〉 참여 내용과 신상변동



실질적으로 전투 중 사망보다 후속 진압 과정에서 조직적 처형이 중심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1894년 후반기 이후 국가의 강경 진압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주목할 점은 처형자 수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었다는 사실이다. 군현별 데이터를 분석하면, 남원, 정읍, 태인, 임실 등 전봉준과 김개남, 손화중 계열 중심지였던 지역에서 처형자가 두드러지게 많다. 이들 지역은 동학농민군의 전략적 거점이자 지휘급 인물들의 활동이 활발했던 지역이었다.

예를 들어, 남원은 98명 중 처형 28명(28.6%)으로 높은 편이다. 정읍과 태인은 각각 70명·74명 중 정읍 22명(31.4%), 태인 16명(21.6%)으로 20~30%대다. 군현별로 보면 ‘인구수 대비 참여율’이 높을수록 ‘인구수 대비 처형률’도 함께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된다. 이는 단순한 전투의 격렬함 때문이라기보다, 조직망이 견고했던 지역일수록 진압 이후 처형이 함께 높게 나타난 결과로 이해된다. 실제로 정읍·무장·금구·남원 등은 참여 밀집과 처형 비중이 나란히 상위권이며 순창·옥구는 두 지표가 모두 낮다. 반면 임실처럼 참여율은 높는데 처형 비율은 낮은 예외도 존재한다. 이런

양상은 거점과 지도부를 겨냥한 차등적 진압이 병행되었음을 시사한다.

동학 조직 내 지휘급 인물인 접주·대접주는 일반 참여자보다 현저히 높은 처형률을 보인다. 본 분석에 따르면 대접주 7명과 접주 11명, 총 18명 가운데 11명이 처형되었다.<sup>12)</sup> 이는 지도부 중심의 표적 진압 가능성과 부합한다. 피신한 인물은 총 6명으로, 국인영, 김낙철, 김재홍, 김치범, 박성근, 송대화이다. 요약하면 대접주 7명 중 5명(71.4%)이 처형, 2명은 피신하였고, 접주 11명 중 6명(54.5%)이 처형, 3명은 피신하였다. 민영진은 데이터에 기재되지 않았다.<sup>13)</sup>

한편, 처형 시기 역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 1894년 12월 한 달에만 96명이 처형되었고, 동년 11월 34명, 1895년 1월 21명으로 3개월간 총 151명이 처형된 것으로 확인된다. 여기에 연도만 기재된 1894년 처형자 13명을 포함하면 이 시기 집중적 숙청의 양상이 분명히 드러난다. 이는 우금치 전투 패배 이후 본격적으로 관군과 일본군이 농민군을 색출하며 전개한 일련의 진압 작전과 궤를 같이한다. 접주·대접주와 같은 지휘급 인물들이 집중적으로 처형되었다는 사실은 동학농민군 진압 과정이 단순한 군사적 대응이 아니라, 조직을 해체하고 지도부를 제거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도부 숙청’ 전략의 일환이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지도부 숙청’ 전략의 실행은 일본군의 공식 보고서에서도 적나라

---

12) 김개남, 김연호, 김인배, 김춘필, 김행범, 김홍기, 손화중, 송경찬, 이형택, 전봉준, 정동훈.

13) 민영진은 2차 봉기 당시 삼례를 거쳐 복성한 뒤 관군과의 전투를 마치고 귀가하였으며 1947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지휘급 인물 중에서도 일부는 생존하여 장기간 은거했음을 보여준다.

하게 드러난다. 동학 진압 작전에 참여한 미나미 고시로[南小四郎]는 “다른 날 재기할 걱정을 없애기 위해서는 다소 강력한 정책을 취하라”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많은 비도를 죽이는 방침을 세웠다”고 보고하였다. 실제 그는 동학교도들을 잡으면 바로 죽였다고 한다.<sup>14)</sup> 이러한 보고는 동학농민혁명 말기 진압 작전이 단순한 반란 진압이 아니라 조직 자체의 해체와 재건 불가능화를 노린 선택적·전면적 폭력이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주목할 점은 사망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전투 중 사망이 아니라 체포 후 처형, 부상 후 사망, 또는 민보군과 마을 주민에 의해 살해된 사례로 확인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살해’ 사례는 공식 처형이 아닌 방식으로 행해졌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하지만 그 성격상 국가에 의한 직접적 통제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국가 권력의 비공식적 위임 또는 방치 속에서 발생한 일종의 준처형 형태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결국 전북 지역 동학농민군 참여자 중 ‘처형’, ‘전사’, ‘사망’, ‘살해’와 같은 신변상의 극단적 불이익을 당한 사례가 전체의 다수를 차지한다. 이는 동학농민혁명 말기 진압 작전이 군사작전이자 정치적 숙청이었음을 통계적으로 뒷받침한다.<sup>15)</sup>

한편, 군현별 참여자 및 처형자 분석도 흥미롭다. 처형자는 868명 중 201명으로 23.1%이고, 각 군현별로 참여자와 처형자를 분석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14) 강효숙, 「동학농민군 탄압 인물과 그 행적 -미나미 고시로(南小西郎), 이두황, 조희연, 이도재를 중심으로」, 『동학연구』 22, 2011, 13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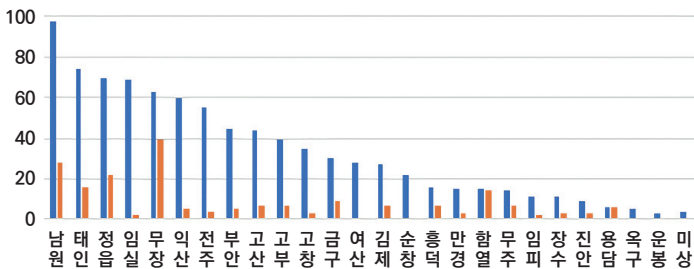
15) 김양식, 「조선·일본군의 충남 내포지역 동학농민군 진압 연구」, 『군사』 103, 2017.

〈표 4〉 전북지역 군현별 참여자 및 처형자 분석

연번	군현	인원수	처형자 수	비율(%)	연번	군현	인원수	처형자 수	비율(%)
1	남원	98	28	28.6	14	김제	27	7	25.9
2	태인	74	16	21.6	15	순창	22	1	4.5
3	정읍	70	22	31.4	16	홍덕	16	7	43.8
4	임실	69	2	2.9	17	만경	15	3	20.0
5	무장	63	39	61.9	18	함열	15	14	93.3
6	익산	60	5	8.3	19	무주	14	7	50.0
7	전주	55	4	7.3	20	임피	11	2	18.2
8	부안	45	5	11.1	21	장수	11	3	27.3
9	고산(대둔산)	44	7	22.7	22	진안	9	3	33.3
10	고부	39	7	17.9	23	용담	6	6	100
11	고창	35	3	20.0	24	옥구	5	1	20.0
12	금구	30	9	30.0	25	윤봉	3	0	0
13	여산	28	0	0	26	미상	4	0	0

전체 평균인 23.1%를 상회하는 곳은 남원, 정읍, 무장, 함열, 금구, 무주, 장수, 진안, 용담이다. 이들 지역은 강경한 진압이 집중되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러한 높은 비율이 해당 지역의 조직력, 지휘급 인물의 존재 등과 관련되는지는 추가적인 사료 검토가 필요하다. 이 가운데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용담으로 6명 중 6명 모두 처형당하였지만, 표본이 매우 작기 때문에 통계적 일반화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함열도 15명 중 14명(93.3%)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들은 모두 함열에 속한 옹포에서 처형당하였다.

〈그림 3〉 전북지역 군현별 참여자 및 처형자 분석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처형자가 있는 곳은 무장이다. 이곳은 63명 중 39명(61.9%)이 처형당하였다. 무장에 대한 강력한 진압은 이곳이 무장봉기 본거지이자 손화중의 근거지였기 때문이다. 이는 무장 지역이 단순한 봉기 지역을 넘어 동학의 전략적 전환과 조직 재편이 시도된 중심지였음을 방증한다. 이러한 점은 국가의 강경 진압이 특정 거점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sup>16)</sup>

이와 같은 군현별 처형자 분포는 정량적 수치와 비율의 편차를 통해 당시 진압 양상의 불균형성을 드러낸다. 하지만 그 원인에 대한 해석은 단정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향후 처형률이 높거나 낮은 지역은 군사적 충돌 외에 사료의 기입 양태, 등록 경로 등 다양한 영향을 함께 고려한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상의 분석은 동학농민혁명기의 참여자들이 직면한 국가 폭력의 현실과 지휘 구조 해체를 노린 표적 진압의 실상을 통계적으로 드러낸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정량적 분석을 바탕으로 참여 양상의 특징을 유형화하고, 그 역사적 함의와 구조적 맥락을 보다 심층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 4. 참여 양상의 특징과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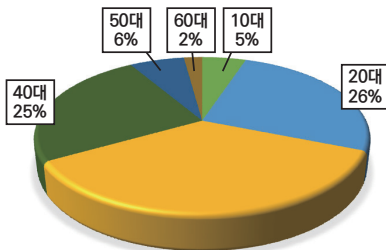
전북 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통계 분석은 혁명의 집합적 주체 구성과 조직 구조, 나아가 국가의 진압 전략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

16) 고산도 특이한 사례로 제시할 수 있다. 대둔산으로 표기된 10명 가운데 김석순 한명은 자결이고 강태종 등은 모두 전사하였다. 이는 대둔산 항쟁에 참여했던 인원이었기 때문이다.

실증적 단서를 제공한다. 본 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통계적 특성을 바탕으로 참여 양상의 구조적 특징과 여기에서 도출되는 역사적 함의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겠다. 이는 단순한 수치의 나열이나 요약を 넘어 동학농민혁명의 성격을 새롭게 재구성하려는 해석적 시도이다. 특히, 본 장에서는 연령대, 직업, 지역 분포의 세 가지 주요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혁명의 집합성과 조직적 특징, 그리고 국가의 대응 방식에 대한 입체적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그림 4〉 연령대 분포



첫째, 청장년 남성 중심으로 조직적 주체를 형성하였다. 이는 봉기의 주체가 단순한 하층 농민의 자발적 결집이 아니라 일정한 사회적 자원과 동원 능력을 갖춘 조직적 주체였음을 시사한다.

앞서 본 것처럼 연령 정보가 확인된 235명 중 20대가 26.0%, 30대가 35.7%, 40대가 24.7%로 전체 참여자의 86.4%가 20~40대 청장년층에 집중되었다. 이 연령 분포는 단순히 다양한 방면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참여를 의미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동학농민군의 실질적 조직을 이끈 지휘급 인물, 즉 접주와 대접주 역시 대부분 이 연령대에 속하였다.

이러한 구성은 동학농민혁명이 생존을 위한 봉기에 그치지 않고, 일정한 사회적 기반과 조직화를 통해 형성된 집합적 운동이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동학 교단은 단순한 종교 집단이 아니라 교조신원운동을 기점으로

지역 사회에 뿌리내린 사회적 결사체로 전환되었다.<sup>17)</sup> 내포와 태안 지역 등에서 나타난 동학의 교세 확장과 조직화의 방식을 살펴보면 단순한 신앙 전파에 그치지 않고, 마을 내에서 일정한 위상을 갖춘 인물들을 매개로 빠르게 조직화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그 성격은 종교적이라기보다 사회적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마을 내 일정한 위상을 지닌 인물들인 청장년층 일부가 포덕과 조직화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sup>18)</sup>

나아가 이들은 단지 이념적 신념에 기반한 참여자가 아니라 실질적 작전 수행, 조직 동원, 지역 거점 유지 등 혁명의 물리적 기반을 형성하였다. 이는 동학농민혁명의 지휘 구조가 단순한 지시·복종의 수직 관계가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네트워크 속에서 형성되었음을 시사한다. 대접주나 접주는 해당 지역에서 동학 조직을 유지·운영하고, 병력을 편성하였다. 이들의 역할은 단순히 군사를 이끄는 것을 넘어 지역 주민들에게 동학의 이념을 전파하며 지역 내 불만을 결집시키는 사회 운동가로서의 기능도 수행하였다고 생각한다.<sup>19)</sup> 즉, 초기 봉기의 빠른 확산은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축적된 조직적 역량과 인적 네트워크의 결과였음을 시사한다.

또한, 동학농민군의 이러한 연령 분포는 당시 조선 사회의 세대 구조 및 가족 경제 구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40대는 가계 경제를 실질적

---

17) 다음 논문에서는 사회적 결사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동학의 확산과정에서 민중의 결집과 1888년 삼남일대 큰 가뭄시의 행동 등으로 강한 내부적 결속과 상호 부조를 통한 공동체를 형성하였음을 논증하였다.(임형진, 「전라북도와 전주 일대의 동학 포덕과정에 관한 연구」, 『동학학보』 51, 2019) 이러한 내용은 사회적 결사체로 볼 수 있는 경향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18) 임형진, 「내포지역의 동학 유입 경로와 조직화 과정」, 『동학학보』 29, 2013 ; 「태안지역의 동학포덕과 조직화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동학학보』 60, 2021.

19) 이병규, 「경기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성격」, 『동학학보』 68, 2021.



으로 책임지던 핵심 계층으로, 이들의 집단적 참여는 곧 가족 단위의 생계 기반이 무너지는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다. 이후 세대에도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 ‘가족사적 충격’으로 작용하였다. 유족의 구술 자료를 보면, 남편을 잃은 여성들이 겪은 고난의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유족의 증언을 보면 그 아내들이 고생했던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sup>20)</sup>

여성의 후방 지원, 정보 전달, 식량 조달 등 다양한 역할은 공식 기록에서 배제되었다. 하지만 이들을 포함하여 동학농민혁명을 다시 보면 ‘가족 단위의 연동된 참여’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 이는 동학농민혁명이 단지 남성 중심의 군사적 봉기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생존과 안위를 건 총체적인 저항 운동이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참여자 통계는 단순히 개인의 신상 정보를 넘어 당대 가족 제도와 사회 구조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제공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결국 청장년 남성 중심의 참여 구조는 단지 연령대 통계에 머물지 않고, 동학농민혁명의 사회적 기반과 조직 동원 역량을 입체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출발점이 된다.

둘째, 참여자의 직업은 대다수가 ‘농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전북 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단을 분석하면, 직업 항목에 농업으로 기재된 인물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농업 사회였던 당시의 사회 구조를 감안하면 이러한 표기는 일견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접주, 대접주, 영솔장, 비서 등 동학군의 조직 운영과 지휘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는 단순한 분류상의 미비라기보다, 명단 작성이 인

---

20) 여성들의 역할, 몇 세대에 이어지는 기억에 대한 연구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박소정, 「이름 없는 동학도를 위한 허스토리 - 구술사로 재구성한 여인오대의 동학사」, 『동학학보』 68, 2023)

물의 생업 중심으로 이루어진 탓에 실제 사회적 역할이나 지휘 위치가 드러나지 않은 결과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목천(현재 충남 천안) 지역에서는 천안 남면 죽거리의 김화성, 목천 伏龜亭의 대접주 김용희, 그리고 김성지 세 사람이 소위 ‘목천의 동학삼로’라 불리며 지역 동학 조직의 핵심적 지도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들은 충북 보은에 있던 최시형으로부터 직접 동학에 가입한 뒤 각기 東包와 西包를 설치하고 조직 확대를 꾀하였다. 이들은 6천 냥에 이르는 거금을 모아 『동경대전』 1백 권을 간행하는 등 동학에 대한 깊은 신념과 함께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들 가운데 김성희<sup>21)</sup>는 명단에 없고, 김화성은 농업, 김용희는 직업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이들은 동학 교단의 포덕 활동과 조직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김양식이 분석한 집강망과 각 지역 동학지도자 명단을 보면 지역 사회의 인적 자원을 동학농민군으로 결집시키는 데 기여하였다.<sup>22)</sup> 이는 동학농민혁명이 생존을 위한 봉기에 그치지 않고, 일정한 사회적 기반과 조직화를 통해 형성된 집합적 운동이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북 지역의 대표적인 예는 백산대회 당시 총참모였던 김덕명과 오시영이다. 두 사람 모두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명단에는 단순히 ‘농업’으로만 기재되어 있다. 비서였던 송희옥 역시 직책은 누락된 채 동일하게 농업 종사자로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표기상의 단순 누락이라기보다 명부의 작성 과정에서 직권등록이 많았으니 사료에 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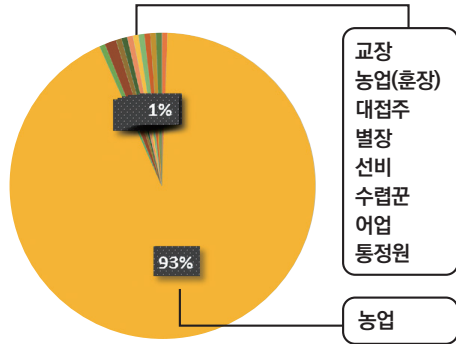
---

21) 전북 지역 명단에는 있으나 목천 지역의 김성희는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22) 김양식, 「목천지역 동학농민군 활동과 세성산전투」, 『군사』 70, 2009.

된 ‘사건 중심의 체포·심문 기록’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결국 당시 기록은 참여자의 행위나 위상보다는 처벌을 위한 신원 정보 확보에 집중되었다. 이는 이후의 사료 활용과 역사적 서술에도 구조적 한계를 남겼다.<sup>23)</sup>

〈그림 5〉 참여자 직업 분포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향후 명부 분석을 보다 입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단일 사료에 의존한 서술 방식에서 벗어나, 유족 구술, 지역 문집, 교단 문서 등 다양한 사료를 교차 분석함으로써, 참여자의 사회적 정체성과 활동 이력을 복원하는 시도를 해야 한다. 특히, 각 인물의 생애사나 지역 내 위상, 교단 내 역할을 종합적으로 추적함으로써, 이들이 실제로는 지역 공동체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었는지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참여자의 ‘직업’과 실제 ‘역할’ 간 괴리는 기록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이는 향후 동학농민혁명 서술에서 명단 중심 서사에서 벗어나 입체적 해석으로 나아갈 필요성을 제시한다.

셋째, 조직망과 진압 강도의 지역 편차이다. 본 연구는 전북 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처형자 데이터를 파악하기 위해 1789년(정조 13년) 『호구총수』를 이용하고자 한다. 약 100년 시차가 있기는 하지만 일률적으

23) 체포와 심문 과정에서 생산된 사료들은 사건 발생의 시간적 흐름과 개인의 연루 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투 중심의 서사보다는 사후 처리과정에 초점을 둔 ‘사건 단위 기록’의 성격이 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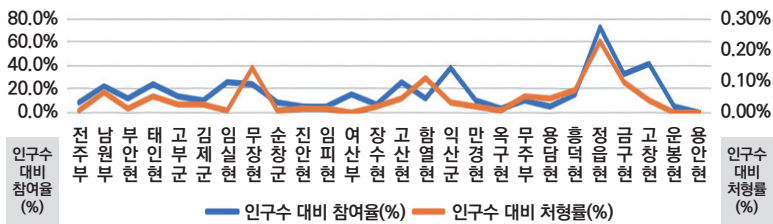
로 당시 전북 지역 군현 인구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24)</sup> 이때의 인구수를 기반으로 분석한 <표 5>와 이를 시각화한 <그림 6>을 통해 동학 교단의 조직망 형성과 국가의 진압 양상 간의 상관관계가 지역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드러내고자 한다. 분석에 따르면, 남원, 정읍, 무장, 태인 등지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가 집중된 반면, 무주·진안·장수 등 동북부 산간 지역에서는 참여자 수가 현저히 낮게 나타난다.

<표 5> 전북지역 참여자 군현별 분포

군현명	1789년 인구수	동학 참여자수	동학 처형자수	인구수 대비 참여율(%)	인구수 대비 처형률(%)
전주부	72,505	55	4	0.076	0.0055
남원부	43,411	98	28	0.226	0.0645
부안현	38,448	45	5	0.117	0.0130
태인현	31,205	74	16	0.237	0.0513
고부군	28,631	39	7	0.136	0.0244
김제군	27,585	27	7	0.098	0.0254
임실현	27,516	69	2	0.251	0.0073
무장현	27,149	63	39	0.232	0.1437
순창군	26,849	22	1	0.082	0.0037
진안현	22,210	9	3	0.041	0.0135
임피현	22,131	11	2	0.05	0.0090
여산부	19,011	28	0	0.147	0
장수현	17,539	11	3	0.063	0.0171
고산현	16,773	44	7	0.262	0.0417
함열현	12,829	15	14	0.117	0.1091
익산군	15,822	60	5	0.379	0.0316
만경현	14,674	15	3	0.102	0.0204
옥구현	14,649	5	1	0.034	0.0068
무주부	14,032	14	7	0.1	0.0499
용담현	12,860	6	6	0.047	0.0467
흥덕현	10,115	16	7	0.158	0.0692
정읍현	9,674	70	22	0.724	0.2274
금구현	9,242	30	9	0.325	0.0974
고창현	8,402	35	3	0.417	0.0357

실제로 1789년 『호구총수』의 인구수를 기반으로 한 ‘인구수 대비 참여율’을 살펴보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진다. <표 5>와 <그림 6>에서 보듯이 남원, 무장, 태인, 고창, 임실 등 주요 거점 지역의 인구 대비 참여율이 높게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정읍현은 인구수 대비 참여율이 0.724%에 달해 해당 지역 내 동학농민군의 조직적인 민중 동원 능력이 매우 활발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는 동학농민군의 지역적 조직망과 참여자 밀집도가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민중 동원 능력을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무주, 진안, 장수와 같은 동북부 산간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인구수 대비 참여율을 보여 지리적 접근성이나 인구 밀도, 혹은 동학 교단의 조직망 확산 정도의 차이가 민중 동원 역량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그림 6> 전북 지역 동학농민혁명 인구수 대비 참여율 및 인구수 대비 처형률 (1789년 인구 기준)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지역별 참여 밀집도가 국가의 진압 강도, 특히, ‘인구수 대비 처형률’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그림 6>에

24) 『호구총수』는 동학농민혁명 시기와 약 100년의 시차가 있으므로 절대적인 인구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작성된 읍지류에 나타난 호수 및 인구 수가 『호구총수』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역 간 상대적 인구 편차를 가늠하기 위한 참고 지표로는 유의미하다고 판단된다.

서 드러나듯이, 무장, 정읍, 태인 등 동학농민혁명의 주요 거점이었던 이곳은 처형자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표 5>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정읍(0.2274%), 무장(0.1437%), 함열(0.1091%), 금구(0.0974%) 등 참여율이 높거나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 지역에서 ‘인구수 대비 처형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비록 해당 수치들이 전체 인구 대비 0.3% 미만이라는 낮은 절대값을 보이지만, 이는 당대 조선의 사회 시스템과 기록 문화가 모든 참여자를 상세히 기록하기 어려웠다는 점, 그리고 본 데이터가 체포 및 처벌 대상에 집중된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수치들은 ‘실제 참여자/피해자 수’의 하한선에 가까우며, 낮은 절대 수치 안에서 나타나는 수배에서 수십 배에 달하는 지역별 편차 자체가 해당 지역의 동학 조직 밀집도와 국가의 선택적 진압 전략을 드러내는 핵심적인 통계적 단서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사례는 단순한 전투 결과가 아니라 국가 권력이 의도적으로 동학의 지도부와 조직 기반을 제거하려는 선택적 진압 전략을 구사하였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선택적 진압은 단순히 반란 진압을 넘어 동학의 뿌리를 뽑고 재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특히, 신영우는 고창 지역의 사례를 통해 이러한 선택적 진압 전략의 구체적인 양상을 분명히 보여준다. 무장 지역은 전북 전체 참여자 63명 중 39명이 처형되었다. 이는 전북 전체 평균 처형률(약 23.1%)의 거의 세 배에 달하는 61.9%라는 압도적인 참여자 수 대비 처형률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인구수 대비 처형률 또한 0.1437%로 전북 지역 내에서 정읍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 즉, 무장이 단순한 봉기 발생지가 아니라 손화중과 같은 핵심 지도자가 활동하며 동학군의 조직 재편과 항전 지속을 위한 중추적 거점이었음을 방증한다. 결국 고창 지역에 일본군과 정부군이 무혈 입성한 후에도 다수의 농민군을 처형했으며 지역 양반들이 결성한 민보군이 동학세력 색출과 처형에 적극 협력하여 기존 질서를 회복하려 했던 점을 강조한다.<sup>25)</sup> 이러한 점을 보면 중앙 정부와 일본군의 조직적 와해 전략에 지역 기득권 세력까지 합세하여 동학의 핵심 인물과 조직 기반을 철저히 제거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

손화중은 무장 출신의 대표 지도자로서 백산대회 이후 무장과 고창을 중심으로 조직망을 정비하고 교단 세력을 재조직하였다.<sup>26)</sup> 이러한 활동으로 당시 조선 조정과 일본군은 무장 지역을 동학 세력의 핵심 거점이자 재기 가능성이 높은 전략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집중적인 진압을 시행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조직망의 중심과 접촉한 인물들이 포함된 지역일수록 처형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단순한 집단적 보복이 아니라 ‘조직적 와해’를 목표로 한 선택적 진압이었다는 점을 뚜렷이 보여준다. 결국 이러한 통계는 동학농민혁명이 단지 농민의 자발적 봉기가 아니라 지역 사회 내에서 구조화된 조직적 운동이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반증이다.

넷째, 통계 기반 분석은 한계를 내포하면서도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번 분석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단이라는 공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북 지역의 참여 양상과 사회 구조를 실증적으로 조망하려는 시도였

25) 신영우, 「1894년 고창지역 동학농민군의 진압과 민보군」, 『동학학보』 26, 2012.

26) 정성미,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손화중의 지역적 기반과 활동」, 『동학학보』 45, 2017.

다. 기존의 ‘전봉준 중심 영웅서사’<sup>27)</sup>나 ‘혁명 담론 중심 서사’<sup>28)</sup>에서 벗어나 동학군을 집합적이고 지역 기반의 주체로 재구성하려는 관점에서 일정한 의의를 갖는다. 이는 동학농민혁명 연구의 지평을 개인의 영웅적 행위나 추상적인 이념 논쟁에서 벗어나 실제 사회 구성원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구체적인 역사 현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동시에 직업과 직책의 작성 기준의 차이로 인한 역할 반영의 한계, 연령 및 지역 정보의 결손, 여성 참여자 기록의 부재 등은 이 데이터베이스가 가진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또한, 앞서 제시한 것처럼 보정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 결국 전면적인 재수정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대체적인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므로 통계 분석의 결과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일반화를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통계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 해석에 있어서는 항상 기록의 성격과 작성 맥락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데이터는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 가능한 연구 기

---

27) 3.1운동 전후 동학농민전쟁은 전봉준 등 주요 인물 중심의 영웅서사로 인식되기 시작했으며 이는 대중문화와의 결합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러한 영웅 서사는 이후 동학농민혁명 연구 초기부터 강력하게 형성되어 1980년대 이후 민중 사학의 성과와 함께 더욱 공고화된 측면이 있다.(홍동현, 「3.1운동 전후 동학농민전쟁 인식의 변화와 확산」, 『동학학보』 55, 2020)

28) 기존 동학농민혁명 연구는 전봉준 등 주요 인물 중심의 영웅 서사와 더불어 반봉건·반침략이라는 ‘혁명’ 담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혁명’ 담론은 동학농민혁명이라는 명칭 공인과 기념사업 추진 과정에서 더욱 강화되었으며 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분명히 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동학농민혁명에 내재된 복합적인 성격과 다층적인 의미를 단순화하고, 운동의 지역성이나 다양한 주체의 활동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는 한계를 노출하였다.(이병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역사적 전개와 과제」, 『역사연구』 28, 2015)



반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참여자의 주소지와 활동지 기반의 GIS 지리정보 분석, 유족 구술 및 교단 문서와의 교차 분석, 타지역 참여자 데이터와의 비교 연구, 참여자 생애사 추적 등을 통해, 보다 입체적인 참여 양상의 복원이 가능하다. 특히, 통계 기반의 지역 편차 분석은 향후 지역 기억 연구, 기념시설의 방향 설정, 지역 교육 콘텐츠 개발 등 실천적 과제에도 활용될 수 있다. 이는 통계 분석이 단순히 과거를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와 미래의 역사 교육 및 기념 사업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동학농민혁명은 단순한 자발적 민중 봉기의 성격을 넘어서 지역 공동체의 조직망과 청장년 계층이 주도한 구조화된 저항 운동이었다. 이번 분석은 그러한 집합적 운동의 실체를 부분적으로나마 드러내는 데 기여하고,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해석의 지평을 통계적·사회사적 방식으로 확장하는 데 하나의 기반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동학농민혁명의 주체를 복원하는 일은 단지 과거를 밝히는 작업이 아니라 전북 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의미를 밝혀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5. 맺음말

본 연구는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구축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전북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사회적 배경과 통계적 특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그 역사적 함의를 고찰하였다. 즉, 기존 동학농민혁명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통계적, 실증적 접근을 시도하여 혁

명의 성격을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고에서 살펴본 분석 결과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첫째, 동학농민혁명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조직적 성격을 가진 집합적 운동이었음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전북 지역 동학농민군 참여자의 약 86.4%가 20~40대 청장년층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점은 전투 및 동원 역량 확보에 유리한 연령대가 핵심적인 주체로 기능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동학농민혁명이 단순히 우발적인 민중 봉기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전개되었음을 시사한다.

둘째, 봉기 이후 국가의 진압 과정에서 ‘선택적 진압’이라는 전략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전북 전체 평균 처형률이 약 23.1%에 달하는 상황에서, 무장 지역은 전북 전체 평균의 거의 세 배에 달하는 61.9%라는 압도적인 참여자 수 대비 처형률을 보였다. 이는 무장 지역이 전봉준, 손화중 등 핵심 지도자들의 활동 거점이자 조직 기반이 강했던 곳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본 연구의 통계 분석은 국가 권력이 혁명의 핵심 조직망과 지도부를 와해시키기 위해 특정 지역에 대한 집중적이고 차등적인 폭력을 행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또한 당시 각종 사료에 등장하는 “수백, 수천 명의 사망자”라는 기술은 실제 전투 중 사망보다는 진압 이후의 처형에 집중된 과장된 수치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1894년 후반기 이후 국가의 강경 진압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동학농민혁명기 인명 피해의 성격에 대한 재해석을 가능케 한다.

셋째, 청장년층의 집중적인 참여와 그로 인한 높은 인명 피해 및 신상 변동은 동학농민혁명 이후 해당 참여자 가족의 광범위한 붕괴를 초래했음을

시사한다. 20~40대 청장년층이 혁명의 주역(86.4%)이었고, 그 중 처형, 전사, 사망, 살해 등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인원만 268명에 달한다. 피신, 처벌, 부상 등으로 신상에 변동이 생긴 경우까지 포함하면 그 비중은 매우 높다. 이러한 통계적 사실은 동학농민혁명이 해당 가족의 경제적·사회적 기반 붕괴로 직결되었을 것이다. 이는 유족들의 증언<sup>29)</sup> 등에서 나타나는 내용을 본 통계 분석이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

이러한 분석은 동학농민군이 단지 민중의 자발적 결집이 아닌, 일정한 조직과 사회적 기반 위에서 형성된 지역 기반 집합 운동이었음을 뒷받침한다. 물론 본 분석에는 한계도 있다. 직업과 직책의 괴리, 여성 참여자의 기록 누락, 지역 표기 방식의 혼란 등은 데이터 자체가 지닌 구조적 제약으로, 향후 보다 정밀한 교차 검증과 질적 자료의 병행 분석도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통계적 접근이 단지 숫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구조적 현실과 기억의 층위를 밝히는 새로운 연구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는 지역 문집, 유족 구술, 교단 문서 등의 질적 자료와 연계하여 개인사 복원, GIS 기반의 참여자 분포 시각화, 네트워크 분석을 병행함으로써, 동학농민군의 조직적 연결 구조와 공간적 확산 양상을 보다 입체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통계 분석 결과는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주요 사례의 생애사 분석, 교육 자료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 하는 학술적·사회적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

29)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앞의 책, 2024 등.

## 참고문헌

### 1. 자료

『호구총수』, 『양호우선선봉일기』, 『갑오군정실기』

### 2. 저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유족 증언을 통해 본 동학농민군의 삶』,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24.

### 3. 홈페이지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https://cdpr.go.kr/commit/>)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데이터베이스

### 4. 논문

표영삼, 「남원의 동학혁명운동 연구」, 『동학연구』 5, 1999.

김양식, 「목천지역 동학농민군 활동과 세성산전투」, 『군사』 70, 2009.

강효숙, 「동학농민군 탄압 인물과 그 행적-미나미 고시로(南小西郎), 이두황, 조희연, 이도재를 중심으로」, 『동학연구』 22, 2011.

신영우, 「1894년 고창지역 동학농민군의 진압과 민보군」, 『동학학보』 26, 2012.

임형진, 「내포지역의 동학 유입 경로와 조직화 과정」, 『동학학보』 29, 2013.

이병규, 「남원지역 토착 동학농민군의 활동-김흥기와 유태홍을 중심으로」, 『동학학보』 33, 2014.

배항섭,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내재적 접근」, 『역사비평』 110, 2015.

배항섭, 「1894년 무안 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古幕浦 전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5, 2015.

이병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역사적 전개와 과제」, 『역사연구』 28, 2015.

김양식, 「조선·일본군의 충남 내포지역 동학농민군 진압 연구」, 『군사』 103, 2017.

- 박상란, 「동학농민혁명담의 전승과 젠더」, 『동학학보』 42, 2017.
- 정성미,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손화중의 지역적 기반과 활동」, 『동학학보』 45, 2017.
- 임형진, 「전라북도와 전주 일대의 동학 포덕과정에 관한 연구」, 『동학학보』 51, 2019.
- 홍동현, 「3.1운동 전후 동학농민전쟁 인식의 변화와 확산」, 『동학학보』 55, 2020.
- 이병규, 「경기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성격」, 『동학학보』 68, 2021.
- 임형진, 「태안지역의 동학포덕과 조직화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동학학보』 60, 2021.
- 박소정, 「이름 없는 동학도를 위한 허스토리 - 구술사로 재구성한 여인오대의 동학사」, 『동학학보』 68, 2023.



# 전라도 서남부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활동과 성격 - 무안 · 함평 · 영광을 중심으로<sup>1)</sup>

김 희 태

(문화유산전문위원,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 1. 머리말

## 2. 무안 · 함평 · 영광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활동

## 3. 무안 · 함평 · 영광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성격

## 4. 맺음말

1) 본고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지역별 활동과 성격-2025 정읍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의 주제발표문(「전라도 서남부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활동과 성격-무안 · 함평 · 영광을 중심으로-」, 2025.06.25, 정읍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67~110쪽)를 수정 보완하여 『동학농민혁명연구』 제5집(2024) 실은 논문에 전라도 서남부(무안 함평 영광) 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현황표(<자료 2>)를 추가하였다.





## 1. 머리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약칭 동학농민명예회복법)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 등록된 동학농민혁명군은 2025년 9월 28일 기준 4,033명인데 직권등록이 3,347명(82.99%), 1차 496명(12.30%), 2차 190명(4.71%)이다.<sup>2)</sup> 이 가운데 전라도 서남부 지역, 특 무안군·함평군·영광군 지역을 대상으로 참여자의 활동과 성격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접근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연결되는 지역에 대한 정리<sup>3)</sup>를 한바 있는데, 이같은 권역별 정리와 분석이 이루어져 집성이 된다면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sup>4)</sup>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는 지역명을 검색어로 하여 확인하면, 무안은 77명, 함평은 98명, 영광은 41명<sup>5)</sup> 등 216명이다. 이 가운데 중복된 농민군

- 
- 2)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동학농민참여자검색(<https://www.cdpr.go.kr>. 이하 ‘누리집 참여자’).
  - 3) 김희태, 2022, 「동학농민혁명군의 나주로의 압송과 처형」, 『나주 동학농민혁명의 재조명』-나주학 총서 2집-, 나주시, 121~150쪽.  
김희태, 2024, 「유족 증언과 자료로 본 전라도 장흥·강진지역 동학농민군의 순국」, 『유족 증언을 통해 본 동학농민군의 삶』-동학농민혁명연구소 학술총서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63~121쪽.
  - 4) 등록된 동학농민혁명참여자가 가운데 ‘전라도’로 검색하면 1,900명으로 47.1%에 이를 정도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권역별로 구분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전남의 동학농민군 활동은, 전라남도에서 조사할 때 서·북부 지역(영광·함평·장성·무안·진도), 중부지역(광주·나주·화순), 중북부 지역(담양·곡성·구례), 남부지역(장흥·강진·보성·영암·해남), 동부지역(순천·광양)으로 구분한 바 있다.(이상식·홍영기·박맹수, 1996, 『전남 동학농민혁명사』, 전라남도.)
  - 5) ‘영광’ 검색어로 42건이 검색되는데 김영광(金永光)은 지명 영광과는 연고가 없어 제외하였다.

을 제외하면 196명이고, 추가 검색을 통해 확인한 7명<sup>6)</sup>을 포함하면 203명이다.<sup>7)</sup> 이 분들을 대상으로 먼저 동학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활동에 대해서 기존 자료를 토대로 간략히 정리해 보겠다.<sup>8)</sup>

이어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성격을 몇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면서 제안을 하고자 한다. 하나는, 참여자에 대한 것이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참여했던 분들의 신분이나 직업에 관해서 농업(농민)과 유학자의 경우를 무안 나주김씨 김응문 일가 사례로 살펴보겠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직접 참여자가 아니지만 참여자를 보호했던 참여자와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이다. 여성의 경우, 『조이(召史)』로 표기된 경우도 참여자로 직권등록을 먼저 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하나는, 참여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것이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해의 보존, 유적지의 보존, 참여자의 현양 등에 대해서이다. 무안 김응문장군 유해의 국가유산 등록, 고막포 전적지의 국가유산 추진 등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제안을 하고자 한다.

---

6) 김용경(金龍京, 1880.02.06.~1918.04.03.)(전주 등재, 영광 참여), 김재묵(金在默, 1868.10.10.~1901.01.11.)(고창 등재, 영광 참여), 임천서(林天瑞, 1864.~1895.03.)(고창 등재, 함평 참여), 전장하(全章夏, 1860.03.23~1894.11.20)(나주 등재, 함평 참여), 최평집(崔平執, 1872.12.12.~?)(장성 등재, 영광 참여), 최도열(崔道烈, 1870~1894)(홍천 등재, 함평 참여)이다.

7) 203명의 참여자에 대해 재단 설명 내용을 보완하여 인명 초성 가나다 순으로하여 전라도 서남부(무안 함평 영광) 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자료 2>에 실는다.

8)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록 관련 자료(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제공)를 참고하였다. 개설적인 내용은 이상식·홍영기·박맹수, 1996, 『전남 동학농민혁명사』, 앞책을 주로 참고하였다.

## 2. 무안 · 함평 · 영광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활동

### 1) 무안지역

무안지역<sup>9)</sup>에 ‘동학’이 언제부터 전파되었는지는 자세하지 않다. 다만, 인근 나주가 1885년, 장흥과 강진이 1891년과 1892년에 동학이 전파된 점으로 보아 1890년을 전후하여 무안에도 동학이 전파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892년 무안의 김의환 · 이병경, 청계의 조병연 · 이병대 · 고군제 · 함기연, 몽탄면 한용준, 1893년에는 청계면 송두옥 · 송두옥 · 한택을 · 송군병 · 박인화, 무안을 정인섭 등이 입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9) 무안 지역 동학농민혁명 조사 연구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이화 · 배향섭 · 왕현종, 2006,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 호남 서남부 농민군, 최후의 항쟁』, 혜안.

무안동학농민혁명유족회, 2008, 『무안동학농민혁명사』.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2013, 『무안군동학농민혁명 역사성 고증 및 기념사업 기본계획수립 : 과업 결과 보고서』.

배향섭, 2015, 「1894년 무안 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古幕浦 전투」, 『한국민족운동사연구』85, 한국민족운동사학회, 5~38쪽.

정경운 · 임선주, 2015, 「무안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방향과활성화 전략-무안지역 및 고막포전투지구를 중심으로」, 『남도문화연구』29,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15~249쪽.

무안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2015, 『무안동학농민혁명 재조명 학술대회』.

김봉근, 2022, 「김응문(金應文) 일가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와 유체발굴의 의의」, 『동학학보』62, 동학학회, 259~292쪽.

홍동현, 2024, 「1894년 전남 무안지역 동학농민군의 동향과 지역적 특징」, 『남도문화연구』53,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29~259쪽.

무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2025, 『무안군 동학농민혁명 자료』.

1893년 2월 광화문 복합상소운동을 위해 상경한 대표 40인 가운데 무안의 배규찬이 참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배규찬은 무안의 대접주인 배상옥(배규인)의 동생이다. 1893년 3월에 있던 보은집회는 당시 무안군에 사는 80여 명의 동학교도가 참여하고 있다.

1894년 3월 25일 전봉준이 호남창의대장소를 설치한 백산대회에 지도자급으로 배상옥, 배규찬, 송관호, 박기운, 정경택, 박연교, 노영학, 노운화, 박인화, 송두옥, 김행로, 이민홍, 임경춘, 이동근, 김응문 등 15명이 다수의 사람을 이끌고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4월 18일 함평에 주둔하고 있던 동학농민군 일부가 무안을 넘어가서 하루를 머물다가 나주 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동학농민군의 수가 처음보다 3배 이상 증가한 12,000명~14,000여 명에 달했을 정도로 세가 결집되었다.

무안지역에서는 배상옥의 근거지인 청계면 [당시 이서면(二西面)]청천리에 집강소를 설치하여 폐정개혁 활동을 전개하였다. 군비를 마련하고 무기를 제작하고 군사훈련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응문 일가의 동학농민군도 배상옥과 연계하여 군비 제공 등의 활동을 했다고 한다. 해제면 석용리 석산마을 민대들에서 최씨 삼형제를 중심으로 동학농민군들이 훈련하였고, 이후 고막포 전투에 참여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2차 봉기 시기에 전봉준이 삼례에서 재봉기를 선언했을 때, 무안 배상옥이 2천여 명의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호응했으나, 배상옥 부대는 후방 방어를 위해 무안으로 되돌아왔다. 나주성 공략을 위해 배상옥(배규인)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은 11월 17일 고막포로 모여들어, 나주 수성군과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으나 헤아릴 수 없는 동학농민군이 고막포에서 순국<sup>10)</sup>하였다.<sup>11)</sup>

무안에 진출한 순무영선봉진 부대(이규태)에 피체된 동학농민혁명군은 효수나 총살, 화형 등 가혹한 처형을 당하여 순국하였다. 12월 8일 접주 배정규와 박순서가 피체되어 총살당해 순국하였다.

12월 9일 김응문을 비롯하여 18명이 체포당하였는데 김응문(김창구)·김자문(김덕구)·정여삼·김여정(김우신)·장용진·조덕근 등은 모진 고문을 당한 끝에 순국하였다. 2022년 김응문, 김자문 두 형제의 유해를 발굴했는데, 유전자 감식을 통해 동학 참여자와 유족이 일치함이 확인되어 동학농민혁명 최초의 신원이 확인된 순국자로 기록되게 되었다.

12월 12일 김효문(김영구, 김응문 동생)·배규찬·오덕민·조광오·김문일·박경지·박기운·양대숙·서여칠·박기운 등도 체포되어 죽음을 당하였다.<sup>12)</sup> 무안읍[당시 외읍면(外邑面)] 교촌리 송림마을 ‘차밭머리’, 무안읍성 남문 밖 불무제 등이 처형장소였다고 한다.

배상옥은 해남에서 은거하고 있다가 12월 24일 해남 유생 윤규룡이 이끄는 민보군에 의해 체포되어 일본군 보병대위 마스끼 세이보(松木正保)에

---

10) 동학농민혁명군의 전쟁 참전 관련 죽음은 순도(殉道), 순교(殉敎), 순국(殉國) 등 여러 표기를 들 수 있다. 본고에서는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國權)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복돋우며”라는 「동학농민명예회복법」의 입법목적(제1조)에 규정된 ‘국권(國權)’과 ‘애국’의 관점에서 ‘순국’ 용어를 쓰고자 한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권침탈(國權侵奪)’(제4조)의 ‘국권’과 구분되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동학농민군이 추구한 ‘보국안민’도 관련이 있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이나 동학농민군이 ‘주인’이나 ‘주어’가 되는 서술을 할 필요가 있다.

11) “十一月十二日 州西三平里 水多面虎咸村接戰時 …又有被逐至古幕浦橋邊 落水死者殆過數百餘計 而因潮漲未的其數”(『砲殺東徒數及所獲汁物并錄成冊』(국립중앙박물관 구630))

12) 『全羅道各邑所捉東徒數及所獲汁物并錄成冊』(奎17189)

게 총살당해 순국하였다. ‘상옥아 상옥아 배상옥아, 백만 군대 어데 두고  
쭉국대 밑에 잠드느뇨’라는 애닦은 노래가 전해지고 있다.<sup>13)</sup>

무안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77명<sup>14)</sup>이 검색된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성격을 분석하는데는 여러가지 방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 그 가운데 하나로 참여자의 본적을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참여자 가운데 무안 본적이 확인된 분은 26명이다.

참여 당시 나이를 보면 1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하다. 10대는 1명(오인겸, 19세), 20대는 12명, 30대가 5명, 40대가 7명, 50대가 1명(최장현, 57세)이다. 20대가 12명으로 가장 많은데 절반에 가까운 46.15%이다.

참여 당시 직업을 보면, 농업이 22명, 직업이 확인되지 않은분이 4명이다. ‘동학농민혁명’은 ‘농민’의 참여가 압도적이었음을 말해 준다 하겠다. 그런데 김응문의 경우에는 무안향교의 직임을 맡았고 노사 기정진의 문하에 올라 있어 유학자라 할 수 있는데, 직업은 농업으로 표기되어 있는 점도 동학군의 신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부분이다.

참여시기로 보면, 1894년 3월이 4명(김덕구, 김여정, 박인화, 배상옥), 4월이 3명(김기봉, 김영문, 김응문), 11월이 2명(김우백, 박치상)이고, 17명은 1894년으로만 확인되고 있다.

참여 당시 직책은 대접주 1명(배병헌), 접주 3명(박기옥, 박명하, 배상옥)이다. 배병헌은 31세이고, 박명하는 28세, 박기옥은 47세, 배상옥은 32세였다.

참여 지역은 1차 참여가 고창 1명(박인화), 나주 1명(김덕구), 함평 1명

---

13) 이상식·박매수·홍영기, 『전남 동학농민혁명사』, 앞책 참조.

14) 누리집 참여자 검색은 전체, 참여자명, 참여 내용, 참여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무안의 경우, 참여지역은 70, 참여내용은 71로 검색된다.

(장경광)이고, 23명은 무안이다. 1차 참여는 나주가 6명으로 박인화는 1차 고창, 2차 무안으로 확인되며, 5명은 1차 무안, 2차 나주이다.

참여자 신상에 대해서는, 처형당해 순국한 분이 13명으로 가장 많다. 그리고 현장 전투 중 전사하여 순국한 분은 3명(최선현, 최장현, 최기현)이다. 총상 등 부상은 2명(박인화, 박치상), 피체되어 고문후유증으로 순국한 분은 1명(백용선)이다. 피신은 3명(박병하, 오인겸, 장재명)이다.

〈표 1〉 무안 본적 동학농민혁명군 참여자<sup>15)</sup>

연번	동학농민군	재세시기	참여월	당시연령	직책	직업	참여지역		신상변동	등록구분
							1	2		
1	김기봉 金基鳳 <sup>16)</sup>	1868~1894	1894.04	27		-	무안		처형 순국	1차
2	김덕구 金德九	1868~1894	1894.03	27		농업	나주	무안	처형 순국	1차
3	김여정 金汝正	1867~1894	1894.03	28		농업	무안		처형 순국	1차
4	김영구 金永九	1851~1894	1894.04	45		농업	무안		처형 순국	1차
5	김우백 金禹栢	1875~1904	1894.11	20		농업	무안		-	1차
6	김응문 金應文	1849~1894	1894.04	46		농업	무안		처형 순국	1차
7	박규상 朴奎相	1849~1894	1894.00	46		농업	무안		처형 순국	1차
8	박기옥 朴淇玉	1848~1894	1894.00	47	접주	농업	무안		처형 순국	1차
9	박병하 朴炳夏	1867~1921	1894.00	28	접주	-	무안		피신	1차
10	박인화 朴仁和	1847~1926	1894.03	48		농업	고창	나주	총상	1차
11	박치상 朴致相	1869~1949	1894.11	26		농업	무안	나주	부상	2차
12	배병만 裨炳慢	1872~1894	1894.00	23		농업	무안		처형 순국	1차
13	배병현 裨炳顯	1864~1894	1894.00	31	대접주	-	무안		처형 순국	1차
14	배병환 裨炳煥	1862~1894	1894.00	33		농업	무안		처형 순국	1차
15	배상옥 裨相玉	1863~1894	1894.03	32	접주	농업	무안	나주	-	1차
16	배용보 裨用甫	1871~1944	1894.00	24		농업	무안		-	1차
17	배정기 裨楨基	1862~1941	1894.00	33		농업	무안		처형 순국	1차
18	백용선 白用善	1869~1895	1894.00	26		농업	무안		병사 순국	1차
19	오인겸 吳仁兼	1876~1948	1894.00	19		농업	무안		피신	2차
20	이병화 李炳化	1866~1894	1894.00	29		-	무안		처형 순국	2차
21	장경광 張京光	1868~1922	1894.00	27		농업	함평		-	1차
22	장재명 張在明	1862~1916	1894.00	33		농업	무안		피신	2차
23	최기현 崔琪鉉	1866~1894	1894.00	29		농업	무안	나주	전사 순국	1차
24	최선현 崔善鉉	1852~1894	1894.00	43		농업	무안	나주	전사 순국	1차
25	최성모 崔聖模	1848~1894	1894.00	47		농업	무안		처형 순국	1차
26	최장현 崔璋鉉	1838~1894	1894.00	57		농업	무안	나주	전사 순국	1차

15)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제공 자료 참조. 이하 같음.

## 2) 함평지역

함평지역<sup>17)</sup>은 동학농민혁명 전사(前史)로 1862년의 함평농민항쟁을 들 수 있다.<sup>18)</sup> 이 농민항쟁의 주역들은 자신들의 소원을 일부는 달성했지만 엄청난 피해를 보고 좌절하고 말았다. 이같은 사회사정이 있던 함평에 동학이 언제 전파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sup>19)</sup> 다만, 무장의 손화중파가 호남의 대표적인 동학 조직인 것으로 보아 인근 함평에도 동학이 일찍 전파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함평에는 유명한 동학접주 이화진이 활약했

---

16) 참여자 개별 행적은 따로 정리가 필요하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누리집에서는 2~3줄 정도 요약문만 소개하고 있는데, 이를 보다 더 자세하게 늘려가야 한다. 한 사례만 예시한다. 김기봉(金基鳳, 1868~1894.12.12.): 다른 이름 김문일(金文日), 김문일(金文一), 김용봉(金用奉). 무안지역 대접주 배상옥, 김응문, 김효문 등과 함께 동학 농민군으로 활동하였으며 관군에게 체포되어 12월 처형당해 순국하였다. 『선봉진각 읍요발관급감결(鋒陣各邑了發關及甘結)』 문서 가운데 1894년 12월 12일 무안현에 발송한 감결(甘結務安縣 同日)에 배규찬(裴奎瓚), 오덕민(吳德敏), 조광오(趙光五), 김문일(金文日), 박경지(朴京之), 박기운(朴沂雲), 김효문(金孝文), 양대숙(梁大叔), 서여칠(徐汝七), 박기연(朴淇年)이 함께 올라 있는데 이 가운데 김문일이 김기봉이다. 처형당해 순국한 것은 이후일 것으로 보인다. 김기봉의 이름이 「호적」은 김기봉(金基鳳), 『무안현감결』은 김문일(金文日), 『나주김씨대동세보(羅州金氏大洞世寶) 3권, 2000』는 김용봉(金用奉, 자 文一) 등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무안현감결』과 족보에서 자(字)의 한자음이 일치하고, 족보에 기록된 별세일이 '갑오 십이월 이십일(甲午十二月二十日)'임이 확인되며, 『무안현감결』에서 함께 처형당해 순국한 것으로 확인되는 김효문이 김문일(기봉)과 같은 나주김씨로 같은 몽탄면(당시 석진면) 다산리 차미(茶山) 마을에 살았음이 확인됨을 근거로 '金基鳳-金文日-金文一'이 동일인임이 확인되었다.

17) 함평 지역 동학농민혁명 조사 연구자료는 다음과 같다. 정소영, 2024, 「함평 지역의 동학 조직과 '이고창 사건(이경인 밀고 사건)' 검토」, 『동학학보』71, 동학학회, 233~268쪽.

18) 신영호, 2005, 「1862년 함평 농민항쟁에 대한 재검토 : 대립세력의 분석을 중심으로」, 목포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던 본거지이며 이화진의 고숙이고 명망있던 장옥삼을 비롯한 장경삼, 장공삼 삼형제가 동학농민혁명군으로 활약한 것을 보면 함평의 동학활동은 세력도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함평읍 출신으로 무과에 합격하여 고군산첨사(1890.10~1891.07)를 지냈던 이태형(李泰亨, 李啓均, 자 相三, 1841~1894)이나 해보면 출신으로 학식이 있었던 접주 정평오(鄭平五, 1847~1894)는 함평지역 세리사족이라 할 함평이씨와 진주정씨라는 점도 활발한 함평 동학농민세력과 연계될 것 같다.

동학농민군의 함평현 점령은 4월 16일인데, 당시 현감 권풍식의 보고 내용에 동학농민군의 활동 내용 자세하게 나온다. 동학농민군의 수가 6~7천명에 이르렀다는 점, 말을 탄 사람이 100여명이고 갑옷·투구·전투모로 무장했다는 점, 동학군은 관문을 부수고 동헌으로 바로 들어갔고 각 면의 사민 100여명이 호위했다는 점, 군교·아전·관노·사령·수성군 등은 150명이었는데 절반이 부상당했고 흩어졌다는 점, 동학군들은 탐관오리를 징계하고, 읍의 폐단과 백성의 병폐를 바로잡고 보국안민하려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선언, 사민들이 동헌에 들어와 호위하는 것을 보고 현감의 치적을 알 수 있다고 한 점, 부유한 백성에게 식량을 내게 하여 인가에서 밥을 지어 먹었다는 점 등을 알 수 있다.<sup>20)</sup>

19) 1892년경 자료인 「동학도개국음모건(東學徒開國陰謀件)」에 이경인(李景寅, 李鎭九, 자 珍九, 1851~1895) 이름이 올라 있어 동학교도이거나 동학과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소영, 「함평 지역의 동학 조직과 '이교창 사건(이경인 밀고 사건)' 검토」, 앞 논문, 243~244쪽.) 한편, 이경인은 변절하여 동학농민군 이태형을 밀고하였고 이태형은 1894년 12월 30일 나주에서 총살로 처형당해 순국한다. (『兩湖右先鋒日記』(乙未正月, 1895년 1월)) 일반적으로 '이교창 사건(이경인 밀고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같은 용어도 동학농민군을 주어로 한다면 수정해야 할 것이다.

20) 『兩湖招討臚錄』(光緒二十年四月二十日 承政院 開拆, 1894년 04월 20일)

함평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98명이다. 이 가운데 함평 본적이 확인된 분은 9명이다. 참여 당시 나이를 보면 30대에서 60대까지 보인다. 30대는 2명(임경운, 전장하), 40대는 5명으로 가장 많다. 50대가 2명(장경삼, 이태형)이다. 함평 본적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함평 출신 정동화(鄭東華, 1848~1913)는 나주 나동환의 배우자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 등록된 최초의 여성 동학 참여자이자 부부가 참여자로 등록되었다. 나동환이 동학농민군으로 참여했다가 함평 처가로 피신하였다. 관군이 정동화에게 나동환의 소재를 알려고 압של형을 가했으나 말하지 않았다고 하며, 뒤에 열부비가 세워졌다. ‘동학농민군의 보호’에 해당되어 참여자로 등록된 것이다.

참여 당시 직업은 함평 본적 9명 모두가 농업이다. 무안의 경우처럼 유학자나 복수의 직업인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참여시기로 보면, 1894년 4월이 2명(정평오, 임경운), 12월이 3명(장경삼, 장공삼, 장옥삼)이다. 4명(이태형, 전장하, 전창섭, 장삼여)은 1894년으로만 확인되고 있다.

참여 당시 직책은 대접주 1명(정평오), 군포관 1명(전장하)이다. 정평오는 48세이고, 전장하는 35세였다. 군포관은 군량이나 군수물을 담당하는 직임으로 보인다. 대접주 정평오는 호남초토영 문서에서 ‘거괴(巨魁)’로 표기되고 있다. 다음 기록이다.

“거괴 윤정보(尹正甫)·장경삼(張京三)·박춘서(朴春西)·정평오(鄭平五)·김시환(金時煥)·윤찬진(尹贊辰)·김경문(金京文)·박경중(朴京仲)은 [1894년 갑오 12월] 11일에 잡을 때에 쏘아 죽었다.”<sup>21)</sup>

21) 『全羅道各邑所捉東徒數及所獲汁物并錄成冊』(奎17189)

참여 지역은 1차 참여가 함평이 가장 많은 6명(전창섭, 이태형, 장공삼, 장옥삼, 정평오, 임경윤), 나주(전장하), 무안(정삼여), 영광(정경삼)이 각각 1명이다.

참여자 신상에 대해서는, 처형당해 순국한 동학군이 6명(정삼여, 장경삼, 장공삼, 정평오, 장옥삼, 이태형)으로 가장 많다. 그리고 현장 전투 중 전사하여 순국한 동학군은 2명(전창섭, 전장하)이다. 1명(임경윤)은 드러나지 않는다. 정평오와 장경삼은 1894년 12월 11일 잡혀서 포살[총살]을 당했다.

〈표 2〉 함평 본적 동학농민혁명군 참여자

연 번	동학농민군	재세시기	참여월	당시 연령	직책	직업	참여지역		신상변동	등록 구분
							1	2		
1	이태형 李泰亨	1841~1894	1894.	54		농업	함평		처형 순국	1차
2	임경윤 林京允	1863~1923	1894.04	32		농업	함평	영광	-	1차
3	장경삼 張京三	1842~1894	1894.12	53		농업	영광	무안	처형 순국	1차
4	장공삼 張公三	1854~1895	1894.12	41		농업	함평		처형 순국	1차
5	장옥삼 張玉三	1851~1895	1894.12	44		농업	함평		처형 순국	1차
6	전장하 全章夏	1860~1894	1894.	35	군포관	농업	나주		전사 순국	1차
7	전창섭 全昌燮	1854~1894	1894.	41		농업	함평	나주	전사 순국	1차
8	정삼여 鄭三汝	1847~1894	1894.	48		농업	무안		처형 순국	1차
9	정평오 鄭平五	1847~1921	1894.04	48	대접주	농업	함평		처형 순국	1차
*女	정동화 鄭東華	1848~1913	1895	46			나주	함평	피체 고문	2차

### 3) 영광지역

영광지역<sup>22)</sup>의 동학 전파는 비교적 이른 시기일 것으로 보고 있다. 손화중이 영광과 이웃한 무장에서 세력을 떨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광의 동학농

22) 영광 지역 동학농민혁명 조사 연구자료는 다음과 같다. 영광향토문화연구회, 1995, 『동학농민혁명 영광사료집』, 신영우, 2012, 「1894년 고창지역 동학농민군의 진압과 민보군」, 『동학학보』26, 동학학회, 99~140쪽. 조재근, 2018, 「동학농민전쟁과 전운영(轉運營)-송문수의 활동을 중심으로-」, 『역사연구』34, 역사학연구소, 121~152쪽. 권용수, 2023, 「1894년 호남 지역 동학농민군의 독자적 都所 설립」, 고려대학교 대학원 한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민군은 20여일간 계속된 보은 집회에서 4월 2일 해산하여 돌아왔다. 영광의 동학농민군은 4월 12일 정오 무렵 영광군을 점령했다. 영광군수는 법성포 조창에서 곡식을 싣고 칠산 바다로 도망쳤다. 동학농민군은 무기고를 부수고 성안의 토호 집을 불사르고 관속들을 징치하였다. 4월 16일 함평으로 이동했다. 1894년 12월 3일 양경수, 5일 서우순, 9일 오준숙, 최준숙, 12일 송진팔, 21일 양경수, 송문수, 1895년 1월 20일 남궁달, 박복암, 오홍순, 이만순, 김풍조 등이 체포를 당했고 일부는 처형당하여 순국하였다.<sup>23)</sup>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 등록된 영광 연고인은 41명이다. 영광 본적이 확인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7명이다. 참여 당시 나이를 보면 10대에서 60대까지이다. 10대는 1명(김용경, 15세), 20대는 4명(최평집, 장호진, 최시철, 김재묵), 30대는 1명(이관현), 60대가 1명(최재신, 66세)이다. 비율로 보면 20대가 57.1%에 이른다. 참여 당시 직업을 보면, 7명 가운데 6명이 농업이다.

참여시기로 보면, 1894년 3월이 4명(최재신, 최평집, 김재묵, 최시철), 1894년 4월이 2명(이관현, 장호진)이다. 참여 당시 직책은 접주가 1명(장호진)인데 24세였다. 참여 지역은 1차 참여가 영광 3명(장호진, 최재신, 이관현), 고창 2명(최시철, 김재묵), 장성 1명(최평집), 전주 1명(김용경)이다.

〈표 3〉 영광 본적 동학농민혁명군 참여자

연번	동학농민군	재세시기	참여월	당시 연령	직책	직업	참여지역		신상변동	등록 구분
							1	2		
1	김용경 金龍京	1880~1918	1894.	15		농업	전주		피신	2차
2	김재묵 金在默	1868~1901	1894.03	27		-	고창		피체	1차
3	이관현 李官現	1865~?	1894.04	30		농업	영광	함평	행방불명	1차
4	장호진 張昊鎭	1871~1949	1894.04	24	접주	농업	영광	장성	-	1차
5	최시철 崔時澈	1870~1894	1894.03	25		농업	고창	무안	처형 순국	1차
6	최재신 崔載愼	1829~1895	1894.03	66		농업	영광	고창	처형 순국	1차
7	최평집 崔平執	1872~?	1894.03	23		농업	장성		-	1차

참여자 신상에 대해서는, 처형당해 순국한 동학군이 2명(최시철, 최재신), 피체 1명(김재묵), 피신 1명(김용경), 행방불명 1명(이관현) 등이다.

### 3. 무안 · 함평 · 영광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성격<sup>24)</sup>

#### 1) 농민과 유학자 - 나주김씨 김응문 일가 사례

동학농민혁명은 그 용어가 지칭하듯이 농민이 주축을 이루는 것으로 이해해 왔다. 앞서 무안, 함평, 영광의 등록 참여자의 경우도 대부분이 직업을 ‘농업’으로 표기하고 있다. 그런데 농민과 유학자[유생]는 구분이 어렵기도 하다. 무안의 나주김씨 김응문의 경우에는 무안 향교 장의를 역임하고 노사 기정진(1798~1879)의 문인록에 들어 있다.

무안 출신으로 기정진의 문인록에 오른 사람은 모두 30명인데 절반에 해당되는 14명이 나주김씨이다.<sup>25)</sup> 이러한 정신은 김창구 일가가 1890년대 무안향교의 장의와 재장(전교)을 맡아 무안향교를 이끌어 갔는데, 1894년 부패한 정부를 일소하고, 일본군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 동학농민군의 활

---

23) 이상식 · 홍영기 · 박맹수, 『전남 동학농민혁명사』, 앞책.

24) 본장 ‘참여자의 성격’은 1장과 관련한 흐름속에서 지역, 시기, 인물, 장소, 자료(기록, 구전 등)와 관련하여 살펴보는 방법과 본고에서처럼 주요 관점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다. 6월 25일 발표문에는 1) 농민과 유학자-나주김씨 김응문 일가, 2) 참전과 보호-여성 동학 참여자 정동화 부분까지만 원고를 실었고, 3) 교도와 밀고-함평 ‘이교창’ 사례, 4) 遺骸와 遺産-무안 김응문장군 유해, 5) 戰蹟과 史蹟-고막포 전적지는 ppt로 설명하였다. 이 가운데 ‘교도와 밀고-함평 ‘이교창’ 사례’는 각주에 축약하였다.

25) 『蘆沙先生淵源錄』(1960년 간행)

동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무안향교의 직임을 맡았던 김창구(김응문)와 김영구(김효문) 역시 노사 기정진의 문인으로 기록되어 있다. 김창구는 1887년(고종 24), 김영구(효문)는 1889년(고종 26) 장의를 지냈다. 김영구(효문)는 다시 동학농민혁명 있던 1894년 봄에는 재장을 지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김창구(응문) 일가는 1880년대에 향교의 장의를 맡았고, 1894년에 향교의 재장을 맡을 정도로 무안 사회에서 중망이 높았던 것이다.<sup>26)</sup>

〈표 4〉 김응문 일가 무안향교의 직임

연대	직책	성명	자, 본관	호, 선대
丁亥(1887년) 秋	掌議	金昌九(1849~1894.12.09.)	字 應文, 羅州人	號 茶史, 鷺岩 適 後
己丑(1889년) 春	掌議	金永九(1851~1894.12.12.)	字 孝文, 羅州人	號 孝亭, 鷺岩 適 後
甲午(1894년) 春	齋長	金永九	字 孝文, 羅州人	號 孝亭, 鷺岩 適 後

이처럼 김응문이나 김효문의 직업은 등학농민혁명 등록 참여자에는 ‘농업’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런데 무안향교 재장 역임 등 유생으로 활동했던 터라 직업이나 신분을 다시 한번 살펴야 할 것이다. 함평 이태형(1841~1894)의 경우도 ‘농업’으로 표기되었지만, 무과에 합격하여 고군 산첨사(1890.10~1891.07)를 지낸 무관 관직자이다. 이를 ‘농업-농민’의 범주로 분류하기 보다는 또 다른 검토가 필요하다. 조선시대 말기 당시 사회는 ‘농본(農本)’ 사회였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도 농사는 기본이었을 것이라는 점에서이다. 예를 들면 약국을 경영했다든지, 유학자로서 서당 훈장을 했다든지 하는 경우에도 직업은 농업으로 표기하는

26) 김봉근, 「김응문(金應文) 일가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와 유체발굴의 의의」, 앞 논문, 268~269쪽. 김봉근의 논문에서는 1987년 판 『무안향교지』를 인용하였는데, 필자는 1932년 판 『무안향교지』(국립중앙도서관 소장)를 통해 확인하였다.

경우가 있었을 것이다. 이같은 사례가 집성된다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신분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 2) 참전과 보호 - 여성 동학 참여자 정동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전쟁에 직접 참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전쟁 현장에서 전사 순국하거나 포살당해 순국하기도 하고 교수형이나 화형 당하여 순국하기도 한다. 부상을 당하거나 피신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들도 전쟁에 직접 참여한 것이다. 그런데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록 기준에는 물자를 지원하거나 보호를 해 준 경우도 등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sup>27)</sup> 자료상의 제약이 있겠지만, 이 조항에 따른 참여자 등록이 더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보호’와 관련하여 등록된 정동화(1848~1913)의 사례를 살펴본다. 정동화는 함평 출신이지만 함평 본적으로는 분류되지 않는다. 나주의 나동환(1849~1937)과 혼인하였기에 나주 본적으로 분류되어 있다. 등록 사유는 함평과 관련된다. 정동화는 여성 동학인으로서 최초라는 점과 동학농민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동학농민군을 보호하는데 참여한 사례로서 등록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sup>28)</sup>

나동환은 동학 교장이자 제주로 나주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

27) 참여자로 인정되는 자 : ① 1차 또는 2차 봉기에 가담하여 실제 전투에 참여한 자, ② 1차 또는 2차 봉기 시 물자를 제공한 자(정보 포함) 및 노동력 제공자. ([별표1] : 참여자 유족등록 심의기준(시행세칙 제12조제3항 관련))

28) 2025년 4월 20일 등록된 최시화(崔時嬋, 1842.12.19.~1920.2.6.)도 여성 동학 참여자이다. 참여지역은 강원도 정선이다.(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누리집) 지금까지 동학농민혁명 등록 참여자 중 여성은 2인이 등록되었다.

처가인 함평군 해보면 연암리 다라실로 피신하였다. 이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관군이 들이닥쳤으나, 정동화는 남편과 아들을 다른 곳으로 피신시켰고, 자신은 관군들에게 잡혀 압של형 등 혹독한 고문을 받았으나, 끝내 남편의 행방에 대해 함구하였고 이후 고문 후유증으로 시달리다가 별세하였다. 이를 기리기 위하여 나동환 의적비<sup>29)</sup>와 부인 진주정씨[정동화] 효열행적비<sup>30)</sup>가 세워졌다.<sup>31)</sup> 나동환은 2024년 11월 11일 참여자로 등록되었다.<sup>32)</sup> 부인 정동화에 대해서도 참여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사와 심의를 통하여 2025년 4월 10일 등록이 결정되었다.

정동화의 사례처럼 보호와 관련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록이 더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인명이 확인되지 않고 ‘직임’이나 ‘신분’이라 할 ‘조이[召史, 소사]’로만 표기된 경우가 많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인명이 기록되지 않은 채 전해 오는 수많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인명을, 130년이 지난 오늘날의 시점에서 확인하기란 더 어렵다고 보여진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그대로 둘 수도 없다. 따라서 ‘직임’으로 표기된 경우라도 그대로 직권 등록을 먼저 하는 것이 「동학농민혁명예회복법」 입법

29) 崔南九 찬, 1974. 「吏曹叅判羅州羅公東煥義蹟碑」.)

30) 羅平集 찬, 1972. 「孝烈婦晉州鄭氏行蹟碑」.)

31) 나천수, 2022, 「다시 쓰는 나주 동학농민운동 이야기 -나주 동학 접주 羅東煥을 중심으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94집, 268~269쪽. 나천수회장은 나동환과 정동화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록 조사 과정에서 여러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32) 나주 나동환의 참여자 등록과정에서 조사위원으로 참여(2024.08.05.)하여 “나동환의 부인 진주정씨 정동화의 경우도 동학농민혁명군을 보호하는데 있어 고문을 당하는 등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내용이 <나주나공동환의적비>(1972)와 <효열부진주정씨행적비>(1974) 등에 기록이 있고 구전 내용이 부합됨으로 별도 절차를 통하여 참여자 등록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안한 바 있다.



정신에 부합한다고 본다.

이미 등록된 참여자의 경우에도 ‘직임’ 또는 ‘별칭’일 것으로 보이는 동학군들이 직권 등록된 사례가 있다. ‘장강다구(張江多九)’<sup>33)</sup>와 ‘강감역(姜監役)’<sup>34)</sup>이다. 이를 참조하여, 여성 동학인의 경우에도 ‘성(姓)+조이[召史, 소사]’<sup>35)</sup> 표기 그대로 직권등록을 먼저 했으면 한다. 그것이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 특별법의 ‘특별한 목적’이 아닐까 한다. ‘인명’을 확인할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소극적 논리보다는, 동학농민혁명 당시의 표기대로 등록[직권]을 먼저 하고 확인할 자료를 찾아 가자는 것이다. ‘법령’도 보다 더 적극적인 해석과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이[召史]’는 그 호칭을 그대로 쓴다<sup>36)</sup>는 오가작통법의 규칙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조이[召史, 소사]’로 표기된 사례는 점에 있는 노파 양조이(店婆梁召史)<sup>37)</sup>, 허내원의 처 이조이·정국찬의 처 김조이(許乃元妻李召史鄭國贊妻

---

33) 『全羅道各邑所獲東徒數交及將領姓名並錄成冊』(1895). 장강다구(張江多九)는 사료에 나오는 인명이지만, 지역에서 흔히 쓰던 ‘깡다구-강다구’의 별칭이 올랐을 수도 있다. 본명이나 족보 등에 오른 인명[본명]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본명이 확인되지 않은 탓인지 직권등록만 된 상태이다.

34) 김재홍, 『嶺上日記』(甲午八月, 1894.08). 감역(監役)은 인명으로 보기는 어렵고 당시의 표기 또는 호칭을 그대로 사료에 표기하였고, 이를 근거로 참여자로 직권등록된 것으로 보인다. 이 표기 역시 본명이 확인되지 않았던지 직권등록에 머물고 있는 상태이다. 감역은 조선 시대에 선공감(繕工監)에서 토목이나 건축 공사를 감독하던 종구품의 벼슬이다. 일반적으로 공사 등에 관계되는 책임자급 기술인을 일컫기도 한다.

35) ‘召史’는 ‘조이’로 발음하는데 한자 표기를 따라 ‘소사’로 읽기도 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소사(召史): 「의존 명사」 양민의 아내나 과부를 이르는 말.”로 올라 있다.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 번역문은 ‘조이’, ‘소사’로 혼용해 쓰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번역문 표기는 그대로 따른다. 한편, ‘順天 前座首 次知 張召史’라 하여 ‘召史’를 남성 관직과 관련되는 용어로 쓴 사례도 있다.(『兩湖右先鋒日記』(乙未正月))

36) 『甲午軍政實記』(五家統規)

37) 『隨錄』(營奇)

金召史)<sup>38)</sup>, 접귀 전유창의 처 이소사(接魁全有昌妻李召史)<sup>39)</sup>, 엄조이[嚴召史]<sup>40)</sup>, 엄소사(嚴召史)<sup>41)</sup>, 여자 동학 이소사 남편 김양문(女東學李召史之夫金良文)<sup>42)</sup>, 남면 접주 김일의 처 문소사(南面接主金一之妻文召史)<sup>43)</sup> 등이다. 특히 장흥 김양문의 처 이소사는 사료에서도 ‘여동학(女東學)’, ‘여동학이소사(女東學李召史)’<sup>44)</sup>로 표기할 만큼 직접 동학농민전쟁을 수행했던 동학 여장군으로 불리우고 있다.<sup>45)</sup>

### 3) 유해와 유산 - 무안 김응문장군 유해

동학농민혁명군의 유해(遺骸)에 대해서 유산(遺産, 국가유산[문화재])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안 동학농민군 대접주 김응문(김창구) 유해는 1894년(고종 31) 동학농민전쟁 고막포 전투 등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9일 체포되어 고문을 받고 처형당하여 순국한 동학군 인간유해이다. 당시 호남초토영(초토사 나주목사 겸임)에서 중앙에 보낸 공문서에는

38) 『兩湖招討臚錄』(光緒二十年四月十二日 親軍壯衛營正領官兩湖招討使臣洪啓薰謹啓爲相考事)

39) 『全羅道各邑所捉東徒數及所獲汁物并錄成冊』(1894.12, 奎17189). 40) 『巡撫先鋒陣臚錄』(乙未正月初十日, 1895년 1월 10일)

41) 『先鋒陣呈報牒』(光州牧使爲牒報事)

42) 『兩湖右先鋒日記』(乙未 正月[1895년 01월])

43) 『兩湖右先鋒日記』(乙未 正月[1895년 01월])

44) 『兩湖右先鋒日記』(乙未 正月[1895년 01월])

45) 장흥 이소사에 대해서는 위익환, 2009, 「여동학 이소사」, 『장흥동학농민혁명 사료총서』Ⅱ, 천도교장흥교구, 222~230쪽; 배항섭, 2010, 「동학농민전쟁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전남 장흥지역 사례를 단서로-, 『동학학회』19, 267~269쪽. 등 참조.

46) 『全羅道各邑所捉東徒數及所獲汁物并錄成冊』(1894.12, 奎17189).

‘경신후치페(經訊後致斃)’로 기록되어 있다.<sup>46)</sup> 이는 신문을 받은 뒤 최종 판결 이전에 죽는 것을 말한다. 고문과 악형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서는 효수당하여 순국한 것으로 전하고 있다.<sup>47)</sup> 김응문은 2004년 제정된 「동학농민명예회복법」에 따라 2008년 참여자로 등록되었고 유족도 등록되었다.<sup>48)</sup>

김응문 접주의 유해는 1894년 12월 9일 순국한 뒤 매장되었다가, 동학농민군 지도자묘역 및 추모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 4월 28일 발굴되었다. 이후 실시된 DNA 분석을 통해 직계 후손이 확인된 최초이자 유일한 동학농민혁명군 유해로 규명되었으며,<sup>49)</sup> 이는 동학농민혁명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성과로 평가되었다.<sup>50)</sup>

이어 유족·무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유해 처리 방향을 논의하였고, 2023년 2월 27일 무안군이 유족으로부터 유해를 인수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추모관에 봉안하였다. 이어 기념재단의 ‘김응문유골특별위원회’는 유해 보존과 공개 원칙을 마련하며 국가등록문화재<sup>51)</sup> 등록을 추진하였다.

---

47) 이이화·배항섭·왕현중, 2006,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호남서남부 농민군, 최후의 항쟁』, 해안, 205쪽.

48) 김응문(김창구)은 54명, 김효문(김영구)은 14명, 김자문(김덕구)은 61명, 김여정(김우신)은 79명의 유족이 등록되었다.

49)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주관), (주)디엔에이링크·인류진화연구소(검사), 앞 책.

50)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김응문유골특별위원회·무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2022.11.03., 『김응문 일가 유골 수습의 의미와 기념 방안-김응문 일가 유골 관련 학술 세미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

51) ‘문화재’ 용어는 2024년 5월 ‘국가유산’으로 변경되었다. 본고에서는 김응문 유해 등록 추진 당시(2023) ‘문화재’ 등 용어는 그대로 따르되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된 ‘국가유산’ 용어도 함께 쓰고자 한다.

등록 신청서 작성은 전문가 협력 속에 진행되었으며, 유해의 성격 검토, 법령 분석, 가치 판단 등이 포함된 신청서<sup>52)</sup>가 완성되었다. 이 신청서는 유족, 기념재단, 기념사업회, 무안군, 전라남도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 2023년 8월 24일 전라남도에서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에 제출하였다.

문화재청은 2023년 9월 26일, “사람의 유해는 생물학적 생성물로서 국가등록문화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기존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53조 해석을 근거로 등록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다.<sup>53)</sup> 이는 인골이 자연유산 범주로 분류되어 유형문화유산·기념물 등 문화유산 범주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법령 체계 때문이었다.

이 결정은 동학농민혁명군 유해가 가진 역사·정신·학술적 의미에 비해 지나치게 협소한 해석이라는 지적을 불러왔다. 김응문 유해는 순국 시기가 명확하고 출토 정보가 분명하며, 직계 후손과 DNA가 일치하는 국가적 희소 사례로서 역사적 가치가 탁월하지만,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인체유래물에 대한 문화유산적 해석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다.

등록이 어렵게 된 이후, 학계와 지역사회에서는 ‘인간 유해를 자연유산이

---

52) 『무안 동학농민군 김응문 유해 국가등록문화재 신청서』. 필자가 신청서 기본안을 작성하였다. 조사 정리 과정에서 박석면이사장(무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병규 부장, 전동근조사관(이상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자료 제공과 최종호교수(한국전통문화대학), 김삼기위원(전 국립문화재연구원 학예관)의 자문에 힘 입었다. 그리고 박맹수교수(전 원광대총장), 최성환교수(목포대 사학과)의 도움말이 있었다. 특히 최종호교수는 문화재 관계 법령의 분석과 적용, 문화재적 가치의 방향 정립에 있어 세밀한 교시를 해 주었다. 감사드린다.

53)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신청서 제출에 대한 회신(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4188, 2023. 9. 26./10. 3. 접수)

아닌 문화유산으로 재해석해야 한다’, ‘역사·정신·문화의 관점에서 보호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특히 2024년 5월 국가유산 제도로 개편된 뒤에도 유해류 유산의 정의와 보호 범위는 제도적 공백 상태에 있어, 김응문 유해 사례는 향후 국가 차원의 법령 정비와 정책 개선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동학농민혁명은 조선 후기 사회 변동의 정점이자 근대 시민사회 형성의 출발점으로 평가되며, 이를 구성하는 인물·유적·기록유산은 지속적으로 문화유산 제도 안에서 재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동학전쟁 참여자의 실체적 자료, 특히 신원이 과학적으로 확인된 유해가 국가유산으로 지정·등록된 사례는 없는 실정이다. 2022년 발굴된 김응문 유해는 DNA 분석을 통해 신원·후손·출토지·연대가 모두 교차 검증된 동학농민군의 유일한 유해로 동학농민혁명 연구사에서 매우 이례적이지 전례 없는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와 더불어 인간 유해의 문화유산적 성격을 검토하여 국가유산 지정의 타당성을 살펴보자.

현행 국가유산 체계는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인간 유해는 어느 범주에도 명확히 분류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통적으로 인골은 매장유산의 ‘중요출토자료’로 분류되어 자연유산적 관리에 머물렀으나, 국제적으로는 이미 인간 유해를 자연사 자료에서 분리해 윤리적 고려가 필요한 문화자료로 다루는 기준이 정착되었다. 유네스코 및 ICOM 가이드라인은 인간 유해에 내재한 의례·정체성·기억·폭력의 역사적 맥락을 강조하며, 이를 자연유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sup>54)</sup>

김응문 유해는 1894년 순국 이후 130년이 경과해 「근현대문화유산법」의 ‘50년 이상 형성 요건’을 충족한다.<sup>55)</sup> 또한 문화유산 유형 분류에서 유해는 인위적 제작물이 아닌 역사적 사건에 의해 발생한 ‘형성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특히 효수 등 국가 폭력의 결과를 ‘제작’으로 규정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부적절하다. 더불어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인골을 역사적·학술적 보존 대상인 중요출토자료로 규정하고 있는 점<sup>56)</sup>에서, 김응문 유해는 법령상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된다.

학술적으로도 김응문 유해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가운데 신원·혈통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유일한 사례로, 사료의 희소성과 학문적 활용성이 탁월하다. 유해의 상태는 19세기 말 전투·처형·사회사의 복원에 기여할 뿐 아니라, 발굴 과정에서 이루어진 DNA 분석과 매장 양상 조사는 인류학·고고학 연구의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더불어 실체 기반의 역사교육 자료로서도 가치가 높다.

현재 동학농민혁명 유산은 전적지·유적·유물·기록 등 비인간적 요소 중심이며, 동학혁명 주체였던 농민군의 실체를 입증하는 유산은 존재하지 않는다. 김응문 유해는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는 최초의 실체유산으로, 향

---

54)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1970에 다자조약으로 마련되었고 현행 협약의 발효일은 1983년 5월 14일이다.)55)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5조.[국가법령정보센터]

56) 문화재청(보도자료), 2022.07.19., 「국가 등의 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인골·미라 등 중요출토자료 연구 및 보관 근거-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57) 「문화유산법」등 관련 법령에서 인간 유해를 문화유산의 범주로 명확히 포함시키는 조문 정비が必要하고, 인류학·역사학·유전학 등 학제 간 공동 연구를 확대하여 자료적 신뢰도를 강화해야 하며, 후손·지역사회 윤리 기준 확립과 공문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후 인체유래 문화유산의 제도화 과정<sup>57)</sup>에서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간 유해는 단순한 생물학적 잔존물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기억, 의례, 세계관이 응축된 문화적 실체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김응문 유해는 동학의 인내천 사상, 민중항쟁의 역사, 지역 공동체 기억의 핵심을 이루는 상징적·문화적 가치까지 포함한다고 하겠다. 지역사회가 김응문을 기억 공동체의 중심 인물로 재인식하고 있다는 점<sup>58)</sup>도 문화유산 지정의 당위성으로 내세울 수 있다.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발굴이나 분묘 확인은 보은 복실의 동학농민군 집단매장지 시굴, 홍천 서석 풍암리의 동학농민군 집단매장지 발굴 등 몇 사례가 있고<sup>59)</sup>, 진도 동학농민혁명 유해<sup>60)</sup>나 장흥 동학농민혁명군 묘역이 있지만<sup>61)</sup>, ‘김응문 유해’는 유족과 유전자 일치가 확인된 동학농민군 인골로서는 최초 유일 사례라는 점, 그리고 출토지, 매장시기, 장소, 기록, 지역 연고 등이 분명하다는 점 등에서 단순히 한 개인의 유해를 보존하자는 것이 아니라, 동학농민혁명사의 공백을 메우고 국민적 기억을 회복하는 역사적 과제라는 점에서 국가적·학술적 의미가 매우 크다.<sup>62)</sup>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관련하여 국가유산 지정 또는 등록 사례와 비교할

---

58) 김희태, 2025.09.26., 「동학농민혁명군 김응문 일가의 유해와 ‘국가유산’」, 『무안 동학 아카데미』(유인물), 무안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147~162쪽.

59) 신영우, 202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해 발굴과 그 의미」, 『김응문 일가 유골 수습의 의미와 기념 방안 학술세미나』, 9~13쪽.

60) 박맹수, 2016.10.20., 「진도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와 그 의미」, 『진도 동학농민혁명의 동아시아적 의미와 그 위상 -2016년 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 국제학술회의-』, 전라남도·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59~85쪽.

61) 장흥군·민족문화유산연구원, 2018, 『장흥 공설공원묘지 정비(무연묘) 관련 장흥 동학농민군 학술조사 보고서』.

때 주인공이라 할 동학농민군의 유해는 당연히 국가차원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특히, 「사발통문과 일괄문서」, 「동학농민군 유광화 편지」, 「동학농민군 한달문 편지」는 동학농민군이 수기로 쓴 기록유산으로서 2023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도 등재되었다.<sup>62)</sup> 그리고 동학농민군이 태어나고 생활한 곳이나 유적<sup>64)</sup>, 동학군이 남겼거나 관련된 기록<sup>65)</sup>, 동학농민군이 싸운 전적 현장<sup>66)</sup>, 심지어는 동학군을 토벌과 관련된 기록물<sup>67)</sup>도 국가유산으로 지정·등록되어 있다. 그 주인공이라 할 동학농민혁명군의 유해도 하루빨리 국가유산 반열에 올라야 하고, 이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의 한 방안 될 것이다.

62) 조선시대 이전의 출토 인골 연구 성과와 완주 초남이성지 천주교 순교자 윤지충(바오로) 등의 유해에 대해서는 다음 글이 참고가 된다. 방유리, 2023.12.13., 「발굴조사 중요출토자료 현장조사 및 공동연구 진행 실무-인골·미라 조사연구 사례와 유관 법령-」, 『발굴조사 중요출토자료 정책공청회 발표자료집』, 문화재청·사단법인 한국문화유산협회, 대전전통나래관, 51쪽. 완주군·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왕주문화재연구소·천주교 전주교구 호남교회사연구소, 2021.12.09., 『최초순교자 유해 발굴의 의의와 역사 재조명을 위한 과제-초남이성지 학술세미나-』, 완주문화재단 커뮤니티실.

63)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24., 『세계에 새겨진 혁명의 기록』-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64) 유적(6) : 정읍 전봉준 유적(국가 사적), 인제 동경대전 간행터(강원 기념물), 고창 전봉준 생가터, 원평집강소 터, 말목장터와 감나무(이상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 나주 금성토평비(전남 문화유산자료). 국가유산청 누리집 참조. 이하 같음.

65) 기록물1(8) : 강진 강재 일사(剛齋 日史), 나주 금성정일록(이상 전남 유형문화유산), 사발통문과 일괄문서(전북 유형문화유산), 태안 갑오동학혁명 순도자 명단(충남 등록문화유산), 석남역사, 순교약력과 종리원사 부 동학사(이상 전북 문화유산자료), 동학농민군 유광화 편지, 동학농민군 한달문 편지(이상 국가등록문화유산)

66) 전적지(6) : 정읍 황토현 전적, 공주 우금치 전적, 장성 황룡 전적, 장흥 석대들 전적, 고창 무장기포지(이상 국가 사적), 완주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전적지(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

67) 기록물2(3) : 흥선대원군 효유문, 홍계훈유서와 양호전기, 소모사실(召募事實)(이상 전북 유형문화유산)



#### 4) 전적과 사적 - 고막포 전적지

동학농민혁명 전적(戰跡)은 5개소가 국가지정 문화유산 사적(史跡)이며, 1개소는 시·도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전라도 서남부의 대표적 전적지이자 가장 많은 순국자가 나온 고막포 전적지<sup>68)</sup>도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어야 할 것이다. 전적지 외에도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주둔지, 훈련지, 인물 생가지, 묘소, 기념비 등]이나 유물[고문서, 문헌 등] 등에 대해서도 국가유산 지정을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고막포전적은 사적의 유형별로는 “전적지 등의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과 “역사적 사건 기념과 관련된 유적”에 해당된다. 역사적 가치는 “국가의 중대한 역사적 사건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것”에 해당하고, 학술적 가치는 “역사시대의 정치·사회 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에 해당한다.

무안·함평·영광 등 전라도 서남부 동학농민혁명군은 1894년 11월 15일 나주 서쪽 30리 지점인 고막포(현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소재)와 고막원(현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소재) 일대에 집결하였고, 나주 서쪽의 동학농민혁명군과 합세하여 나주 서쪽 5개면을 함락하고 나주 수다면(현 다시면)의 장등참(진등참, 현 다시면 동곡리, 문동리 일원)에 이르러 나주읍성을 점령하려고 기세를 올렸다.

---

68) 배향섭, 「1894년 무안 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古幕浦 전투, 앞논문.

왕현종, 2015.11.13., 「동학농민군 지도자 배상옥과 무안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앞 논문.

홍동현, 2024, 「1894년 전남 무안지역 동학농민군의 동향과 지역적 특징」, 앞 논문.

이런 상황을 보고받은 나주목사(민종렬, 호남초토사 겸임)는 급히 용진산(현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호동과 선동·지산동 경계에 있는 산)에 출동한 수성군을 불러들여, 17일 도통장·부통장·중군장으로 하여금 포군 300명을 영솔하고 물리치게 하였다. 이에 수성군은 20리 떨어진 자지현(紫芝峴, 현 나주시 다시면 가운리 신결산과 여미산 사이 고개)을 넘어갔는데, 날이 저물자 초동시(草洞市, 현 나주시 다시면 영동리 초동마을[샛골])에 가서 주둔하였다. 이때 마침 전왕(田旺, 현 왕곡면)·지량(知良, 현 영산동)·상곡(上谷, 현 영산동) 등 3개 면에서 민보군이 일어났고, 의거통령(義舉統領) 박훈양(朴薰陽)·나사집(羅史集)·임노규(林魯圭)가 이끄는 민병 수천 명이 관군의 뒤에 포진하였다.

11월 18일에는 장등(長巖, 진등)에서 진을 마주하고 수성군과 동학농민군이 격돌하였다. 포군 300명과 3,000명의 민보군이 포진하고, 대포군(大砲軍)과 천보총을 쏘면서 진격해 들어가고, 중군이 동학농민군의 왼쪽을 기습하자, 동학농민군 대열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동학농민군은 수성군에게 추격당하면서 순국하였고 10리가 넘는 벌판을 지나 고막포에 이르렀다. 고막포에서는 입지상 동학농민군이 물에 떨어지는 자를 헤아릴 수 없었다고 한다. 호남초토사가 작성한 공식문서에도 “동학군이 고막포교에 이르러 물에 빠져 낙수사(落水死)한 동학군 수백 명이 넘어[殆過數百]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렵다.”<sup>69)</sup>는 기록이 있다. 나주 관내 다른 6개소의 전투에서 65명의 순국 동학농민군이 확인 되는데, 고막포 전투는 호남초토영에서도 그 수를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수백 명의 순국자가 있었던 것이다.

고막포 전투는 광주, 나주, 무안, 함평 일대의 동학농민군이 총집결하여

북쪽과 서남쪽에서 나주성을 공략해 간 대규모 공방전 중에 일어난 전투로 무안과 함평 지역 농민혁명군이 주도한 전투였다. 무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함평군 등은 김응문 유족 등과 함께 매년 고막석교(보물) 부근에서 고막포 전투 기념제를 해 오고 있다.

동학농민전쟁 고막포전적지에 대하여 국가유산 지정을 추진하는 것과 함께 검토할 부분이 있다. 「동학농민혁명명예회복법」에 ‘동학농민혁명 유산’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동학농민혁명명예회복법」 제8조 기념사업에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정비’, 제9조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사업에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교류사업’,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정비사업’이 규정되어 있다. 유적지<sup>70)</sup>를 정비하려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별해야 하고 관련자료의 관리나 보존을 위해서도 조사와 함께 분류와 정리를 해야 한다. 이같은 분류와 정리, 그리고 선별을 위해서는 「동학농민명예회복법」에 규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도 조례를 제정할 때 ‘동학농민혁명유산’을 규정화하여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

69) “又有被逮至古幕浦橋邊 落水死者殆過數百餘計 而因潮漲未的其數”(『砲殺東徒數及所獲汁物并錄成冊』(1894년 11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구 630)) 이 문서에 대해서는 김희태, 2024, 「포살동도수효급소획증물병록성책(砲殺東徒數及所獲汁物并錄成冊) - 1894년 4월~11월 나주목 관내 7개지역 동학농민전쟁기록-」, 『동학농민혁명연구』3,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70)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누리집 유적지정보에는 인물유적[집터 가족 활동 피체지 순절지 묘지 동상 기타], 전투·집결[모의지 훈련지 전투지 점령지 집결지 주둔지 이동로 기타], 기념시설[기념비 기념탑 동상 조형물], 기념공간[전시관 추모관 복합건물] 대분류[4]-중분류[23]체계로 376개소의 유적지 정보가 올라 있다. 이들을 포함하여 기록유산 등 동산유산에 대한 체계적 분류와 지정, 관리가 필요하다.

국가유산 관련 법규 외에도 개별 법령에 따라 관련 유산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제도가 참고가 된다. 개별 법령에 따라 지정하는 사례는 현충시설<sup>71)</sup>, 건축자산<sup>72)</sup>, 국가지정기록물<sup>73)</sup>, 5·18민주화운동 사적지<sup>74)</sup> 등이 있다. 광주광역시 경우, 모법의 위임을 받지 않고 조례로만 관련유산을 지정하여 관리해 오고 있다.<sup>75)</sup>

## 4. 맺음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 등록된 동학농민혁명군은 2025년 9월 28일 기

- 
- 71)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현충시설 조항을 추가해 개정(2001.01.26)하고 대통령령으로 「현충시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02.03.20), 「현충시설 관리 지침」(2003.02.23)을 제정하여 독립운동 관련시설(1,001), 국가수호 관련시설(1,337) 2,338개소 지정 관리.
- 72)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 등을 지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유산, 자연유산, 등록문화유산은 제외.
- 73)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 소장 기록물 중 중요한 것을 2008년부터 지정해 오고 있다. 제1호는 「유진오 제헌헌법 초고」이다.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제38조에 에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음.
- 74)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 소장 기록물 중 중요한 것을 2008년부터 지정해 오고 있다. 제1호는 「유진오 제헌헌법 초고」이다.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제38조에 에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음.
- 75) 김희태, 2025.09.16., 「<영호도회소와 인근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황과 특징> 토론편」, 『2025년 동학농민혁명 영호도회소 학술대회-영호도회소와 인근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 동학농민혁명영호도회소기념사업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75~78쪽.

준 4,033명인데 직권등록이 3,347명(82.99%), 1차 496명(12.30%), 2차 190명(4.71%)이다. 지역명을 검색어로 확인하면 77명, 함평은 98명, 영광은 41명 등 206명이다. 이 가운데 중복된 인물 제외하면 196명이고, 추가검색을 통해 확인한 참여자를 포함하면 203명이다. 이 동학농민군을 중심으로 무안·함평·영광 등 전라도 서남부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활동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성격은 몇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하나는, 참여자에 대한 것으로 신분이나 직업에 관해서 농업(농민)과 유학자의 경우를 무안 나주김씨 김응문 일가 사례이다. 동학농민혁명 직접 참여자가 아니지만 참여자를 보호했던 참여자와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다른 하나는, 참여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것이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해의 보존, 유적지의 보존과 현양 등에 대해서이다. 무안 김응문장군 유해의 국가유산 등록, 고막포 전적지의 국가유산 추진 등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제안을 하였다.

동학농민혁명은 농민이 주축을 이루는 것으로 이해해 오고 있다. 무안, 함평, 영광의 등록 참여자의 경우에도 참여자 대부분이 직업을 '농업'으로 표기하고 있다. 그런데 농민과 유학자는 구분이 어렵기도 하다. 무안의 나주김씨 김응문의 경우에는 무안 향교 재장을 역임하고 노사 기정진의 문인록에 들어 있는 유학자(유생)이다. 특히 무안 출신으로 노사 기정진의 문인록에 오른 사람은 모두 30명인데 절반에 해당되는 14명이 나주김씨라는 점도 눈여겨 보아야 한다. 김응문이나 김효문의 직업은 농업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무안향교 재장 역임 등 유생으로서 활동했던 터

라 직업이나 신분을 다시 한번 살펴야 하고, 이같은 사례가 집성된다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신분에 대한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 함평 이태형(1841~1894)의 경우도 ‘농업’으로 표기되었지만, 무과에 합격하여 고군 산첨사(1890.10~1891.07)를 지낸 무관 관인이다. 이를 ‘농업-농민’의 범주로 분류하기 보다는 또 다른 검토가 필요하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전쟁에 직접 참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전쟁 현장에서 전사 순국하거나 포살당해 순국하기도 하고 교수형이나 화형당하여 순국하기도 한다. 부상을 당하거나 피신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들도 전쟁에 직접 참여한 것이다.

그런데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록 기준에는 물자를 지원하거나 보호를 해 준 경우도 등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호’와 관련하여 등록된 여성 동학 참여자 정동화의 사례가 있다, 나주 본적으로 등록되었지만, 함평출신이고, 함평의 친정 동네로 남편 나동환을 피신시켰고, 관군이 행선지를 문초해도 알려 주지 않았다. 이같은 열행을 기려 열부 포장을 하고 행적비를 세웠다. 이들 자료를 근거로 하여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동학참여자로 등록되었다. 나주 나동환을 등록 조사하면서 건의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자료상의 제약이 있겠지만, 이 조항에 따른 참여자 등록이 더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 인명이 알려진 경우가 드물다는 점을 고려하여 별칭이나 직임으로 보이는 ‘조이(召史, 소사)’로 표기된 경우도 우선 직권 등록을 했으면 한다. 남성의 경우에도 능주 장강다구(張江多九), 남원 강감역(姜監役) 등 별칭이나 직임으로 보이지만, 기록이 있어 등록(직권등록)된 사례와 비교해 볼 필요도 있다. 특히 장흥 이소사(李召史)의 경

우, 동학군의 ‘지원이나 보호’를 뛰어 넘어 직접 동학군으로 참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해(遺骸)에 대해서 유산(遺産) 차원에서 검토해 보았다. 무안 동학농민군 대접주 김응문은 1894년 고문으로 순국 한 인물로, 유해는 2022년 발굴되어 직계 후손이 확인된 최초이자 유일한 동학농민혁명군 유해로 규명되었다. 이는 동학농민혁명 연구의 중요한 성과였다. 2023년 유해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추모관에 봉안한 뒤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국가유산청은 “사람의 유해는 생물학적 생성물로 등록 대상이 아니다”라는 법 해석에 따라 등록이 어렵다고 통보하였다.

이같은 결정은 동학농민혁명군 유해가 지닌 역사·정신·학술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협소한 법 해석이라는 비판을 불러왔다. 김응문 유해는 순국 시기와 출토 정보가 명확하고 DNA로 후손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유일한 동학농민군 실체자료로, 그 희소성과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 국제 기준 역시 인간 유해를 윤리적 고려가 필요한 문화자료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인간 유해를 자연유산 범주로 보고 있어 문화유산적 해석이 부족한 점이 걸림돌이 된 것이다. 이후 학계와 지역 사회는 인간 유해를 자연유산이 아닌 역사·정신·문화유산으로 재정의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2024년 국가유산 제도 개편 이후에도 유해류의 법적 지위는 공백 상태여서 김응문 사례가 제도 정비의 기준점이 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김응문 유해는 법적 요건 뿐 아니라 학술적·역사적·교육적 가치를 모두 충족하는 인체유래 문화자료로서, 국가유산 차

원에서 보호하고 관리 활용되어야 한다.

동학농민혁명 전적지는 정읍 황토현 전적, 공주 우금치 전적, 장성 황룡 전적, 장흥 석대들 전적, 고창 무장기포지 5개소가 국가지정 문화유산 사적이며, 완주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전적지는 시·도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전라도 서남부의 대표적 전적지이자 가장 많은 순국자가 나온 고막포 전적지도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어야 할 것이다. 전적지 외에도 관련 유적[주둔지, 훈련지, 인물 생가지, 묘소, 기념비 등]이나 유물[고문서, 문헌 등] 등에 대해서도 국가유산 지정을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 「동학농민명예회복법」에 동학농민혁명유산을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참고문헌

- 『全羅道各邑所捉東徒數及所獲汁物并錄成冊』(규장각 소장, 奎17189)
- 『全羅道各邑所獲東徒數及將領姓名竝錄成冊』(규장각 소장, 奎17190)
- 『砲殺東徒數及所獲汁物并錄成冊』(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구 630)
- 『錦城正義錄』(李炳壽)
- 『羅州金氏大同譜』(2001.)
- 『蘆沙先生淵源錄』(澹對軒, 1960.)
- 『東學亂記錄』(-한국사료총서10-, 국사편찬위원회, 1959.)
- 『東學史』(吳知泳, 草稿本)(국사편찬위원회DB)
- 『務安鄉校誌』(무안향교, 1932.)
- 『先鋒陣各邑了發關及甘結』(甘結務安縣 十二日)
- 『天道教書』(天道教中央總部), 1921.)
- 김정호 편저, 1988., 『지방연혁연구-전남을 중심으로-』, 광주일보출판국.
-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1995., 『동학농민혁명의 지역적 전개와 사회변동』, 새길.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주관기관)·(주)디엔에이링크·인류진화연구소(검사기관), 2022.10., 『김응문 일가 유골 조사 및 유전자검사 용역-인류학 및 유전자검사 보고서』,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김응문유골특별위원회·무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김응문 일가 유골 수습의 의미와 기념 방안 학술세미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
- 무안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2022.11.03., 『무안동학농민혁명 재조명 학술대회』, 무안 승달문예회관.
- 무안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2017.11.28., 『무안동학농민혁명연구 동아리활동 보고회』.
- 무안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 무안군동학농민혁명유족회, 2016.12.16., 『무안동학농민혁명연구 동아리 활동 결과 발표회』.
- 무안군·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2013., 『무안동학농민혁명 역사성 고증 및 기념사업 기본계획수립』.
- 무안군사편찬위원회편, 1994., 『무안군사』.
- 무안동학농민혁명유족회, 2008., 『무안동학농민혁명사』.
- 이상식 · 박맹수 · 홍영기, 1996., 『전남동학농민혁명사』, 전라남도.

이이화·배항섭·왕현중, 2006.,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호남서남부 농민군, 최후의 항쟁』, 해안.

전용호, 2023., 『역사에 헌신한 의인 가족 4대』-동학혁명에서 5월항쟁까지-, 심미안.

전주시·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2029., 『한국 동학농민군 지도자 안장사업 기록』.

최현식, 1983., 『갑오동학혁명사』, 금강출판사.

김봉곤, 2022., 「김응문(金應文) 일가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와 유체발굴의 의의」, 『동학학보』 제62호.

김봉곤, 2021., 「나주 동학농민군 활동 재조명」, 『나주동학농민혁명의 세계사적 의의와 시민사회로의 확산』, 원광대원불교사상연구원.

김봉곤, 2020., 「동학농민혁명기 나주 수성군의 조직과 활동」, 『역사학연구』79, 호남사학회 (구 전남사학회).

김희태, 2019. 10.30., 「나주 동학농민혁명 관련 문화유산 활용방안」, 『나주동학농민혁명 한·일 국제학술대회-한恨에서 흥興으로 승화하다-』, 나주시·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김희태, 2020.10.28., 「동학농민군의 나주 압송과 처형」, 『나주 동학농민혁명 재조명과 세 계시민적 공공성구축』-자료구축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나주시, 105~119쪽.; 나주시, 2022, 『나주동학농민혁명의 재조명』.

김희태, 2024, 「유족 증언과 자료로 본 전라도 장흥·강진지역 동학농민군의 순국」, 『유족 증언을 통해 본 동학농민군의 삶』-동학농민혁명연구소 학술총서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김희태, 2024, 「포살동도수효급소획죽물병록성책(砲殺東徒數爻及所獲汁物并錄成冊) - 1894년 4월~11월 나주목 관내 7개 지역 동학농민전쟁 기록 -」, 『동학농민혁명연구』3,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김희태, 2025.09.16., 「<영호도회소와 인근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황과 특징> 토론문」, 『2025년 동학농민혁명 영호도회소 학술대회-영호도회소와 인근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 동학농민혁명영호도회소기념사업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김희태, 2025.09.26., 「동학농민혁명군 김응문 일가의 유해와 ‘국가유산」, 『무안 동학 아카데미』(유인물), 무안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147~162쪽.

배석오, 1994., 「동학혁명과 무안지방의 봉기」, 『무안군사』, 무안군사편찬위원회.배항섭,

2015., 「1894년 무안 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古幕浦 전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5,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5. ; 무안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2015.11.13., 『무안동학농민혁명 재조명 학술대회』.

배향섭, 2002., 「제1차 동학농민혁명전쟁 시기 농민군의 진격로와 활동 양상, 『동학연구』 11. 배향섭, 2002., 「제1차 동학농민혁명전쟁 시기 농민군의 행동양태와 지향, 『한국근현대사연구』 21.

신영우, 2022.11.03.,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해 발굴과 그 의미, 『김응문 일가 유골수습의 의미와 기념 방안 학술세미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김응문유골특별위원회·무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

왕현종, 2015.11.13., 「동학농민군 지도자 배상옥과 무안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무안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무안동학농민혁명 재조명 학술대회』.

윤여정, 2009., 『대한민국 행정지명』 제1권 전남·광주편, 향지사

정경운·임선주, 2015., 「무안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방향과 활성화 전략」-무안지역 및 고막포전투지구를 중심으로-, 『남도문화연구』 제29집,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 무안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2015.11.13., 『무안동학농민혁명 재조명 학술대회』.

정소영, 2024., 「함평 지역의 동학 조직과 ‘이교창 사건(이경인 밀고 사건)’ 검토, 『동학학보』 71.

표영삼, 2000., 「전라도 서남부 혁명운동, 『교사교리운동』 8호.

홍동현, 2024., 「1894년 전남 무안지역 동학농민군의 동향과 지역적 특징, 『남도문화연구』 53,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s://www.db.history.go.kr>)

규장각 한국학연구원(<https://kyu.snu.ac.kr>)

동학농민혁명 사료 아카이브(<http://www.e-donghak.or.kr/archive>)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http://www.1894.or.kr>)

한국천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https://cbck.or.kr/koreanmartyrs>)

〈자료 1〉 전라도 서남부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관련 연표<sup>76)</sup>

시기	구분	참여 내용	미등록
1892.	동학입교	무안 조병연(趙炳淵)(청계면 남성리), 이병대(李炳戴)(청계면 남안리), 고군제(高君濟)(청계면 도림리), 한용준(韓用準)(박곡면[동탄면] 갈곡리), 함기연(咸奇淵)(남리)	이병대 고군제 함기연
1892.07.17		무안 김의환(金義煥)	김의환
1892.11.07		무안 이병경(李秉炯)	이병경
1893.		무안 송두옥, 송두옥, 한택을, 송군병, 박인화(청계면), 무안읍 정인섭(무안읍)	송두옥 <sup>77)</sup> 한택을 송군병 정인섭
1893.02.11	광화문 복합상소	무안 배상옥(규옥, 상선) 동생 배규찬 참여	
1893.03.11	보은 취회(장내리)	무안 배규인 등 무안읍 80여명 참여	
1893.03.27		영광 동학군 호남 영광 등지에서 100여명이 보은 도착(『취어』) *전라도 23고를 참여(나주, 남원, 무안, 순창, 순천, 영광, 영암, 장수, 전주, 태인, 함평/장흥, 익산, 여산, 진도, 임실, 부안, 고흥, 강진, 광양/임피, 함열)	
1893.04.02	함평, 영광 동학군 해산	함평, 영광, 남원, 순창, 무장, 태인 등지 동학군 200여명 해산하여 돌아감.	
*1894.01.10	고부 농민 봉기	고부 농민봉기, 고부관아 점령	
1894.02.28	영광 민란	영광에서 농민항쟁(민란)이 일어남(오하기문)	
*1894.03.13	고부 농민 해산	고부 농민 해산	
1894.03.15	무안 동학군 무장과 합세	무안 배상옥(배규인), 해남 김춘두 등과 무장의 동학 농민군과 합세	
*1894.03.20	무장기포 (1차기포)	동학농민군 무장포고문 공포 영광 법성 진량면 용현리에 대발의 죽창으로 무장	
*1894.03.23		무장기포 동학군, 고부 다시 점령	
1894.03.26.~29	백산대회, 호남청의대장소 설치	백산으로 이동, 부안 김제 고부 태안 영광 등지 농민 결집 연합부대 편성, 지도부 확대 개편	
		전라도 53고를 중 전남 영광, 무안, 장성, 나주, 광주 등 17개 고을 기병, 백산 참여(동학사)	
		무안 배상옥, 김응문 등 장령급 15명 참석, 그 외 배규찬, 송관호, 박기운, 정경택, 박연교, 노영학, 노윤화, 박인화, 송두옥, 김행로, 이민홍, 임경춘, 이동근(이여춘)	노윤화 임경춘

76) 무안, 함평, 영광의 동학농민혁명 자료와 참여자 자료를 정리하여 일자순으로 재 배열하였다. 일부 중복이 있거나 동일 인명인데 표기가 다른 경우(본명, 관청기록명, 족보명, 호적명, 자 호 등)도 있을 것이다. 미등록자는 기록에 나오는 인명이지만 참여자등록 명단에 없는 경우이다. 등록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이지만 비교를 위해 표기하였다. \* 표기는 동학농민혁명 전체 관련 사항이다.

1894.04.02	정부, 양호초토사 홍계훈 임명	정부, 전라감사 겸 장위영 점령관 홍계훈을 양호초토사, 이문영을 전라병사로 임명 *홍계훈부대(800명), 서울, 인천(04.03), 군산(04.06), 임피, 전주 도착(04.07)	
1894.04.04	동학군, 법성포 이항에 통문	영광 법성포 이항(吏鄕)들에게 통문을 보내 폐막 시정 촉구	
1894.04.06	나주 서문 전투	무안 배상옥과 함평의 이화진이 연합해 나주 수성군과의 싸움에서 동학군 이여춘(이동근) 등 30명 체포당함.	
*1894.04.06.~.07	정읍 황토현 전투	동학농민군 황토현 전투 승리, 전라감영군 대파 *정읍 고창, 무장, 영광, 함평을 차례로 점령	
1894.04.11	무안 동학군 처형 순국	무안 이여춘(이동근) 등 3명 처형당해 순국함. 27명 출신 고을[自邑]에서 처리토록 함.	
1894.04.12	영광군 점령	백산 운집 동학농민군이 황토현에서 전라감영군 격파하고 정읍, 흥덕, 고창, 무장을 거쳐 영광 도착, 4일간 주둔. 「대적시 약속(大敵時 約束) 4항」, 「12조 계군호령(戒軍號令)」	
		동학군, 영광군 점령, 군기고에서 군기 탈취	
1894.04.14	영광 법성포 폐단개혁	동학군, 영광 법성포 산과 구수산 등에 주둔. 일본인 객주 여객 습격, 폐단 개혁	
1894.04.16	동학군 무안 진출	동학농민군, 무안으로 진출	
	동학군 함평 관아 점령	동학농민군 전봉준 주력군 6~7천명이 함평으로 남하, 함평 관아 점령	
1894.04.18	동학군 무안 주둔 함평 이동	무안 배상옥 주도 동학농민군 7~8천명 무안 산내면에 주둔 후 함평으로 이동	
	전봉준, 나주공형에 글 보냄	함평에서 전봉준장군이 나주목의 공형(公兄)에게 동학교인 석방하면 나주 공격을 않겠다는 뜻을 나주목사에게 전해 달라고 글을 보냄.	
1894.04.21	경군 영광도착	경군(홍계훈), 전주(04.18) 출발하여 동학농민군 추격을 시작하여 금구, 태인, 정읍, 고창을 거쳐 영광에 도착	
1894.04.19	전봉준, 양호초토사에 글 보냄	함평에서 전봉준장군이 양호초토사 홍계훈에게 글을 보냄	
1894.04.중순	동학군 무기 탈취	무안 배상옥 부대 무안현 등 29개소 무기 탈취	
1894.04.21	경군 영광 이동	경군(홍계훈), 영광 도착	
1894.04.22	동학군 장성, 나주 이동	동학농민군 주력부대 함평 떠나 장성으로 이동. 일부는 나주로 향함.	
	경군, 장성 이동	홍계훈, 경군 470명 중 300명을 이학승, 원세록 등에게 인솔하여 대포 2문을 주어 동학농민군을 추격하게 함	
*1894.04.23	장성 황룡촌 전투	동학농민군 황룡촌 전투 승리, 경군 정예부대 대파	
*1894.04.27	전주성 점령	동학농민군, 전주성 점령	
*1894.05.04	청국군 상륙	청국군(淸國軍), 아산만 상륙	
*1894.05.06	일본군 상륙	일본군, 인천항 상륙	
*1894.05.08	전주 화약	동학농민군 전주화약(和約) 체결, 동학농민군은 해산하고 고을로 돌아가 폐정개혁 단행	

1894.05.09	동학군 지주, 탐관오리 공격	무안 동학농민군 약덕 지주와 탐관오리 공격	
1894.05.00	집강소 설치	무안 청계면 청천리 청천재에 집강소 설치	
1894.06.00	동학군 목포진 공격	무안 배상옥 목포진 공격	
*1894.07.01	일본군 선전포고	일본군 선전 포고	
*1894.07.06	집강소 설치	전봉준, 전라감사 김학진과 집강소 설치 합의	
1894.07.00	함평성 공격	함평 접주(거과) 이은중이 함평성을 공격함 (12.15 현감 보고)	
1894.07.말	동학군 세력	무안 배상옥 세력 몇만 명에 이름. *전봉준, 김개남의 2.5배에 이름	
1894.09.10	삼례기포(2차기포)	동학농민군 9월 재봉기. 반일 민족항쟁 시작	
		무안 배상옥, 김응문 등 농민군 2,000명 삼례 집결 *기록에는 삼례에 집결했다고 되어 있으나 후방 방어를 목적으로 무안에 주둔한 것으로 추정	
*1894.10.12~16	남북접 논산 집결	남북접 동학농민군 논산 집결	
1894.10.00	동학 입교	영광 서우순(道內面 古城里) 동학 입교 (무장 장재면 남계리 오응문에게 동학을 전수 받음)	*오응문
*1894.11.08.~11	공주 우금치전투	동학농민군 공주 우금치전투, 패배	
1894.11.16~21	고막포 전투	무안, 함평 동학농민군 나주 공격을 위해 고막포 일대 집결, 나주 수성군과 접전 농민군 5~6만명, 사상자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고 함	
1894.11.00	동학군 활동	함평 이화진의 수종 박준상은 해제로 고부 부민 황경여의 도조를 받으러 갔다가 접주 최문빈(최장현)의 방해로 실패.	
1894.11.20	나주 집결	동학농민군 나주성 집결. 손화중, 최경선, 장홍 이방언, 함평 이화진, 무안 배규인, 담양 국문보 등	
	영광 점령	영광 동부면 접주[과수] 양경수(梁京洙) 등이 마구 포를 쏘며 성을 침입하여 영광군 다시 점령	
1894.11.22	함평으로 이동	고창 임천서가 기병하여 함평으로 갔다고 함(봉남일기)	
1894.11.27	광주 입성	함평 이화진, 무안 배규인, 손화중 등 광주 입성	
	전봉준, 동학군해산	전봉준 장군, 장성 갈재에서 군대해산, 은신	
*1894.11.27	태인전투	동학농민군 태인전투 패배, 동학농민군 주력 해산	
1894.11.28	선봉장 군 나주로 출발	선봉장 이규태, 통위영 2개소 병력과 일본군 100여명과 전주에서 나주로 출발	
*1894.12.01.~10	동학군 해산	광주에서 동학군 해산	
	동학지도자 피체	동학 주요 지도자 최경선(12.1, 동북) 전봉준(12.2) 김개남(12.3), 손화중(고창) 등 피체	
		함평 이화진, 무안 배규인 등 돌아와 활동	
1894.12.02	함평 접주 등 포살 순국	함평 접주 김경오, 이춘익, 이재면, 이근진, 김성필, 김인오, 김성서, 노덕팔 <sup>78)</sup> 등은 잡힐 때 포살당해 순국함	김성필 <sup>79)</sup>
1894.12.03	영광 양경수 피체	영광 양경수, 진사 김응선을 중심으로 조직된 수성군에 잡힐 때 총살당해 순국 <sup>80)</sup>	

1894.12.05	함평 이화진 포살 순국	함평 이화진 포살당해 순국. 수종 6명 붙잡음.	
	영광 서우순 등 처형 순국	영광 서우순, 함평 동학지도자들과 함께 피체 처형 당해 순국	최준숙 <sup>81)</sup>
		영광 접주(적괴) 송문수 <sup>82)</sup> , 오태숙 효수[효경] 당해 순국	
		영광 최준숙 등 9명, 잡힐 때 포살당해 순국	
		영광 박안지 등 10명, 압송당하여 장위영[장위대관]에 넘겨짐.	
1894.12.06	함평 접주 5인 처형 순국	함평 접주 김치오, 정원오, 정곤서, 김경선, 윤경옥 등 처형당해 순국.	
	함평 접주 이화진 수종 6명 피체	이화진의 수종 조병목, 서우순, 김문조, 이응모, 김봉규, 박준상 등 피체 구속해 처분 기다림(함평현감 첩보)	
1894.12.07	무안 동학군 이동	무안 배상옥 영암, 강진 등지로 이동	
	함평 접주 5명 처형 순국	함평 접주 이두연, 김학필, 이관섭 <sup>83)</sup> , 이창규, 공명오 처형당해 순국(12.10 현감 보고)	
1894.12.08	무안 2명 처형 순국	무안 접주(적괴) 배정규, 박순서 포살당해 순국. 무안 서여칠 등 6명, 죄의 경중을 가려 처리하도록 함	배정규 <sup>84)</sup>
1894.12.08	함평 접주 이은중 피체	함평 접주(거괴) 이은중이 수성군에게 체포당함. 함평현에서 조사하여 초토영으로 압송할 것을 보고(12.15. 현감 보고)	
1894.12.09	함평 접주 8인 처형 순국	함평 접주(거괴) 윤정보, 장경삼, 대접주 박춘서, 정평오, 김시환, 윤찬진, 김경문, 박경중 등 잡힐 때 포살당해 순국 (12.10 현감 보고)	김경문 <sup>85)</sup> (12.10))
1894.12.09	무안 동학군 신문 후 순국	무안 동학농민군 18명 피체, 접주(거괴) 김응문(김창구), 김자문(김덕구), 정여삼, 김여옥, 장용진, 조덕근 신문을 겪은 뒤 순국함.	
		무안 동학군 12명, 죄의 경중을 가려 처리하도록 함.	
		*좌선봉장 이규택 무안현 도착	
1894.12.10	일본군 함평도착	일본학살군, 후비보병 독립 제19대의 제2중대(서로군) 함평 도착.	
1894.12.12	무안 동학군 처형 순국	무안 동학군 70명 생포(30명 처결, 40명 구속) 배규찬, 김효문(김영구), 오덕민, 조광오, 김문일(文一, 文日, 김기봉, 김용봉), 박경지, 박기운, 양대숙, 서여칠, 박기연, 박규상, 박기옥 등 처형당해 순국	
		영광 출신 송진팔 등 18명이 무장에서 피체 영광으로 압송되어 경중에 따라 처형당해 순국.	
1894.12.14	좌선봉장, 무안 배상옥 체포 지시	좌선봉장 이규택 무안 수성군 오한수에게 해남에 있는 배상옥 잡을 것을 명령	
1894.12.15	장흥 석대들 전투	무안 배상옥이 참여한 것으로 보임, 전투에서 패배 후 해남, 완도 등으로 피신	
1894.12.22	함평 이화진 수종 6명 조사	함평 접주 이화진의 수종 조병목, 서우순, 김문조, 이응모, 김봉규, 박준상의 동학 입도과정, 활동상 자세히 조사. 김봉규는 구타당해 순국함.	
1894.12.23	무안 동학군 해남에서 피체	해남에서 무안 접주(박치경, 박채현) 접사(임학) 김몽길 등 4명 체포당함.	

1894.12.24	무안 배상옥 해남에서 처형 순국	무안 배상옥, 해남 은소면[현 송지면]에서 윤규룡에게 잡히자 일본군 보병 대위 마스게 세이보(松本正保)에게 현장에서 총살 당해 순국(현상금 1,000냥)	
1894.12.27	무안 해제 최씨 3명 처형 순국	무안 해제면 최장현(최문빈), 최선현, 최기현 삼형제 처형당해 순국	
1894.12.28	무안 배상옥 마부 해남에서 처형 순국	김종곤(金鍾坤) 거(居) 무안(務安) 배구인(裴奎仁)의 마부 패도(佩刀) 아울러 포살당해 순국 윤석호(尹石浩), 윤문여(尹文汝) 거(居) 무안(務安) 배상옥(裴相玉)을 수종(隨從)하여 청계민(淸溪民)들에게 잡혀 포살당해 순국.	패도 (佩刀) <sup>86)</sup>
1894.12.30	나주 일본진영, 포살 순국	나주 일본진영에서 영광 14명 포살당해 순국, 영광 : 대접주 이현숙(李賢淑) · 노명언(魯明彦) · 정기경(丁基京), 접주 도령기수(都令旗手) 박인지(朴仁之), 접주 김관서(金寬西) · 전후겸(全厚兼) · 강대진(姜大振) · 조명구(曹明九) · 임명진(林明辰) · 김원실(金元實) · 황상련(黃相連) · 봉윤홍(奉允弘) · 고희진(高休鎭) · 봉윤정(奉允正) · 신항용(申恒用) 나주 일본진영에서 함평 25명 포살당해 순국. 함평(咸平) : 도독대장(都督大將) 이상삼(李相三), 접주 이익성(李益成) · 이경식(李京植) · 최유현(崔有憲) · 박용무(朴用武) · 장소회(張所回) · 박겸오(朴兼五) · 최기현(崔基玄) · 노인경(盧仁京) · 노홍상(魯洪尙) · 최문빈(崔文彬, 최정현) · 이오서(李五瑞) · 장현국(張賢局) · 서치운(徐致雲) · 이계성(李季成) · 이창주(李昌朱) · 이순백(李順伯) · 박만종(朴萬宗) · 박문팔(朴文八) · 윤상근(尹相近) · 최이현(崔二玄) · 김치오(金致五) · 윤영국(尹永菊) · 김덕홍(金德洪) · 김춘경(金春京)	이현숙
1895.01.05	무안 박정환 처형 순국	무안 박정환, 무안 교동 일본 진영에서 처형당해 순국	
1895.01.06	우선봉군 영광 도착	양호우선봉군, 영광 도착하여 머무름. 동학 접주[거괴, 소위 의병장] 이현숙이 양호우선봉군에 포박당하여 문초당함. 동학군 15명이 갇힘. 양호우선봉군, 법성(法聖)의 백성들을 안무(按撫)하고자 교장 양기영과 병대 30명을 보냄.	
1895.01.09	함평 동학군 포박	함평 동학 도독대장(都督大將, 소위 수성장) 이상삼(李相三)이 양호우선봉군에 포박당하여 문초당함. 동학군 27명이 갇힘.	
1895.01.11	무안 백용선 병사 순국 홍낙관, 손화중 함평으로 압송	무안 백용선(청계면 남안리), 고문 후유증 병사 홍낙관 · 손화중을 같이 압송하라 하여 함평으로 압송. *홍낙관(洪洛寬)은 1월 9일 흥덕현 임리(林里)에서 잡힘. 손화중(孫化中)을 고부군 부안고면(扶安古面) 수강산(壽江山) 산당(山堂)에서 12월 11일 잡힘.	
1895.01.12	양호우선봉군 군기등 획득 기록	양호우선봉군, 각처에서 획득한 군기와 돈 · 곡식 · 소 · 말에 대한 기록 법성(法聖) : 전문(錢文) 1000냥, 백미 433석, 조(租) 37석. 백미와 조는 해당 진(該鎭)의 이방치소(吏房處)에 맡겨 두었다. 총 148자루 중에서 100자루는 스즈끼(鈴木)의 지시에 따라 영광 수성군에 내어주고, 나머지는 부수었다. 철창(鐵槍) 279자루, 환도(環刀) 9자루는 다 부수었다.	



1895.01.18	우선봉군, 일본군대와 합침	영광에서 양호우선봉군과 일본 군대가 합침	
1895.01.19	함평 21명 피체	함평 서우순 등 10여명 경군에 피체 우진영(나주) 압송 심문.	
		함평 홍곤삼 등 11명 피체 압송당하여 조사받음.	
1895.01.20	영광 5명 피체	영광 범성진 남궁달, 박복암 피체, 나주 우진영으로 압송당함.	
		영광 오홍순, 이만순, 김풍중 등 피체	
*1895.03.30	동학지도자 처형 순국	*동학 주요 지도자 전봉준, 손화중, 김덕명, 최경선, 성두환 등 교수형 처형당해 순국.	

77) 『천도교서』 제2편 海月神師

78) 『[開國五百三年 十二月 日 全羅道各邑所捉東徒數及所獲汁物并錄成冊]』, 『巡撫先鋒陣膽錄』 함평현감첩보(1894.12.07.)에는 노덕휘(魯德輝)로 기록.

79) 『[全羅道各邑所捉東徒數及所獲汁物并錄成冊]』와 『巡撫先鋒陣膽錄』 함평현감첩보(1894.12.07.)에 “김성필(金成必)” 기록.

80) 『巡撫先鋒陣膽錄』 함평현감첩보(1894.12.21.), 『[全羅道各邑所捉東徒數及所獲汁物并錄成冊]』

81) 『[全羅道各邑所捉東徒數及所獲汁物并錄成冊]』

82) 송문수 : 홍농, 법성 일대 활동, 농민군 지도자로 활동했던 이현숙(법성포 鎭吏)에 의해 피체 효수 당해 순국. 이현숙도 효수당함.

83) 이관섭(李觀燮) : 『巡撫先鋒陣膽錄』 함평현감첩보. 『전남 동학농민혁명사』는 이관섭으로 오기.

84) 『[全羅道各邑所捉東徒數及所獲汁物并錄成冊]』

85) 『선봉진정보첩』 함평현감 첩보(1894.12.10)

86) 『各陣將卒成冊』 罪人錄(甲午十二月 日)

〈자료 2〉 전라도 서남부(무안 함평 영광) 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sup>87)</sup>

연번	참여자	참여내용	참여 지역	순국일 <sup>88)</sup>	순국 장소 <sup>88)</sup>	출신지 (본적)	유산	등록일	등록			검색 <sup>89)</sup> ○무안 ●영광 ◎함평
									직	1	2	
1	강대진 (姜大振)	강대진은 전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영광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후 1894년 12월 30일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영광	?~ 1894. 12.30.				2009. 11.25	○			●
2	강봉희 (姜鳳熙)	1887년 동학에 입도하여 1892년 심례 집회, 1894년 3월 백산봉기, 이후 함평전령과 나주성공격에 참여한 후 전사 순국함	전라도 부안	1863. 5.4. ~1894.				2006. 11.20	○			◎
3	고휴진 (高休鎭)	고휴진은 전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영광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후 1894년 12월 30일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영광	?~ 1894. 12.30.				2009. 11.25	○			●
4	공명오 (孔明五)	공명오는 전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7일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7.				2009. 11.25	○			◎
5	권풍식 (權豊植)	권풍식은 1894년 전라도 함평현감으로 재직중 동학당 암호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전봉준 등과 함께 일본공사관으로 이송되었고 법마루에서 재판을 받아 1895년 3월 '장일백(杖一百)'의 처벌을 받음	전라도 함평	1860. ~?				2009. 11.25	○			◎
6	김경선 (金京先)	김경선은 전주(接主)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1894년 12월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				2009. 11.25	○			◎
7	김경오 (金京五)	김경오는 전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5일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5.				2009. 11.25	○			◎
8	김관서 (金寬西)	김관서는 전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영광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후 1894년 12월 30일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영광	?~ 1894. 12.30.				2009. 11.25	○			●
9	김기봉 (金基鳳)	1894년 전남 무안지역 대접주 배상옥, 김응문, 김효문 등과 함께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하였으며 관군에게 체포되어 12월 처형당해 순국함	전라도 무안	1868. ~1894. 12.12.		(무안)		2009. 01.16	○			○

87)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검색(이하 등록참여자)에서 ‘무안’, ‘함평’, ‘영광’을 검색어로 하여 검색된 인명을 초성의 가나다 순으로 정리하고 중복된 인명은 제외하였다. 6월 25일 발표문에는 검색 정리한 196명과 추가 확인한 7명을 별도로 정리하였는데, 본고에서는 합하여 일련번호를 함께 부여하였다. 직권등록 159명, 1차 등록 37명, 2차 등록 7명이다.

10	김낙선 (金洛先)	김낙선은 제주로서 1894년 전라도 영광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됨	전라도 영광	?~?					2009. 11.25	○			●
11	김덕구 (金德九)	1894년 3월 형제들과 함께 동학농민혁명에 참여, 백산전투와 나주 고막원전투에 참전, 12월 8일 관군에 체포되어 처형당해 순국함	전라도 나주 무안	1868. 3.20. ~1894. 12.8.		(무안)	비석		2006. 10.04	○			○
12	김덕홍 (金德洪)	김덕홍은 제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뒤 1894년 12월 30일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30.					2009. 11.25	○			◎
13	김몽길 (金夢吉)	김몽길은 전라도 무안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면민에게 체포되어 관군에게 인계됨	전라도 무안	?~?					2009. 11.25	○			○
14	김몽치 (金蒙治)	김몽치는 전라도 영광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수성군(守城軍)에게 1894년 12월 체포됨	전라도 영광	?~?					2009. 11.25	○			●
15	김문조 (金文祚)	김문조는 1894년 8월 전라도 함평에서 동학에 입교한 뒤 11월 이화진을 따라 전라도 무안으로 갔다가 12월 4일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됨	전라도 함평	?~?					2009. 11.25	○			○ ◎
16	김복환 (金卜煥)	장성에서 동학접주로 활약하다가 동학농민혁명에 가담하여 공주전투 패전 후 남하하면서 관군과 일본군의 살육작전에 맞서 싸우다가 함평에서 전사 순국함	전라도 함평	1858. ~1894.					2005. 12.27	○			◎
17	김봉규 (金奉奎)	김봉규는 전라도 함평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1894년 12월 9일 옥에서 사망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9.					2009. 11.25	○			◎
18	김성서 (金成西)	김성서는 제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5일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5.					2009. 11.25	○			◎
19	김성오 (金成五)	김성오는 제주(據主)로서 전라도 함평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2일 체포되어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2.					2009. 11.25	○			◎
20	김시선 (金是先)	김시선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6일 전라도 함평에서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6.					2009. 11.25	○			◎
21	김시환 (金時煥)	김시환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9일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9.					2009. 11.25	○			◎
22	김여옥 (金汝玉)	김여옥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무안에서 체포되어 1894년 12월 9일 신문(訊問)후 순국함	전라도 무안	?~ 1894. 12.					2009. 11.25	○			○
23	김여정 (金汝正)	몽탄면 접주인 아버지 김응문과 함께 백산대회 이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여 체포된 뒤 처형당해 순국함	전라도 무안	1867. 5.3.~ 1894. 12.9.		(무안)	비석		2006. 11.20	○			○

24	김영구 (金永九)	1894년 형 김응문, 동생 김자문, 조카 김여정과 함께 무안지역 동학농민군으로 참여하였고, 함평 고막원전투에 참여한 후 체포되어 12월 처형당해 순국함	전라도 무안	1851. 9.19.~ 1894. 12.12.		(무안)	비석	2009. 01.16		○	◎
25	김영달 (金永達)	무장기포 후 문서송달 담당, 민보군에 체포되어 처형	전라도 고창/영광	1852.9.28.~ 1894.12.27.				2005. 12.27	○	○	●
26	김용경 (金龍京)	부친과 함께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여 전주성 전투에서 부상당한 부친을 업고 돌아옴	전라도 전주	1880.2.6.~ 1918.4.3.		(영광)		2019. 06.12		○	
27	김용덕 (金容德)	김용덕은 전주로서 1894년 전라도 영광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함	전라도 영광	?~?				2009. 11.25	○		●
28	김용택 (金容宅)	동학전주로서 장성 황룡촌 전투에 참전하여 부상 후 사망 순국함	전라도 영광함평	1858.12.25.~ 1916.4.27.				2005. 12.27	○		●
29	김우백 (金禹柏)	동학농민군으로 1894년 11월 무안지역에서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고문을 받고 병면된 후 후유증을 앓다 1904년 순국함	전라도 무안	1875.~ 1904. 11.19.		(무안)	(무안)	2008. 05.20		○	
30	김원숙 (金元叔)	김원숙은 전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8일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처형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8.				2009. 11.25	○		◎
31	김원실 (金元實)	김원실은 전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영광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후 1894년 12월 30일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영광	?~ 1894. 12.30.				2009. 11.25	○		●
32	김응문 (金應文)	무안 몽탄면의 전주로서 동생 김효문·김자문, 아들 김여정과 함께 무안지역 동학농민군으로 참여하였고, 함평 고막원전투에 참여한 후 체포되어 처형당해 순국함	전라도 무안	1894. 4.22.~ 1894. 12.8.		(무안)	유해 비석	2008. 05.20		○	◎
33	김익수 (金益洙)	김익수는 1894년 전라도 함평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5년 수성군에게 체포됨	전라도 함평	?~?				2009. 11.25	○		◎
34	김인오 (金仁五)	김인오는 전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5일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5.				2009. 11.25	○		◎
35	김재묵 (金在默)	동학농민군으로 참여하였으나 패전한 후 관군에 피체되어 옥고를 치르고 귀가	전남/고창 <sup>90)</sup>	1868.10.10.~ 1901.01.11.		(영광)		2006. 11.20		○	
36	김정필 (金定必)	김정필은 전주(鎭主)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1894년 12월 7일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7.				2009. 11.25	○		◎
37	김종근 (金鍾坤)	김종근은 전라도 무안 출신으로 배규인의 마부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28일 총살당하여 순국함	전라도 무안	?~ 1894. 12.28.				2009. 11.25	○		○
38	김진환 (金鎭煥)	장성에서 전주로 활동하다 공주방면 전투에 참여한 후 1894년 12월 함평에서 전사 순국함	전라도 함평	1862.~ 1894. 12.				2008. 05.20		○	◎

39	김춘경 (金春京)	김춘경은 전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후 1894년 12월 30일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30.					2009. 11.25	○			◎
40	김치오 (金治五)	김치오는 전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6일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6.					2009. 11.25	○			◎
41	김태서 (金台書)	김태서는 1894년 전라도 함평에서 전주 이은중을 따라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피신한 후 1899년 영학당 활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됨	전라도 함평	1855. ~?					2009. 11.25	○			◎
42	김태원 (金泰元)	김태원은 1894년 전라도 함평에서 전주 이백인을 따라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함 김풍중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	전라도 함평	?~?					2009. 11.25	○			◎
43	김풍중 (金豐宗)	가 1895년 1월 20일 전라도 영광 법성진에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음	전라도 영광	?~?					2009. 11.25	○			●
44	김학필 (金學必)	김학필은 전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7일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해남	?~ 1894. 12.7.					2009. 11.25	○			◎
45	김행로 (金行魯)	김행로는 1894년 3월 전봉준이 기포할 때 전라도 무안에서 송두옥 등과 함께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참여함	전라도 무안	?~?					2009. 11.25	○			○
46	남궁달 (南宮達)	남궁달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영광 법성진에서 체포되어 1895년 1월 20일 우진영(右鎭營)[전라도 나주]에 압송된 뒤 조사를 받음	전라도 영광	?~?					2009. 11.25	○			●
47	노덕팔 (盧德八)	노덕팔은 접주(接主)로서 전라도 함평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2일 체포되어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2.					2009. 11.25	○			◎
48	노덕휘 (魯德輝)	노덕휘는 전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5일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5.					2009. 11.25	○			◎
49	노명언 (魯明彦)	노명언은 대접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영광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뒤 1894년 12월 30일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영광	?~ 1894. 12.30.					2009. 11.25	○			●
50	노영학 (魯榮學)	노영학은 1894년 3월 백산봉기에 전라도 무안의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참여함	전라도 백산	?~?					2009. 11.25	○			○
51	노윤하 (魯允夏)	노윤하는 1894년 3월 백산봉기에 전라도 무안의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참여함	전라도 백산	?~?					2009. 11.25	○			○
52	노인경 (盧仁京)	노인경은 전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후 1894년 12월 30일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30.					2009. 11.25	○			◎

53	노홍상 (魯洪尙)	노홍상은 전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후 1894년 12월 30일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30.				2009. 11.25	○			◎
54	박겸오 (朴兼五)	박겸오는 전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후 1894년 12월 30일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30.				2009. 11.25	○			◎
55	박경중 (朴景仲)	박경중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9일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9.				2009. 11.25	○			◎
56	박경지 (朴京之)	박경지(眞名:京知)는 전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전라도 무안에서 체포됨	전라도 무안	?~?				2009. 11.25	○			○
57	박규상 (朴奎相)	무안지역에서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하다가 관군에게 체포되어 볼무재에서 12월 7일 화형당하여 순국함	전라도 무안	1849.~ 1894. 12.7.		(무안)		2009. 01.16		○		○
58	박기연 (朴淇年)	박기연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전라도 무안에서 체포됨	전라도 무안	?~?				2009. 11.25	○			○
59	박기옥 (朴淇玉)	동학접주로서 무안지역 전투 이후 현경면 평산리에 은신 중에 마을 사람의 밀고로 일본군에 체포되어 처형당해 순국함	전라도 무안	1848.~ 1894. 12.12.		(무안)		2009. 01.16		○		○
60	박기운 (朴沂雲)	박기운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전라도 무안에서 체포됨	전라도 무안	?~?				2009. 11.25	○			○
61	박돌암 (朴堉岩)	박돌암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13일 전라도 무안에서 나주 민병에게 체포됨	전라도 무안	?~?				2009. 11.25	○			○
62	박만중 (朴萬宗)	박만중은 전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후 1894년 12월 30일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30.				2009. 11.25	○			◎
63	박문팔 (朴文八)	박문팔은 전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후 1894년 12월 30일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30.				2009. 11.25	○			◎
64	박병하 (朴炳夏)	무안 접주 배상옥 등과 함께 동학에 입도하여, 1894년 이서면 전주로서 일서면 접주 박헌상과 함께 동학농민혁명에 참여	전라도 무안	1857. 4.15.~ 1894.		(무안)		2005. 12.27		○		○
65	박복암 (朴卜巖)	박복암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영광 법성령에서 체포되어 1895년 1월 20일 우진영(右巖營)(전라도 나주)에 압송된 뒤 조사를 받음	전라도 영광	?~?				2009. 11.25	○			●
66	박성실 (朴成實)	박성실은 1894년 전라도 무안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함	전라도 무안	?~?				2009. 11.25	○			○

67	박순서 (朴順西)	박순서는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무안에서 체포되어 1894년 12월 8일 총살당하여 순국함	전라도 무안	?~ 1894. 12.8.				2009. 11.25	○			○
68	박연교 (朴淵敎)	박연교는 1894년 3월 백산봉기에 전라도 무안의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참여함	전라도 백산	?~?				2009. 11.25	○			○
69	박영삼 (朴永三)	박영삼은 전라도 무안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었으나 1894년 12월에 풀려남	전라도 무안	?~?				2009. 11.25	○			○
70	박용무 (朴用武)	박용무는 제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후 1894년 12월 30일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30.				2009. 11.25	○			◎
71	박인지 (朴仁之)	박인지는 도령기수(都令旗手)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영광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후 1894년 12월 30일 일본진영에..	전라도 영광	?~ 1894. 12.30.				2009. 11.25	○			●
72	박인화 (朴仁和)	1894년 3월 무안에서 배규인 등 15인과 함께 백산봉기에 참여하였고, 나주 전투 중에 좌측 다리에 총상을 입고 피신했음	전라도 고부 백산	1847. 8.14. ~ 1926. 10.21.	(무안)			2008. 05.20			○	○
73	박정환 (朴正煥)	박정환은 제주로서 전라도 무안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에 수감된 후 1894년 12월 28일 총살당하여 순국함	전라도 무안	?~ 1894. 12.28.				2009. 11.25	○			○
74	박준상 (朴俊尙)	박준상은 1894년 9월 전라도 함평에서 동학에 입교한 뒤 12월 3일 이화진을 따라 전라도 무안으로 갔다가 12월 4일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됨	전라도 함평	?~?				2009. 11.25	○			◎
75	박중양 (朴仲良)	박중양은 제주로서 1894년 7월 전라도 영광·무장에서 탐리(貪吏)를 징치하고 군기(軍器)를 몰수하는 활동을 함	전라도 영광	?~?				2009. 11.25	○			●
76	박채현 (朴采玄)	박채현은 제주로서 전라도 무안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면민에게 체포되어 관군에게 인계됨	전라도 무안	?~?				2009. 11.25	○			○
77	박춘서 (朴春西)	박춘서는 대접주(大接主)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9일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9.				2009. 11.25	○			◎
78	박치경 (朴致京)	박치경은 제주로서 전라도 무안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면민에게 체포되어 관군에게 인계됨	전라도 무안	?~?				2009. 11.25	○			○
79	박치상 (朴致相)	무안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여 나주 고막원전투에서 우측 대퇴부에 총상을 맞고 퇴비창고에 숨었다가 귀가	전라도 무안	1869.1.28. ~1949.7.1.	(무안)			2020. 11.02			○	○
80	배규찬 (裵奎瓚)	배규찬은 동학농민군 지도자 배상옥의 동생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11일 전라도 무안에서 체포되어 처형당해 순국함	전라도 무안	?~ 1894. 12.11.				2009. 11.25	○			○

81	배병만 (裨炳慢)	전남 서남부 일대의 도전주 배상옥의 종질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가 관군에게 체포되어 처형당하여 순국함	전라도 무안	1872.~ 1894. 12.14.		(무안)		2005. 12.27	○			○
82	배병현 (裨炳顯)	전남 서남부 일대의 도전주 배상옥의 종질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가 관군에게 체포되어 처형당하여 순국함	전라도 무안	1864.~ 1894. 12.14.		(무안)		2005. 12.27	○			○
83	배병환 (裨炳煥)	전남 서남부 일대의 도전주 배상옥의 종질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가 관군에게 체포되어 처형당하여 순국함	전라도 무안	1862.12.28. ~1895.1.7.		(무안)		2005. 12.27	○			○
84	배상옥 (裨相玉)	대접주로서 1894년 3월 백산전투, 9월 삼례전투 등에 참여한 후 12월 24일 체포되어 처형당하여 순국함	무안 나주	1863.~ 1894. 12.24.		(무안)		2008. 05.20	○			○
85	배용보 (裨用甫)	무안지역에서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함	전라도 무안	1871.4.18.~ 1944.11.14.		(무안)		2009. 01.16		○		○
86	배정기 (裨楨基)	동생 배달기와 함께 1894년 무안 지방의 접주로 활동하다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후 피신했	전라도 무안	1862.12.28.~ 1941.2.14.		(무안)		2008. 05.20		○		○
87	백용선 (白用善)	무안지역에서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하였으며, 12월 농민군들에게 소를 잡아 준 후 관군에게 쫓기다 병으로 순국함	전라도 무안	1869. ~1895.		(무안)		2009. 01.16		○		○
88	봉윤정 (奉允正)	봉윤정은 전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영광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뒤 1894년 12월 30일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영광	?~ 1894. 12.30.				2009. 11.25	○			●
89	봉윤홍 (奉允弘)	봉윤홍은 전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영광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뒤 1894년 12월 30일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영광	?~ 1894. 12.30.				2009. 11.25	○			●
90	서기현 (徐基鉉)	서기현은 전라도 함평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10일 체포됨	전라도 함평	?~?				2009. 11.25	○			◎
91	서여칠 (徐汝七)	서여칠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전라도 무안에서 체포됨	전라도 무안	?~?				2009. 11.25	○			○
92	서치운 (徐致雲)	서치운은 전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후 1894년 12월 30일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30.				2009. 11.25	○			◎
93	송관호 (宋寬浩)	송관호는 1894년 3월 백산봉기에 전라도 무안의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참여함	전라도 백산	?~?				2009. 11.25	○			○
94	송담신 (宋談臣)	송담신은 대정(大正)으로서 1894년 전라도 함평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함	전라도 함평	?~?				2009. 11.25	○			◎
95	송두욱 (宋斗旭)	송두욱은 1894년 3월 전봉준이 기포할 때 전라도 무안에서 배규인(배상옥)등과 함께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참여함	전라도 무안	?~?				2009. 11.25	○			○



96	송문수 (宋文水)	송문수(異名:文洙)는 동학농민군 지도자로서 1894년 1차, 2차 봉기시 전라도 무장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3일 전라도 영광에서 민보군에게 체포되어 처형됨당해 순국함.	전라도 무장	?~ 1894. 12.3.					2009. 11.25	○			●
97	신항용 (申恒用)	신항용은 전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영광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뒤 1894년 12월 30일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영광	?~ 1894. 12.30.					2009. 11.25	○			●
98	양경수 (梁京洙)	양경수는 동학농민군 지도자로서 전라도 영광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영광	?~ 1894. 12.					2009. 11.25	○			●
99	양대숙 (梁大叔)	양대숙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전라도 무안에서 체포됨	전라도 무안	?~?					2009. 11.25	○			○
100	오덕민 (吳德敏)	오덕민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전라도 무안에서 체포됨	전라도 무안	?~?					2009. 11.25	○			○
101	오인겸 (吳仁兼)	1894년 전라도 무안에서 같은 마을 친구인 배용보, 노병용과 같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함	전라도 무안	1876.~ 1948.	(무안)				2019. 06.12		○	○	
102	오정운 (吳正運)	오정운은 1894년 10월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시 전라도 영광에서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참여함	전라도 영광	?~?					2009. 11.25	○			●
103	오태숙 (吳泰淑)	오태숙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영광에서 체포되어 1894년 12월 5일 참형당하여 순국함	전라도 영광	?~ 1894. 12.5.					2009. 11.25	○			●
104	오홍순 (吳弘順)	오홍순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영광 법성진에서 1895년 1월 20일 체포되어 조사를 받음	전라도 영광	?~?					2009. 11.25	○			●
105	윤경옥 (尹景郁)	윤경옥은 전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6일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6.					2009. 11.25	○			◎
106	윤문여 (尹文汝)	윤문여는 전라도 무안에서 배상옥을 따르면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28일 총살당하여 순국함	전라도 무안	?~ 1894. 12.28.					2009. 1.25	○			○
107	윤상근 (尹相近)	윤상근은 전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후 1894년 12월 30일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30.					2009. 11.25	○			◎
108	윤석호 (尹石浩)	윤석호는 전라도 무안에서 배상옥을 따르면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28일 총살당하여 순국함	전라도 무안	?~ 1894. 12.28.					2009. 11.25	○			○
109	윤영국 (尹永菊)	윤영국은 전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후 1894년 12월 30일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30.					2009. 11.25	○			◎

110	윤정보 (尹正甫) 91)	윤정보는 동학농민군 지도자로서 동학 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9일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9.				2009. 11.25	○			◎
111	윤정보 (尹正甫)	윤정보는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1894년 12월 11일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11.				2009. 11.25	○			◎
112	윤찬진 (尹贊辰)	윤찬진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9일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9.				2009. 11.25	○			◎
113	윤태한 (尹泰翰)	접주로서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침산전투, 웅진산전투, 무안 고막원전투 등에 참전하고 은신하다 귀가함	전라도 나주 무안	1857. 8.15. ~1932.				2006. 10.04	○			○
114	이경식 (李京植)	이경식은 접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후 1894년 12월 30일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30.				2009. 11.25	○			◎
115	이계성 (李季成)	이계성은 접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후 1894년 12월 30일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30.				2009. 11.25	○			◎
116	이곤진 (李坤辰)	이곤진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5일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5.				2009. 11.25	○			◎
117	이관섭 (李觀燮)	이관섭은 접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7일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7.				2009. 11.25	○			◎
118	이관현 (李官現)	영광, 함평, 나주 등지의 전투에 동학농민군으로 참여한 뒤 행방불명됨	전라도 영광	1865. 7.1.~?	(영광)			2008. 05.20	○	○		● ◎
119	이돈섭 (李敦燮)	이돈섭은 집강(執綱)으로서 1894년 7월 전라도 함평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함	전라도 함평	1867.~?				2009. 11.25	○			◎
120	이돈창 (李敦倡)	이돈창은 집강(執綱)으로서 1894년 7월 전라도 함평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함	전라도 함평	1870.~?				2009. 11.25	○			◎
121	이두연 (李斗連)	이두연은 접주(接主)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1894년 12월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				2009. 11.25	○			◎
122	이만순 (李萬順)	이만순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영광 법성진에서 1895년 1월 20일 체포되어 조사를 받음	전라도 영광	?~?				2009. 11.25	○			●
123	이목헌 (李穆憲)	이목헌은 집강(執綱)으로서 1894년 7월 전라도 함평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함	전라도 함평	1869. ~?				2009. 11.25	○			◎
124	이민홍 (李敏弘)	이민홍은 1894년 3월 백산봉기에 전라도 무안의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참여함	전라도 백산	?~?				2009. 11.25	○			○
125	이백인 (李白仁)	이백인은 접주로서 1894년 전라도 함평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함	전라도 함평	?~?				2009. 11.25	○			◎

126	이병렬 (李炳烈)	이병렬은 성찰(省察)을 따르는 자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13일 전라도 무안에서 나주 민병에게 체포됨	전라도 무안	?~?				2009. 11.25	○			○
127	이병화 (李炳化)	이병화는 전라도 무안에서 부친 이여춘(이동근)과 함께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4월 26일에 순국함	전라도 무안	1866.10.11. ~1894.4.26.	(무안)			2025. 04.10			○	○
128	이상삼 (李相三)	이상삼(異名:象三)은 아전 출신 동학농민군 지도자로서 전라도 함평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뒤 수성장(守城將) 행세를 하였다가 1894년 12월 9일 체포된 뒤 같은 달 30일 일본군 진영에서 총살됨	전라도 함평	?~ 1894. 12.30.				2009. 11.25	○			◎
129	이순백 (李順伯)	이순백은 전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후 1894년 12월 30일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30.				2009. 11.25	○			◎
130	이여춘 [이동근] (李汝春) [李東根]	이여춘(이동근, 諱名 이상술)은 1894년 3월 전봉준이 기포할 때 전라도 무안에서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4월 26일에 아들 이병화와 함께 순국함	전라도 무안	1845. 6.6.~ 1894. 4.26.				2009. 11.25	○			○
131	이오서 (李五瑞)	이오서는 전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후 1894년 12월 30일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30.				2009. 11.25	○			◎
132	이응덕	이응덕은 1894년 7월 동학에 입교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함	전라도 함평	?~1915. 8.27.				2009. 11.25	○			◎
133	이유수 (李儒洙)	이유수는 집강(執綱)으로서 1894년 7월 전라도 함평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함	전라도 함평	1860. ~?				2009. 11.25	○			◎
134	이유영 (李儒英)	이유영은 교수(敎授)로서 1894년 7월 전라도 함평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함	전라도 함평	1864. ~?				2009. 11.25	○			◎
135	이은중 (李殷仲)	이은중은 전주로서 전라도 함평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체포되어 처형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				2009. 11.25	○			◎
136	이응모 (李應模)	이응모는 1894년 8월 전라도 함평에서 동학에 입교한 뒤 11월 이화진을 따라 전라도 무안으로 갔다가 12월 4일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됨	전라도 함평	?~?				2009. 11.25	○			◎
137	이익선 (李益善)	이익선은 접주(接主)로서 전라도 무안군 망운목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체포되어 우진영(右鎭營)[전라도 나주]으로 압송당함.	전라도 무안	?~?				2009. 11.25	○			○
138	이익성 (李益成)	이익성은 전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후 1894년 12월 30일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30.				2009. 11.25	○			◎

139	이재면 (李在冕)	이재면(異名:滋冕)은 전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5일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5.				2009. 11.25	○			◎
140	이재민 (李在民)	이재민은 접주(接主)로서 전라도 함평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2일 체포되어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2.				2009. 11.25	○			◎
141	이재복 (李在卜)	이재복은 전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8일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처형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8.				2009. 11.25	○			◎
142	이중훈 (李鍾勳)	대접주의 지위로 2차 봉기시에 손병희의 동학농민군 좌익장을 맡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함	전라도 영광 법성포	1856.~ 1930.				2006. 11.20	○			●
143	이창규 (李昌奎)	이창규는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				2009. 11.25	○			◎
144	이창주 (李昌朱)	이창주는 전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후 1894년 12월 30일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30.				2009. 11.25	○			◎
145	이춘익 (李春益)	이춘익은 접주(接主)로서 전라도 함평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5일 체포되어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5.				2009. 11.25	○			◎
146	이태형 (李泰亨)	1894년 함평접주 이화진과 함께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하였으며, 12월 '이고창'의 밀고로 체포되어 나주에서 처형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1841.~ 1894. 12.24.		(함평)		2009. 01.16		○		◎
147	이현조 (李獻祚)	이현조는 1894년 전라도 함평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5년 수성군에게 체포됨	전라도 함평	?~?				2009. 11.25	○			◎
148	이화량 (李化良)	이화량은 전주로서 전라도 함평지역에서 활동하다가 관군에게 체포되어 1894년 11월 5일 총살당하여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1.5.				2009. 11.25	○			◎
149	이화진 (李化辰)	이화진은 동학농민군 지도자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5일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5.				2009. 11.25	○			◎
150	임경윤 (林京允)	1894년 4월 23일 장성 월평리전투에 참여하고 2차봉기 시 이화진, 장공삼 등과 농민군을 규합하여 삼례 출진	전라도 함평영광	1863.6.18.~ 1923.9.21.		(함평)		2006. 11.20	○			● ◎
151	임기운 (林琪雲)	임기운은 1894년 10월 전라도 무안에서 송관호 등과 함께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동학농민혁명2차 봉기에 참여함	전라도 무안	?~?				2009. 11.25	○			○

152	임명진 (林明辰)	임명진은 제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영광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뒤 1894년 12월 30일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영광	?~1894.12.30.				2009.11.25	○			●
153	임운홍 (林雲洪)	임운홍은 1894년 3월 진봉준이 기포할 때 전라도 무안에서 송관호 등과 함께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참여함	전라도 무안	?~?				2009.11.25	○			○
154	임천서 (林天瑞)	1894년 3월 1차 봉기에 참여하였으며,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여러 전투에 참여한 후 11월 함평에서 체포되어 1895년 3월 포살당해 순국함. <sup>90)</sup>	고창	1864.~1895.3.	(옥구)			2008.05.20		○		
155	임춘경 (林春京)	임춘경은 1894년 전라도 함평에서 제주 이백인을 따라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함	전라도 함평	?~?				2009.11.25	○			◎
156	임치덕 (林致德)	임치덕은 1894년 7월 전라도 영광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여 농민군에게 배를 주었다가 체포됨	전라도 영광	?~?				2009.11.25	○			●
157	임학 (林鶴)	임학은 점사(接司)로서 전라도 무안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면민에게 체포되어 관군에게 인계됨	전라도 무안	?~?				2009.11.25	○			○
158	장경광 (張京光)	1894년 함평에서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하였으며 이후 12월 무안군 해제면으로 피산함	전라도 함평	1868.9.9.~1922.7.15.	(무안)			2009.01.16	○			◎
159	장경삼 (張京三)	동학도로 동생 장옥삼·장공삼 등과 함께 1894년 영광·무안지역에서 벌어진 전투에 참여하여 부상을 입고 피신, 이후 체포되어 처형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1842.5.14.~1894.12.9.	(함평)			2008.05.20	○			◎ ◎ ●
160	장공삼 (張公三) <sup>93)</sup>	동학도로써 형 장경삼·장옥삼 등과 함께 1894년 영광·무안지역에서 벌어진 전투에 참여하여 부상을 입고 피신, 이후 체포되어 처형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1854.12.12.~1895.2.17.	(함평)			2008.05.20	○			◎ ◎ ●
161	장소회 (張所回)	장소회는 제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후 1894년 12월 30일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1894.12.30.				2009.11.25	○			◎
162	장옥삼 (張玉三)	처 조카 이화진의 권유로 동학에 입도하였으며, 형 장경삼, 동생 장공삼 등과 함께 영광 무안지역에서 벌어진 전투에 참여하던 중 부상을 당하고 피신, 이후 피체되어 처형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1851.3.7.~1895.2.17.	(함평)			2006.11.20	○	○		◎ ○ ●
163	장용진 (張用辰)	장용진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무안에서 체포되어 1894년 12월 9일 신문(訊問) 후 순국함	전라도 무안	?~1894.12.				2009.11.25	○			○
164	장재명 (張在明)	1894년 전라도 무안 석용리에서 훈전 대장으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함	전라도 무안	1862.~1916.	(무안)			2019.06.12			○	○

165	장현국 (張賢局)	장현국은 전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후 1894년 12월 30일 일본전쟁에서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30.				2009. 11.25	○			◎
166	장호진 (張昊鎭)	1894년 영광접주로서 동학농민혁명 전시기에 걸쳐 동학농민군으로 참여함	전라북도 영광군	1871.1.3. ~1949.8		(영광)		2006. 11.20	○			●
167	전기섭 (全琪燮)	전기섭은 집강(執綱)겸 도집(都執)으로서 1894년 전라도 함평에서 동학농민 혁명에 참여함	전라도 함평	?~?				2009. 11.25	○			◎
168	전장하 (全章夏)	동학농민혁명 당시 군포관 및 군자금 조달을 담당하였으며 이후 나주지역 전투에 참여하였다가 순국함	전라도 나주	1860.3.23~ 1894.11.20		(함평)		2009. 01.16		○		
169	전창섭 (全昌燮)	1894년 나주 지역에서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하였으며, 나주성 복문 안에서 일본군과의 전투 중 사망 순국함	전라도 함평 나주	1854. 7.20. ~1894.		(함평)		2009. 01.16	○			◎
170	전후겸 (全厚兼)	전후겸은 전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영광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뒤 1894년 12월 30일 일본전쟁에서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영광	?~ 1894. 12.30.				2009. 11.25	○			●
171	전희중 (田希仲)	전희중은 1894년 전라도 함평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5년 수성군에게 체포됨	전라도 함평	?~?				2009. 11.25	○			◎
172	정경택 (鄭京宅)	정경택(眞名 : 敬澤)은 전라도 함평, 무안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10일에 체포됨	전라도 함평	?~?				2009. 11.25	○			○ ◎
173	정곤서 (鄭坤西)	정곤서는 전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6일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1894. 12.6.				2009. 11.25	○			◎
174	정기경 (丁基京)	정기경은 대접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영광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뒤 1894년 12월 30일 일본전쟁에서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영광	?~1894. 12.30.				2009. 11.25	○			●
175	정동화 (鄭東華)	정동화는 나주 전주 나동환의 부인으로 나동환을 본가로 파신시켰고, 대신 체포되어 고문을 받아 그 후유증으로 1913년에 사망 순국함	전라도 나주	1848.~ 1913. 5.5.		** (함평)		2025. 04.10	○			◎
176	정삼여 (鄭三汝)	무안 지방에서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후 관군에게 체포되어 처형 당해 순국함	전라도 무안	1847.11.27. ~1894.12.8.		(함평)		2008. 09.10		○		○
177	정안면 (鄭安冕)	정안면은 집강(執綱)겸 접주로서 1894년 전라도 함평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함	전라도 함평	?~?				2009. 11.25	○			◎
178	정여삼 (鄭汝三)	정여삼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무안에서 체포되어 1894년 12월 9일 신문(訊問) 후 순국함	전라도 무안	?~ 1894. 12				2009. 11.25	○			○
179	정원오 (鄭元五)	정원오는 전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6일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6.				2009. 11.25	○			◎

180	정평오 (鄭平五)	함평의 대접주로 1894년 4월 동학농민 군에 참여한 후, 12월 파신도중 관군에 게 체포되어 처형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1847.~ 1894. 12.11.				2008. 05.20	○			◎
181	정해옥 (鄭海郁)	정해옥은 집강(執綱)겸 접사(接司)로서 1894년 전라도 함평에서 동학농민혁 명에 참여함	전라도 함평	?~?				2009. 11.25	○			◎
182	정훈직 (丁薰直)	정훈직은 동학농민군 지도자로서 1894년 전라도 영광에서 동학농민혁 명에 참여함	전라도 영광	?~?				2009. 11.25	○			●
183	조광오 (趙光五)	조광오는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전라도 무안에서 체포됨	전라도 무안	?~?				2009. 11.25	○			○
184	조덕근 (趙德根)	조덕근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 가 전라도 무안에서 체포되어 1894년 12월 9일 신문(訊問) 후 순국함	전라도 무안	?~ 1894. 12				2009. 11.25	○			○
185	조명구 (曹明九)	조명구는 접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 여하였다가 전라도 영광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뒤 1894년 12월 30일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영광	?~ 1894. 12.30.				2009. 11.25	○			●
186	조병묵 (曹丙默)	조병묵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 가 1894년 12월 6일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됨	전라도 함평	?~?				2009. 11.25	○			◎
187	조병연 (趙炳淵)	조병연은 1892년 전라도 무안에서 동 학에 입교한 뒤 1894년 동학농민혁명 에 참여함	전라도 무안	1865.~ 1925. 7.28.				2009. 11.25	○			○
188	최기현 (崔琪鉉)	동학접주로 무안지역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나주전투에서 순국함	전라도 무안·나주	1866.~ 1894.12.27		(무안)		2009. 01.16		○		○
189	최도열 (崔道烈)	함평의 대접주로 1894년 4월 동학농민 군에 참여한 후 12월 파신도중 관군에 게 체포되어 처형당해 순국함 <sup>94)</sup>	강원도 홍천	1870~ 1894		(홍천)		2008. 05.20		○		
190	최선현 (崔善鉉)	동학접주로 무안지역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나주전투 이후 체포되어 처형당해 순국함	전라도 무안 나주	1852.12.9.~ 1894.12.27.		(무안)		2009. 01.16		○		○
191	최성모 (崔聖模)	무안지역 동학농민군으로 참여하여 활 동하다 관군에 잡혀 화형당해 순국함	전라도 무안	1848.~ 1894.		(무안)		2009. 01.16		○		○
192	최시철 (崔時澈)	중조부 최재신, 종제 최평침과 함께 1894년 3월 무장 기포, 고부 황토 현·부안 백산전투 등에 참여한 후 무 안에서 체포되어 처형당해 순국함	충청 전라	1870. 12.5.~ ~1894. 12.5.		(영광)		2008. 05.20		○		○
193	최유헌 (崔有憲)	최유헌은 접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 여하였다가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후 1894년 12월 30일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30.				2009. 11.25	○			◎
194	최윤주 (崔潤柱)	1894년 3월 무장봉기에 참여하여 영 광, 장성 일대에서 모병활동을 하고 화 승포 명사수로 황룡대첩에 참전	무장 고창 영광	1870. 12.15. ~1949				2006. 11.20	○			●

195	최이현 (崔二玄)	최이현은 전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후 1894년 12월 30일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30.				2009. 11.25	○		◎
196	최장현 (崔瑋鉉)	동학접주로 무안지역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나주전투에서 순국함	전라도 무안 나주	1838.~ 1894.12.27.		(무안)		2009. 01.16		○	○
197	최재신 (崔載愼)	손자 최평집, 종손자 최시철과 함께 1894년 3월 무장 기포, 고부 황토현·부안 백산전투 등에 참전한 후 무안에서 체포되어 처형당해 순국함	충청 전라	1829. 6.6.~ 1895. 2.14.		(영광)		2008. 05.20		○	○
198	최재형 (崔載衡)	최재형은 1894년 10월 전라도 영광에서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에 참여함	전라도 영광	?~?				2009. 11.25	○		●
199	최평집 (崔平執)	부친 최재신, 종형 최시철과 함께 1894년 3월 무장에서 기포하였으며, 이후 장성 황룡촌, 고막포전투 등에 참전, 피체되었다 상처 악화로 석방됨	충남 전라/장성 <sup>89)</sup>	1872. 12.12.~?		(영광)		2006. 11.20		○	
200	한백룡 (韓白龍)	한백룡은 대정(大正)으로서 1894년 7월 전라도 함평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함	전라도 함평	1871.~?				2009. 11.25	○		◎
201	한용준 (韓用準)	한용준은 1894년 전라도 무안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같은 해 12월 고막원 전투에서 패하여 피살한 뒤 1895년 순국함	전라도 무안	1865. 4.10.~ 1895.				2009. 11.25	○		○
202	홍곤삼 (洪坤三)	홍곤삼은 전라도 함평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5년 1월 19일 체포되어 우진영(右鎭營)(전라도 나주)으로 압송된 후 조사를 받음	전라도 함평	?~?				2009. 11.25	○		◎
203	황상련 (黃相連)	황상련은 전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영광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뒤 1894년 12월 30일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영광	?~ 1894. 12.30.				2009. 11.25	○		●

88) 순국일자 : 출생·사망연월을 순국일로 표기하였다.

89) 순국장소 : 무안읍 교촌리 송림마을 ‘차밭머리’, 무안읍성 남문 밖 불무제 등이 처형당하였다고 한다. 장소 등에 대한 것은 구전자료도 모두어 정리할 필요가 있다.

90) 참여지역 : 누리집 참여자 - 전남, 재단 참여자 - 고창

91) 윤정보(尹正甫) : 동명으로 2인 등록. 처형 당해 순국한 일자만 다름. ?~1894.12.9., ?~1894.12.11. 2009.11.25. 등록일자는 같음.

92) 참여지역 : 누리집 참여자 - 1894년 3월 고창봉기에 참여함



- 
- 93) 장공삼(張公三) : 동명으로 2인 등록. 서로 다른 인물로 보임. 충청도 홍주 장공삼 (?~1894.12.10.)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10일 충청도 홍주에서 사망함. 2009.11.25. 등록
- 94) 참여지역 : 누리집 참여자 - 1894년 10월 홍천 서석면 품암리 동학농민군으로 참여하였으며 서석전투 중 사망함.
- 95) 참여지역 : 누리집 참여자 - 충남 전라, 재단 참여자 - 장성



# 충청 지역 동학농민혁명 등록 참여자의 활동과 성격

김 양 식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소장

## 1. 머리말

## 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출생과 사망

## 3.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참여 지역과 활동

## 4. 동학농민혁명 이후의 삶

## 5. 맺음말



## 1. 머리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수십만명에 이르지만, 그 실상이 제대로 밝혀진 바는 없다. 특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음지에 있었을 뿐 아니라, 역적의 자식으로 살아온 후손들 역시 선대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다행히 2004년 3월 5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그해 9월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 회복 심의 위원회’가 출범하여 본격적으로 참여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17년 12월부터는 특별법이 개정되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등록하게 되었다.

2004년부터 2024년 12월 현재 등록된 참여자는 총 3,903명으로, 그 가운데 충청도에서 활동한 참여자는 총 1,228명이다. 그 가운데 1차 등록 149명, 2차 등록 15명, 직권등록 1,064명이다. 충청도에서만 참여한 동학농민군 외에 타지역 출신으로 충청도에서도 활동한 참여자도 포함하였다. 한 예로 전봉준의 경우 주로 활동한 지역이 전라도이지만 충청도에서도 활동하여 충청도 참여자로 분류하였다.

연구방법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제공한 참여자 등록 엑셀파일을 분석하였다. 이 파일에는 참여자의 생몰연대 · 본적 · 활동지역 · 활동내용 등 다양한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 이를 통해 확인 가능한 데이터 통계를 기반으로 정량적으로 분석하되, 구체적인 사례나 내용은 참여자 관련 자료나 역사적 기록물을 통해 정성적인 접근을 하였다.

충청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관한 분석은 이미 충남지역 참여자에 대한 분석이 시도된 바가 있다.<sup>1)</sup> 여기서는 기존 연구를 기반으로 충남 외에 충북지역까지 포함해 충청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생애 활동과 성격에 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출생과 사망

### 1) 출생

충청도 참여자 1,228명 가운데 출생연도가 밝혀진 인물은 22.6%이다. 그 가운데 최고령자는 1821년생 임재수이다. 임재수는 충북 단양 출신으로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하다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1895년 3월에 장 일백에 삼천리 유배형을 받은 인물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동학농민혁명 당시 73세였던 임재수가 단양 출신이라는 점이다. 단양은 충청지역에서 가장 먼저 동학이 전파된 곳이다.

단양에 동학이 알려진 것은 수운 최제우가 활동하던 1860년대 초부터이다. 단양에 사는 민사엽은 1862년 12월에 동학 접주로서 활동하였다. 이 때문에 최제우가 처형된 이후 해월 최시형은 1871년에 경상도 영해에서 일어난 이필제난 이후 삼엄해진 감시망과 동학에 대한 탄압을 피해 영춘·영월·정선 등지로 옮겨다니면서 비밀포교지를 만들고 동학을 은밀히

---

1) 정을경, 「혁명과 독립운동의 연관성- 충남지역 동학농민군 분석을 통해」 『동학학보』, 2022.

전파할 수 있었다. 한때 최시형은 단양 정석현 집에서 이름을 숨기고 머슴살이를 하다 정선으로 거처를 옮긴 일도 있었다.

해월은 보다 안전한 곳을 찾던 중, 영춘 장현곡에서 1872년 3월부터 1874년 1월까지 약 2년간 머문 뒤 단양 대강면 도솔봉 밑에 있는 절골(寺洞, 현 단양군 대강면 사동리)로 1874년 4월초에 이사하였다. 이 때부터 동학은 점점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여, 해월이 머무르는 절골은 점점 동학도들로 넘쳐났다. 동학 조직도 해월 중심의 단일지도체제가 자리 잡고 날로 확대되었다. 동학도인 역시 점점 늘어났다. 해월은 더 넓은 숙소가 있는 이웃 마을인 송고(일명 새두둑, 현 단양군 대강면 신구리)로 1875년 2월에 옮겨 살았다.

이 때부터 동학에 대한 입소문이 크게 나면서 동학도인 역시 급속히 증가하였다. 해월을 찾아와 동학 수도절차를 묻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그러자 해월은 1880년 6월에 인제 갑둔리에서 『동경대전』을 간행하고, 다음 해 1881년에는 단양 남면 천동(샘골)에 사는 여규덕의 집에서 『용담유사』를 간행하여 배포하였다. 이를 계기로 동학은 점차 충청도 전역으로 확산되어, 1883년경에 이르면 청주, 충주, 청풍, 괴산, 연풍, 진천, 공주 등지에서 동학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따라서 1880년 전후 단양은 동학이 충청도 전역으로 확산되는 보금자리 역할을 하였는데, 이때 단양과 청풍 등지에서 해월과 함께 활동한 인물이 성두한의 아버지 성종연, 강차주(강수), 전중삼, 김봉암 등이다. 성종연·강차주는 1894년에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하였을 뿐 아니라, 성종연의 경우 그의 아들 성두한을 비롯해 성두한의 6촌형제들까지 동학에 가입시

켜 활동하도록 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충북 북부지역 4군의 동학농민혁명은 1880년대부터 조직화된 동학을 배경으로 전개될 수 있었다.<sup>2)</sup>

이처럼 단양 출신 임재수를 비롯해 1820년대생을 시작으로 그 이후 출생자들이 충청지역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는데, 1830년대생은 12명, 1840년대생은 28명, 1850년대생은 79명, 1860년대생은 98명으로 점점 많아졌다. 그러다 1870년대생은 54명, 1880년대생은 1명으로 급감하였다. 1880년대생 1명은 1880년에 전북 여산에서 출생한 이상우로, 전라도 여산 마산도소에서 봉도에 임명되어 각종 문서 대필업무를 담당하였고 논산 황학대전투에서 전사한 인물이다. 이것으로 보아 충청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동학농민군은 1860년대생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1850년대생이었다. 1850-60년대생이 출생연도를 알 수 있는 동학농민군 277명 가운데 63.9%에 이른다. 이들은 1894년에 25-45세로, 30대 전후의 청중년층이 동학농민군의 주축이었음을 엿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1850년대생인 서장옥, 박인호, 김연국, 임기준, 1860년대생인 손병희, 문장준 등이다.

이들의 충청도 출생지역은 다양하였다. 본적이 확인 가능한 참여자는 모두 171명이다. 그 가운데 충남 103명(태안 26명, 서산 25명, 예산 14명, 공주 10명, 아산 7명, 논산 6명, 금산·홍성 각 4명, 서천 3명, 부여 2명, 천안 1명), 충북 28명(청주 10, 옥천 6명, 보은 4명, 괴산·음성·진천·영동 각 2명), 충청도 1명이다. 나머지는 강원도 4명, 경기도 5명, 경북 3명, 서울 3명, 전북 13명 등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

2) 신영우, 「성두한과 충북 북부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충북학』 18, 2016, 29-30쪽.



첫째, 전반적으로 충청지역 동학농민군이 활발히 활동하던 지역일수록 충청도를 본적으로 한 참여자가 많았다. 동학농민혁명기 충청지역은 2월부터 모든 지역으로 동학이 확산되고 6월 하순 일본의 경복궁 점령과 청일 전쟁을 계기로 동학도들이 봉기하였을 뿐 아니라, 9월 동학교단의 기포령에 따라 거의 모든 지역에서 동학도들이 총봉기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본적이 충청도 전역에 걸쳐 있는 것은 당연하다.

둘째, 태안·서산·예산지역에서 출생한 참여자의 등록이 가장 많은데, 그 이유는 이들 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이 활발히 전개된 데다 참여자의 회고록이 남아 있고 1965년에 천도교 태안교구에서 작성한 『갑오동학혁명 당시 순교자 명단』이 이른 시기에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충북 북부지역은 성두한을 중심으로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진 곳이다. 이곳에서 활동한 참여자로 등록된 인원은 단양 성두한·김선달, 충주 김성철, 제천 김영진, 영춘 박명수, 청풍 황거복 등 모두 43명이나, 본적이 충청도로 명시된 참여자는 한 명도 없다. 그 이유는 경기도 양평 출신으로 충주에서 활동한 홍순옥(1868년생, 1차 등록) 외에는 42명 모두 기록에서 확인되는 참여자를 직권 등록하였기 때문이다. 즉, 참여자의 유족 신청으로 등록된 참여자가 없다. 앞으로 충북 북부지역 참여자 유족을 적극 찾아낼 필요가 있다.

## 2) 사망

충청도 참여자 1,228명 가운데 사망연도가 확인되는 인원은 728명으로 절반이 약간 넘는 59.2%이다. 그 가운데 1894년에 사망한 참여자는 사망 연도가 확인되는 728명 가운데 82.1%인 597명에 이른다. 동학농민혁명 와중에 사망한 참여자가 많은 것은 실제 전투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전투 이후 체포되어 사망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나, 또 다른 이유는 당시의 기록 물이나 족보·제적부 등에서 사망연도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표 1〉 충청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사망연도 현황

연도	1894	1895	1896 -99	1900 -09	1910 -19	1920 -29	1930 -39	1940 -49	1950 -59	1960 -69	1970 이후	불명
인원	597	31	7	16	13	16	16	19	9	3	1	500

1894년에 사망한 시기는 동학농민군 2차 봉기가 시작된 9월 10명, 10월 168명, 11월 224명, 12월 156명이다. 이는 충청지역 전투가 주로 10월부터 11월에 집중되었던 일련의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10월 21일 천안 세성산전투에서 수백명의 동학농민군이 전사하였고, 10월 28일 홍주성전투 역시 수백명이 전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1월 9일 공주 우금치전투에서 수많은 희생자를 낸 동학농민군이 퇴각하면서 벌어진 논산 황학대전투에서도 많은 동학농민군이 사망하였다. 그에 따라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사망시기 역시 이 시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표 2〉 1894년에 사망한 충청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사망시기

월	3	4	5	6	7	8	9	10	11	12	불명
인원	0	1	0	1	1	0	10	168	224	156	36

1894년 9월 이전에 사망한 참여자는 소수인데, 4월에 사망한 참여자는 나방환이다. 그는 4월에 서천지역에서 김제로 이동하여 활동하다 죽음을 맞이하였다. 그는 금강이 바라보이는 서천군 마서면 신포리 출신으로, 4월 2일 집을 나가 김제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충청지역에서도 이미 무장기포가 일어나는 무렵부터 농민군들의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었다. 특히 남접과 기백이 통하고 있던 서장옥이 이끈 것으로 추정되는 진잠, 보은, 옥천, 영동, 금산 등지에서 활발하였다.

그러나 북접 동학교단에서는 남접에 호응하여 기포하는 행위를 엄단하였다. 이 때문에 충청지역의 농민군들 가운데는 전라도로 내려와 농민군 주력부대와 합세하는 자들이 많았다. 나방환도 이 무렵 인근의 농민군들과 함께 전라도로 내려 갔다가 그 곳에서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월 2일을 전후한 시기는 농민군 주력부대가 고부, 태인, 금구 등을 휩쓸고 있을 때였으며, 인근한 지역에서도 농민군들과 관군의 충돌이 빈번하였기 때문이다.<sup>3)</sup> 나방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전라도에서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하자 서천지역에서도 금강을 넘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6월에 사망한 참여자는 문사형인데, 그는 6월 15일 홍주에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홍주를 비롯한 내포지역은 2월 6일 일어난 덕산 농민봉기를 계기로 동학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서산 같은 경우 2월 이후 한 두 달

3) 역사문제연구소, 『전봉준과 그의 동지들』, 1997.

사이에 서산 일군이 거의 동학화가 되었을 정도이다.<sup>4)</sup> 전라도에서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이 승승장구하던 4월 초순에 충남 진산·이인·회덕·목천과 충북 옥천·청산·보은 등지에도 동학도들이 집결해 있었다. 충청도 곳곳에서 동학도들이 활동하였으나, 지방관들은 팔짱만 끼고 있을 뿐이었다. 내포지역에서도 동학도들의 움직임이 활발하였다. 4월 9일에는 동학을 음해하고 재물을 수탈하던 서산의 이진사를 혼내준 사건이 있었다. 내포지역 동학은 날로 세력을 확대하고 그 동안 묶고 쌓인 폐단들이 하나 둘 바로잡혀가고 있었다. 실제 그 무렵 내포지역에서 활동하던 일본 상인은 내포 주민 절반 이상이 동학도였고, 동학에 대한 평판도 아주 좋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5월에 들어와 충청도지역은 전라도와는 달리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충청감영과 병영에서 관군을 동원하여 대대적으로 동학도를 단속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문사형도 홍주지역에서 활동하다 6월 15일경 사망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다음으로 7월에 사망한 참여자는 기병석이다. 실제 그는 11월 홍성지역 전투에 참여하여 전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 7,8월 홍주지역은 동학의 세상이 되다시피 하여 전사가 나올 가능성이 없는 만큼, 기병석의 사망월은 11월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894년 다음으로 사망자가 많은 연도는 1895년이다. 모두 31명이 1895년에 사망하였는데, 그 가운데 19명이 1월에 사망하였다. 나머지 12명 역시 2-4월에 사망한 참여자가 성두한을 비롯한 10명, 12월이 1명, 불

---

4) 洪鍾植, 「동학과 동학란」『신인간』 34호, 1929.

명이 1명이다. 12월에 사망한 참여자는 태안 출신의 장학성인데, 그는 체포되어 옥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불명 1명은 최만식으로 전북 김제 출신이다. 성두한은 사망월이 불명으로 되어 있으나, 전봉준 등과 재판을 받고 3월 30일 처형되어 2-4월에 사망한 것으로 분류하였다.

1894년 12월에서 1895년 초에 사망한 경우는 실제 전투과정에서 사망한 경우보다 민보군에게 체포되어 죽음을 맞이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히려 관군이나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사망하는 경우보다 민보군에게 체포되어 사망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 단적인 예로 전라도 남원의 경우에도 사망자 대부분은 정부군이나 일본군이 떠나간 12월 5일 이후 다음해 초까지 민보군에게 체포되어 사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sup>5)</sup> 이 때문에 충청지역 동학농민군 역시 1894년 12월에서 다음 해에 사망한 참여자가 많았다.

1896-1899년에 사망한 참여자는 모두 6명인데, 그 가운데 4명이 1898년에 사망한 참여자이다. 그 가운데에는 서산지역에 동학농민군으로 참여한 뒤 자결한 권옥련, 태안지역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뒤 피신중 마을사람의 밀고로 관군에 체포되어 처형된 문영목, 충북 문의에서 도소를 설립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관군에게 체포되어 처형된 서상열, 그리고 1898년에 원주에서 체포되어 처형된 해월 최시형이 있다. 이 시기에 최시형을 비롯한 2명이 관군에게 체포되어 처형된 것은 당시의 시대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황국협회를 동원해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를 해산시킨 대한제국 정부는 더 한층 황제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 통제를 강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은닉한 동학농민군들에 대한 감시와 검열을 강화하는 과

---

5) 남원군 천도교구, 『殉教略歷』, 1923.

정에서 많은 생존 동학농민군을 체포하여 처형하였다. 이러한 시대 상황이 참여자 현황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900년대에 사망한 참여자는 모두 16명이다. 이 기간에 사망한 참여자가 많은 것은 1900년에 사망한 참여자가 서상호, 서장옥, 손천민, 손영오, 이원팔 등 5명이나 되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서장옥, 손천민, 이원팔은 관군에게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처형된 참여자로서, 모두 북접 동학농민군의 지도자로서 활동한 대접주들이다. 이 역시 1898년부터 강화된 생존 동학농민군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가 1900년에도 계속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 이후 참여자의 사망연도가 집중되는 것은 1910년대 13명, 1920년대 16명, 1930년대 16명, 1940년대 19명 등으로 점차 증가하다 감소하였다. 사망 원인은 대부분 노환에 따른 자연사이다. 동학농민군들이 1880년 전후 출생자가 많은 만큼, 1940년에 이르면 60세 전후이기 때문에 당시의 평균수명이 40.5세였던 것을 놓고 볼 때 이 시기에 사망연도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

1950년대 이후에 사망한 참여자는 모두 13명이다. 모두 장수한 참여자들이다. 심지어 참여자 엄이경은 1875년생으로 1985년에 돌아가셨을 정도로 111세 천수를 누리고 사망하였다.

이와 같이 1910년대 이후 사망한 참여자 대부분은 유족의 참여자 신청으로 등록된 참여자들이다. 그 이유는 늦게까지 생존하시어 후손들에게 구전을 전할 시간이 많았고 후손들도 기록으로 남길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 3.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참여 지역과 활동

#### 1) 충청지역에서만 활동한 참여자

충청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충청도에서만 활동한 참여자로 국한한 것이 아니라, 전라도와 강원도·경상도에서 동시에 활동한 참여자도 포함하였다. 그 가운데 충청지역에서만 활동한 것으로 확인된 참여자는 충청도 120명, 충남 808명, 충북 226명 총 1,154명으로 전체의 94%에 이른다.

충남지역이 충북보다 3.6배 많은 것은 어느 정도 실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충남은 1894년 10월 세성산전투, 이인전투, 예산전투, 홍주성전투, 11월 공주 우금치전투, 논산전투, 한산·서천전투 등 동학농민군 희생이 컸던 대규모의 전투가 많았을 뿐 아니라, 관련 기록물이 많이 남아 있어 참여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충북은 9월 청주성전투, 10월 괴산전투, 충주 안보전투, 11월 김개남부대의 청주성전투, 12월 보은 북실전투가 있었을지라도 관련 기록이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충북지역에서 전개된 전투에 참여하였던 동학농민군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어 직권 등록된 참여자가 소수이다.

〈표 3〉 충청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활동지역

지역	충청도	충남	충북	전라도	전북	전남	경북	경기도	강원도	계
충청도	120									120
충남		808	2		2			2		814
충북		2	226	1	1	1	13			244
전라도	1									1
전북	1	17	2							20
전남	1	1	2							4
경북			10							10
경기도	4		6							10
강원도			5							5
계	127	828	253	1	3	1	13	2		1,228

충북지역 참여자 분포 현황은 〈표 4〉와 같다. 충북에서만 활동한 것으로 확인된 참여자는 247명으로, 충북 거의 모든 지역에 걸쳐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보은 > 청주 > 옥천 > 충주 > 청산 순으로 많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충북지역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 참여자 현황

지역	괴산	단양	문의	보은	영동	영춘	옥천	음성	음죽	제천
인원	5	2	8	62	11	5	29	12	3	4
지역	진천	청산	청안	청주	청풍	충주	황간	회인	계	
인원	5	16	3	46	3	25	1	7	247	

가장 많은 참여자가 있었던 충북 보은·청주 등지는 10월 20일 전후에 주로 체포되어 사망하였다. 그 이유는 이두황이 이끄는 정부군과 일본군의 동학농민군 진압이 제일 먼저 충북지역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두황이 이끄는 1천여 명의 장위영부대는 10월 9일 죽산을 출발하여



10월 11일 청주성에 도착하였다. 경리청부대도 전날 청주에 도착하였다. 이들은 청주병영에 모여 대책회의를 열고 북접 동학농민군의 근거지인 보은 장내리를 조속히 초토화하기로 결정하였다. 그에 따라 10월 13일 이두황이 이끄는 장위영과 경리청·진남영 병대는 보은 장내리로 총출동하여 14일 장내리를 초토화하였다. 손병희가 기거하면서 북접농민군 대도소로 사용하던 큰 기와집과 400여 채의 초막, 수백호의 민가는 모두 불탔다. 다행인 것은 장내리에 집결해 있던 북접농민군이 정부군이 도착하기 이틀 전에 장내리를 떠나 옥천방향으로 이동한 것이다. 그에 따라 공주 충청감영이 위급한 상황으로 전개되자, 이두황부대는 10월 16일 보은을 출발해 옥천방향으로 이동하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동학농민군이 체포되어 죽음을 맞이하였다.

이렇게 정부군이 휩쓸고 간 충북지역은 또다시 일본군이 진입하였다. 일본군 후비보병 제19대대 3개 중대는 10월 15일(양 11.12) 용산을 출발해 계획대로 작전에 들어갔다. 그 가운데 충북지역으로 출병한 일본군은 용인->죽산->청주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남하하는 일본군 중로군과 이천->장호원->청주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오는 일본군 동로군이었다. 서로군은 수원을 거쳐 천안->공주로 향하였다.

일본군 동로군은 예정대로 10월 19일 충주 가흥에 도착하여 10월 24일까지 임무를 수행하다 강원도 동학농민군 진압을 위해 이동하였다. 그 이유는 충주지역의 경우 9,10월 충주지역 가흥과 안보 병참부 소속 일본군들이 어느 정도 동학농민군을 진압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반면에 성두한을 비롯한 충북 북부지역 동학농민군들이 강원도로 이동한 데다 강원도 홍천

등지를 중심으로 동학농민군 규모가 확대되어, 일본군 동로 중대는 강원도로 이동한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충북지역 동학농민군 진압 활동을 한 일본군 후비보병은 중로군이였다. 중로군은 미나미 고시로가 이끄는 후비보병 제19대대 본부와 제3중대가 속해 있었기 때문에 가장 막강한 군대였다. 병력 규모도 조선의 교도중대 316명을 포함해서 총 520명에 이르렀다. 중로군은 10월 22일 진천에 도착해서 청주->문의->옥천을 거쳐 11월 10일 금산으로 이동할 때까지 17일간 충북지역에 머물러 있으면서 동학농민군을 진압하였다.

일본군 중로군은 충북지역에서 체류한 17일 가운데 6일이나 문의에 머물 정도로 청주 주변지역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는데 공을 들였다. 그리고 동학농민군과 4번의 전투를 벌였는데, 10월 26일 있었던 문의 지명전투는 후비보병 제19대대장 미나미 고시로가 이끄는 중로군이 직접 전투를 벌였을 정도이다. 문의 지명전투는 미나미가 직접 지휘한 중로군 본대의 첫 전투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일본군 후비보병 중군은 공주 우금치전투가 끝난 11월 10일이나 가서야 금산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충북 중부지역은 충청병영인 진남영 소속 관군이 지속적으로 활동한 데다 10월에 정부군과 일본군이 연이어 진군하여 많은 동학농민군의 희생이 있었던 반면, 북부지역은 약간 다른 양상이었다.

9월 27일 새벽 6시 2천명의 동학농민군이 충주 안보병참부를 기습 공격한 것을 계기로, 일본군의 충북 북부지역 동학농민군 진압이 본격화되었다. 우선 일본군 송파병참부 주둔병 20명이 지원병으로 9월 29일 가흥병

참부에 도착한 뒤, 10월 1일 청풍지역 농민군을 공격하였다. 이 싸움에서 화력이 부족한 동학농민군은 패하였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동학농민군이 쓰러졌다. 성두한이 이끄는 동학농민군도 단양->제천->영춘을 거쳐 강원도로 후퇴하였다.

동학농민군이 떠나간 청풍지역에는 또다시 일본군이 진군하였다. 서울에서 10월 15일 출발한 일본군(후비보병 제19대대 제1중대 동로 분견대) 200명 병력이었다. 이들은 10월 19일 충주 가흥에 도착하자마자 동학농민군 근거지를 수색하여 초토화시켰다. 먼저 충주 소태면 동막마을 동학농민군 근거지를 소탕한 뒤 청풍으로 이동, 동학 지도자와 참여자를 찾아내 학살하고 집을 불태우는 등 철저히 보복하였다.

충북 북부지역은 일본군에 뒤이어 지역유생들이 조직한 민보군에 의해 또다시 철저히 파괴되었다. 제천 유생 서상무 등이 조직한 민보군은 11월 24일 성두한의 사촌인 성운환의 거점인 청풍 학현을 기습하여 13명을 총살하고 충주 적곡으로 가 성두한의 아버지 성종연을 체포하였다. 뒤이어 동학농민군의 근거지인 생춘전 마을로 이동하여, 동학농민군 20여 명을 총살하고 불을 질러 마을 전체를 불태웠다. 그리고 성두한의 아들과 처를 붙잡아 제천 감옥에 가두었다. 성두한은 어디선가 체포되어 1895년 2월 21일경 서울로 압송되어 전봉준 등과 같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sup>6)</sup>

이처럼 충북 북부지역은 중부지역과 달리 민보군에 의해 동학농민군이 많이 희생된 점이다. 이는 충북 남부지역, 즉, 영동, 황간, 청산지역도 마찬가지였다. 이 점은 후술할 것이다.

---

6) 신영우, 앞의 논문 참조.

충남지역 역시 지역별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충남지역은 충북보다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동학농민군이 참여하였다. 이들 지역은 크게 천안권, 내포권, 공주권 셋으로 나누어 그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표 5〉 충남지역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 참여자 현황

지역	공주	결성	금산	남포	노성	논산	당진	대흥	덕산	면천
인원	82	5	5	9	1	13	3	19	8	8
지역	목천	보령	부여	서산	서천	신창	아산	안면도	연기	예산
인원	53	3	16	64	5	15	16	1	3	24
지역	온양	유구	은진	이인	임천	전의	정산	직산	진산	진잠
인원	28	28	16	13	2	1	7	15	2	6
지역	천안	청양	태안	한산	해미	홍산	홍성	회덕	효포	
인원	55	1	130	10	45	4	126	3	3	

먼저 천안권은 확인된 참여자가 천안 55명, 목천 53명, 직산, 전의 1명, 온양 28명, 아산 16명, 신창 15명 등이다. 동학농민군 희생이 시작된 것은 9월 이후 최초의 대규모 전투였던 세성산전투를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충북 보은 장내리를 초토화한 이두황부대는 곧바로 공주로 가지 않고 10월 16일 보은을 출발해 10월 20일 천안 목천으로 이동, 다음날 독립기념관 앞에 있는 세성산에서 동학농민군과 접전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동학농민군이 희생되었다.

특히 세성산전투 이후 이두황부대 뿐 아니라 민보군에 의해 많은 동학농민군이 체포·살해되었다. 그 가운데 소모관 정기봉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정기봉은 경기도 안성의 전주사로서, 안성·죽산 등지에서 동학농민군을

7) 『承政院日記』, 고종 31년, 9월 26일조.

진압한 공로로 순무영에서 기전소모관으로 임명된 민보군이다.<sup>7)</sup> 그는 세성산전투 다음 날인 10월 22일 목천 동리로 행군하였다가 세성산에 남아 있던 동학농민군 이희인, 한철영 등 60여 명을 포획하였다. 이희인은 좌우도 도금찰이었고, 한철영 역시 동학농민군의 우두머리였다. 그 외에 명색 있는 동학농민군 12명을 모두 총살하고, 나머지 50명은 귀화하기를 원하여 풀어주었다.<sup>8)</sup> 정기봉은 23일에도 장돌용·안천복을 붙잡아 이두황부대에 보냈다. 24일에는 목천 갈전면에 이르러, 그곳에 모여 있던 수백명의 동학농민군을 공격해 총과 칼 100여자루를 노획하였다.<sup>9)</sup> 이들 동학농민군은 모두 참여자로 등록되었다.

천안 의병장 윤영렬도 세성산전투에 참여했던 동학농민군을 체포하는데 가담하였다. 그는 천안에 사는 전감찰로서, 의병, 즉 동학농민군에 대한 민간 토벌대인 민보군을 조직하여 활동했던 인물이다. 그는 10월 24일 천안 남쪽 소거리에 사는 김화성, 나채익, 홍치엽, 이선일 등 4명을 붙잡아 직접 심문하였다. 윤영렬은 이들 4명을 모두 직접 총살하는 한편, 김나귀, 김순경, 임만진 등 3명을 차례로 붙잡아 이두황부대에 인계하였다.<sup>10)</sup> 그는 이 공로로 10월 27일 선봉진의 별군관으로 임명되었다.<sup>11)</sup>

그밖에 10월 22일 선봉진 별군관 최문환은 세성산전투에서 패한 뒤 돌아온 직산 대접주 이천여·김춘일·김용희 등을 체포하였다. 이들은 모두 효수되었다. 또 목천의 동학농민군 지도자 최창규와 김병현도 27일 최문

8) 『承政院日記』, 고종 31년, 10월 22일조.

9) 『承政院日記』, 고종 31년, 10월 24일조.

10) 『巡撫先鋒陣膽錄』, 『東學亂記錄』 하, 437-439쪽.

11) 『承政院日記』, 고종 31년, 10월 27일조.

환에 의해 체포되어 선봉진에 인계, 목이 잘리었다.<sup>12)</sup>

이와 같이 순무영은 동학농민군 진압을 위해 공을 세운 인물들을 소모관·별군관 등으로 임명하고 이들에 의해 조직된 민보군은 현지 사정에 밝아 동학농민군을 손쉽게 염탐하고 체포할 수 있었다. 천안지역에서 활약한 윤영열 등은 그 이후에도 온양 등지로 이동하여 동학농민군을 수색·체포하는데 앞장을 섰고, 직권 등록된 상당수가 이들에 의해 체포되어 이름 석자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경우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공로를 내세우기 위해 체포한 동학농민군의 이름을 기록으로 남겨 놓았다.

다음으로 충남지역에서 참여자로 가장 많이 등록된 지역은 내포권이다. 내포권은 태안 130명, 홍성 126명, 예산 24명 등 많은 동학농민군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 등록되었다. 내포지역이 참여자 등록이 많았던 것은 태안 출신 동학농민군 회고록인 『문장준역사』와 『조석현역사』(1923)가 남아 있고, 1965년에 천도교 태안교구에서 작성한 『갑오동학혁명 당시 순교자 명단』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또다른 이유는 내포지역 동학농민혁명이 박인호를 중심으로 격렬히 전개되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희생자가 있었다는 점이다. 10월 1일 태안과 서산에서 각각 기포한 내포지역 동학농민군은 10월 24일 승전곡전투, 10월 27일 신례원 관작리전투에서 승리한 뒤 10월 28일 홍주성전투에서 수백명이 사망하였다.

특히 홍주성전투 이후 내포지역 동학농민군 희생이 컸던 것은 이두황이 지휘하는 장위영군, 7월부터 조직적으로 군사력을 키운 홍주성 관군, 일본

---

12) 「순무선봉진등록」, 475-476쪽.

군, 민보군 모두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장위영군은 11월 6일 덕산 가야동에서 도착한 이후 흩어진 동학농민군을 진압한 뒤 11월 10일 홍주성을 출발하여 공주로 이동하였다.

아카마츠 쿠니후(赤松國封) 소위가 이끄는 일본군 1소대는 10월 19일 아산을 도착하여 10월 24일 승전곡전투에서 패한 뒤 홍주성에 머물다 11월 9일 대홍을 거쳐 떠나갔다. 동학농민군 피해는 아카마츠소대보다 후비보병 제6연대 제6중대장 야마무라 타다마사(山村忠正) 대위가 인솔하는 1개 중대병력에 의해 자행되었는데, 서산·해미·예산 등지의 동학농민군을 토벌하라는 특별 임무를 받은 부대였다. 이들은 11월 4일 인천항을 출발하여 다음날 아산에 상륙, 신창과 신례원을 경유하여 홍주성전투가 끝난 11월 7일 홍주에 도착하였다. 야마무라대위는 11월 9일 1개 소대를 해미로 파견하여 잠복해 있던 동학농민군 수백명을 체포한 뒤, 그중 2명 참형하고 48명을 총대로 때려죽인 뒤, 11월 13일 홍주로 귀환하였다.

야마무라대위는 11월 14일 1개 소대를 홍주에 남겨놓고 홍주를 떠나 해미로 향하였다. 도중에 숨어 있는 동학농민군 수십명을 잡자, 이들을 모두 홍주로 보내면서 홍주목사로 하여금 도착 즉시 신속하게 처형하도록 하였다. 해미에 도착한 야마무라대위는 14일 밤 일본군 11명과 조선인 순검 김용희, 그리고 해미의 민보군 21명(민병장 金龍山)을 서산으로 파견하여 잠복해 있는 동학농민군들을 체포하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나머지 일본군을 인솔하여 11월 15일 지름길로 태안으로 향하였다.

야마무라대위는 11월 15일 오후 3시 태안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일본군 5-10명씩을 각지에 파견하여 동학농민군 1백명을 체포하였다. 이때 갈

이 온 해미의 민보군이 앞잡이 노릇을 하였다. 서산에 파견된 일본군도 동학농민군 84명을 잡아 태안으로 왔다. 야마무라대위는 동학농민군을 철야로 조사하여 동학농민군 지도자 30명을 총대로 타살하는 학살을 자행하였다. 그런 다음 11월 16일 오후 2시반에 태안을 떠나 서산을 거쳐 인천으로 귀대하였다.

이렇게 일본군에게 동학농민군들이 학살당한 뒤에도 홍주성 관군과 민보군에 의해 귀가한 동학농민군들이 체포되어 처형되었다. 특히 유림들이 주도하는 유희와 민보군 조직은 해산한 동학농민군에게 가장 위협세력으로 부상하였다. 홍주성전투 이후 내포지역 민보군 실상은 다음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홍주에서 동학농민군을 격파한 이후 또 태안·서산·해미에 유막(儒幕)을 설치하고 동학농민군 지도자들을 적발하여 처벌하였으며 --- 전에는 사람들이 모두 동학을 믿는다고 하다가, 지금은 사람들이 모두 동학을 믿지 않으니 --- 태안·서산·해미에서 죄인들을 묶어서 유막으로 보낸다는 소문이 날마다 파다하게 퍼졌으며 홍주성 근처에 동학농민군들의 유해가 산더미처럼 쌓여 악취가 코를 찌른다고 하였다. 저 홍주성은 동학농민군들의 저승이었다. 유막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길을 다니기가 지난날보다 더욱 어려웠으니 난세의 변화를 미리 헤아리기는 어려웠다.”<sup>13)</sup>

홍주성전투 이후 태안·서산 등지의 유림들은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에 유막, 즉, 검문소를 설치한 다음 동학농민군을 체포하고 지도자급은 직접 처형하거나 홍주성으로 보냈다. 그래서 홍주성 앞은 동학농민군들의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을 정도이다. 게다가 그들은 민보군(유희군)이라

13) 김현제, 『피난록』.



는 민병대를 조직하여 동학농민군을 찾아내 처형하였다. 특히 이들은 어느 누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누가 동학 활동을 하였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학농민군 입장에서는 가장 무서운 존재였고 가장 많은 피해를 받았다.

실제 해미에서 후퇴한 동학농민군들은 태안관아 뒤 백화산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별군관 이창식이 이끄는 민보군 30명은 11월 13일 백화산을 공격하여, 유규희·최성서·최성일·안순철·피만석 등 5명을 체포하여 상부로 압송하였다. 그 뿐만 아니다. 법대로 처치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많은 동학농민군들을 현장에서 처형하는 등 행패를 일삼고 되돌아갔다.<sup>14)</sup>

다음으로 공주권은 참여자로 등록된 동학농민군이 공주 82명, 부여 16명, 이인 13명, 은진 16명, 논산 13명, 유구 28명, 효포 1명 등 171명이다. 이들 가운데 142명이 직권 등록된 참여자로, 이들은 10월 23일 이후 전개된 이인·효포·우금치전투와 논산 황학대전투 등에 참여한 뒤 체포되어 이름 석자만 기록으로 남기고 죽음을 맞이한 참여자들이다. 유구에서는 28가운데 27명이 체포되어 11월 12일 동시에 처형되었고, 공주 82명 가운데 68명은 모두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사망하였다. 부여 16명 가운데 5명은 마을 주민들에게 체포되어 관군에게 11월 19일 처형된 참여자이고, 5명은 7월 집강소기에 활동한 인물들이다.

공주권 참여자의 특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주로 사망한 시기가 우금치전투 이후이며, 또 하나는 충청감영이 있었던 공주 주변지역이었기 때문에 관군에 의해 직접 처형된 사례가 많았다.

---

14) 『순무선봉진등록』, 12월 초8일, 10일.

## 2) 충청지역과 타지역 모두 활동한 참여자

앞의 <표 3>에서 충청도는 물론 전라도, 경상도, 경기도, 강원도 등지에서도 활동한 참여자도 있었다. 충청도와 전라도에서 동시에 활동한 것으로 인정되어 등록된 참여자는 모두 29명인데, 그 가운데는 전봉준, 여산 출신으로 공주·논산전투에 참여한 김경삼, 사발통문에 서명하고 전봉준부대 일원이었던 송주성, 공주·원평전투에 참여한 최흥식 3형제, 청주성 공격 때 김개남부대 선봉진으로 활약한 강시원 등이 있다. 초기부터 전봉준과 뜻을 같이 해 공주 우금치전투까지 참여한 인물이 대부분이다. 실제 전봉준과 김개남부대에 편입되어 공주와 청주성 공격에 가담한 전라도 출신이 최소 수천명에 이를텐데, 참여자로 등록된 인원은 소수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충청도와 경상도에서 동시에 활동한 참여자는 23명인데, 이들은 모두 충북과 경북을 오간 인물들이다. 충북은 경북과 인접한 황간, 영동, 청산, 보은이고 경북은 상주이다. 이들은 상주에서 기포하여 활동하다 영동 등지에서 체포되거나, 반대로 영동 등지에서 기포하여 활동한 뒤 상주에서 체포되어 처형된 사례이다. 실제 23명 가운데 4명은 12월 14일, 9명은 12월 22일 동시에 상주에서 처형되었다.

이렇게 상주에서 많은 동학농민군을 처형한 주체 역시 상주 민보군이였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9월 29일 상주에서 소모사로 임명된 정의묵이다. 그는 10월에 상주 유생 김석중을 소모영의 유격장으로 임명하여 유격병대를 조직한 뒤 11월부터 동학농민군을 토벌하도록 하였다. 김석중이 이끄는 유격병대는 11월 말에서 12월에 고을 경계를 넘어 보은과 옥천 청산,

영동 등지를 수색하여 최시형을 찾아내 전과를 올리려고 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동학도들의 집을 수색하거나 지도자급 인물의 경우 총살하기도 하였다. 또한 북접농민군이 영동 용산전투와 보은 북실전투를 치루면서 최후를 맞이하는데 큰 타격을 가한 핵심 세력이었다. 이는 김석중이 동학농민군을 진압한 뒤 작성한 『토비대략(討匪大略)』에 생생히 나타나 있으며, 이 기록물에 보이는 많은 동학농민군이 직권등록되었다.

그밖에 충청도와 경기도에서 동시에 활동한 인물은 12명으로, 그 가운데에는 충남 아산에서 활동하다 12월에 수원에서 처형된 안교선, 손병희가 이끄는 북접 동학농민군의 좌익장을 맡은 이종훈 등이 있다. 나머지는 주로 경기도 이천·안성 등지에서 활동하다 충청도에서 체포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강원도와 충북을 오간 참여자가 5명인데, 그 가운데는 관동대접주 이원팔과 10월에 홍천과 충주에서 활동한 심상현·오창섭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강원도쪽은 주로 충북 북부지역과 지역적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점인데, 이는 관동접의 지역영역이 강원도 남부와 충북 북부, 그리고 예천과 같은 경북 북부지역에 광범위하게 걸쳐 있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충북 북부지역 최고 지도자는 성두한이었다. 그는 강원도 정선 등지의 동학농민군과 연대하여 강릉 선교장을 공격한 일이 있었다. 두 세력이 연합한 것은 이원팔이 대접주로 있는 강원도 관동포와 연원이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8월 하순 예천 보수집강소에서 동학도 11명을 생매장한 것을 징치하기 위해 예천 화지에서 동학농민군 대회를 열었는데, 이 모임에는 경상도 동학도 외에 관동대접주 이원팔을 비롯해 성두한도 청풍·단

양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참석한 일이 있었다.<sup>15)</sup>

## 4. 동학농민혁명 이후의 삶

동학농민혁명 이후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록 참여자는 <표 2>와 같이 131명이다. 이들에게서는 아래와 같은 세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재판을 받은 경우이다.

<표 7>과 같이 체포된 동학농민혁명 참가자는 중요 인물인 경우 서울로 압송되어 정식 재판을 받기도 하였다. <표 7>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재판이 크게 두 시기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1895년에 집중되었는데, 교수형을 당한 성두한에서 알 수 있듯이 동학농민혁명 진압과정에서 체포된 참여자들이다.

그 다음 재판은 1898-1900년 사이에 이루어졌다. 이때 최시형, 서장옥, 손천민이 재판을 받고 각각 교수형을 당하였다. 이들은 1880년대부터 동학교단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동학농민혁명에도 긴밀하게 연관된 인물들이다. 이들이 체포되어 교수형을 받은 것은 1898년에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를 탄압한 대한제국 정부가 사회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동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손병희가 감시를 피해 1901년에 일본으로 망명한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

15) 신영우, 앞의 논문 참조.

〈표 7〉 1895년 이후 동학농민혁명 관련 재판을 받은 참여자

이름	출신	1894 나이	신분	직업	활동	재판(연도)
성두한	청풍	47	평민	농업	청풍·단양·영춘·제천에서 맹활약	교수(1895.3)
안창항	영춘	56	평민	농업	소백산에서 수도, 민간 선동	징역(1895.3)
조명운	천안	41	평민	농업	천안서 일본인 살해	유배(1895.3)
김치선	천안	45	평민	농업	천안서 일본인 살해	유배(1895.3)
임재수	단양	73	평민	농업	청풍지역에서 성두한과 함께 활동	유배(1895.3)
김영진	청풍	32	평민	농업	청풍에서 성두한과 함께 활동	유배(1895.3)
민진호	청주	34	평민	농업	청주에서 무기 탈취	징역(1895.3)
김순영	청산	71	평민	농업	청산에서 활동	징역(1895.3)
손해창	영동	25	평민	농업	영동에서 활약	유배(1895.3)
성종우	영춘	48	평민	농업	강원도 정선·평창 등지에서 활약	유배(1895.4)
성운한	청풍	33	평민	농업	청풍·영춘·제천 등지에서 활약	징역(1895.4)
허 윤	진천	52	평민	유학	진천 용소에서 활동	유배(1895.4)
황하일	보은	48	평민	농업	동학당 활동	징역(1895.5)
임기준	공주	43	평민	농업	동학당 활동, 귀순	유배(1895.5)
김성원	당진	44	평민		동학농민 동원, 묘지 침해	징역(1896.11)
최시형	경주	68	평민		동학당 활동	교수(1898.7)
서장옥	청주	43	평민	농업	동학 남접의 우두머리	교수(1900.7)
손사민	청주	38	양반	학문	청주에서 활약, 우금치전투 참가	교수(1900.7)

\*자료: 총무처 정부기록부존소, 『동학 관련 판결문집』, 1994.

\*혐의 없음으로 석방된 사례는 제외하였음.

둘째, 역경 속에서도 동학·천도교 활동을 계속 이어간 경우이다.

이들은 주로 최시형을 비롯한 동학교단 핵심인물들로서, 서장옥, 손천민, 손병희, 박인호, 등을 들 수 있다. 그 가운데 최시형은 1898년 3월 원주에서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 6월 2일 교수형을 당하였다. 손병희는 1897년 12월 제3세 동학 교주로 최시형으로부터 도통을 이어받은 뒤 동학에 대한 탄압과 감시 속에서 교세를 유지하면서 동학 재건에 노력하였으나, 정부의 탄압이 심해지는 1901년에 이용구와 함께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이렇게 동학 교세가 명맥을 유지하면서 동학 재건 움직임이 가능하였던 것은 동학농민혁명에서 살아남은 동학도들이 어려운 삶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동학 활동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충남지역 출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 천도교단에서 활동한 인물은 67명이고 그 가운데 54명이 직책을 맡았을 정도이다. 그 가운데 천도교 제4세 교주 박인호를 비롯하여 조원상, 이종선, 최준모 등은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로도 활동하였다.<sup>16)</sup>

문장로(1846-1919)는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출신의 수접주로, 1894년 10월 1일 기포부터 10월 28일 홍주성전투까지 동학농민혁명을 이끈 지도자였다. 홍주성전투에서 패한 뒤 태안으로 돌아와 지목을 피해 토굴에서 숨어지냈다.

그러나 관군이 집으로 들이닥치자 아들이 대신 자진 체포되어 11월 15일 태안 관아에서 총살형을 당하였다. 그의 가족과 전답은 모두 몰수당하고 임야는 벌목되어 불탄 관아를 증진하는데 사용되었다.

그 뒤에서 문장로는 감시를 피해 토굴에서 8년을 지내다, 1900년에 동학지도부가 내린 조직 강화 밀명을 받고 비밀리에 조직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문장로와 그의 가족을 체포하면 포상한다는 방이 붙고 대대적인 색출 움직임이 있자, 1902년 2월에 안면도 -> 원산도를 거쳐 홍성에 이르러 산속에 움막을 짓고 살았다. 다시 신분이 노출될 위험이 있자 1904년 2월 공주 사곡면, 1908년 1월 공주 신상면을 거쳐 1910년대에 예산 신암면에 정착해 살면서도 동학 수련과 조직 재건에 힘을 기울였다. 1919년에

---

16) 정을경, 「혁명과 독립운동의 연관성- 충남지역 동학농민군 분석을 통해」 『동학학보』, 2022 참조.

9월 73세로 돌아가셨다.<sup>17)</sup>

이런 사례는 문장로와 같이 활동하였던 조석현(1862-1931)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는 태안 원북면 신두리 출신으로 갑오년에 9월 기포부터 참전해 승전곡전투-> 신례원전투-> 홍주성전투 등에 참가한 뒤 혼자 떠돌다 우연히 대접주 박희인을 만나 같이 동행하면서 이곳저곳을 떠돌다 지극정성으로 박인호를 모시면서 동학의 맥을 이어갔다. 그는 이곳저곳을 옮겨살면서 끝내 태안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1915년에 예산 간양리에 정착하여 천도교에 헌신하다 1931년에 작고하였다.<sup>18)</sup>

최동석(1872-1948)은 청주 대주리에서 손병희·서택순과 함께 같은 마을에 살았던 접주였다. 그가 동학농민혁명 당시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족보에는 동학혁명에 참여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접주로 활약한 사실도 동네사람들이 알고 있다. 동학농민혁명 이후에도 최동석은 고향 마을에 거주하였는데, 가난한 삶 속에서도 동학·천도교를 이어가 오랫동안 천도교 청주교구장을 지냈다고 한다.

손필규(1870-1938)는 논산 은진면 남산리 출생으로, 1894년 7월에 동학에 들어가 초산접주로서 활동하였다. 동학농민혁명 이후에도 동학 활동을 계속 이어가, 1919년 3.1운동 당시에는 천도교 논산교구장이었던 손필규는 논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천도교 중앙조직과 연결된 특별 성미금 문제에 연류되어 투옥되는 등 항일운동을 전개하다 고문 후유증으로 1938년에 죽음에 이르렀다.

---

17)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태안에서 점화된 동학농민혁명의 횃불』, 2016, 296-297쪽.

18) 위 책, 474-475쪽.

이준용(1860-1945)은 춘천 서면 출신으로, 동학농민혁명 때 공주전투에 참여한 사실이 있으며 집으로 돌아온 뒤에는 농토를 팔아 어려운 처지에 처한 동학도인과 최시형 등을 도왔다고 한다. 1907년에는 의병전투에도 참가하였고, 1910년대에는 천도교 춘천교구 창립에 기여하였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춘천교구장으로서 춘천장터 만시세시위를 주도하다 검거되어 1년 6개월 수감되기도 하였다. 출옥한 이후에도 계속 항일운동을 전개하다, 1945년에 작고하였다.<sup>19)</sup>

조영구(1867-1950)는 서천 출신으로, 1887년에 동학에 들어와 대접주가 되고 1894년 7월에 도집강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서천을 비롯한 ‘저산 칠읍’의 대접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바 있는데, 3.1운동 때는 서울에서 독립만세시위를 벌이다 서대문 감옥에 투옥되어 20일간 수감되었고 귀향 뒤에도 서천경찰서에서 또다시 구타·구금되었다.<sup>20)</sup>

이병춘(1864-1933)은 임신 출신으로, 동학농민혁명기 전시기에 걸쳐 활동한 인물이다. 그는 동학농민혁명 이후에도 최시형·손병희와 연계되어 동학·천도교 중요 인물로서 활동을 이어갔을 뿐 아니라, 3.1운동 때는 천도교 전주교구장으로서 만세시위를 주도하다 체포되어 3년간 투옥되었고 출감 이후 임시정부 독립자금을 전달하다 체포되어 또다시 2년의 옥고를 치렀다. 현재 3.1운동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아 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다.<sup>21)</sup>

---

19) 김응조 외, 『춘천의 3.1운동과 호암 이준용 선생』(큰나무, 2004).

20) 『조영구일기』.

21) 정을경, 「동학농민군 이병춘의 생애와 독립운동」 『동학학보』 53, 2019.



이러한 사례는 천도교 청주교구장을 지낸 서우순(서택순), 음성교구장과 천도교종법사를 지낸 괴산의 이원익, 경기도 화성 출신으로 예산전투에 참가한 뒤 부상으로 귀가하여 1910년에 천도교 대성당 건축자금을 제공하고 3.1운동 때는 독립선언서를 운반하는 활동을 하고 그 이후에도 천도교 수원교구 일에 힘쓴 이병인 등에서도 확인된다. 이러한 여러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듯이, 동학농민혁명 이후에도 생존한 동학도들이 동학·천도교 활동을 계속 이어갔으며 그것이 바탕이 되어 1910년대 천도교 부흥과 전국적인 3.1운동이 가능하였다.

특히 충청지역은 1880년대 이후 최시형이 동학을 전국으로 확산시킨 원지인 데다가 북접 동학교단이 위치해 있던 곳이다. 더욱이 최시형에서 충청도 출신 손병희·박인호로 동학·천도교 도통이 이어진 결과,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동학농민혁명 이후 동학이 천도교로 이어진 지역적 특성이 있다. 그 때문에 충청도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이 동학농민혁명에서 살아남아 천도교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그 맥이 3.1운동에 닿는 인적 계보가 강하였다.

셋째,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를 한 경우이다.

정부는 해산한 동학농민군을 색출하고 감시하기 위해 향약과 오가작통법을 적극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 때문에 집으로 돌아온 동학농민군은 편히 안전하게 살 수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그 대안은 집을 버리고 피신,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이름을 바꾸고 살아가야만 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문장준(?-1923)은 태안 원북면 방갈리 출신으로 태안의 동학농민혁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한 인물이다. 그는 홍주성전투를 끝으로 무사히 집에 돌아왔으나, 11월 15일경 체포된 뒤 보령 수영으로 끌려가 투옥되었다. 감옥에는 다른 동지들도 있었다. 이들은 감옥 안에서 견디기 힘들 정도의 추위와 배고픔으로 고생해야만 하였다. 그렇게 10여 일 보낸 뒤 엄형 취조를 받고 다행히 풀려날 수 있었다. 문장준은 친척인 문장권과 함께 비바람을 맞으며 3일 동안 유리걸식하여 천행만고 끝에 방갈리 집에 돌아올 수 있었으나, 민보군의 지목은 갈수록 심해졌다. 언제든 민보군의 손에 의해 죽을 수도 있었다.

결국 문장준은 다른 지역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다. 김선여를 비롯한 동지 5명과 가족을 데리고 태안에서 배를 타고 구사일생으로 피신하여 이리저리 떠돌다가 광덕산 만복골 등지에서 피난 생활을 하였다. 이때 문장준과 같이 광덕산 만복골로 피신한 동학농민군은 이영규(1863-1915), 김봉호(1872-1954), 이선종(1875-1958), 함한석(1870-1938) 등이 있었다. 광덕산 만복골은 산이 높지 않으면서도 깊은 계곡으로 이루어진 곳인데, 태안에서 피신한 동학농민군들은 이곳으로 피신하여 집단 생활을 하다 다시 태안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또는 아산·예산 등지로 옮겨 살았다.<sup>22)</sup>

박병옥(1869-1904)은 고창 신림면 무림리 출생으로, 1894년 3월 무장기포 이래 전봉준과 행동을 같이 하였다. 그는 9월 이후 공주전투에서 패퇴한 뒤 내변산 깊숙이 잠적하여 7,8년 은둔생활을 하다 어느 스님이 집에

---

22)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태안에서 점화된 동학농민혁명의 횃불』, 2016, 300-301쪽.

연락하여 비밀리에 집에 돌아왔으나, 35세 되던 1904년에 별세하였다고 한다.<sup>23)</sup>

이런 사례는 당시 상황을 놓고 볼 때 매우 많았다. 향약과 오가작통법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안전하게 터전을 지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집과 논밭을 버리고 낯선 곳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 5. 맺음말

지금까지 충청도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동학농민군에 관해서 알아보았다. 분석대상은 2004년부터 2024년 12말 현재 등록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총 3,903명 가운데 충청도에서 활동한 참여자 총 1,228명의 생몰 연대·본적지·활동지역·활동내용 등을 살펴보았다.

충청도 참여자 1,228명 가운데 출생연도가 밝혀진 인물은 22.6%이다. 그 가운데 최고령자는 1821년생 단양 출신 임재수인데, 이는 단양이 충청 지역에서 가장 먼저 동학이 전파된 곳이란 점과 일치한다. 단양 출신 임재수를 비롯해 1820년대생을 시작으로 그 이후 출생자들이 충청지역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는데, 1860년대생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1850년대생으로, 이들이 전체의 63.9%에 이른다. 이들은 1894년에 25-45세로, 30대 전후의 청중년층이 동학농민군의 주축이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들의 사망시기는 사망연도가 확인되는 728명 가운데 1894년에 사망

---

23)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내부자료.

한 참여자가 82.1%인 597명이었다. 이들의 사망시기는 동학농민군과 일본군 및 정부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10월부터 11월에 집중되었다. 1894년 다음으로 사망자가 많은 연도는 1895년으로, 모두 31명이다. 이들은 1895년 1월에서 4월 사이 체포되어 처형되거나 사형된 참여자들이다. 그 이후 생존한 참여자들은 1897년부터 1900년 사이에 집중 체포되어 처형되었다. 나머지 생존자들은 주로 노환에 따른 자연사로 1910년대부터 점점 증가하다 1940년대에 가장 많은 19명을 정점으로 감소하였다.

이들의 활동지역은 크게 충청지역에서만 활동한 경우와 타 지역에서도 활동한 참여자로 나뉜다. 충청지역에서만 활동한 참여자는 충청도 120명, 충남 808명, 충북 226명 총 1,154명으로 전체의 94%에 이른다. 충남지역이 충북보다 3.6배 많은 것은 어느 정도 실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충북지역내에서도 지역적 차이가 있다. 성두한이 활약한 충북 북부지역은 충북 중부지역과 달리 민보군에 의해 동학농민군이 많이 희생되었다. 이는 성리학 기반이 강한 제천 민보군 때문이다. 이는 충북 남부지역, 즉, 영동, 황간, 청산지역도 마찬가지였다.

충남지역 역시 지역별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충남지역은 충북보다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동학농민군이 참여하였는데, 크게 천안권, 내포권, 공주권 셋으로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천안권은 최초의 대규모 전투였던 10월 21일 세성산전투를 계기로 많은 참여자가 사망하였고, 참여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내포권은 수백명이 사망한 10월 28일 홍주성전투 이후에도

이두황이 지휘하는 장위영군, 7월부터 조직적으로 군사력을 키운 홍주성 관군, 일본군, 민보군 모두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공주권은 등록된 참여자가 171명이다. 이들은 주로 우금치전투 이후 공주 주변지역에서 관군에게 체포된 사례가 많았다.

충청지역과 타 지역 모두 활동한 참여자는 70명인데, 크게 충청도와 전라도, 충청도와 경상도, 충청도와 강원도, 충청도와 경기도 등에 걸쳐 있었다. 이는 충청지역이 국토의 중앙에 위치해 있고 9월 이후 공주 우금치전투를 비롯한 많은 전투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특이한 점은 충남 남부지역인 한산·서천은 전북 임피 등지의 동학농민군과 연결되어 있었고, 충북 남부지역인 영동·보은 등은 경북 상주와 상호 연결되어 있었으며, 충북 북부 제천·단양지역은 강원도 정선 등지와 연결되어 동학농민군이 오가면서 활동하였다.

끝으로 동학농민혁명 이후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는 참여자는 131명이다. 이들은 체포되어 재판을 받거나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동학·천도교 활동을 이어가 3.1운동에 참여한 예가 많았으나, 숫적으로는 고향을 등지거나 숨어지내며 가난과 삶의 역경을 이겨낸 참여자가 훨씬 많았다. 그 때문에 참여자들의 후손 역시 ‘역적의 자식’으로 불운하게 태어나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 가난한 삶을 이어간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후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기억하는 일은 과거에 대한 현재의 보답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일일이 분석하여 종합한 것이 아니라, 전체 등록 참여자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전체적인 추세나 경향성을 파악하는데 긍정적이었으나, 동학농민혁명 참가자의 개별성과 다양성을 분석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참가자를 일일이 분석해서 통계 데이터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차후 과제로 미룬다.

## 참고문헌

『承政院日記』

『巡撫先鋒陣膽錄』

김현제, 『피난록』.

남원군 천도교구, 『殉教略歷』, 1923.

洪鍾植, 「동학과 동학란」 『신인간』 34호, 1929.

총무처 정부기록부존소, 『동학관련판결문집』, 1994.

김응조 외, 『춘천의 3.1운동과 호암 이준용 선생』(큰나무, 2004).

역사문제연구소, 『전봉준과 그의 동지들』, 1997.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태안에서 점화된 동학농민혁명의 횃불』, 2016.

신영우, 「성두한과 충북 북부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 『충북학』 18, 2016.

정을경, 「동학농민군 이병춘의 생애와 독립운동」 『동학학보』 53, 2019.

정을경, 「혁명과 독립운동의 연관성- 충남지역 동학농민군 분석을 통해」 『동학학보』, 2022.





# 경상우도 동학농민군 등록 참여자의 활동과 특징

신 진 희

경국대학교 강사

## 1. 머리말

### 2. 상주진 등록 참여자의 활동

### 3. 성주진 등록 참여자의 활동

### 4. 진주진 등록 참여자의 활동

### 5. 창원진 등록 참여자의 활동

### 6. 맺음말 : 경상우도 동학농민군 등록 참여자의 특징



# 1. 머리말

2025년 3월 현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동학농민군으로 등록된 참여자(이하 ‘등록 참여자’)는 총 3,908명이고, 그 가운데 경상도 활동 인물은 227명(5.8%)이다. 주 활동지는 아니지만 경상도에서 활동한 흔적이 있는 인물 18명 합하면 245명이다(〈표 1〉에서 괄호로 표기). 경상남북도 각 시군별로 구별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경상도에서 활동(활동 흔적)한 등록 참여자의 시군별 인원 수(2025년 3월 기준)

	경상남도				경상북도					경상도	합계
시군	거창	고성	곤양	김해	고령	구미	김산	김천	문경	시군 미상	-
명	2	8	2	1	1	3	19	1	2		
시군	남해	사천	산청	삼가	봉화	상주	선산	성주	순흥		
명	3	2	1	2	1	58 (13)	1	11	1		
시군	양산	진주	하동	-	안동	영주	예천	의성	함창		
명	1	12 (1)	36 (4)	-	3	4	20	1	2		
합계	70(5)				127(13)					30	227(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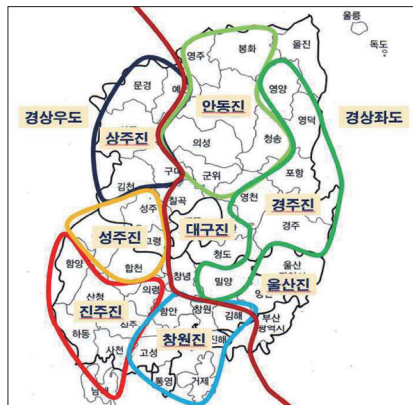
각 시군은 가나다 순으로 배열하였다. 경상남도의 경우 하동(36명, 경상도 활동 등록자의 15.85%, 경남 활동 등록자의 51.4%)에서 활동한 인물이 가장 많이 등록되어 있고, 다음으로 진주(12명, 5.29%, 17.14%)와 고성(8명, 3.52%, 11.43%)이었다. 경상북도의 경우 상주(58명, 경상도 활동 등록자의 25.55%, 경북 활동 등록자의 45.67%)에서 활동한 인물이 가장 많이 등록되어 있고 예천(20명, 8.81%, 15.75%)과 김산(19명, 8.37%, 14.96%)이 뒤를 이었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직권등록’ 방식을 통해 등록된 참여자들이다. 경상도 활동 등록 참여자 192명이 이 사례에 해당한다. ‘직권등록’은 사료에서 동학농민군으로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수행하고 있다. 유족들이 없거나 집안에서 동학농민군 활동 사실을 모르는 경우로, 그나마 사료가 남아 있어 직권등록을 한 것이다.

조선시대 경상도는 낙동강의 동쪽을 좌도, 서쪽을 우도라고 군사행정 상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하였다.

〈지도 1〉 경상좌·우도 및 각 진의 대략적인 영역

좌도는 경주에, 우도는 상주에 감영을 두었다. 우도의 감영은 다시 성주 팔거현, 달성 등으로 옮겼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1607년 대구에 감사가 머무는 처소를 두게 하면서 정착하였다.<sup>1)</sup> 경상우도는 상주진·성주진·진주진·창원진을 일컫는



다.<sup>2)</sup> 이해를 위해 오늘날 지도 위에 표기하면 〈지도 1〉과 같다.

경상좌·우도로 구분하면, 경상좌도보다는 경상우도에서 활동한 경우가 많았다. 전라도·충청도와 경계를 접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주진과

- 1) 『선조실록』 선조 40(1607)년 2월 14일 정미 3번째 기사(「하삼도의 감사 처소에 군량 등 물자를 보관하고 대구의 유민을 위무하게 하다」).
- 2) 『세조실록』 세조 3(1457)년 10월 20일 경술 2번째 기사(병조의 건의로 각도의 중익·좌익·우익을 혁파하고 거진(巨鎭)을 설치하다). 군사적 목적인 鎭은 위치가 조금씩 바뀌었다. 1894년에 맞춰 제대로 정리된 것이 없어 세조실록 1457년 10월 기사에 근거하여 나누어 서술한다.

진주진에서 활동한 등록 참여자가 많았다. 227명 가운데, 경상우도 등록 참여자 186명(81.9%), 시군 미상인 30명(13.1%), 경상좌도 등록 참여자 11명(4.8%)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로 작성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경상우도 · 좌도의 등록 참여자 수

경상우도		경상좌도		경상도
상주진	105	안동진	10	30
성주진	14	경주진	0	
진주진	58	대구진	0	
창원진	9	울산진	1	
소계	186	소계	11	30

<표 2>에서도 확인되듯이 경상도 등록 참여자들의 활동지역은 대부분 경상우도였다. 충청도와 전라도에 접해 있었기에 포착된 활동이 더 많았을 듯하다. 경상좌도의 경우 최제우가 동학을 창도하고 가장 먼저 동학이 전파되었던 곳이지만, 1871년 ‘이필제의 난’으로 그 조직이 와해된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1894년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두드러지지 않아 등록 참여자가 많지 않다.

이 글은 경상우도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 등록 참여자의 활동과 그 특징을 도출하고자 한다. 증언을 토대로 등록 참여자의 활동을 살피는 연구는 『유족 증언을 통해 본 동학농민군의 삶』(2024,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증언록으로는 『다시피는 녹두꽃』(1994, 역사문제연구소), 『전봉준과 그의 동지들』(1997, 역사문제연구소) 등이 있다. 따라서 이를 참조하고 사료들을 기초로 하여 경상우도를 상주진 · 성주진 · 진주

진·창원진으로 나누어 해당 지역 등록 참여자들의 활동과 그 특징을 도출하고자 한다.

## 2. 상주진 등록 참여자의 활동

경상도 북부지역 동학 조직으로 활발했던 포는 예천·문경 일대의 관동포(關東包, 이원팔), 상주·선산·김산 일대의 충경포(忠慶包, 임규호), 상주·예천 일대의 상공포(尙功包, 이관영), 선산·김산 일대의 선산포(善山包), 김산·개령 일대의 영동포(永同包) 등이다.<sup>3)</sup> 이 다섯 개의 포 조직들을 모두 살필 수 있는 곳이 상주진이다.

상주는 조선전기 경상우도의 감영이 있었던 곳이다. 상주진은 함창·선산·개령·김산·문경·예천·용궁을 포함한 지역이다. 함창은 상주에 속해 있고, 선산은 현재 구미, 개령·김산은 김천에 속하고, 용궁은 예천에 속한다. 경상도 북부지역에서 활발하게 움직였던 5개의 포가 활동했던 지역이기에, 등록 참여자도 105명으로 경상도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많은 수이다.

〈표 3〉 상주진에서 활동한 등록 참여자

시군	상주		선산	김천		문경	예천		합계
	상주	함창		개령	김산		용궁	예천	
명	57(13)	2	4	-	20(6)	2(1)	-	20(2)	105(22)

3) 신영우, 「경북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와 의의」, 『동학학보』 12, 동학학회, 2006, 8~9쪽 참조.

위 표에 있는 괄호 속 숫자는 다른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다가 해당 지역에서도 활동했던 등록 참여자의 수이다. 상주에서 활동한 13명은 모두 보은·영동·청산·황간 등 충청도에서 활동을 하다가 상주에서도 활약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붙잡히거나 총살된 인물들이다. 충청도와 경상도를 넘나들면서 활동한 점으로 보아 충청포에 속한 이들이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해본다. 김산에서 활동한 6명은 성주에서도 활동하였던 인물로, 동학농민군의 성주관아 점거와 관련된 인물이다. 문경에서 활동한 인물은 주로 예천에서도 활동했다. 또 예천에서 활동한 인물은 문경에서도 활동했던 이력이 확인된다. 상주에서 활동한 인물들은 보은·영동·청산·황간 등에서 활동했던 인물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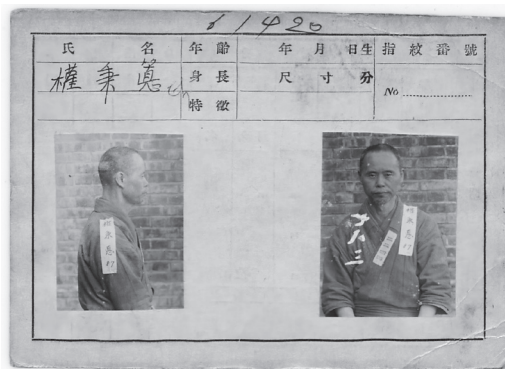
상주에서 활동한 등록 참여자 57명 중 상주·보은·청주 등 충청도와 경상도를 다니면서 활동한 권병덕(權秉惠, 1868~1943)에 대해 살펴보자.<sup>4)</sup> 그의 본관은 안동, 호는 청암(淸菴)·정암(貞菴)·우운(又雲)이다. 청암(淸菴)은 1918년에 받은 도호이다.<sup>5)</sup> 그는 아버지 권문영(權文永)과 어머니 신문화(申文燁)의 아들로, 외가가 있던 충북 청원에서 태어났다. 1883년 원세화(元世華)의 큰딸과 혼인하고 다음 해 상주에 신흠살림을 차렸다. 18세에 임규호(任奎鎬)의 권유로 동학에 입도했으며, 1886년 청주접주로 임명되었다. 1893년 2월 복합상소와 3월 보은취회에도 참여하였다.<sup>6)</sup> 1894년 3

4) 이원섭, 「동학 편력자 권병덕의 종교 생활과 행적 : 『청암의 일생(淸菴의一生)』을 중심으로」, 『종교학연구』 30, 한국종교학연구회, 2022에서 권병덕 자료가 2004년 독립기념관에 기증되어 있다고 한다.

5) 「第三編 義菴聖師(1918.04.13.)」, 『天道敎書』(『동학농민전쟁 사료총서』 28, 『동학농민전쟁 국역총서』 13)

월 10일 청산군(靑山郡) 포전리(浦田里) 김연국(金演局)의 집에서 손병희(孫秉熙)·이관영(李觀永)·권재조(權在朝)·권병덕·임정재(任貞宰)·이원팔(李元八) 등과 함께 동학농민군에 참여하였다. 1894년 4월 당시 청산접주로 활약하였다.<sup>7)</sup> 1895년 기록에는 그가 상주를 담당한 것처럼 서술되어 있다.<sup>8)</sup> 그가 충청도에서 태어나 상주에서 살았기 때문일 것이다.

권병덕의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



손병희가 1905년 12월 천도교를 일으키자, 권병덕은 천도교의 전제관장(典制觀長)·이문관장대리(理文觀長代理)·금융관장(金融觀長)·보문관장(普文館長) 등을 역임하였다. 권병덕은 잠시 천도교를 떠나 시천교에 몸을 담았다가 1916년 다시 천도교로 돌아왔다. 1919년 3·1운동 당시 민족대

- 
- 6) 「第十章 爲師訟冤」, 『侍天教宗繹史』(『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1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3)
- 7) 「第十二章 甲午東學黨革命及日清戰役」, 『東學道宗繹史』(『동학농민전쟁 사료총서』 29, 『동학농민전쟁 국역총서』 11)
- 8) 「第十三章 松菴傳授、戊戌遭難」, 『東學道宗繹史』(『동학농민전쟁 사료총서』 29, 『동학농민전쟁 국역총서』 11)



표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으며, 이로 인해 2년 동안의 옥고를 치렀다.<sup>9)</sup> 출옥 후에는 천도교 종리원(宗理院)의 서무과 주임을 거쳐, 중앙교회 심계원장·감사원장·선도사 등을 역임하였다. 1922년 손병희가 사망하고 천도교가 구파와 신파로 나뉘었을 때, 권병덕은 천도교 구파와 함께 활동하였다. 1927년 신파회가 조직되고, 1928년 2월 신파회 대구지회에서 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민족운동과 신파회의 미래에 대해 연설하였다.

1930년대 중반 일제의 민족말살통치에 대응하여 역사책을 저술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이조전란사(李朝戰亂史)』, 『조선총사(朝鮮總史)』를 들 수 있다. 『조선총사(朝鮮總史)』는 신라 때 일본에 사신을 가서 볼모로 잡힌 왕자를 탈출시키고 죽음을 맞은 박제상, 고려 때 일본 정벌군에 참여하여 무용을 보인 김방경, 한국과 일본의 강제 병합을 전후로 하여 나라를 위해 활약한 최익현·민영환·전명운·장인환 등의 활약을 담고 있었다. 일제는 이를 문제 삼아 삭제처분을 내렸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sup>10)</sup>

상공포는 상주 공동면(功東面)과 공서면(功西面)을 중심으로 세력을 펼친 포이다.<sup>11)</sup> 다만 그 구성원이 누구였는지 구체적인 활동은 무엇인지 밝힌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 상공포 소속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상주의 대표적인 동학농민군은 김현영(金顯榮)이다. 그는 상주 모서면 대접주로서 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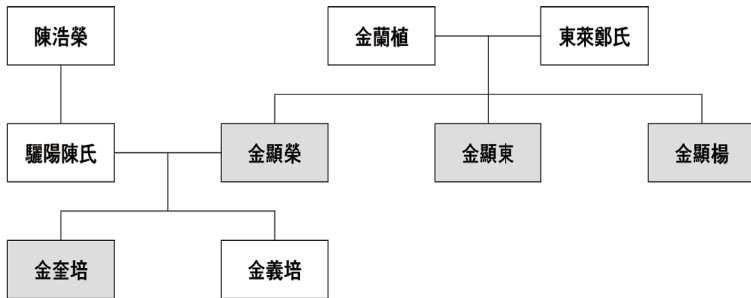
9) 「판결문」(경성지방법원, 1919.08.01.) ; 「판결문」(고등법원, 1920.03.22.) ; 「판결문」(경성지방법원, 1920.08.09.) ; 「판결문」(경성복심법원, 1920.10.30.) ; 「형사사건부」.

10)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자료관 참조.

11) 신영우, 「경북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와 의의」, 『동학학보』 12, 동학학회, 2006, 12쪽.

김규배(金奎培), 동생 김현동(金顯東)·김현양(金顯楊)과 함께 상주읍성을 점령하고 보은전투 등에 참여한 인물이다.

〈표 4〉 김현영 가계도(金海金氏京派統合譜所, 『金海金氏京派統合譜』, 1991)



김현영 부자·형제 외에도 보은까지 가서 활동한 인물은 남진갑(南眞甲), 권병덕(權秉惠) 등이 있다. 상주에서 활동한 인물 가운데 최시형이 머물렀던 청산에서 활약한 인물들도 확인된다. 김순여(金順汝)·윤경오(尹景五)·전명숙(全明叔)·최인숙(崔仁叔)이 그들이다. 이들은 상주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하다가 청산에서 기포를 준비하던 중 잡혀서 12월 14일 상주에서 총살되었다.<sup>12)</sup>

김산의 등록 참여자는 20명이다. 1894년 당시 김산·지례·개령으로 나뉘어져 있다가 1914년 행정구역을 통폐합으로 김천이 되었다. 현재 김천 시내는 1894년 당시 김산군 김천면이었다. 김산에서는 1894년 8월부터 동학농민군이 활동했는데, 대표적인 인물로 죽전(竹田) 남정훈(南廷薰), 진

12) 「甲午十二月二十八日別報」, 『別啓』(『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0,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2018).

목(眞木) 편보언(片輔彦)·편백현(片白現)을 들 수 있다.<sup>13)</sup> 도집강 편보언은 충청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로 보인다.<sup>14)</sup>

김천장터에 도소를 세우고 활동했던 도집강 편보언(片甫彦)은 10월 대구에서 파견된 병정 200명과 싸우지도 못하고 흩어졌다.<sup>15)</sup> 12월 25일 김천 시장에서 총살되었다. 이날 죽은 이는 편보언, 남정훈 등 외에도 20명에 이른다고 한다.<sup>16)</sup> 김산 일대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 가운데 편보언만 후손이 확인되고 나머지 18명의 유족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각 인물들 간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별계(別啓)』에서 김천접주 김성심(金性心)이라는 기록이 발견되었다. 그는 김산군 마좌산(馬左山)에 거주했고, 김천접주로서 성주관아 접거에 나섰던 인물이다.<sup>17)</sup> 마좌산(馬左山)은 김산군 군내면(郡內面) 소속 14개 마을 중 마좌동(馬佐洞)이다.<sup>18)</sup>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김천군 감천면(甘川面) 소속 7개 마을 중 지좌동(智佐洞)이 되었다. 김산군 고가대면(古加大面) 지수동(智水洞), 지대동(池大洞), 군내면 마좌동이 합해져서 지좌동이 되었다.<sup>19)</sup> 현재 김천시 지좌동이다. 후에 동학농민군 참여자로 등록할 필

---

13) 崔鳳吉, 「甲午八月」, 『世藏年錄』(『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6,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09).

14) 신영우, 「경북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와 의의」, 『동학학보』 12, 동학학회, 2006, 11쪽 참조.

15) 崔鳳吉, 「甲午十月」, 『世藏年錄』(『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6,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09)

16) 崔鳳吉, 「甲午十二月」, 『世藏年錄』(『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6)

17) 「甲午十一月十一日封 啓」, 『별계(別啓)』.

18) 조선총독부,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1912, 653쪽.

19) 越知唯七,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동경:兵林館印刷所, 1917, 530쪽.

요가 있는 인물이다.

김산 동학농민군은 선산읍성과 해평 일본군 병참부를 공격대상으로 정했다. 영동포와 선산포가 합세하여 9월 22일 선산읍성을 점거하였다. 9월 18일 최시형의 기포령 이후 동학농민군 활동을 제2차 봉기라고 표현하는데, 선산읍성 점거가 김산 동학농민군이 제2차 봉기 시기에 활약한 사례 가운데 하나이다. 읍성이 점거되자, 선산 향리가 해평에 있던 일본군에게 지원을 요청하였고, 일본군 병참부 주둔병은 기습을 감행해 왔다. 이에 동학농민군은 패하여 선산읍성을 내어줬다.<sup>20)</sup>

선산에서 활동한 인물은 김봉동(金鳳東)·한문출(韓文出)·한정교(韓貞敎)·신두문(申斗文)이다. 김봉동(金鳳東, 1862~1947)은 『도암세고(桃巖世稿)』의 「약력(略歷)」과 1940년대에 작성한 제문에서 그의 선산 동학농민군 활동과 패하여 흩어진 것을 입증할 수 있었다.<sup>21)</sup>

신두문은 1894년 동학농민군 활동을 하다가 10월 14일 선산에서 붙잡혀 24일 총살된 기록이 남아 있다.<sup>22)</sup> 선산포의 대접주가 확인되지 않는데, 신두문이 대접주의 지위에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추측한 연구도 있다.<sup>23)</sup> 경상도 지례에서 작성된 『갑오일기(甲午日記)』에서 선산의 수접자(首接者) 김접주(金接主)가 상산김씨이고, 선산군 무을면 송삼동 거주자라고 쓰여진 것이 발견되었다.<sup>24)</sup> 이로써 신두문이 선산접주가 아님이 밝혀졌다.

문경에서 동학농민군 활동을 한 인물은 채홍우(蔡洪禹)와 황기용(黃基用)

---

20) 신영우, 「경북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와 의의」, 『동학학보』 12, 동학학회, 2006, 34쪽 참조.

21) 金重默(김봉동의 아들), 「遯山處士茶村公事蹟」, 『桃巖世稿』, 엔코리안(주), 2016, 17·23쪽; 金瑣祚, 「桃巖世傳(필사본)」, 檀紀4340(2007), 10~1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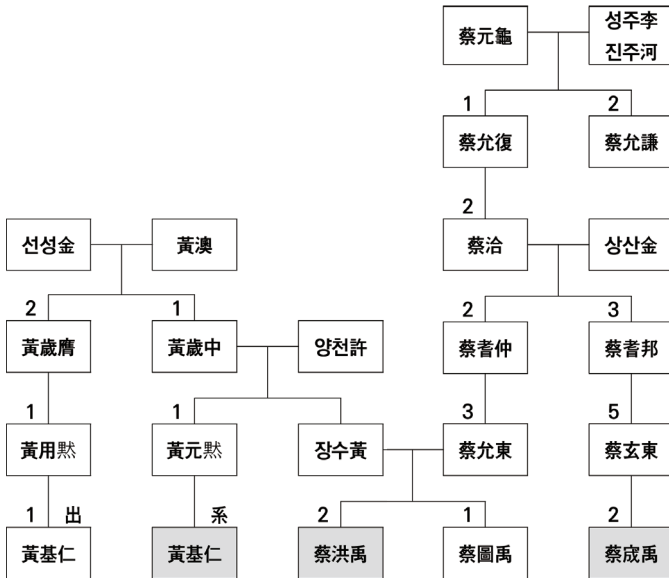
이다. 채홍우는 인천채씨이고, 황기용(죽보명 黃基仁)은 장수황씨이며, 경북 문경 산북면 석봉리 출신이다. 석봉리는 관동수접주 최맹순이 옹기상을 가장하여 동학을 포교하였던 소야리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다. 소야리는 1894년 당시 예천에 속한 지역이었지만 현재는 문경에 속하는 곳이다. 또 1894년 당시 동학농민군과 일본군이 전투를 벌였던 석문과도 가까운 곳이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예천 동학농민군과 활동을 함께 하였다.

문경 석봉리에서 예천 동학농민군으로 참여한 인물은 채홍우, 황기용 외에도 채성우(蔡成禹)가 있다. 등록 참여자는 아니지만, 채성우는 채홍우와 재종형제지간으로<sup>25)</sup>, 채홍우의 전사소식을 집에 전달한 인물이다. 이들은 증조할아버지인 채흠(蔡洽)의 둘째 아들 채기중(蔡耆仲)과 셋째아들 채기방(蔡耆邦)의 손자들이다.<sup>26)</sup>

- 
- 22) 「甲午十一月」, 『召募日記』(『동학농민전쟁 사료총서』 11) : 「甲午十一月」, 『召募日記』(『동학농민전쟁 사료총서』 11, 『동학농민전쟁 국역총서』 3) ; 「甲午十一月十二日到付」, 『召募事實(尙州)』(『동학농민전쟁 사료총서』 11, 『동학농민전쟁 국역총서』 9) ; 「甲午十二月二十六日到付監營移文」, 『召募事實(尙州)』(『동학농민전쟁 사료총서』 11, 『동학농민전쟁 국역총서』 9) ; 「도착한 순영의 이문」, 『召募事實(金山)』(『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2) ; 兩湖都巡撫營, 「소모사 정의목이 베껴서 보고함」 12월 6일, 『甲午軍政實記』(『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8).
- 23) 신영우, 「경북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와 의의」, 『동학학보』 12, 동학학회, 2006, 12쪽 참조.
- 24) 신진희, 「『甲午日記』를 통해 본 지례 동학농민군의 활동」, 『기록과 자료로 본 동학농민혁명(2025 고창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발표집)』, 고창군·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전북사학회, 2025, 67~68쪽 참조.
- 25) 『仁川蔡氏大同譜』 卷之二, 1977, 177~181쪽 ; 『仁川蔡氏大同譜』 卷之七, 1977, 46~54쪽.
- 26) 신진희, 「유족 증언으로 본 강원·경기·경상도 출신 동학농민군의 활동」, 『유족 증언을 통해 본 동학농민군의 삶』,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2024, 252쪽에는 채원묵(蔡元龜)의 아들인 채윤복(蔡允復)과 채윤겸(蔡允謙)의 후손이라고 서술하였는데, 채흠(蔡洽)의 아들인 채기중(蔡耆仲)과 채기방(蔡耆邦)의 손자들로 수정한다.

채홍우와 황기용(족보명 黃基仁)은 사촌지간이다. 채홍우의 어머니가 장수황씨이고, 황기용의 양부(養父)인 황원묵(黃元默)의 누이이다.<sup>27)</sup> 즉, 채홍우의 외사촌이 황기용이고, 황기용의 고종사촌이 채홍우인 것이다.

〈표 5〉 채홍우 · 채성우 · 황기용 가계도(『仁川蔡氏大同譜』 참조)



예천은 관동포 대접주 이원팔(李元八)의 영향을 받았고, 그 조직을 확대한 것은 수접주 최맹순이었다.<sup>28)</sup> 최맹순은 강원도 춘천사람인데 예천에서 옹기상으로 위장하여 동학농민군 활동을 하였다. 1894년 11월 21일 문경

27) 長水黃氏少尹公派譜所, 『長水黃氏世譜』, 譜典出版社, 1981, 27쪽(신진희, 「유족 증언으로 본 강원·경기·경상도 출신 동학농민군의 활동」, 『유족 증언을 통해 본 동학농민군의 삶』,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2024, 252쪽 재인용). 황세중(黃歲中)은 1남4녀를 두었는데, 아들인 황원묵(黃元默)은 자식이 없어 황기용(황기인)을 양자로 들였다. 첫째 딸은 가평이씨, 둘째와 셋째 딸은 인천채씨, 넷째는 진주 강씨와 혼인하였다. 둘째 딸이 채홍우의 어머니이다.

에서 붙잡혔고 다음날 아들 최한걸과 함께 처형되었다. 예천이 관동포의 영향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8월 3일 예천 금당실에 금곡포덕소가 설치되고, 20일 경상도·충청도·강원도 각 접소에 사통을 보내 예천읍을 공격하자는 의전이 진행되었다. 관동대접(關東大接)과 상북(尙北)·용궁·충경(忠慶)·예천·안동·풍기(豐基)·영주(榮川)·상주·함창·문경(聞慶)·단양(丹陽)·청풍(淸風)의 13접주가 상주 산양(山陽)과 예천 금곡 및 화지(花枝)에서 대회를 열었다. 상주진은 상주 산양, 예천 금곡, 화지에서 경상도·충청도·강원도 각 접이 모여 예천읍을 공격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던 곳이다. 경상도·충청도·강원도 3도의 동학농민군이 함께 움직인 것으로 그 특징을 유추할 수 있을 듯하다.

상주를 중심으로 위로는 예천을, 아래로는 김산을 중심으로 동학농민군이 움직였다. 외부에서 유입된 동학농민군과 그 지역 출신 동학농민군이 연합하여 움직이면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진출한 것이다. 예천의 동학농민군은 안동진으로, 선산·김산의 동학농민군은 성주진으로 진출하였다.

상주진 동학농민군은 충청포·영동포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상주 동학농민군과 관동포의 영향을 받은 예천의 동학농민군을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상주진은 상주를 기준으로, 위로는 예천-안동-의성-의흥 동학농민군의 활동, 아래로는 상주-김천-선산-성주 동학농민군의 활동으로 연결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

28) 신영우, 「경북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와 의의」, 『동학학보』 12, 동학학회, 2006, 10쪽 참조.

### 3. 성주진 등록 참여자의 활동

성주진은 성주·합천·초계·거창·고령·지례 등을 포함한 지역으로, 충청도와 전라도에 접해 있는 곳이다. 따라서 상주진의 김산·선산 동학농민군과 성주 동학농민군, 충청도·전라도 동학농민군의 영향을 모두 받은 것이다.

성주진에서 활동한 등록 참여자는 14명이다. 성주에서 활동한 등록 참여자가 많았다. 표로 만들어보면 아래와 같다. 성주에서 활동한 11명은 대부분 김산에서도 활동한 인물들이다. 김상필(金尙弼)·김치서(金致瑞)·이오철(李五哲)·이응원(李應元)·전명준(全命俊)·현복만(玄卜萬) 등 6명은 성주에서 활동하다가 1895년 1월 24일 김산에서 포살당한 인물이다.<sup>29)</sup>

〈표 6〉 성주진에서 활동한 등록 참여자

시군	성주	합천		거창	고령	김천	합계
		초계	합천			지례	
명	11(1)	-	-	2	1	-	14(1)

성주진과 관련된 사항을 『세장년록(世藏年錄)』에서 살필 수 있다. 성주는 아전들이 동학농민군 수십 명을 죽였고 이에 동학농민군이 총과 창을 들고 대마 시장에 모였고, 뒤이어 성주부 안으로 들어가 3일 동안 인가를 불에 태웠다.<sup>30)</sup> 성주에서 활동한 11명의 등록 참여자 중 장여진(張汝振)은 동학농민군 좌익장으로서 성주 함락에 참여했다가 황간에서 체포되어 총살되

29) 「정월 19일 경영에 보낸 보이」, 『召募事實(金山)』(『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2).

30) 「甲午八月」(1894년 8월 초6일자, 『世藏年錄』(『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6).



였고, 김두희(金斗熙)의 경우 고령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성주 등지를 다니면서 보급품을 전달했다고 전해지는 인물이다.

〈표 7〉 성주진에서 활동한 등록 참여자 목록

번호	이름	생몰연대	활동지역 1	활동지역 2	비고
1	姜基万	?~1894	거창		
2	吳聖瑞	?~1894	거창		
3	金斗熙	1860~1895	고령	성주	
4	金尙弼	?~1895	성주	김산	
5	金致瑞	?~1895	성주	김산	
6	文龍云	?~?	성주		접주
7	徐達龍	?~?	성주		접주
8	孫千八	?~?	성주		
9	李五哲	?~1895	성주	김산	
10	李應元	?~1895	성주	김산	
11	張汝振	?~1894	성주	황간	좌익장
12	張義重	?~?	성주		
13	全命俊	?~1895	성주	김산	
14	玄卜萬	?~1895	성주	김산	

성주는 8월 23일 동학농민군이 읍내로 들어왔는데, 전라도 경계에 살던 사람들과 성주·김산 동학농민군이 합세하고, 거기에 황간에서 온 동학농민군도 함께하였다. 이들이 모였던 곳이 성주 대마장터[代馬市]였다.<sup>31)</sup> 성주목사 오석영(吳錫永)은 놀라 대구감영으로 가서 경상감사 조병호(趙秉鎬)에게 구원을 요청했지만 접견조차 하지 못하였다.

성주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은 김상필(金尙弼)·김치서(金致瑞)·이오철(李五哲)·이응원(李應元)·전명준(全命俊)·현복만(玄卜萬)·장여진(張汝

31) 「甲午八月」(1894년 8월 초6일자, 『世藏年錄』(『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6) ; 신영우, 「경북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와 의의」, 『동학학보』 12, 동학학회, 2006, 34~35쪽 참조.

振)·문용운(文龍云)·서달용(徐達龍)·손천팔(孫千八)·장의중(張義重) 등이다. 문용운·서달용은 8월 28일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성주관아를 공격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거창에서 활동한 강기만(姜基萬)과 오성서(吳聖瑞)는 1894년 동학농민군으로 활약하다가 12월 거창민보군에게 피살되었다.<sup>32)</sup> 거창의 민보군을 결성한 인물들은 전감찰(前監察) 신세해(愼世海), 전사과(前司果) 유명환(俞永煥), 전도사(前都事) 이현규(李鉉奎), 전주사(前主事) 이준학(李竣學), 전중군(前中軍) 정찬건(鄭燦健),<sup>33)</sup> 거창유학(居昌幼學) 강달주(姜達周), 전거창부사(前居昌府使) 소모사(召募使) 정관섭(丁觀燮) 등이다.<sup>34)</sup> 강기만과 오성서를 “두령(頭領)”<sup>35)</sup> 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동학농민군을 통솔하는 지도자 위치에 있었던 듯하다.

지례는 현재 김천시에 속하지만 당시에는 김산과 함께 동학농민군 활동이 활발했던 곳이다. 지례현감 이재하가 1895년 1월 5일 총살한 동학농민군에 관한 기록이 있다. “본현 남면(南面)의 백성 등이 붙잡아낸 비류가 네 놈인데 그 가운데 김재덕(金在德)·김성봉(金成奉)·이홍이(李洪伊) 등은 작년 8월에 패거리를 거느리고 고을에 들어와서 관문官門에서 말뚝을 부리고 촌리(村里)에서 재물을 토색하였고 또 성주(星州)·금산(錦山)·황간(黃澗)·영동(永同)에서 작변(作變)할 때 참여한 자이기 때문에 일일이 자

32) 朴衡采, 「第十一章 甲午敎厄」, 『侍天敎宗繹史』, 1915, (『동학농민혁명 사료총서』 29,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11)

33) 「義旅」, 『東學黨征討人錄』(『동학농민전쟁 국역총서』 12).

34) 『甲午軍功錄』(『동학농민전쟁 국역총서』 12).

35) 康弼道, 「第十二章 甲午東學黨革命及日淸戰役」, 『東學道宗繹史』(『동학농민전쟁 사료총서』 29, 『동학농민전쟁 국역총서』 11)

복을 받아낸 뒤 정월 초5일에 모두 즉시 총살하였습니다. 신채봉(申彩鳳)은 위협을 당하여 도당에 들어간 것을 뚜렷하게 해명하였기 때문에 신칙하여 풀어 보냈습니다.”<sup>36)</sup>

이 기록을 통해 지례에서 활동한 인물들이 성주·금산·황간·영동 등 경상도는 물론 충청도에서도 활동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재덕(金在德)·김성봉(金成奉)·이홍이(李洪伊)·신채봉(申彩鳳) 등 네 명의 동학농민군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뒤에 동학농민군 참여자로 등록할 필요가 있다.

#### 4. 진주진 등록 참여자의 활동

진주진은 진주·사천·곤양·하동·남해·단성·산음·의령·함양·삼가·안음 등을 포함한 지역이다. 진주는 영호대도소 김개남(金開南), 대접주 김인배(金仁培)의 영향을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1893년 보은집회에서 하동접 50여 명과 진주접 60여 명이 참여했다는 기록도 있다.<sup>37)</sup> 서부경남의 동학농민군은 백낙도(白樂道, 白道弘)를 중심으로 확대되었다. 그는 최시형의 명을 받아 진주에서 손웅구·고만준·임정룡·임말룡 등 수천 명에게 동학을 전파하였고 보은집회 이후 진주 덕산을 거점으로 활동하였다.<sup>38)</sup> 1894년 1월 12일 함안을 시작으로 16·17일 사천, 3월 말 김

---

36) 「乙未正月初十日別報」, 『別啓』(『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0)

37) 어윤중, 「宣撫使再次狀啓」, 『聚語』(김양식, 「지리산권 동남부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와 특징」, 『남도문화연구』 26,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014, 42쪽 재인용).

해에서 농민군이 활동하였다.<sup>39)</sup> 등록 참여자의 비중을 보면 진주와 하동이 중심이었다. 표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8〉 진주진에서 활동한 등록 참여자

시군	진주	사천		하동	남해	산청		의령	함양		합천	합계
		사천	곤양			단성	산음		함양	안음	삼가	
명	12(2)	2	2	36(6)	3	-	1	-	-	-	2	58(8)

진주와 하동에서 활동한 등록 참여자가 가장 많다. 하동이 36명으로 진주진에서 활동한 58명 가운데 62%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아마 고승산전투에 참여한 인물들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하동, 진주 외에도 사천·곤양·남해·산음·삼가 등의 참여자가 있다. 외부에서 들어와 활동한 이들도 진주와 하동에만 있고 사천·곤양·남해·산음·삼가 등에서 활동한 인물은 없었다.

9월 15일 김인배가 점령한 곤양의 접주는 김학두(金學斗)이고, 등록 참여자로서 곤양에서 활동한 2명은 김성룡(金成龍), 장학용(張鶴用)이다. 김성룡은 10월 곤양에서 포를 일으켜 동학농민군을 이끌었던 인물이다.<sup>40)</sup> 장학용은 곤양 외에도 광양에서도 활약하다가 붙잡혀 12월 총살되었다. 광양현에서 붙잡힌 동학농민군의 명단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곤양 출신자

38) 김양식, 「지리산권 동남부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와 특징」, 『남도문화연구』 26,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014, 42쪽.

39) 김양식, 「지리산권 동남부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와 특징」, 『남도문화연구』 26,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014, 41쪽.

40) 「第二編 海月神師」, 『天道教書』(『동학농민전쟁 사료총서』 28, 『동학농민전쟁 국역총서』 13)

임재석(林在石)의 이름도 확인할 수 있다.<sup>41)</sup>

10월 들어 동학농민군은 관군에 쫓겨 순천으로 후퇴, 22일 다시 진격해 섬거역에서 일본군·관군과 함께 싸움을 벌였다. 패한 동학농민군은 광양으로 후퇴했고 11월 10일 좌수영으로 진격했다. 16일과 20일에도 좌수영을 공격했으나 입성에 실패했다.

김인배의 처남이자, 고부봉기부터 참여하여, 전주 입성 후 순천·하동·진주 등 영호남을 아우르면서 활동한 동학농민군 조승현(趙升鉉, 1870~1948)을 살펴보자. 김인배와 혼인한 김제조씨는 무진생으로 1868년생이다.<sup>42)</sup> 다시 말하면 조승현의 누나였다. 따라서 김인배(金仁培, 족보명 金龍培)는 조승현의 자형이 된다. 김인배의 아내인 김제조씨의 사진이 남아 있어 가계도 안에 넣었다.<sup>43)</sup> 가계도는 <표 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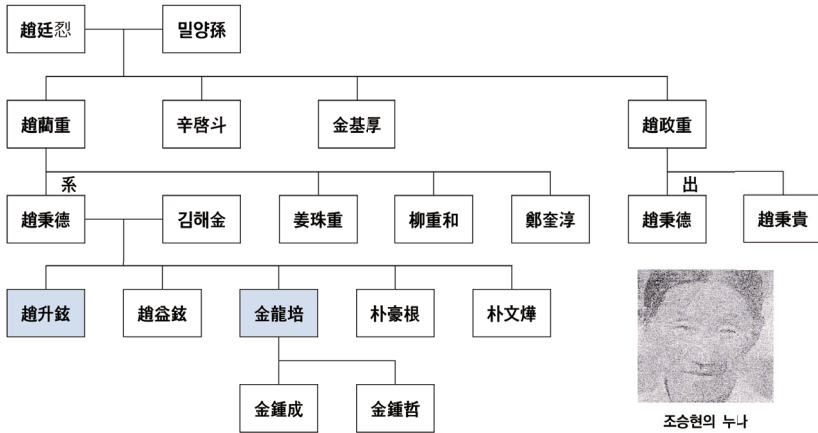
---

41) 統理衙門 編, 「甲午十二月 日」, 『光陽縣捕捉東徒姓名成冊』(『동학농민전쟁 사료총서』 8, 『동학농민전쟁 국역총서』 7)

42) 『金堤趙氏大同譜』 上卷, 檀紀4307(1974), 498~199쪽; 김해김씨 경파통합보소, 『金海金氏 京派統合譜』, 배영출판사, 1991, 881~882쪽; 김제조씨대종회 홈페이지 ([www.gimjecho.com](http://www.gimjecho.com)) 참조.

43) 최현식, 『갑오동학혁명사』, 신아출판사, 1994, 259~260쪽.

〈표 9〉 조승현 가계도(www.gimjecho.com 참조)



12월 일본군·관군이 동학농민군을 광양으로 밀어붙였다. 6일 밤 김인배는 처남 조승현을 불러 “장부가 死地에서 죽음을 얻는 것은 오직 몇몇한 일이고 다만 뜻을 이루지 못함이 한 이로다. 나는 공생동사를 맹세한 동지들과 최후를 같이 할 것이니 그대는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를 봉양하시오” 했다. 이에 조승현은 광양을 벗어나 집으로 돌아왔고, 김인배는 부대장 유하덕(劉夏德) 등 90여 명이 붙잡혀 포살당했다. 광양읍의 빙고등(氷庫嶺)이 당시 동학농민군 포살장이었다고 한다. 김인배의 아내이자 조승현의 누나 김제조씨는 어린 첫 아들을 친척집에 맡기고, 둘째 아들을 임신한 몸으로 행상을 하며 생계를 이었다고 한다.<sup>44)</sup>

진주진에서 가장 많은 등록 참여자가 있는 곳은 하동이다. 이곳의 접주는 여장협(余章協)이다. 8월부터 하동의 민보군이 반격에 나섰고 접주 여장협

44) 최현식, 『갑오동학혁명사』, 신아출판사, 1994, 259~260쪽 참조.

은 영호대도소에 지원을 요청하였다.<sup>45)</sup> 이에 영호대도소 김개남(金開南)이 하동을 공격하면서 본격적인 대일항전이 시작되었다. 총대장 김인배(金仁培)와 부대장 유하덕(劉夏德)이 직접 영호대도소 동학농민군을 이끌었다. 1894년 9월 1일 새벽 하동부를 점령한 동학농민군 중 김인배가 이끄는 주력부대는 5~6일 간 하동에 머물다가 진주방면으로 진격하였다. 9월 15일 곤양을 점령한 김인배는 곤양 동학농민군과 함께 진주로 향했다.<sup>46)</sup>

진주는 9월 1일 동학농민군이 조직적으로 일어나 활동하였고 8일 73개면민 대집회를 읍내 장터에서 열고 충청대도소를 설치하였다. 17일 영호대도소 선봉부대가 진주로 들어왔고 18일 김인배가 이끄는 동학농민군도 들어왔다. 진주병사 민준호(閔俊鎬)는 진주성문을 열고 동학농민군을 맞이하였다.<sup>47)</sup>

남해에서 활동한 등록 동학농민군은 3명이 확인된다. 박용필(朴容弼), 정용태(鄭龍泰), 정원섭(鄭元燮, 1873~1945)이 그들이다. 이 가운데 하동접주 여장협(余章協)의 장인이라고 하는 정원섭을 살펴보자.

여장협(余章協)은 하동접주로 하동에서 활약한 인물이고, 하동 민보군의 반격을 받아 영호대도소에 지원을 요청한 인물이기도 하다. 의령여씨 족보에는 정원섭의 딸 여호익이 혼인한 여봉문이 여장엽(余將燁)으로 표기되어 있다. 직권등록되어 있는 인물이 여장협(余章協)이기 때문에 여장협(余章協)이 여장엽(余將燁)과 동일인물인지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

---

45) 최현식, 『갑오동학혁명사』, 신아출판사, 1994, 258쪽.

46) 김양식, 「지리산권 동남부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와 특징」, 『남도문화연구』 26,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014, 44쪽.

47) 「兵荒三之四」, 『柏谷誌』(『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6).

하동접주 여장협(余將燁)의 다른 이력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장협이 하동접주 여장협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듯하다. 다른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다가 하동에서 활동한 6명도 있다. 고광신(高光臣)은 광양 영호도회소 접주로 동학농민군을 이끌었으나 광양 옥곡에서 하동 민보군에게 붙잡혀 처형되었다. 고광신과 함께 처형된 인물이 박정주(朴正周)·류윤거(柳允舉)·박사영(朴士永)·김백현(金伯賢)·김선준(金先俊) 등이다.<sup>48)</sup>

진양정씨 족보를 보면 정원섭은 부인 밀양박씨와의 사이에 1남 3녀를 두었다. 장녀인 정호익(鄭好益, 1903년생)이 여효근(余孝根)의 아들인 여봉문(余奉文)과 혼인하여 여영권(余永權), 여영언(余永彦)을 두었다고 한다.<sup>49)</sup> 제적등본에는 정호익의 아버지는 정원섭, 어머니는 박묘엽(朴妙葉)이고, 여효근의 둘째 아들인 여봉문과 혼인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sup>50)</sup> 남해 출신으로 하동에서 전사한 정낙원(鄭洛元)도 진양정씨 일가다.

진주·하동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의 경우, 대부분 1894년(음)10월 14일 일본군과 벌였던 고성산전투와 관련이 된다. 이 전투는 일본군이 동학농민군을 공격하여 동학농민군 즉사 186명, 생포 2명 등으로 동학농민군의 피해가 컸던 전투이다.<sup>51)</sup> 고성산 전투와 관련하여 『주한일본공사관기록(駐韓日本公使館記錄)』이 남아있다. 1894년 11월 19일(양) 발신된 「晉州附近 東學黨擊破 詳報 送付」중 별자(別紙)로 첨부된 ‘제4보고’가 그것이다.——

48) 慶尙監司, 慶尙監營, 「甲午十二月二十八日別報」, 『別啓』(『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0)

49) 『晉陽鄭氏世譜』 卷四, 晉陽鄭氏 僉正公波大宗會, 1997, 19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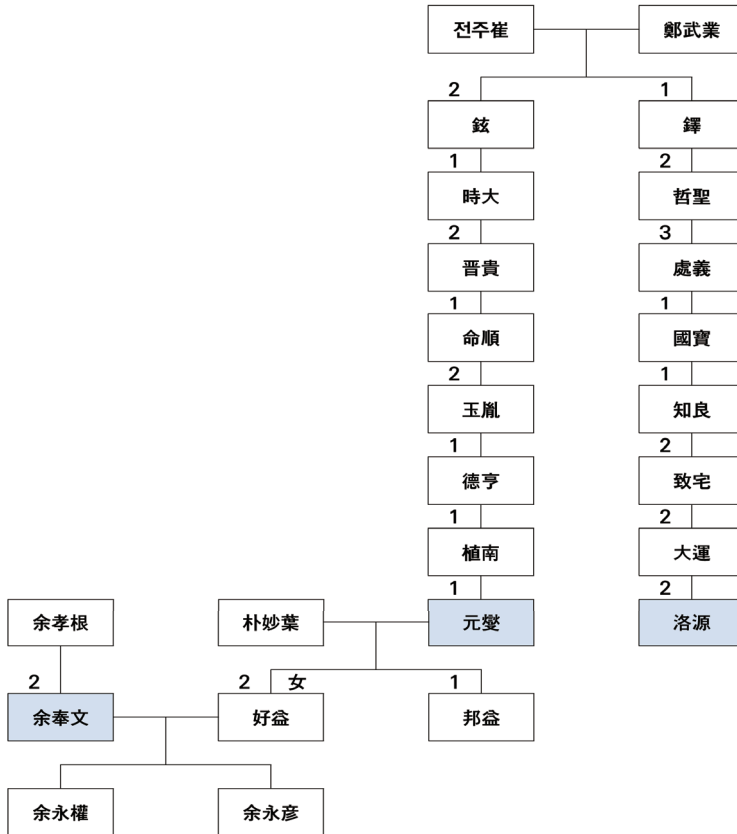
50) 「정원섭 제적등본」

51) 「六. 東學黨征討關係에 關한 諸報告」(4)晉州附近 東學黨擊破 詳報 送付,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권.

52) 「六. 東學黨征討關係에 關한 諸報告」(4)晉州附近 東學黨擊破 詳報 送付,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권.



〈표 10〉 정원섭, 정낙원 가계도



어제 11일 오전 4시 진천을 출발하여 서쪽 30리 남짓한 곳에 있는 水谷村에 모여 있는 동학당을 공격하려고 그 마을에 갔더니, 동학당이 산과 들에 가득 차서 대략 1,400~1,500명이 있었다(그 지방 사람의 말로는 4,000~5,000명이라고 함). 8시 5분 그들이 사격해 오므로 응전하였다. 점차 攻進하여 가는데, 그들의 절반은 산위에, 나머지 절반은 산 북쪽으로 퇴거했다. 그래서 먼저 산위에 있는 적을 공격하였으나, 산꼭대기 무벽에 의지해서 완강하게 방어했으며 또 북쪽으로 퇴거하였던 적도 다시 나와 우리의 우측을 습격했다. 10시 15분 1개 소대를 가지고 산위의 성벽으로 돌입하여 이를 빼앗았다. 이때에 우리 부상자는 3명이었다. 다른 1개 소대로는 계속 우측 적진으로 돌입시켰다. 이보다 앞서 遠田 중위로 하여금 1개 소대를

인솔, 좌측으로부터 적을 구축하고 그곳에 있는 적을 격파하여 드디어 적의 배후에 이르러 적군을 격멸 소탕케 하였다. 오전 11시 대오를 수습하였다. 적은 서북쪽 德山(智異山쪽)을 향하여 패퇴하였다. 계속 이를 추적했으나 미치지 못하였다. 가까운 마을에는 유기된 부상자가 있을 뿐이었다.<sup>52)</sup>

뒤이어 일본군 부상자와 동학농민군 즉사자에 대한 기록도 있었다. 일본군 제4중대 상등병 高橋淺次 우측흉부 총상, 일등졸 小野山丑彌 대퇴전하부 총상, 藤本源左衛門 척골골절이었다. 부상이 있었을 뿐 일본군에서 전사자가 나오지는 않았다. 동학농민군은 즉사 186명, 생포 2명(토포사에게 인도), 화약 30관(사용할 수 없게 처분), 조선돈 6관 790문, 말 17두, 소 2두, 가마니 1개, 쌀 5두는 현지에서 사용하고, 今橋 少佐에게 보낸 9개 물품은 총 136정, 칼 18자루, 나팔 3개, 큰북 3개, 기(旗) 3기, 화살 2다발, 탄환 5관, 동제화분 5개, 창 54자루였다.<sup>53)</sup>

이 전투에서 부자 간, 형제 간 참전한 사례도 꽤 많다. 진양하씨 집안의 인물들인 하수태(河壽泰, 1861~1894)와 같은 마을 출신인 하성원(河聖源, 1842~1903) · 하성하(河聖夏, 1849~1886) · 하성기(河聖基, 1855~1932) 삼형제, 사천 동학농민군으로 고성산전투에서 전사한 육상규(陸相奎, 1854~1894) · 육병명(陸炳明, 1874~1894) 부자(父子), 윤상준(尹相俊) · 윤상선(尹相善) 형제, 양태환(梁台煥) · 양기환(梁箕煥) 형제, 신관오(申寬梧) · 신관준(申寬俊) 형제 등이 그러하다.

53) 「六. 東學黨征討關係에 關한 諸報告」(4)晋州附近 東學黨擊破 詳報 送付,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권.

54) 康弼道, 「第十三章 松菴傳授、戊戌遭難」, 『東學道宗釋史』(『동학농민전쟁 사료총서』 29, 『동학농민전쟁 국역총서』 11)

## 5. 창원진 등록 참여자의 활동

창원진은 김해·고성·웅천·칠원·함안·진해·거제를 포함한 지역을 일컫는다. 전라도와 접해있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동학농민군이 활발하게 활동한 곳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오형묵이 남긴 『경상도고성부총쇄록(慶尙道固城府叢瑣錄)』에 근거하여 고성에서 활동했던 동학농민군이 포착될 뿐이다.

〈표 11〉 창원진에서 활동한 등록 참여자

시군	창원	김해	고성	진해		함안		거제	합계
				진해	웅천	칠원	함안		
명	-	1	8	-	-	-	-	-	9

김해에서 활동한 등록 참여자는 김동명(金東明)이 유일하다. 김해접주로서 동학농민군 활동에 나섰던 인물이다.<sup>54)</sup> 같은 자료에 “동(소) 송문수(宋文洙)”라고 적힌 것이 확인되는데, 여기서 “소”은 앞의 “김해접주”로 판단되지만, 접주가 2명인 것인지 아니면 “접주”라는 표현인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12〉 창원진에서 활동한 등록 참여자

번호	이름	생몰연대	활동지역 1	활동지역 2	활동지역 3	비고
1	金東明	?~?	김해			접주
2	姜渭弼	?~?	고성			접주
3	金相憲	?~?	고성			
4	金日洙	?~?	고성			
5	朴奎信	?~?	고성			
6	朴文璣	?~?	고성			
7	李應道	?~1894	고성			접주
8	鄭大權	?~1894	고성			
9	崔應七	?~?	고성			

고성에서 활동한 등록 참여자는 8명이다. 강위필(姜渭弼)과 김일수(金日洙)는 『동학도종역사(東學道宗譯史)』(『동학농민혁명사료총서』 29)에서 그 이름이 확인된다. 김상헌(金相憲), 박규신(朴奎信), 박문기(朴文璣), 이응도(李應道), 정대권(鄭大權), 최응칠(崔應七) 등 6명은 오형묵이 남긴 『경상도 고성부총쇄록(慶尙道固城府叢瑣錄)』에서 확인된다. 이들은 최응칠을 장두(狀頭)로 삼아 1894년 9월 13일 고성에 들어가 포랑미를 수송하였다. 관군의 추격을 받고 잡히지 않은 인물은 김상헌·박규신이고 4명은 모두 잡혔다. 박문기는 수감되었고, 이응도·정대권은 진주에서 총살되었다. 장두였던 최응칠은 진주가 아니라 통영에 수감되었다.

창원진은 경상우도의 상주진·성주진·진주진에 비해 동학농민군 관련 기록이 많지 않다. 하지만 창원부사 이종서(李鍾緒)가 소모사로 임명된 점, 오형묵이 『경상도고성부총쇄록(慶尙道固城府叢瑣錄)』을 남긴 점으로 보아, 동학농민군의 움직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6. 맺음말 : 경상우도에서 활동한 등록 참여자의 특징

본문에서 경상우도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 중 등록 참여자를 살펴보았다. 경상우도 등록 참여자의 특징을 몇 가지 제시할 수 있을 듯하다. 첫째, 경상도에서 활동한 등록 참여자는 후손들의 신청보다는 대부분이 ‘직권등록’된 경우였다. 유족들이 신청한 1차 등록 29명, 2차 등록 6명이다. 227명 중 192명이 ‘직권등록’된 인물들로 약 84.6%를 차지한다.

둘째 경상좌·우도로 구분하면, 경상좌도보다는 경상우도에서 활동한 경

우가 많았다. 전라도·충청도와 경계를 접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주진과 진주진에서 활동한 등록 참여자가 많았다. 227명 가운데, 경상우도 등록 참여자 186명(81.9%), 시군 미상인 30명(13.1%), 경상좌도 등록 참여자 11명(4.8%)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 13〉 경상우도·좌도의 등록 참여자 수

경상우도		경상좌도		경상도
상주진	105	안동진	10	30
성주진	14	경주진	0	
진주진	58	대구진	0	
창원진	9	울산진	1	
소계	186	소계	11	30

셋째 경상우도의 경우에는 상주진과 진주진을 중심으로 동학농민군이 활동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등록 참여자의 숫자가 더 많았던 부분도 있지만 남아있는 사료가 경상도의 다른지역보다 많았기 때문에 밝혀낼 수 있었던 것이다.

넷째 혈연·지연은 물론 연비·연원이라는 동학조직의 관련성도 있어 보이지만 명확하게 밝히기에는 자료가 부족하였다. 유족들의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또 연비·연원을 밝혀줄 수 있는 자료가 발견되길 기대할 수밖에 없다.

본문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등록 참여자의 연령을 살펴보자. 참여 당시 연령이 확인되는 인물은 40명인데, 10대 2명, 20대 12명, 30대 12명, 40대 11명, 50대 1명, 60대 1명, 70대 1명이다. 김현영은 40대, 편보연은 30대, 전기항은 60대, 김인배가 20대였다. 245명 가운데 40명만 확인이

되는 것에 불과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0대, 30대, 40대가 중심이었으리라 짐작된다.

마지막으로 경상도에서 활동한 등록 참여자들의 특징을 도출하면서 부족한 점도 드러났다. 필자가 등록 참여자들의 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유족들의 신청에 의해 등록된 참여자보다 직권등록된 인물이 더 많아 관계 파악에는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상주인 지역이 가장 많은 등록 참여자가 많은 곳이라서 관계 파악을 하려고 하였으나 역시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힘들었다.

그리고 1894년 동학농민군으로 참여했다가 기록이 남아 있어 ‘직권등록’된 인물 가운데 천도교에 들어가 3.1운동 등 독립운동에 참여한 인물을 연계하여 살펴야 한다는 점이다. 본문에서 살펴보았던 권병덕의 사례처럼 동학농민군 활동도 했고, 이후 독립운동에서도 이름이 확인되는 인물이 그러하다. 동학농민군 활동을 했거나 관련 내용에 언급된 인물을 살필 경우는 국가보훈부 혹은 독립기념관 등 기관과 연계하여 관련 자료를 업데이트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경상도에서 활동한 등록 참여자의 활동을 살피고 특징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나, 부족한 점이 많았다. 앞으로 더 많이 보완되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지역의 동학농민군도 발견되길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선조실록』, 『세조실록』, 『典錄通考』

『駐韓日本公使館記錄』

『響山日記』

「판결문」, 「형사사건부」

金重默(김봉동의 아들), 「遯山處士茶村公事蹟」, 『桃巖世稿』, 엔코리안(주), 2016

金瑣祚, 「桃巖世傳(필사본)」, 檀紀4340(2007)

『仁川蔡氏大同譜』, 『金堤趙氏大同譜』

長水黃氏少尹公派譜所, 『長水黃氏世譜』, 譜典出版社, 1981

김해김씨 경파통합보소, 『金海金氏 京派統合譜』, 배영출판사, 1991

『晉陽鄭氏世譜』卷四, 晉陽鄭氏 僉正公波大宗會, 1997

『甲午軍功錄』(『동학농민전쟁 국역총서』 12,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4)

『甲午軍政實記』(『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8,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7)

『光陽縣捕捉東徒姓名成冊』(『동학농민전쟁 사료총서』 8, 『동학농민전쟁 국역총서』 7,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0)

『東學道宗釋史』(『동학농민전쟁 사료총서』 29, 『동학농민전쟁 국역총서』 1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3)

『別啓』(『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0,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8)

『世藏年錄』(『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6,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09)

『召募事實(金山)』(『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2,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7)

『召募事實(尙州)』(『동학농민전쟁 사료총서』 11, 『동학농민전쟁 국역총서』 9,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1)

『順天府捕捉東徒姓名成冊』(『동학농민전쟁 국역총서』 7,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0)

『侍天教宗釋史』(『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1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3)

『天道教書』(『동학농민전쟁 사료총서』 28, 『동학농민전쟁 국역총서』 13,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5)

최현식, 『갑오동학혁명사』, 신아출판사, 1994.

김양식, 「지리산권 동남부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와 특징」, 『남도문화연구』 26,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 2014소.

신영우, 「경북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와 의의」, 『동학학보』 12, 동학학회, 2006.

신진희, 「유족 증언으로 본 강원·경기·경상도 출신 동학농민군의 활동」, 『유족 증언을 통해 본 동학농민군의 삶』,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2024.

신진희, 「경상도 의흥지역 동학농민군 활동」, 『동학농민혁명 연구』 4,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2025.

신진희, 「경상도 북부지역 반동학농민군 연구」, 안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이원섭, 「동학 편력자 권병덕의 종교 생활과 행적 : 『청암의 일생(淸菴의一生)』을 중심으로」, 『종교학연구』 30, 한국종교학연구회, 2022.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자료관

김제조씨대종회 홈페이지([www.gimjecho.com](http://www.gimjecho.com))



〈부록 1〉 상주진에서 활동한 등록 참여자 목록

번호	이름	생몰연대	활동지역 1	활동지역 2	활동지역 3	비고
1	姜萬哲	?~1894	상주	.	.	.
2	姜善甫	?~1894	상주	.	.	포도대장
3	姜弘伊	?~1894	상주	.	.	.
4	具八先	?~1894	상주	.	.	접사
5	權秉惠	?~?	상주	보은	청주	.
6	權和汝	?~?	상주	.	.	.
7	權和一	?~1894	상주	.	.	.
8	金福孫	?~?	상주	.	.	.
9	金順五	?~1894	상주	.	.	.
10	金項羽	?~?	상주	.	.	.
11	金京俊	?~1894	상주	.	.	.
12	金奎培	1874~1945	상주	보은	.	.
13	金達文	?~1894	상주	.	.	.
14	金順汝	?~1894	상주	청산	.	.
15	金哲命	?~1894	상주	.	.	.
16	金顯東	1850~1894	상주	보은	.	.
17	金顯揚	1864~1945	상주	.	.	.
18	金顯榮	1849~1911	상주	보은	.	대접주
19	南戒一	?~1894	상주	.	.	.
20	南戎一	?~1894	상주	.	.	.
21	南眞甲	?~1894	상주	보은	.	.
22	李觀永	?~?	상주	.	.	상공대접주
23	李圭三	?~1894	상주	.	.	접주
24	李道生	?~1894	상주	.	.	.
25	李得伊	?~1894	상주	.	.	.
26	李用卜	?~1894	상주	.	.	.
27	李義城	?~1894	상주	.	.	.
28	李太平	?~1894	상주	.	.	.
29	李化春	?~1894	상주	.	.	접주
30	朴起奉	?~1894	상주	.	.	.
31	朴方乙	?~?	상주	.	.	.
32	朴時昌	?~?	상주	.	.	.
33	朴昌鉉	?~1894	상주	.	.	.
34	朴和實	?~1894	상주	.	.	.

35	朴孝植	?~1894	상주	.	.	.
36	裴春瑞	?~1894	상주	.	.	.
37	徐致大	?~1894	상주	.	.	접사
38	孫德汝	?~1894	상주	.	.	.
39	辛光瑞	?~?	상주	.	.	접주
40	安致瑞	?~?	상주	.	.	.
41	億孫	?~1894	상주	.	.	.
42	嚴用汝	?~?	상주	.	.	.
43	俞鶴彦	?~1894	상주	.	.	.
44	尹景五	?~1894	상주	청산	.	.
45	尹光周	?~?	상주	.	.	접주
46	張判成	?~1894	상주	.	.	.
47	全明叔	?~1894	상주	청산	.	.
48	全五福	?~1894	상주	.	.	.
49	鄭奇福	?~?	상주	.	.	접주
50	鄭順汝	?~1894	상주	.	.	접주
51	鄭汗	?~?	상주	.	.	.
52	趙君涉	?~?	상주	.	.	.
53	趙南奎	1867~1947	상주	.	.	접사
54	趙日京	?~1894	상주	.	.	총경접 편의장
55	趙仲僉	?~?	상주	.	.	접주
56	崔善長	?~1894	상주	.	.	.
57	崔仁叔	?~1894	상주	청산	.	.
58	朴性西	?~?	함창	.	.	.
59	朴性善	?~?	함창	.	.	.
60	金鳳東	1862~1947	구미	.	.	.
61	韓文出	1848~1929	구미	.	.	.
62	韓貞敦	1879~1940	구미	.	.	.
63	申斗文	?~1894	선산	.	.	.
64	姜영	?~1894	김산	.	.	접주
65	康柱然	?~?	김산	.	.	접주
66	權學書	?~?	김산	.	.	접주
67	金奉伊	?~1894	김산	.	.	.
68	金定文	?~?	김산	.	.	접주
69	金致云	?~?	김산	.	.	.
70	金太和	?~?	김산	.	.	.
71	南聖元	?~1894	김산	.	.	.
72	南廷薰	?~1894	김산	.	.	.

73	裴君憲	?~?	김산			접주
74	李守元	?~1894	김산			
75	李麟吉	?~1894	김산			
76	李柱一	?~?	김산			수접주
77	張箕遠	?~?	김산			접주
78	張正用	?~?	김산			
79	曹卜用	?~1894	김산			
80	曹舜在	?~?	김산			접주
81	崔福只	?~1894	김산			
82	片白現	?~1894	김산			
83	片甫彦	1856~1894	김천			도집강
84	蔡洪禹	1857~1894	문경	예천		
85	黃基用	1867~1923	문경	예천		
86	高商武	?~1894	예천			부접주
87	高俊一	?~?	예천			
88	權景咸	?~?	예천			접주
89	權順文	?~?	예천			접주
90	金魯淵	?~?	예천			접사
91	朴來憲	?~?	예천			접주
92	朴顯聲	?~?	예천			접주
93	安國辰	?~?	예천			
94	尹尙明	?~1894	예천			
95	尹致文	1863~1894	예천			
96	李正浩	?~1894	예천			
97	李宗海	?~1894	예천			
98	張卜極	?~1894	예천			접사
99	全基恒	1827~1900	예천	문경		모량도감
100	鄭明彦	?~1894	예천			접사
101	趙成吉	?~?	예천			접주
102	崔孟淳	?~1894	예천			관동수접주
103	崔用鶴	?~?	예천			
104	崔元白	?~?	예천			
105	崔汗杰	?~1894	예천			

〈부록 2〉 진주진에서 활동한 등록 참여자 목록

번호	이름	생몰연대	활동지역 1	활동지역 2	활동지역 3	비고
1	金達德	?~1894	진주	.		
2	金昌奎	?~?	진주	.		
3	金卷順	?~1894	진주	.		
4	金性大	?~1894	진주	.		
5	金昌慶	?~1894	진주	.		
6	林石俊	?~1894	진주	.		
7	朴在華	?~?	진주	.		
8	白弘錫	?~1894	진주	.		
9	孫殷錫	?~?	진주	.		접주
10	全熙淳	?~?	진주	.		
11	崔學元	?~1894	진주	.		
12	河聖夏	1849~?	진주	하동		
13	李斗元	?~?	사천	.		도집
14	林在石	?~1894	사천	광양		
15	金成龍	?~?	곤양	.		
16	張鶴用	?~1894	곤양	광양		
17	姜夢生	?~1894	하동	.	.	중정
18	姜五元	?~1894	하동	.	.	중정
19	金敬連	?~1894	하동	.	.	대정
20	金旦桂	?~1894	하동	.	.	중정
21	金命完	?~1894	하동	.	.	대정
22	金性在	1870~1932	하동	.	.	.
23	金在信	?~1894	하동	.	.	.
24	金學斗	1849~1921	하동	.	.	접주
25	金華順	1862~1896	하동	.	.	.
26	柳允舉	?~?	하동	.	.	.
27	朴士永	?~?	하동	.	.	.
28	朴正周	?~?	하동	.	.	.
29	白道弘	?~?	하동	.	.	대접주
30	成洛周	1854~1894	하동	.	.	.
31	申寬梧	1856~1899	하동	.	.	.
32	申寬俊	1861~1894	하동	.	.	.
33	梁箕煥	1871~1906	하동	.	.	.
34	梁台煥	1861~1894	하동	.	.	.

35	余章協	?~?	하동	.	.	.
36	崑方奎	?~?	하동	.	.	.
37	陸炳明	1874~1894	하동	.	.	.
38	陸相奎	1854~1894	하동	.	.	.
39	尹相善	1872~?	하동	.	.	.
40	尹相俊	1854~1894	하동	.	.	.
41	全伯賢	?~?	하동	.	.	.
42	鄭洛元	1867~1894	하동	.	.	.
43	趙性仁	?~1894	하동	.	.	중정
44	趙升鉉	1870~1948	하동	진주	광양	.
45	崔璵鉉	1873~1895	하동	.	.	.
46	崔蒙元	?~1894	하동	.	.	대정
47	崔聖俊	?~1894	하동	.	.	대정
48	崔鶴權	?~1894	하동	.	.	집강
49	河聖基	1855~1932	하동	.	.	.
50	河聖源	1842~1894	하동	.	.	.
51	河壽泰	1861~1894	하동	.	.	.
52	韓明善	?~1894	하동	.	.	대정
53	朴容弼	1854~1939	남해	.	.	대정
54	鄭龍泰	?~?	남해	.	.	.
55	鄭元燮	1873~1945	남해	.	.	.
56	金壽碩	?~1894	산청	하동	.	.
57	高百俊	?~1894	삼가	.	.	.
58	高汝眞	?~1894	삼가	.	.	.



# 경기 · 강원 · 황해도 지역 동학농민군 참여자의 활동과 성격

조 재 곤

서강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1. 머리말

2. 경기도

3. 강원도

4. 황해도

5. 맺음말





## 1. 머리말

경기도와 강원도·황해도의 동학농민군 활동에 관한 그간의 연구는 거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 같은 상태에서 연구에서 한 차원 수준을 높이게 된 것은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면서부터였다. 특히 2011년 일본 궁내청 소장 조선 도서 반환서 중에 포함되어 우리에게 처음으로 알려지게 된 『갑오군정실기(甲午軍政實記)』는 관군들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하면서 농민군들의 활동을 모두 기록한 것이다. 전 10책으로 된 이 자료는 동학농민군 활동과 이에 대한 조선 정부의 대응 과정에서 그간 확인되지 않았던 많은 새로운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sup>1)</sup> 이를 통해 전라도·충청도·경상도 외에도 전국적 차원에서 농민군의 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며 때로는 지역 상호 간 연계성을 가지고 활동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경기도 동학농민군의 활동상은 가장 연구가 빈약한 부분이다.<sup>2)</sup> 일부 지역 사례와 민보군 관련 연구를 제하면 경기도 농민군 활동 전반에 대해서는 최근 이병규의 개괄적인 분석 작업 외에

---

1) 『갑오군정실기』를 통해 본 동학농민혁명의 재인식』(2016년 10월 6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학술 세미나). 이 세미나에는 이이화를 비롯하여 박상국·신영우·박준성·김양식·이병규·배항섭·이영호·왕현종·조재곤·김선경이 각각 세부 주제 발표를 하였고, 송찬섭·홍동현·홍일교·허수·정진영·이경원·유바다·양진석·권내현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2) 표영삼, 2006 「경기지역 동학농민혁명운동」 『교사교리연구』 10; 신영우, 2017 「1894년 경기도 지역의 상황과 동학농민군 진압」 『동학학보』 45; 왕현종, 2017 「광무양안으로 보는 수원지역 농민경제의 분화와 농민항쟁」 『동학학보』 45; 임형진, 2017 「경기도 여주의 동학에 관한 연구」 『동학학보』 45; 박상진, 2020 「동학농민혁명 시기 지평 민보군 연구」 『강원사학』 35.

는 보이지 않는다.<sup>3)</sup> 강원도는 1878년 한우근의 연구를 시작으로 이후에는 주로 박준성에 의해 지역별 상황과 농민군 토벌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신영우는 흥천 풍암리 전투를, 유바다는 인제를 중심으로 한 동학교단과 이후 강원도 농민군의 활동상을 살폈다.<sup>4)</sup> 황해도 농민군에 관해서는 앞선 한우근의 연구 이후 정은경·송찬섭·강효숙·이영호 등의 연구가 있다.<sup>5)</sup> 정은경은 황해도 농민전쟁의 배경과 전개 과정, 일본군과 지방관의 농민군 진압책 등으로 분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송찬섭은 갑오년 전후 황해도 농민전쟁의 전개 과정, 농민군 조직, 의식과 활동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강효숙은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도서관 소장 문서를 중심으로 일본군의 황해도 동학농민군 진압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영호는 『갑오군정실기』를 토대로 그동안 자료 부족으로 제대로 밝힐 수 없었던 동학농민군의 해주성 점령 일시와 기간을 확정하고 동학농민군 활동의 종점 문제에 대한 재검토를 제안하였다. 북한에서는 오길보가 반일 의병 운동으로서의 황해도 동학농민군의 활동에 관한 글을 작성한 바 있다.<sup>6)</sup>

이 글은 1894~96년 경기도와 강원도·황해도에서 동학농민군 활동에 참여한 인사들로서 이름이 확인되는 참여자를 각도별·지역별로 분석 정

3) 이병규, 2022 「경기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성격」 『동학학보』 60호.

4) 한우근, 1978 「동학농민군의 봉기와 전투 : 강원·황해도의 경우」 『한국사론』 4; 박준성, 1995 「1894년 강원도 농민군의 활동과 반농민군의 대응」 『동학농민혁명의 지역적 전개와 사회변동』, 새길; 신영우, 2015 「강원도 흥천의 동학농민군과 풍암리 전투」 『동학학보』 37; 박준성, 「갑오군정실기를 통해 본 강원도 농민군의 활동」 『갑오군정실기를 통해 본 동학농민혁명의 재인식』(2016년 10월 6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학술 세미나 발표문); 유바다, 「강원도 지역에서의 동학교단과 농민군 활동」 『인제, 동학정신에서 동학농민혁명으로』(2024년 8월 19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인제군청 주관 학술 세미나 발표문).

리한 것이다. 분석 대상은 2004년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와 2009년 이후에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결정을 통해 공식 등록된 농민군들이다. 심의를 통해 2025년 6월 말까지 확정된 동학농민군은 경기도 137명, 강원도 102명, 황해도 126명으로 총 365명이다. 이외에 평안도는 2명, 함경도는 1명이 확인된다. 해당 문헌자료를 전부 분석하고 그간의 연구 성과들과 비교 검토를 통해 이들 지역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의 활동 내용과 그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자.

## 2. 경기도

경기도 활동자 포함 17개 지역으로 광주목·수원부·안성군·양군·양성현·양주목·양지현·여주목·연천현·용인현·음죽현·이천부·죽산부·지평현·진위현·화성군 등에서 동학농민군의 활동 내역과 참여자의 이름이 확인된다. 평택의 경우 1894년 당시에는 충청도 지역이므로 조사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 5) 한우근, 1978 「동학농민군의 봉기와 전투 : 강원·황해도의 경우」 『한국사론』 4: 정은경, 1995 「1894년 황해도·강원도 지역의 농민전쟁」 『1894년 농민전쟁연구』(4): 송찬섭, 1995 「황해도 지방의 농민전쟁의 전개와 성격」 『동학농민혁명의 지역적 전개와 사회변동』, 새길; 강효숙, 2008 「황해·평안도의 제2차 동학농민전쟁」 『한국근현대사연구』 47; 이영호, 2017 「황해도 동학군의 해주성 점령」 『동학학보』 44.  
6) 오길보, 1988 『조선 근대 반일 의병운동사』,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 1) 수원

수원의 동학농민군은 10명이다. 수원 동학농민군의 중심인물은 안승관(安承寬)과 김내현(金來鉉)으로 이들은 일찍이 1884년 2월부터 이 지역에서 동학 교리를 전파하였다.<sup>7)</sup> 안승관은 동학에 입교한 뒤 1890년 기호대접주(畿湖大接主)가 된 뒤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9월 수원 남별원에서 처형된 인물이다. 자료상으로 각기 이름이 다르게 되어 있지만 기호대접사 김내현은 수원지역 내에서의 활동상으로 보아 김승현(金昇鉉) · 김정현(金鼎鉉) · 김필현(金弼鉉)과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sup>8)</sup> 그는 진위의 민공익 · 한홍유 · 김명수 · 한성재 등을 동학농민군에 입속시켜 수원 이외의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하였다.<sup>9)</sup> 김내현은 안승관과 함께 활동하던 중 수원 중군 허형진에게 체포되어 도당을 불러 모으고 소란을 일으키는 등 정부의 교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무영으로 이첩된 후 경무청에 갇혀 있다가 남별원에서 효수되었다.<sup>10)</sup> 민재명(閔在明)은 동생 민공익과 함께 김내현의 집에 참여하였다가 교졸들의 수색을 피해 도주하였는데 민공익은 진위에서 체포되었다.

## 2) 화성

---

7) 「水原宗理院沿革」『天道教會月報』191호, 1926년 11월, 29쪽.

8) 이에 대한 추론은 이병규, 앞의 논문 468쪽 참조.

9) 『先鋒陣傳令牒』『振威縣令牒報』, 開國 503년 10월 20일.

10) 『甲午軍政實記』「啓」, 갑오년 10월 3일.

화성의 동학농민군은 한세교(韓世敎) 1명이다. 우정면 이화리 출신 한세교는 일찍이 동학에 입도하였고 1894년 8월 당시 35세로 동학 육임제의 하나인 대정(大正)으로 임명되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 그 사실은 1894년 9월 복접 법헌 최시형 명의로 발급한 임명 첩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한세교는 이후 1938년 사망할 때까지 천도교 교단 활동에 관여하였다.

### 3) 용인

용인의 동학농민군은 10명이다. 1894년 9월 당시 경기도 용인 직동과 김량동의 2개동에 동학 접주가 있었고 활발히 활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직동 접주 이관업(李觀業)은 관군의 포위와 수색이 진행되자 다른 곳으로 피신하였고, 이종관(李鍾觀)은 삼촌인 양지 접주 이용익과 함께 “동학에 속아 미혹되었으며 사람을 해치는 것을 돕고 행패를 부렸다”<sup>11)</sup>고 기록되어 있다. 한편 소모관 전동석은 11월 19일 용인에서 동학농민군 지도자 차대연(車大淵) 등 5명을 체포하여 문초하였다. 차대연은 안성접주 정성택과 두어 달 동안 머물다가 막 용인으로 와서 체포되었다. 그런데 차대현의 부하들은 처리 과정에 차이가 있었다. 김왕인(金王仁)은 차대연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압송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고, 이영준(李英俊)·최경식(崔敬植)·강치구(姜致九)는 영원히 동도를 탈퇴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석방되었다.<sup>12)</sup> 서별리 거

11) 『甲午軍政實記』 「竹山府使李斗璜爲牒報事」, 갑오년 10월 6일.

12) 『甲午軍政實記』 「召募官田東錫爲牒報事」, 갑오년 11월 21일.

주 농민 문재삼(文在三)은 체포되어 “동학당에 들어가 지방의 안녕을 해하였다”<sup>13)</sup>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지만 1895년 4월 1일 무죄 방면되었다.

#### 4) 양지

양지현은 현재의 용인 지역으로 6명이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하였다. 1894년 9월 용인현 장교 최재철은 접주 이용익(李用翊) 등 15명을 체포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심문 내용에서 용인 갈천 출신인 이용익은 조카 이종관과 함께 “동학에 속아 미혹되었으며 사람을 해치는 것을 돕고 행패를 부렸다”고 한다. 정용전(鄭用全)은 서울에서 옮겨와서 직동에 살고 있으며, 호남접(湖南接)에 들어간 것이 여러 해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서울 출신으로 양지에서 활동하면서 호남의 농민군과 기맥을 통하고 있었던 사실이 주목된다. 이주영(李周英)은 직동, 이삼준(李三俊)은 금량동 출신이었다.<sup>14)</sup> 죽산부사 겸 장위영 영관 이두황은 체포한 농민군 가운데 이용익·정용전·이주영·이삼준 등을 9월 22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큰 거리에서 처형 효수하고 나머지는 풀어주었다.<sup>15)</sup> 그런데 『천도교백년약사』(천도교중앙총부, 1981, 256쪽)에 의하면 접주 정홍전(鄭訢全)은 1894년 10월 1일 “접주 이용익·이주영·이준삼과 함께 양지에서 효수되었다”고 되어 있다. 활동상으로 보아 정용진과 정홍전, 이삼준과 이준삼(李俊三)은 같은 인

---

13) 『東學關聯判決宣告書』 「文在三判決宣告書」, 개국 504년 4월 1일.

14) 『甲午軍政實記』 「竹山府使李斗璜爲牒報事」, 갑오년 10월 6일.

15) 『甲午軍政實記』 「京畿監司申獻求爲牒報事」, 갑오년 9월 26일; 『甲午軍政實記』 「啓」, 갑오년 10월 6일; 『兩湖右先鋒日記』, 9월~10월; 『甲午實記』, 10월 7일.

물이 이름을 달리하여 기재된 것이 분명하므로 앞선 자료를 근거로 정용진과 이삼준으로 정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5) 이천

이천의 동학농민군은 18명이다. 이 지역의 동학농민군 지도자로서는 고재당(高在堂)이 주목된다. 지평현감 맹영재는 고재당을 ‘비괴(匪魁)’로 언급하였는데 그가 농민군 토벌 과정에서 동학을 배반하였다면서 특별히 새롭게 태어났다는 뜻으로 호소하였지만 옥에 가두고 도순무영의 처분을 받아 총살 처형하였다고 보고하였다.<sup>16)</sup> 또 다른 자료에는 1894년 10월 충청도 괴산 전투에 참여한 후 체포되어 12월 4일 총살된 것으로 되어 있다.<sup>17)</sup>

전규석(全奎錫)·전일진(全日鎭)·이근풍(李根豐)은 2차 봉기 시 동학농민군으로 참여하였다. 그런데 이 지역 농민군 중 서수영(徐壽榮)·조인이(趙仁伊)·원석만(元石萬)·김석재(金石才) 등은 충청도 보은까지 진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1894년 10월 진남영 병졸에게 체포 후 총살되었다.<sup>18)</sup> 같은 해 10월 17일 일본군 200명과 영관 2명이 이천부에 들어와서 신면 절음리에 거주하는 김기룡(金基龍)을 일본군 보초에게 저항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곤지암 병참부에서 심문 후 감옥에서 끌어내어 총살하였다.<sup>19)</sup> 이

---

16) 『甲午軍政實記』 「砥平縣監孟英在爲牒報事」, 갑오년 12월.

17) 『侍天教宗釋史』.

18) 『甲午軍政實記』 「竹山府使李斗璜牒報」, 갑오년 12월.

19) 『明治二十七年日清交戰從軍日誌』 참조. 이 기록에는 경기도 이천, 충청도 가흥·청풍에서 동학농민군 섬멸 작전을 실행하여 포박 또는 총살하고 거점 촌락을 불태워 버린 사실 등을 적고 있다.

때 동학 접주이자 김기룡의 아버지인 김한억(金漢億)은 다른 곳으로 가 체포를 면했다.<sup>20)</sup> 반면 12월 8일 접사 조용이(趙龍伊)는 근거지를 추적 체포 압송 후 효수하였다.<sup>21)</sup> 한편 권성좌(權聖佐)는 1892년 동학에 입교하여 1894년 동학농민군으로 참여하여 피신하다가 1898년 정월 음죽에서 체포되었다. 정천석(鄭千石)은 1894년 가을 농민군 수십 명을 이끌고 활동하던 중 체포되었다.<sup>22)</sup>

## 6) 음죽

음죽은 현 이천시 장호원의 옛 지명으로 이 지역의 동학농민군은 14명이다. 음죽현감 김종원의 보고에 따르면 동면(東面) 접주 임성질(林聖質)은 음죽현 조목동 대접주 박용구(朴容九)의 사위로 그의 아버지 임대심(林大心)과 집 머슴들이 ‘동도’에 들어가 지역민을 선동하여 동도로 만들었고, 그의 형제와 도당들이 모두 보은의 도회(都會)에 가서 아직도 귀화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상률면의 안경무(安敬武)는 충주의 농민군 지도자 도집강 흥재길과 결의형제하고 성찰(省察)과 운량(運糧)을 빙자하여 백성들에게 행패하고, 그의 지친 접주 안재영(安在泳)도 사사로이 남의 무덤을 파고 토색한다고 보고하였다.<sup>23)</sup>

20) 『甲午軍政實記』 「利川府使南廷綺爲牒報事」, 갑오년 10월 23일.

21) 『甲午軍政實記』 「利川府使南廷綺爲牒報事」, 갑오년 12월 14일.

22) 『司法稟報』 「京畿裁判所 判事 金永惠 質稟書」, 1898년 5월 1일; 『司法稟報』 「關安城」, 1895년 1월 26일.

23) 『甲午軍政實記』 「陰竹縣監金鍾遠爲牒報事」, 갑오년 11월 20일.



11월 13일 음죽현감은 이 지역 출신으로 충주·제천과 강원도 영서 일대까지 진출하여 활동하다 체포된 이기영(李基榮)을 심문하였다. 공초에서 그는 “저는 본래 팔성리의 백성으로서 4~5년 전에 동도에 들어갔는데, 수접주 명색으로서 제천·단양·영춘 등지에 왕래하여 그 모인 무리들이 3~4천 명이 되었습니다. 금년 9월경에 무리 3천여 명을 거느리고 제천접주 정식과 원주 동도리 접주 이희종과 함께 충주 목계에 가서 일본 병사 2명을 살해하였고, 제천 화암리에 주둔하면서 또 일본 병사 1명을 살해하였습니다. 저희도 살해된 자가 3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어 영월·평창·정선 등의 읍에 가서 군기를 탈취하고 군량을 토색질하였는데, 11월 초 1일 강릉의 민보 이해수·맹지평(맹영재)이 일본 병사 천여 명과 함께 불시에 뛰쳐나와 좌우로 협공하니, 저 또한 도망가다가 드디어 붙잡히게 되었습니다”<sup>24)</sup>라고 진술하였다.

음죽 지역은 지리상 충청도와 강원도에 인접해 있어 그곳의 농민군과도 서로 기맥을 통하고 있었다. 진사연(陳士連)은 ‘동도’를 배반하여 전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1월 27일 포군을 파견하여 체포 후 즉시 총살하고 가산을 몰수한 바 있었다. 서울에 거주하는 이판서의 마름인 김태현(金泰鉉)도 상률면에서 농민군으로 활동하다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였다. 접주 이의재(李義載)와 접사 이한갑(李汗甲)은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아 잡지 못하였지만 그들의 자산 1,150량은 관고(官庫)에 유치해 두었다. 조목동 ‘비류거괴’ 이경일(李敬一)의 참여 사실도 확인된다.<sup>25)</sup> 신흥동 거주 박만엽(朴萬

24) 『甲午軍政實記』 「陰竹縣監金鍾遠爲牒報事」, 갑오년 월일 미상.

25) 『甲午軍政實記』 「陰竹縣監金鍾遠爲牒報事」, 갑오년 12월.

業)은 동학에 들어가 관에서 지급된 총을 가지고 충주 황산까지 도망하였다가 10월 1일 돌아와서 집 근처에 사는 추용달에게 군량 3백 석을 징수하다가 체포 처형되었다.<sup>26)</sup>

## 7) 진위

진위의 동학농민군은 7명이다. 현재의 평택지역에 속한 진위에서는 농민군 지도자(‘匪魁’) 민영원(閔永元) 등 3명이 11월에 체포되어 현의 옥에 갇힌 후 수원 중영으로 압송되어 직초(直招)를 받게 되었다. 한성재(韓聖在)는 체포 후 심문에서 수원 접주 “김내현의 강압으로 동도에 가입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sup>27)</sup> 이 지역은 수원접과 큰 관계가 있었다. 민공익(閔孔益)·한홍유(韓弘儒)·김명수(金命壽)는 모두 진위현 전달리 출신으로 체포된 후 취조를 받았다. 민영원·민공익·민재명 3형제가 농민군으로 참여하였다. 민공익은 형 민재명과 함께 1894년 8월부터 김내현의 수원 접에 참여하여 활동하다가 형은 수원에서 출동한 교졸들의 수색을 피해 도주하고 자신은 체포되었다. 같은 기간 김내현을 통해 동학에 입도하여 활동 중 한홍유(韓弘儒)는 수원 교졸에게 체포되고 그 아들 칠성은 피신 후 포교가 그 아버지를 대신 잡아가서 오래도록 감옥에 감금하자 스스로 자수하였다. 그런데 민재명과 한칠성은 수원지역 농민군으로 분류되어 있다. 김명수는

---

26) 『甲午軍政實記』 「竹山府使李斗璜牒報」, 갑오년 12월 12일.

27) 『甲午軍政實記』 「水原中軍徐珩淳爲牒報事」, 갑오년 11월 27일.

28) 『先鋒陣傳令牒』 「振威縣令牒報」, 갑오년 10월 20일; 『巡撫先鋒陣膽錄』, 갑오년 11월 15일.

그 아들 김화덕(金化德)이 김내현 접의 백난수를 통해 동학에 입도하여 활동하던 중 수원 포교가 대신 잡아가서 포청에 갇힌 후 오래 가두면서 심문을 받게 되자 이에 김화덕이 스스로 자수하고 체포되었다.<sup>28)</sup> 형과 아버지를 잡아 문초하자 농민군 참여자가 자수 체포 후 심문을 받은 사례들이었다.

## 8) 안성

안성의 동학농민군은 11명이다. 임명준(任命準)과 정경수(鄭璟洙)는 10월 기포 시 이 지역 동학농민군 우두머리로 활동하였다.<sup>29)</sup> 소모관 전동석의 첩보에 따르면 안성접주 정성택(鄭成宅)은 용인접주 차대연과 두어 달 동안 같이 행동하였다.<sup>30)</sup> 또 다른 기록에는 “본 군 교동에 사는 조만봉(趙萬奉)·조사봉(趙四奉)·조오봉(趙五奉)은 모두 동학도로서 비적 정성택과 한통속이 되어 양반택 과부를 강제로 겁탈하고 시장 재화를 훔치는 등 그들 행패가 못하는 짓이 없었다”<sup>31)</sup>라고 되어 있다. 정성택은 인근의 용인접수뇌와 연합전선을 형성하면서 조씨 3형제를 비롯한 안성의 농민군을 이끌고 활동을 지속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유구서(兪九西)와 김학여(金學汝)는 충청도 진천 출신 농민군 김금용과 함께 경리청 병정의 수효를 탐문하다가 안성 주민들에게 잡혀 안성군수 성하영이 9월 27일 대증 앞에서 처형하였다.<sup>32)</sup> 『나암수록(羅巖隨錄)』에는 이

---

29) 權秉憲, 1935 『甲午東學亂』, 大東斯文會.

30) 『甲午軍政實記』 「召募官田東錫爲牒報事」, 갑오년 11월 21일.

31) 『先鋒陣各邑了發關及甘結』, 갑오년 11월 22일.

32) 『甲午軍政實記』 「經理廳軍司馬爲牒報事」, 갑오년 9월 30일.

들을 각기 두목과 접주로 기록하고 있다. 한편 후임 군수 홍운섭의 첩보에 따르면 같은 해 12월 주민들이 ‘동도 중에서 소요를 일으켜 백성에게 해를 가한 사람을 잡아내어 군대 앞에서 기다리면서 이들을 조사하여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그 결과 ‘법적으로 사면하기 어려운’ 홍공칠(洪公七) 등 5명을 즉시 총살한 것으로 되어 있다.<sup>33)</sup> 그러나 나머지 4명의 이름은 확인할 수 없다.

## 9) 양성

양성의 동학농민군은 2명이다. 당시 양성은 현 안성시 지역으로 10월 19일 소모관 정기봉이 양성군 공제면의 ‘비류’ 류성옥(柳成玉)은 ‘해당 집에서 가장 불량한 자’인데 잡지 못하여 그의 집만 적몰하였다고 보고하였다.<sup>34)</sup> 양성접주 이치오(李致五)는 체포 후 평택으로 이송되어 11월 23일 별군관 최일환이 “백성들을 대대적으로 모아놓고 좌수도 동참하여 효수하여 못사람을 경계시킨다”라는 명분으로 오리정에서 처형하였다.<sup>35)</sup>

## 10) 죽산

죽산의 동학농민군은 13명이다. 현 안성시에 속한 죽산부에서는 10월 5일 박봉학 등 동학농민군 5명을 체포하였는데 죽산부사 이두황은 박봉학

---

33) 『甲午軍政實記』 「安城郡守洪運變爲牒報事」, 갑오년 12월 12일.

34) 『甲午軍政實記』 「召募官鄭基鳳爲牒報事」, 갑오년 10월 19일.

35) 『甲午軍政實記』 「別軍官崔日煥爲手本事」, 갑오년 11월 27일.

(朴奉學)과 이돈화(李敦化)를 “행패를 부린 행적을 모두 자백”하여 즉결 처단하고<sup>36)</sup>, 강원중(姜元中)·안창순(安昌順)·박명복(朴命卜) 등 3명은 강제로 따른 자로 판단하고 즉시 풀어주었다고 보고하였다.<sup>37)</sup> 이두황에 의하면 박봉학은 검찰(檢察)을 칭하면서 남의 무덤을 파고 채전(債錢)을 강제로 받았고, 이돈화는 접사라고 하면서 동학도들을 거느리고 채전을 받고 남의 나귀를 빼앗았다는 것이다.<sup>38)</sup> 그런데 『양호우선봉일기』, 10월 8일 자에 의하면 박봉학과 이돈화는 충청도 괴산에서 체포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를 근거로 현재 이 두 사람은 괴산 지역 농민군 참여자로 등재되어 있지만 죽산 동학농민군으로 정정해야 할 것이다. 한편 맹영재는 10월 14일 죽산 구산리의 장태성(張太成)이 동학에 들어가 그의 상전을 결박하여 ‘혹독하게 무수히 장을 쳐서 정강이뼈가 드러났으므로 대로변에서 죽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때 맹영재는 활산 접사 최제팔(崔齊八)을 덕실촌에서, 안광리 접주 박성익(朴性益), 구계동 접사 이춘오(李春五)는 죽산부의 대로변에서 살해하였다.<sup>39)</sup> 장태성은 『나암수록』에는 장대성(張大成)과 장태성으로 각기 기재되어 있지만 활동 내역으로 볼 때 동일인으로 판단된다. 이 지역 출신 접주인 민영훈(閔泳勳)<sup>40)</sup>·박병덕(朴秉德)·임성옥(林省玉) 등은 효수되었다.

36) 『兩湖右先鋒日記』, 갑오년 10월 8일.

37) 『甲午軍政實記』「京畿監司申獻求爲牒報事」, 갑오년 10월 12일.

38) 『甲午軍政實記』「竹山府使李斗璜爲牒報事」, 갑오년 월일 미상.

39) 『甲午軍政實記』「砥平縣監孟英在爲牒報事」, 갑오년 10월 17일. 『承政院日記』,

1894년 10월 20일 조에도 장태성 등 4명을 효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40) 민영훈은 충청도 지역 참여자로 등재되어 있다.

## 11) 여주

여주의 동학농민군은 12명이다. 이 지역 중심인물은 홍병기(洪秉箕)와 임동호(林東豪)로 홍병기는 후일 1919년 3.1운동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1892년 동학 입교 후 강원도 원주 접주 임순호, 여주 농민군 신수집 등과 함께 2차 봉기를 주도하였다.<sup>41)</sup> 수계면(현 능서면) 신지리 출신 임동호는 1893년 4월 임학선(林學先)을 통해 동학에 입도하였고, 1894년에는 교장 직임으로 있었다. 그러던 중 기포령 이후 여러 차례 전투에 참여하였고 이후에는 최시형을 측근에서 수행하였다. 그가 저술한 『균암장임동호씨약력』은 경기도와 충청도 동학농민군 활동 관련 중요한 자료이다. 임동호는 공주 우금치전투까지 참여한 경험을 날짜 순서대로 술회하였고 그 간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과 일화들을 기록으로 남겼다.<sup>42)</sup>

한편 1894년 9월 24일 맹영재가 의병 포군 600여 명을 이끌고 여주에 도착하여 상동에 사는 안순옥(安順玉)과 지사준(池士俊)의 처를 체포하였다. 이때 맹영재는 안순옥에게 “아버지가 되어 아들과 사위가 동학인 것을 빙자하여 양반과 상놈, 그리고 노소를 가리지 않고 마음대로 행패를 부렸다”라면서 장(杖) 80대를 친 후 풀어주었다. 도피한 지사준의 경우 그의 부인을 대신 옥에 가두었다. 같은 날 맹영재는 도피한 홍순룡(洪順龍)의 어머니를 체포해, “네가 천한 자로 감히 동학을 빙자하여 사부(士夫)를 욕하고 핍박하였으니, 마땅히 죽을죄를 지었다”라면서, 포군을 시켜 총살하였다.<sup>43)</sup>

---

41) 조규태, 2009 「동학인 홍병기의 종교적 활동과 민족운동」 『한성사학』 24 참조.

42) 신영우, 『均菴丈林東豪氏略歷』 해제 참조.

맹영재는 9월 흥병기와 임학선의 아버지 임황록(林黃祿)과 하백양에 사는  
접주 김화춘(金化春) 등을 총살하였다.<sup>44)</sup>

## 12) 광주

광주의 동학농민군은 16명이다. 광주 지역의 대표적인 동학농민군 지도자는 염세환(廉世煥)으로 2차 봉기 시 농민군을 이끌고 참여하였다.<sup>45)</sup> 광주 연천과 노곡에서는 김감룡(金甘龍)·연노성(延魯成)·연영달(延永達)·이대학(李大學)·장학진(張學辰)이 동학농민군 지도자와 참여자로 활동하였고,<sup>46)</sup> 김계보(金桂甫)는 80대의 장으로 처벌된 후 방면되었다. 김기연(金基淵)·김문달(金文達)·김부만(金富萬)·박인학(朴仁學)·연순달(延淳達)·연갑진(延甲辰)·이영오(李永五)는 체포되어 한참 후인 이듬해 4월 판결 후 석방되었다.<sup>47)</sup> 서종철(徐宗轍)은 충청도 충주에서 활동하던 ‘동학당 수령’으로 활동무대를 광주 곤지암으로 옮겼다가 양 10월 18일(음 9월 20일) 일본군에게 체포되었다.<sup>48)</sup>

---

43) 『甲午軍政實記』 「京畿監司申獻求爲騰報事」, 갑오년 10월 2일

44) 『甲午軍政實記』 「京畿監司申獻求爲騰報事」, 갑오년 10월 5일

45) 천도교중앙총부, 1920 『天道教會史草稿』, 462~463쪽.

46) 『大阪朝日新聞』, 1894년 12월 7일.

47) 『東學關聯判決宣告書』 「金桂甫判決宣告書」, 「朴仁學、李永五、金基淵、金富萬判決宣告書」, 「延淳達、延甲辰、金文達 判決宣告書」.

48) 『駐韓日本公使館記錄』 「忠州支部守備兵의 東學黨征討報告」, 1894년 10월 19일; 『駐韓日本公使館記錄』 「忠州附近地方의 匪徒擊退」, 1894년 10월 20일.

### 13) 지평

지평과 양근은 지금의 양평군으로 지평의 동학농민군은 7명이다. 이 지역 농민군은 김태열(金泰悅)과 이재연(李在淵)이 주도하였다.<sup>49)</sup> 1894년 10월 12일 이전 어느 날 신임 지평현감 맹영재는 지평현의 농민군 우두머리 이인오(李寅五)와 진천접주 이재국(李載國)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진(陳) 아무개와 조(趙) 아무개를 지평과 여주가 만나는 지점 노상에서 처형하였다. 맹영재는 10월 26일 지평 상동에 사는 농민군 이지신(李之信)과 법주사는 강경춘(姜京春) 등을 엄중 심문 후 진영 앞에서 목 베었다. 11월 7일에는 하서면 마천리의 접사 이원구(李源求)와 그의 형 이풍구(李豐求)를 홍문(紅門) 밖에서 살해하였다. 같은 해 12월 지평의 접사로서 농민군에 참여한 후 전향한 신성일(申成一)을 옥에 가두기도 하였다.<sup>50)</sup> 그런데 이들 중 이지신과 강경춘은 강원도 홍천 동학농민군으로 등재되어 있다.

### 14) 양근

양근의 동학농민군은 6명이다. 이 지역 농민군 토벌에도 지평현감 맹영재가 적극 관여하였다. 11월 3일 양근의병소에서는 윤복성(尹福星)·윤창근(尹昌根) 등 4명을 진중에서 살해하였다고 보고하였다.<sup>51)</sup> 11월 7일 맹영

---

49) 『天道敎書』, 237~241쪽; 『天道敎會史草稿』, 463쪽.

50) 『甲午軍政實記』 「砥平縣監孟英在爲牒報事」, 갑오년 11월 9일 및 「橫城縣監柳東根爲牒報事」, 11월 9일 및 「京畿監司申獻求爲騰報事」, 10월 12일 및 「砥平縣監孟英在爲牒報事」, 12월 27일.



재는 ‘동도중 유명한 거괴’ 정사원(鄭士元)과 신재규(辛載奎)를 즉시 총살하였고,<sup>52)</sup> ‘유도를 배반하고 재범한’ 혐의로 이석병(李錫炳)을 총살하였다. 맹영재는 자수하는 경우도 처형하였다. 예컨대 양근의 농민군 우두머리(‘비괴’) 민노보(閔魯甫)와 권삼여(權三汝)의 경우 10월에 소모군에 부속시켜 달라고 와서 자수했음에도 ‘경재(京宰)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민간에서 재물을 약탈’하였다는 이유로 11월 21일 양근 두물머리에서 처단하였다.<sup>53)</sup>

## 15) 연천과 양주

연천의 동학농민군은 3명이고, 양주의 동학농민군은 1명이다. 경기도 북부 연천의 수접주 조한봉(趙漢鳳)이 10월 22일 충청도 홍주에서 살해되었다. 그런데 조한봉의 피살 소식을 들은 양주의 남명원(南明元)은 밤새워 돌아와 이후 10월 26일 귀화의 소장을 제출하였다. 연천과 강원도 철원의 경계에 사는 이휘영(李輝榮)은 ‘동도를 배반하고 귀화하겠다는 뜻’을 철원 부에 소로 올리고 도장을 받은 후 연천현에 제출하였다. 그간 농민군에 참여하였던 연천 북면 사동리 원광의(元光義) 등 69명도 집단으로 전향 소장을 제출하였다.<sup>54)</sup>

51) 『甲午軍政實記』 「砥平縣監孟英在爲牒報事」, 갑오년 11월 9일.

52) 『甲午軍政實記』 「砥平縣監孟英在爲牒報事」, 갑오년 11월 19일; 『承政院日記』, 1894년 11월 15일.

53) 『甲午軍政實記』 「京畿監司申獻求爲牒報事」, 갑오년 11월 29일.

54) 『甲午軍政實記』 「漣川縣監趙明植爲牒報事」, 갑오년 12월 4일.

## 16) 기타

구체적인 활동 지역을 알 수 없는 경기도 동학농민군은 노백용(盧白用) 1명이다. 노백용은 등재 내용이 “1894년 가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집이 훼손됨”으로 되어 있다. 그를 경기도 동학농민군으로 판단한 근거 자료는 『사법품보』 1895년 5월 6일 자였다. 이에 따르면, “본주(州)에 살고 있는 이 진사와 정영진의 소장 안에, ‘마을에 사는 이규백이 노백용의 돈 수천 냥을 빌려 쓰고는 갚지 않았는데, 지난 가을 동학도가 창궐할 때 노씨 늬이 동학에 입도하였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그 집을 부수고 쫓아냈습니다’”라고 되어 있다.<sup>55)</sup> 그런데 당시 소장을 제기한 정영진은 충주목 금목면이 거주지이고 노백용은 그 이웃에 사는 동학당 참여자로 기재하고 있다.<sup>56)</sup> 『양호우선봉일기』, 1895년 1월 2일 자에 따르면 충청도 음성군 무극시 보상(裨商) 도반수(都班首) 전만근에게 전령을 보내어, “동도 접주 무극시 임인수, 오룡동 접사 정택진, 접주 노백룡(盧白龍) 등 세 늬을 즉시 잡아서 성화같이 죽산진에 압송한 뒤에 그 형편을 급히 보고하되, 비록 한 늬이라도 기회를 놓쳐 그물을 빠져나가게 한다면 너를 효수에 처할 것이니 유념하여 거행하라”라고 되어 있다. 노백룡은 “접주로서 1894~1895년 충청도 충주에서 홍재길·신재련과 함께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동일 인물을 달리 기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

55) 『司法稟報』 「畿營報內部而來牒」, 1895년 5월 6일.

56) 『起案』(法部 檢事局), 開國 504년 윤5월 17일.

### 3. 강원도

강원도의 경우 강릉부·봉평현·양구군·원주군·인제군·정선군·평창군·홍천군·횡성군 등 총 9개 지역에서 동학농민군의 활동 내역과 참여자의 이름이 확인된다. 이 지역은 일찍이 정선의 동학 도접주 유시현, 평창의 관동 대접주 이원팔, 홍천 대접주 차기석, 인제 대접주 김치운 등을 중심으로 도소(都所)를 설치하면서 활발한 동학의 포교가 이루어졌다. 이후 1894년 여름부터는 원주·영월·평창·정선 등지의 동학도들이 접을 설치하면서 세력을 결집하기 시작하였다. 평창 대화면에서는 8월 20일경부터 동학농민군이 활동을 개시하여 김장수의 집을 훼손하고 잡기를 탈취한 뒤 대관령을 넘어 강릉으로 들어간다고 성언한 바 있었다.<sup>57)</sup> 평창군의 오덕보가 9월부터 포교를 시작한 이후부터 각처에서 접소가 생기기 시작하였고 동학교도의 수가 늘어났고, 강릉부 관할 연곡면과 신리면(현 주문진)이 가장 두드러진 지역이었다.<sup>58)</sup>

#### 1) 강릉

강릉의 동학농민군 참여자는 9명이다. 1894년 9월 4일 수천 명의 농민군이 강릉부를 점령하였다. 이들은 영월·평창·정선에서 이곳으로 들어와 4~5일 머물면서 접을 설치하고 군세(軍稅)·적세(糶稅) 및 환곡 등을

---

57) 『臨瀛討匪小錄』, 1894년 8월 20일.

58) 한우근, 1978 「동학농민군의 봉기와 전투: 강원·황해도의 경우」 『한국사론』 4, 368쪽.

삭감하고 요호(饒戶)들로부터 재물을 징수하고 관원을 옥에 가두고 민간의 송사를 처결<sup>59)</sup>하는 등 짧은 기간이지만 호남의 집강소 형태와 유사한 자치 질서를 유지하였다. 동학농민군의 강릉 점령 상황에 대해 이 지역 최대 지주인 전 승지 이회원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말을 타거나 가마를 탄 자가 수십 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걸어서 뒤를 따랐다. 길게 늘어져서 모이고 흩어지는데 통솔이 되지 않았고 존비(尊卑)도 없었다. 반은 대낮에 우비를 입었고, 검은 때가 묻은 파의(破衣)를 걸쳤으며, 수백 대(隊)의 귀신 얼굴을 한 병사들은 도읍을 통과해 시장에 가는 백성들처럼 보였다. 13자(字) 천주주문(天主呪文)은 상갓집에서 죽은 사람의 혼을 부르는 곡소리처럼 들렸다. 눈썹을 치켜세우고 눈을 깜빡이며 웃으면서 귓속말하는 비루한 모습들을 모두 적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 세력은 대단하여 백성들의 민심이 그것에 놀리어 따랐다. 이에 마을에서 항산(恒産)이 없는 무리배들은 살 수 있는 길을 찾았다고 하고, 지각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징험할 수 있는 신비한 술법이 있다고 하였다. 심지어 양반에게 놀린 분노가 있어도 지체가 낮아 펴지 못한 자나 남의 재물을 빼앗을 마음이 있으나 재주가 모자라서 빼앗기 어려운 자도 스스로 운수가 형통하리라 말하며 다투어 지름길을 찾아 몰려들었다.<sup>60)</sup>

9월 5일 농민군들은 읍의 동문에 “삼정(三政)을 바로잡고 보국안민(輔國安民)한다”라는 방문을 내걸었다. 이때 진사 박재호(朴在鎬)는 강릉 출신으로 평창으로 이거한 뒤 동학농민군 지도자가 되어 군자금과 군수품을 모으는 활동에 적극적이었고 대화 출신 접주 김상오(金相五)는 패(牌)를 만들어 교부하고 도를 훼손하였다는 명목으로 사족들을 잡아들이고 전표(錢標)를 발행하여 금전을 징수하기도 하였다. 이에 다음 날인 9월 6일 강릉에서는

59) 『東匪討論』, 갑오년 9월 8일, 9월 16일.

60) 『臨瀛討匪小錄』, 1894년 9월 4일

이회원과 좌수 유학 최동집을 중심으로 민보군을 조직하여 농민군에 대적하였다. 이회원은 아전 정시중·최희민 등과 함께 부근 5~6개 마을의 군정을 모집하는 한편 9월 7일 강릉지역 사정에 익숙하지 않은 영서지방 등 인근 타지에서 선교장으로 들어온 동학농민군을 유인하여 저녁밥을 대접하고 그들이 방심한 틈을 타서 일거에 습격하였다. 이때 살해된 농민군은 최대 100여 명이었다. 최동집은 9월 8일 성산면을 비롯한 강릉 각 면의 향회(鄉會)에 통지하여 이들을 소집하였고 5가 작통제를 실시하여 대장을 뽑고 총칼을 준비토록 하였다.<sup>61)</sup>

한편 순무영에서는 포수를 소집하여 영서에서 강릉으로 들어온 평창의 이치택(李致澤), 삼척의 황찰방(黃察訪), 정선의 지왈길(池曰吉), 대화의 김상오를 비롯한 농민군 주도자들을 잡아 가두도록 지시하였다. 최동집의 보고에 의하면 접의 이름이 각각 달라 어수선하였다고 했는데,<sup>62)</sup> 그만큼 많은 지역의 농민군이 연합하여 강릉도호부에 집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수천 명의 농민군이 총포를 가지고 대관령을 넘어 다시 온다는 소문이 전해지자 강릉 주민들이 이고 지고 서로 부축하고 외진 마을로 흩어졌는데, 이러한 사태는 며칠 지나서야 진정되었다고 한다. 9월 26일 조선 정부는 공관 상태의 강릉부사로 이회원을 임명하면서 농민군 토벌에 박차를 가했다. 정선 여량의 주민들에게 체포된 지왈길이 11월 23일 강릉부에서 참수 처형되면서 영동 일대의 동학농민군 활동은 종료되었다.<sup>63)</sup> 강릉

61) 『東匪討論』, 갑오년 9월 8일.

62) 『東匪討論』 「留鄉座首爲牒報事」, 갑오년 9월.

63) 『臨瀛討匪小錄』, 1894년 11월.

의 박재회(朴載會)와 평창의 박재호는 신분이 진사로 동일하고 활동 내역으로 보아 같은 사람으로 판단된다. 정창호(丁昌浩)는 『갑오군정실기』에는 봉평 농민군으로 되어 있다.

## 2) 봉평

봉평의 동학농민군은 12명이다. 지금은 평창군에 속해 있는 봉평은 당시 강릉부 관할로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활발하였다. 이곳에서는 영군대장(領軍隊長) 강위서가 이끄는 민보군과 강릉부사 이회원이 중군 이진석 등을 동원하여 농민군 토벌에 참여하였다. 그 과정에서 농민군 9명을 체포하여 목을 베어 경계하고 도망간 사람들은 봉평면 포수가 모두 잡아 죽였다. 10월 26일에는 중군 이진석과 영수 이영찬이 봉평 내면 창촌에서 ‘봉평 비적 괴수’ 윤태열(尹泰烈)·정창호와 동료 이창문(李昌文)·김대영(金大永)·김희열(金喜烈)·용하경(龍河京)·오순영(吳順永)·이화규(李和奎) 등 13명을 사로잡아 참수하였다.<sup>64)</sup> 이회원에 따르면 “내면 근처에 거주하는 윤태열·정창해(鄭昌海)·조원중·정운심 등은 본래 무뢰배들인데, 교활하게 차적(車賊, 차기석)을 빙자하여 마을 사람들을 속이고 군사들을 모았으며 창고 옆에 목재를 세우고 강제로 각 마을에 명령을 내려, 호(戶)마다 속미(粟米) 6말, 미투리 한 켄레씩을 빠짐없이 거두었다. 또한 소를 빼앗아 날마다 여러 마리를 잡으니 고기와 포(脯)가 산과 숲을 이룰 정도였다. 기꺼이 자신들을 따르지 않으려는 자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바로 죽였다. 이에

---

64) 『臨瀛討匪小錄』, 1894년 10월 26일; 『東匪討論』, 1894년 11월 13일.

완악한 무리가 모두 일어나 한패가 되었는데 진부면의 안영달(安永達)·김성칠 등도 거기에 가담하였다“<sup>65)</sup>고 한다. 체포된 이들은 총살과 효수 등으로 처형되었다. 조원중과 정운심은 홍천 농민군, 김성칠은 평창 출신 동학농민군으로 등재되어 있다. 이들 중 정창호는 강릉 참여자로 등재되어 있다.

이후에도 봉평 농민군들은 계속 활동하였다. 그러던 중 11월 6일 이후 삼리와 흥정리·신흥동 등지에서 영군대장 강위서가 임정호(林正浩) 등 30여 명을 총살하고 체포된 손응선 등 70여 명은 개고기를 먹이고 타일러 풀어주었다.<sup>66)</sup> 반면 같은 기간 창촌의 제2차 전투에서는 차기석을 비롯한 농민군들이 승리하고 민보군이 패배하자 강릉부사는 진부와 도암면의 포군과 민보군을 급히 봉평에 파견했다.<sup>67)</sup> 또한 연곡과 신리·망상·옥계 등 각 면에 전령하여 양반 평민을 가리지 않고 포수와 궁수 10명, 창수 40명을 차출하여 요충지를 각별히 지키도록 하였다. 동원된 군사의 식량은 면내 각 통의 환자미(還上米)를 낼 호구에 분배토록 하였다.<sup>68)</sup> 그 결과 11월 8일 이 지역에서 활동한 7명의 농민군 지도자를 잡아 효수하였다.<sup>69)</sup>

### 3) 평창

평창의 동학농민군은 6명이다. 평창 동학농민군의 상징적인 인물은 대접

65) 『臨瀛討匪小錄』, 1894년 월일 미상.

66) 『臨瀛討匪小錄』, 1894년 11월 일자 미상.

67) 『東匪討論』 「傳令召募官朴東儀」, 1894년 11월 7일.

68) 『東匪討論』 「傳令連谷新里玉溪望祥」, 1894년 11월 7일.

69) 『東匪討論』 「傳令」, 1894년 11월 일자 미상.

주 이원팔(李元八)이다. 그는 1893년 3월 광화문 복합상소 이후 손병희 등과 함께 최시형을 찾아갔고 보은 장내리에서 열린 교조신원운동을 개최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고 그 자신 또한 이에 참여하였다.<sup>70)</sup> 이 집회에는 원주 접 200여 명도 동참하였다. 3월 11일 최시형이 전국 조직으로 각 도 단위의 접주를 임명할 때 관동대접주(關東大接主)에 임명되었다.<sup>71)</sup> 1894년 농민군 2차 봉기에는 관동포를 인솔하고 충청도 홍주에 집결한 후 보은에서 최시형과 함께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 이후 공주 우금치전투에도 참여하였다가 관군의 추격을 피해 속리산 등지로 도피하였다. 그 과정에서 1900년 3월 전라도 고산 용암리에서 체포되어 같은 해 4월 『대명률(大明律)』 「금지사무사술조(禁止師巫邪術條)」 “일체의 좌도(左道)로 정도를 어지럽히는 술법을 부리거나, 향을 피워 무리를 모으거나, 인민을 부추겨 현혹시키는 수범(首犯)의 율”로 교수형 선고를 받고 경무서에 구금 중 옥사하였다.<sup>72)</sup> 이원팔은 출신 지역인 강원도를 떠나 교단 지도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었다.

오덕보(吳德甫)는 강릉 출신의 진사로 평창으로 이거한 뒤 1894년 동학 농민군 지도자가 되어 그해 8월 강릉 연곡면과 신리면(현 주문진)으로 활동무대를 옮겨 이곳에 접을 설치하고 각 지역에서 활동하였다. 그는 도조 10여 석을 거두어들이는 등 군자금과 군수품을 모으는 활동을 하다가 피신하였다.<sup>73)</sup> 11월 3일 평창의 진부는 중군 이진석이 인솔하는 포군과 민

70) 『天道敎會史草稿』, 454쪽.

71) 『天道敎書』, 1893년 3월 11일. 이원팔은 『甲午東學亂』에는 이철우로 기록되어 있다.

72) 『司法稟報』, 1900년 4월 2일 및 4월 12일.

73) 『東匪討論』, 1894년 11월 19일 및 12월 2일.



보군, 대화는 면의 포수와 민보군을 징발하여 농민군에 대적하는 한편 삼척과 양양에서 징발한 병사도 토벌을 위해 증파하였다.<sup>74)</sup> 흥미로운 사실은 대화 지역의 경우 선달 조자유를 비롯한 ‘힘 꽤나 쓰는’ 장사들을 동원하여 농민군 토벌에 앞장세우거나 반대로 주민들이 화약을 만들어 농민군들에게 판매하였다는 것이다.<sup>75)</sup>

이 지역의 핵심 인사는 북면의 포덕접주(布德接主) 이문보(李文甫)로 11월 5일 평창과 후평 등지에서 관군·일본군과 전투 후 체포 처형되었다. 평창읍 보고에 의하면 평창·후평 등지에서 동학 1만여 명과 전투하여 그중 100여 명을 쏘아 죽였고, 연이어 접주 이문보 등 5명을 잡아서 목을 베어 사람들을 경계하고 정선 등지로 추격하여 들어갔다고 한다. 소모관 정준시도 “호서(湖西)의 4개 군에서 비류 5천여 명을 피어서 들여와 이치럼 큰 변란을 일으켰으니, 그가 한 짓을 따져보면 죄가 거괴(巨魁)보다 더 크다”고 보고하였다.<sup>76)</sup> 인원에 다소 과장이 있을 수 있지만 충청도 지역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포함하여 많은 수의 농민군이 관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희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4) 정선

정선의 동학농민군은 7명이다. 정선의 대표적 동학 지도자는 남면 유평

---

74) 『東匪討論』, 1894년 11월 3일.

75) 『東匪討論』, 1894년 11월 3~4일.

76) 『東匪討論』, 1894년 11월 10일; 『甲午軍政實記』 「召募官鄭駿時爲牒報事」, 갑오년 11월 23일.

리 출신인 유도원(劉道元)이다. 그의 본명은 시헌(時憲)으로 동학 2대 교주 최시형으로부터 동학에 입도하였고 최시형·강시원 등과 함께 갈래산 적조암에서 49일 기도를 드리는 등 동학 포교에 앞장섰다. 동학도접주(東學都接主)로 활동하면서 동학 교단 재건의 기틀을 다지는데 큰 몫을 담당하였다.<sup>77)</sup> 이후 1894년 동학농민군 활동기에는 정선군에서 접주로 참여하여 ‘비괴’로 지목되어 두 아들 유택하·유학종과 부인 최시화와 함께 흩어져 피신하였다.<sup>78)</sup> 강원도 지방 동학농민군 활동에 대한 중요 기록인 강릉부사 이회원의 『동비토론』에는 정선 비괴로 유도원을 지목하였는데,<sup>79)</sup> 도원(道元)은 유시헌의 자(字)인 도원(道源)을 달리 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유택하·유학종 형제는 1895년 3월 또다시 평창 민보군에게 체포되어 재산을 빼앗기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였다.<sup>80)</sup>

정선의 동학농민군들은 인접 지역과 연합하여 9월 4일 강릉 관아를 점령하였다. 이후에는 여량마을을 중심으로 접소를 설치하였고 후퇴를 거듭하면서도 계속 항쟁하였다.<sup>81)</sup> 정선읍에서는 11월 3일 3천여 명의 동학농민군이 모여 기세가 대단하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에 11월 4일 강릉부사 이회원은 부상(負商)의 우두머리인 반수(班首)와 접장(接長) 등에게 전령을 보내 건장한 자 30명을 동원 토벌토록 하였다. 또한 인접한 임계면과 강릉 옥계면의 면임과 집강에게도 각 동의 백성을 징발하고 이를 따

77) 劉時憲, 『崔先生文集道源記書』(1879년 간행).

78) 劉澤夏, 『東學亂中記』(1945년 이전 기술).

79) 『東匪討論』 「傳令臨溪面留陣中軍副吏房及李世完姜東五等」.

80) 『東學亂中記』, 1895년 3월 1일.

81) 『東匪討論』, 1894년 11월 3일.

르지 않으면 군율로 처벌하겠다고 강박하였다. 정선과 평창의 농민군 토벌을 위해 순무영에서는 800명의 포군을 보냈고 일본군 2개 중대도 이곳까지 와서 정선을 군병 300명과 함께 11월 5일 농민군 거점을 기습 공격하였다.<sup>82)</sup> 그 결과 접사 이증집(李仲集)을 비롯한 김윤언(金允彦)·임순철(林順哲) 등은 11월 6일 여량에서 중군 이진석과 출신 조철승이 이끄는 민보군에게 체포 처형되었다.<sup>83)</sup> 이후 농민군은 사방으로 흩어졌고 정선에서는 일본 병사가 강원도 곳곳에서 생포한 120명을 문초하였다. 그 과정에서 11월 8일 소모관 맹영재가 정선군의 포군 남복흥(南福興)·신정숙(辛正叔)·이상선(李祥善) 등 3명의 자복을 받은 후 군민들을 모아놓고 효수하였다.<sup>84)</sup>

## 5) 인제

인제의 동학농민군은 3명이다. 인제는 1880년 『동경대전』 초간본인 경진본 목활자본을 발간한 곳이지만 1894년 동학농민군이 집단으로 봉기한 곳은 아니다. 1881년 6월 최시형이 『용담유사』 수백 부를 간행하여 각포(各包)에 널리 보내 알렸다. 이때 인쇄 비용은 인제군 접소가 전담하였는데 일명 김현수(金顯洙)인 김치운(金致雲)은 김연호·장춘보·김현경·장세원 등과 함께 주관하였다.<sup>85)</sup> 김치운은 1894년 정월 동학교도가 각처에

82) 『東匪討論』, 1894년 11월 3~5일.

83) 『東匪討論』, 1894년 11월; 『甲午軍政實記』 「江陵府使李會源爲牒報事」, 12월 12일.

84) 『甲午軍政實記』 「召募官鄭駿時爲牒報事」, 갑오년 11월 23일.

85) 康弼道, 『東學道宗釋史』 「第八章 遺蹟刊布及降書」.

포소(包所)를 설치할 때 인제에 포를 설치하였고 동학농민군 제2차 봉기 시 인제 지역에서 기포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sup>86)</sup> 김계원(金桂元)은 일찍이 1879년 해월 최시형이 김현수의 집에서 치성을 드릴 때 참여하여 초헌을 담당하였다.<sup>87)</sup> 그는 1894년 당시 63세로 인제군 남면 고달동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비류(匪類)와 내통하여 인심(人心)을 어지럽혔다”라는 이유로 법무아문 고등재판소에 잡아와 특별히 심문하였다. 판결 결과 ㉠대명률(大明律)㉡ ㉢제사편(祭祀編)㉣, “인민을 선동하고 미혹시킨 중범(從犯)”의 규정에 따라 1895년 4월 10일 장 100대에 3,000리 유배의 형벌에 처해졌다.<sup>88)</sup> 최우범(崔禹範)은 최시형이 동학농민군 활동 실패 후 강원도 인제로 피신해 와서 있을 때 자신의 집을 거처로 제공하였다.<sup>89)</sup>

## 6) 양구

양구의 동학농민군은 1명이다. 양구읍 한전리 거주 이중항(李重亢)은 1894년경 동학에 입도하였다.<sup>90)</sup> 그는 해월 최시형이 강원도 양구로 피신해 와서 있을 때 자신의 집을 3개월 정도 거처로 제공하였다고 한다.

86) 『甲午東學亂』「第六十九章 甲午東學亂」.

87) 『崔先生文集道源記書』; 『天道教書』「第2編 海月神師」; 『東學道宗繹史』「第七章 設儀祭文」.

88) 『東學關聯判決宣告書』『判決宣告書原本』, 개국 504년 4월 10일.

89) 『均菴丈林東豪氏略歷』.

90) 국사편찬위원회 편, 1989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0 「증인 이중항 조서」.

## 7) 홍천

홍천의 동학농민군 참여자는 48명이다. 경기도 지평에서 온 고석주(高錫柱)·이희일(李熙一)·신창희(申昌熙) 등이 이끄는 동학농민군 수백 명은 1894년 9월 무렵부터 홍천에 집을 설치하고 활동하였다.<sup>91)</sup> 그런데 이들은 9월 12일 팔봉에서 맹영재가 이끄는 변복한 관포(官砲)와 사포(私砲)의 유인책으로 사로잡혔다. 강원도는 영서 전역에서 지평현감이자 소모관 맹영재의 동학농민군 토벌에 중형무진 활약한 내용이 매우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맹영재는 민보군을 이끌고 농민군과 접전하거나 수색을 통해 체포한 농민군을 참수 효수하거나 총살하였다. 맹영재는 이희일과 신창희를 총살하였고, 고석주는 그 자리에서 참수하고 김철원(金鐵原) 등 3명을 향도로 삼아 팔봉의 농민군 수색에 앞장세웠다.<sup>92)</sup>

이후 홍천의 농민군은 대접주 차기석(車箕錫)이 지휘하였다. 강릉·양양·원주·횡성·홍천 5개 군현의 접주로 불린 차기석은 1천여 명을 이끌고 홍천군 내면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sup>93)</sup> 차기석 부대는 9월 말부터 농민군을 소집하여 11월까지 홍천·강릉·봉평 등지에서 맹위를 떨쳤다. 그러던 중 10월 21일 맹영재 부대와 화촌면 장야평에서 접전하였고, 23일 밤에는 서석면 풍암리 자작고개 전투에서 크게 패하였다. 당시의 전투 상황을 맹영재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

91) 『啓草存案』, 갑오년 9월 26일.

92) 『甲午軍政實記』 「京畿監司申獻求爲謄報事」, 갑오년 9월 26일.

93) 『東匪討論』, 갑오년 11월.

23일에 서석면(瑞石面) 어론리(魚論里)로 들어가는데, 100여 명의 적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10여명을 쏘아 죽였습니다. 승세를 타서 풍암리(豐巖里)까지 추격했더니 그들은 흙으로 보루를 쌓아 백기를 꽂고 수천 명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접전을 해서 한낮부터 저물 때까지 이어졌고, 포병(砲兵)이 승세를 타니 적들이 점차 무너져서 그대로 흩어졌습니다. 도망가는 적을 추격하여 총에 맞아 죽은 자를 셀 수가 없었습니다.<sup>94)</sup>

동학농민군 측도 당일의 치열한 전투 상황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홍천의 차기석이 동학군을 모았다가 전 감역 맹영재가 나아가 공격하여 동학군의 죽고 상해를 입은 자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었고, 불을 지르고 갑작스럽게 격파함으로 홍천 서석 일대는 사람의 자취가 영원히 끊겼다.<sup>95)</sup>

10월 23일 황성현감 유동근은 인접 경기도 여주·양군·지평 및 춘천의 포군과 현의 포수 1천여 명과 함께 연합토벌대를 편성하여 서석면으로 들어와 농민군 집결지에 총을 쏘아 수백 명을 살해하였다. 25일에는 전투 중 부상 상태에서 도망가다 체포된 오복선(吳福先)을 진영 앞에서 목을 베었다. 체포한 심낙서(沈洛西)와 김지현(金之玄) 등 18명은 강요를 면할 수 없어 동도에 들어간 자들로 판단하여 엄중히 타일러 풀어주었다.<sup>96)</sup> 이후 차기석도 11월 12일 봉평 내면 원당리에서 민보군에게 체포되어 강릉으로 이송 후 22일 소모사가 교장에서 처형 효수하였고 그의 머리는 원주 순무영으로 보냈다. 민보군에게 체포된 지덕화(池德化)와 박석원(朴碩元)·오덕현(吳德玄)은 문초 후 총살하고, 나머지 9명은 개고기를 나누어 먹인 후

94) 『甲午軍政實記』 「砥平縣監孟英在爲牒報事」, 갑오년 11월 2일.

95) 權秉惠, 1935 『甲午東學亂』, 大東斯文會.

96) 『甲午軍政實記』 「春川留守任商準爲牒報事」, 갑오년 11월 3일; 『甲午軍政實記』 「橫城縣監柳東根爲牒報事」, 11월 9일.

풀어주었다.<sup>97)</sup>

그런데 홍천에서는 동학농민군 토벌 과정에서 아전들이 이들의 가옥을 몰수하는 폐단이 적지 않았다. 예컨대 12월 홍천의 수리향(首吏鄕)이 이태범(李台範)과 김우현(金友鉉)은 개접(開接)하여 무뢰배들을 모아 사람들을 죽이고 불을 지르고 돈과 곡식을 빼앗았다는 이유로 가산을 몰수하였다가 물의를 빚자 되돌려 주고 옥에 갇힌 일도 있었다.<sup>98)</sup> 10월 홍천에서 동학농민군으로 참여하였다가 체포 처형된 것으로 분류된 강경춘(姜京春)·고진성(高辰成)·조희준(趙希俊)은 『갑오군정실기』에는 횡성지역 참여자로 기록되어 있다.

## 8) 원주

원주의 동학농민군은 15명이다. 1894년 9월경 원주 동도리의 접주 이희종(李喜鍾)이 충주 목계로 가서 일본 병사 2명을 살해하고 제천 화암리에 주둔하고 있었던 사실도 확인된다.<sup>99)</sup> 당시 그는 경기도 음죽접주 이기영과 충청도 제천접주 정식과 제휴하고 있었다. 이희종은 원래 음성 출신이었기 때문에 충청도까지 활동무대를 넓힐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교장(敎長) 김화보(金化甫)의 지도로 입도한 장우근(張友根)·박삼석(朴三石)·김기순(金己順)·김진해(金辰亥)·이점복(李占卜)·손재규(孫在圭)·안재풍(安在

---

97) 『東匪討論』 「傳令內面行陣所諸從事官」, 갑오년 11월 17일.

98) 『甲午軍政實記』 「傳令洪川縣監徐學淳」, 갑오년 12월 5일; 『甲午軍政實記』 「洪川縣監徐學淳爲牒報事」, 갑오년 12월 26일.

99) 『甲午軍政實記』 「陰竹縣監金鍾遠爲牒報事」, 갑오년 11월 20일.

豐) 등도 농민군에 참여하였다. 박학종의 집을 빼앗아 집소로 삼아 활동하던 김화보는 소모관 맹영재에게 체포되어 10월 18일 지평현 홍문 밖에서 처형되었고 그의 목은 강원감영으로 보내졌다.<sup>100)</sup> 장우근 등의 체포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순무영의 회답에 “도망간 놈들은 반드시 잡아 죽이도록 하라”라고 되어 있는 기록으로 보아 김화보만 체포되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도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주 의병소에서는 11월 6일 원주 서면 덕평리에서 사로잡은 한석룡(韓錫龍)을 “충청도 내포에서 살다가 기내(畿內)에 들어와 의병소의 기밀을 정탐했다”는 자백을 받고 처형하였다.<sup>101)</sup>

한편 원주 귀래면의 집강 이규하(李圭夏)는 1894년 가을과 겨울 사이에 해당 면에 접을 설치하고 활동하였다. 그는 1895년 4월 충청도 충주 소태양면 구룡동 김 아무개 집에 숨어있다가 진사 이철화가 인솔한 포군에게 체포된 후 군교와 나졸을 통해 법무아문으로 압송되었다.<sup>102)</sup> 접주 신태우(申澤雨)는 기포령에 따라 동학농민군 제2차 봉기에 참여하였다가 한참 후인 1898년 정월 1일 경기도 음죽 양산동에서 관군에게 체포되어 이천군의 감옥에 수감되었다. 이후 이용구·김낙철 등과 함께 서울로 압송되어 경성 감옥에 갇혔다가 바로 수원 감옥으로 이감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고문을 당했다.<sup>103)</sup> 원주 진거리 출신인 임순호(林淳灝)는 농민군 2차 봉기 시 원주에서 참여한 뒤 1898년 3월 경기도 여주에서 체포되어 풀려났다가 서울에서 다시 체포되었다.<sup>104)</sup> 이 지역 농민군 참여자로 등재되어

100) 『甲午軍政實記』 「砥平縣監孟英在爲牒報事」, 갑오년 10월 21일.

101) 『甲午軍政實記』 「砥平縣監孟英在爲牒報事」, 갑오년 11월 9일.

102) 『司法稟報』 「江原監營來牒」(175호) 및 「廣州府來牒」(176호), 을미년 4월 19일.

103) 『東學宗宗釋史』, 『侍天教宗釋史』.



있는 임순호와 임순화(林淳化)는 그 활동 기록으로 보아 동일인으로 판단된다.

## 9) 횡성

횡성의 동학농민군은 2명이다. 이 지역의 대표적인 접주는 윤면호(尹免鎬)다. 그가 동학농민군 제2차 봉기 시 횡성의 동학 두령으로 이에 동참하여 기포하였던 사실이 『갑오동학란』과 『천도교서』를 통해 확인된다. 그러나 그에 관한 더 이상의 내용은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없다. 횡성에서는 소모관과 함께 원주군 포군 28명, 횡성현 포군 100명, 창군 50명이 10월 17일 횡성현을 출발하여 같은 군 청일면 춘당리에 주둔하였다. 춘당리는 홍천 서석면 경계에 접한 지역으로 이곳에서는 20일 500여 명의 농민군이 진중을 기습하였다. 소모관이 이에 접전하여 많은 수의 농민군을 살해 토벌하고 그중 10여 명을 생포하여 일부는 타일러 풀어주고 이들 중 부두목 조희준과 고진성의 목을 베어 경계하였다.<sup>105)</sup> 이들은 홍천 농민군으로 등재되어 있다. 횡성 남면에 거주하던 신성무(申聖武)는 이곳으로 피신한 최시형과 임학선·임학기 형제가 오랜 기간 은신할 수 있도록 거처를 주선하고 750냥의 금전과 연초 4근을 지원하는 등 역할을 하였다.<sup>106)</sup>

---

104) 『甲午東學亂』「第六十九章 甲午東學亂」: 康弼道, 『東學道宗釋史』.

105) 『甲午軍政實記』「橫城縣監柳東根爲牒報事」, 10월 28일.

106) 『均菴丈林東豪氏略歷』.

## 10) 기타

1894년 9월 4일 영월과 평창·정선 등 5개 읍의 동학농민군 수천 명이 부사가 바뀌는 때를 엿보아 일제히 강릉부로 들어와서 삼정(三政)을 바로 잡고 백성을 구제하겠다는 기치를 내세운 사실<sup>107)</sup>로 보아 영월에서도 농민군 활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이름을 알 수 없는 영월의 나교장(羅敎長)과 삼척의 황찰방(黃察訪)이 수천 명의 농민군을 이끌었다고 한다.<sup>108)</sup> 경기도 음죽 출신 농민군 수접주 이기영도 민보군에게 체포된 후 영월·평창·정선 등의 읍에 가서 군기를 탈취하고 군량을 징수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sup>109)</sup> 영춘현감도 11월 초 각 처의 동도(東徒) 몇천 명이 영월에 모여 있다가 평창으로 옮겨갔다고 들었고 이때 영월에서 체포한 동도 2명을 사살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sup>110)</sup>

황찰방 외에 1894년 11월 당시 삼척부 도상면 유천동에서도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파악되나 농민군 참여자의 이름은 기록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들은 정선의 대전 및 궁전곡의 농민군과 합세하여 정선과 삼척의 경계를 왕래하고 있었고 강릉부사 이회원은 이들이 강릉부로 진입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삼척부사에게 많은 군정을 징발할 것을 지시하였다.<sup>111)</sup> 한편 영월·정선·평창 등지에서 피신한 농민군들은 이후 삼척 상하장면으로 도

---

107) 『東匪討論』 「在營」, 갑오년 9월 8일.

108) 『東匪討論』 「留鄉座首爲牒報事」, 갑오년 9월.

109) 『甲午軍政實記』 「陰竹縣監金鍾遠爲牒報事」, 갑오년 11월 20일.

110) 『甲午軍政實記』 「永春縣監申肯休爲牒報事」, 갑오년 11월 24일.

111) 『東匪討論』 「關三陟府使」, 갑오년 11월 8일.

피한 바 있다.<sup>112)</sup> 이후 12월 2일 강릉부사는 기찰군관을 파견하여 삼척 등지에 숨어있는 농민군 잔여 세력의 체포에 주력하도록 하였다.<sup>113)</sup>

## 4. 황해도

황해도는 강령·곡산·문화·배천·봉산·송화·신천·안악·연안·은율·장당현·장연·재령·평산·풍천·해주 등 17개 지역에서 동학농민군의 활동 내역과 참여자의 이름이 확인된다. 동학농민군은 뒤늦게 활동을 시작하였지만 황해도는 전도의 2/3 이상이 그들의 활동무대가 되었고, 다른 지역이 1895년 초반에 대부분 종식되었던 것과는 달리 1896년까지도 지속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거점은 문화 구월산과 재령 장수산, 해주 수양산 등이었다. 황해도 동학농민군은 동학교단 지도부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독자적으로 활동하였다.

### 1) 장연

장연의 동학농민군은 10명이다. 황해도 농민군 활동은 장연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장연 신화방에 거주한 백낙희(白樂喜)는 1894년 7월 동학에 입교하여 교장(敎長)이 된 후 구월산 산포(山砲)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sup>114)</sup> 이 지역 농민군은 9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

---

112) 『東匪討論』「關三陟府」, 갑오년 11월 20일.

113) 『東匪討論』「關三陟鎮營」, 갑오년 12월 2일.

114) 『司法稟報』「重犯供招」, 白樂喜 招辭, 建陽 원년 2월.

하여 관아를 점령하고 무기를 빼앗고 양민의 재산을 약탈하여 관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황해도 병마절도사 이용관의 전보에 의하면 수만 명의 동학군이 장연에서 일어나 해주성에 들어가 군기를 빼앗고 감사 김춘희를 협박하고 판관을 묵자 감영에서는 각 촌의 사냥꾼 800명을 동원하여 성문을 지켰다고 한다.<sup>115)</sup> 정양(鄭樑)은 접주로서 1894년 가을경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봉기하여 신천·재령·송화·장연·해주에서 관군과 여러 차례 전투를 벌였다.<sup>116)</sup> 이 지역의 농민군들은 큰 가마 3~4개를 갖춘 화약 제작소를 두고 있었고 구식 조선 대포 몇 문과 포탄까지 구비하고 있었다.<sup>117)</sup> 목감리 부호로 자진하여 동학에 입도한 이윤세(李允世)는 동학농민군으로 참여하였다가 실패로 돌아간 후 가짜 상여를 이용하여 황해도 곡산으로 피신하였다고 한다.<sup>118)</sup>

백낙희는 이후 1895년 12월 다시 봉기하여 동생 낙규(樂圭)와 각 동의 백성들을 지휘하다가 1896년 2월에 체포되었다. 그는 이를 전양근(全良根)·백기정·김계조(金啓祚)와 모의하고 김의순·백낙규는 그 수종이 되어 반란을 꾀했다고 진술하였다.<sup>119)</sup> 그런데 이를 기획한 ‘전라도 김진사’ 또는 ‘진동창의사’로 불리던 김형진(金亨鎭)은 백낙희에게 봉기하여 해주와 서울까지 점령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그리고 김창수의 종조부 김재희와 더불어 장연군에서 산포(山砲) 중심의 ‘동비여당(東匪餘黨)’을 동원한

115) 『舊韓國外交文書』『日案』3, 1894년 9월 27일, 164쪽.

116) 『天道教會史草稿』(1920), 466쪽.

117) 鈴木彰, 『黃海道東學黨征討略記』「大日本 陸軍歩兵少尉 鈴木彰 講話」, 明治 28年 3月 7日.

118) 천도교 중앙총부 교사편찬위원회, 1981 『天道教百年略史』, 240쪽.

119) 『司法稟報』「長淵郡守廉仲謨報告」, 建陽 원년 2월 30일.

한·중 연합 의진 결성과 새로운 국가 구상을 도모하였다.<sup>120)</sup> 그는 백낙희와 김재희로 하여금 산포와 백성들을 모아 장연군을 습격하여 군수와 관속·아전들을 모두 살해한 후 해주·안악·문화 등 각 군 산포를 모아 해주부를 점령하고 이곳에 진동창의소(鎭東倡義所)를 설치할 계획이었다. 이후 청국에서 마대인(馬大人)이 의주를 통해 조선으로 들어오면 합세하여 서울로 진공하여 양왜(洋倭)를 토벌하고 각 대신들을 죽이고 이씨 왕조를 전복하여 해도(海島)의 정씨(鄭氏)를 임금으로 추대하자는 변란적 성격까지 포함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적극 동조한 백낙희도 정감록(鄭鑑錄) 사상의 기반 위에서 양왜 토벌을 주장하였다. 김형진은 청국 군대의 출병과 함께 자신은 평안·전라·황해 3도의 도통관으로, 백낙희를 장연 선봉장으로 하여 재봉기를 기도하였다. 평안도 및 전라도 세력과의 연대를 기획한 점도 주목된다. 그 과정에서 체포된 백낙희 등 6명은 그해 4월 6일 『대명률(大明律)』 「적도편(賊盜編)」 ‘모반대역조(謀反大逆條)’의 ‘무릇 모반을 공모한 자는 수종(首從)을 가리지 않고 모두 능지처사(凌遲處死)한다’는 율에 따라 교형에 처해졌다.<sup>121)</sup> 체포를 면한 포수 중 강성일(康成日) 등 4명은 이후에도 계속 활동하였다.<sup>122)</sup>

120) 『司法稟報』 「重犯供招」, 白樂喜 招辭, 建陽 원년 2월.

121) 法部 刑事局, 『起案』, 建陽 2년 5월 30일.

122) 『司法稟報』 「黃海道觀察使李垠鎔報告」, 光武 3년 3월 6일.

## 2) 해주

해주의 동학농민군은 19명이다. 해주를 대표하는 동학농민군은 수접주 임종현(林宗鉉)으로 1894년 10월과 11월에 해주 감영을 점령하였고 황해도 문화·달천 등지에서도 활동하였다. 일본 소위 스즈키 아키라(鈴木彰)의 담화를 비롯한 각 자료에는 그를 ‘황해도 동학당 거괴’로 기록하고 있다.<sup>123)</sup> 10월 6일 해주성 밖 서남 방향의 취야장에 모인 임종현이 이끄는 수만 명의 농민군은 동학 금지의 명령을 완화하고 민폐(民弊)와 읍막(邑瘼)을 통렬히 개혁할 것을 요구하였다. 평산·배천·연안·재령·신천·문화·장연·웅진·강령 등지에서 집합한 농민군은 10월 25일 동서에서 협공하여 해주성을 점령하였다. 당시 스즈키의 보고에 의하면 성문 밖까지 접근한 자가 6천~7천명, 또 1리 밖에 있는 자가 1만명, 3리 밖에 떨어져 있는 취야장에 1만 3천~1만 4천명이 있었다. 그 총수를 합하면 무려 3만명이었다고 한다. 그는 4명의 황해도 농민군 지도자로 임종현과 원용일·김명선·김영하 등을 지목하면서 이들은 ‘가짜 동학당(僞東學黨)’이자 가장 흉악한 무리로 규정하였다.

이들 중 임종현은 스스로 감사의 위치에 오르고 성재식(成在植)을 강령현령, 이용선(李容善)을 안악군수, 최득수(崔得秀)를 해주판관, 기타 부사와 군수로 할 인물을 선정하였다. 접주 김명선(金明善)은 해주 수대산에 108명의 무리를 모아 양산박(梁山泊)을 자임하고 원근에서 약탈을 일삼았다

---

123) 鄭顯爽, 『甲午海營匪擾顛末』; 鈴木彰, 『黃海道東學黨征討略記』 『大日本 陸軍歩兵少尉 鈴木彰 講話』, 明治 28年 3月 7日; 『駐韓日本公使館記錄』; 『日本士官函牘』.

고 한다.<sup>124)</sup> 성재식은 이용선·임종현과 함께 황주와 재령·해주·봉산 등 각 읍에 통문을 내어 각자 총과 칼을 지니고 기린역과 탁영대에 취회하였고,<sup>125)</sup> 체포 후 서울로 압송되어 서소문에서 처형 효수되었다. 접주 이용선은 기린역 등을 지나면서 전투하였고 그 과정에서 집을 헐고 불을 지르다가 3천여 명을 이끌고 평산의 용두촌에 주둔하던 중 민영룡 등 민보군에게 체포되었다.<sup>126)</sup>

최유현(崔瑠鉉)과 오응선(吳膺善)은 제2차 봉기 시 해주의 동학 두령으로 동참하여 신천·재령·송화·장연·해주에서 관군과 6~7차례 전투를 벌였다.<sup>127)</sup> 이에 해주 감영과 용산의 일본 병사가 연합토벌대를 구성하고 취야장 전투에서 승리한 후 강령으로 전진하였다. 이때 농민군은 대패하였고 접주 민경순(閔景淳)·민원장(閔元長)·이제석(李濟石) 등 3명이 체포되어 11월 13일 해주 남문 밖 훈련원에서 군민이 모인 가운데 효수되었다.<sup>128)</sup> 한편 같은 11월 농민군 토벌 차 기수 박삼손 등이 해주부의 노비 10여 명을 이끌고 강령으로 진출하였는데 기미를 알아차린 접주 김영후(金永厚)와 강경우(姜京禹)는 도망하였고,<sup>129)</sup> 이들의 집은 수색 후 물자와 곡물·소 등이 몰수되었다.

124) 『甲午海營匪擾顛末』, 1894년 10월 28일 및 『黃海道東學黨征討略記』.

125) 『甲午軍政實記』 「平山府使李彰烈爲牒報事」, 갑오년 12월 16일.

126) 『甲午軍政實記』 「平山府使李彰烈爲牒報事」, 갑오년 12월 24일.

127) 『東學道宗繹史』 「第十二章 甲午東學黨革命及日清戰役」.

128) 『甲午軍政實記』 「黃海監司鄭顯爽爲牒報事」, 갑오년 11월 17일. 이들 3인 중 민원장의 체포 및 처형에 대해서는 朴周大의 『羅巖隨錄』 1894년 11월 조에 실려 있다.

129) 『甲午軍政實記』 「別軍官洪在駿爲手本事」, 갑오년 11월 21일. 『天道敎書』(1920년 간행)에 의하면 김영후는 제2차 기포 당시 해주의 '대두령'으로 기록되어 있다.

해주에서는 의려(義旅) 안태훈(安泰勳)이 11월 임종현의 화포영장 김동범(金東範)·김인범(金仁範)·김산석(金山石) 등을 체포 총살하고 조총 1자루, 환도 1자루, 투구 1건 등을 수습하여 황해도 관찰사에게 올려보냈다. 관찰사 정현석은 감영에서 체포한 접주 김기원을 군사와 백성을 모아놓고 효수하였다.<sup>130)</sup> 화포영장 김선장(金善長)은 몸을 숨기고 종적을 감추었으나 이후 1896년 7월 순검에게 체포되어 취조받고 법률 제2호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 “1인 혹 2인 이상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제한된 장소나 혹은 큰길에서 주먹과 발, 몽둥이 혹은 병기를 사용하여 위협 혹은 살상하여 재물을 갈취한 자는 우두머리와 따르는 자를 가리지 않는다”는 율에 따라 9월 19일 교형으로 처형되었다.<sup>131)</sup>

### 3) 백운

백운은 해주 북서부 송화 경계에 위치한 백운방(白雲坊)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사창과 장시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 지역 동학농민군은 백운 접주 정해익(鄭海翼) 1명으로 그는 팔봉 접주 김창수(김구)와 함께 1894년 9월 기포한 인물<sup>132)</sup>로 따로 분류되었으나 해주 출신으로 재분류가 필요하다.

---

130) 『甲午軍政實記』 「黃海監司鄭顯爽爲牒報事」, 갑오년 11월 23일.

131) 『司法稟報』 「黃海道觀察使閔泳喆報告」, 건양 원년 9월 24일.

132) 천도교중앙총부, 1981 『天道敎百年略史』, 273~274쪽.



#### 4) 장당현

장당현의 동학농민군은 6명이다. 해주성의 북문 밖 지역인 장당현(將堂峴, 일명 將臺峴)에서는 10월 27일 일본군 포군과 동학농민군 간에 격렬한 접전이 있었다. 이때 체포된 허원일(許元一) 등 10명은 동학을 배반하고 귀화 의사를 밝혀 석방되었다. 이에 반해 도령포수(都領砲手) 이인석(李仁石)을 비롯한 여원필(呂元必) 등 5명은 ‘접주와 화응하여 성을 침범하고 변란을 일으켰다’는 죄목으로 즉결 처단되었다.<sup>133)</sup>

#### 5) 강령

강령의 농민군은 3명이다. 임종현 주도 황해도 농민군은 강령현으로 들어갔다. 이들 중 일부는 해주와 장연 등지에서 들어왔는데 이때 강령에 있던 농민군들도 크게 합세하여 영읍의 무기를 탈취하고 문부를 소각하고 관아를 파괴하였다. 다시 해주부로 들어가 10월 25일 감영을 점령하고 황해도 관찰사를 축출하였다. 이에 포군 100명과 일본 병사 50명이 취야장으로 진공하여 대적하였고 농민군은 패퇴하였다. 11월 기수 박삼손 등이 해주부의 노비 10여 명을 이끌고 강령으로 진출하자 기미를 알아차린 접

---

133) 『甲午軍政實記』「黃海監司鄭顯爽爲牒報事」, 갑오년 12월 14일. 『甲午海營匪擾顛末』, 갑오년 10월 27일 자에 따르면 이날 “산포수 20여 명을 포살하고 15명을 사로잡았으며 나머지 무리는 패하여 도망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10월 28일 자에는 “적 가운데 10놈은 억지로 협박하여 따른 것에 불과하니 특별히 풀어주었고, 포수 5놈은 일일이 사실을 자백하여 아울러 처단한 후에 사유를 갖춰 보고하였다”고 되어 있다.

주 김영후와 강경우(姜京禹)는 피신하였고 이들의 집은 수색 후 물자와 곡물·소 등이 몰수되었다.<sup>134)</sup> 그 과정에서 체포된 성재호(成在鎬)는 12월 서울에서 처형당했고, 성재석(成在錫)은 강령에서 봉기하여 신천·재령·송화·장연에서 관군과 6~7차례 싸웠고 체포되어 거열형(車裂刑)에 처한 후 시체는 조리돌림 되었다.<sup>135)</sup>

임종현과 김영하 등은 1895년 1월 문화의 구월산에 모여 신천·재령·웅진·강령 등 여러 군을 다시 공략하다가 2월에 일본군의 개입으로 진압되었다. 이들 중 김영하·오가인 등 17명은 접주·산포 등의 역할로 참여하다가 피신하였다. 그중 조사여와 성재식은 체포 처형되었지만 대다수는 종적을 감추었다. 성재식은 임종현이 강령 현감으로 선정한 바 있었다.<sup>136)</sup> 오가인의 조카 오현근은 각 동리에 방문을 붙여 "동도의 세상에서는 나라에 조세를 바칠 필요가 없으니 각종 공납(公納)은 절대로 거두어 바치지 말 것이다"이라고 말하였고 이로 인해 강령군의 세금 징수도 지체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는 기포 당시 농민군 우두머리들을 집으로 불러 감사·목사·수령을 골라 뽑았다고 한다.<sup>137)</sup>

134) 『甲午軍政實記』 「別軍官洪在駿爲手本事」, 갑오년 11월 21일.

135) 『侍天教宗繹史』 「第十一章 甲午教厄」; 『東學道宗繹史』 「第十二章 甲午東學黨革命及日清戰役」.

136) 『黃海道東學黨征討略記』.

137) 『各府報告書』 「本縣匪魁姓名成冊」, 개국 504年 4月 7日. 奎.26142.

## 6) 재령

재령의 농민군은 6명이다. 원용일(元容驪)과 오영창(吳永昌)·안이정(安履貞)은 재령을 대표하는 접주로 1894년 가을과 겨울에 신천·재령·송화·장연·해주 등지에서 관군과 접전하였다.<sup>138)</sup> 원용일은 한화석(신천 농민군 접주)·최창우(崔昌祐) 등과 함께 재령에서 봉기하여 동학농민군을 이끌었다.<sup>139)</sup> 일본군 육군 소위 스즈키 아키라가 지목한 4명의 황해도 농민군 지도자의 한 사람인 그는 이후 부대를 이끌고 장수산으로 들어가서 완강하게 항전하였다. 임종현과 원용일은 황해도 동학농민군 활동 실패 이후 1900년에 3~4백 명을 모아 재령과 신천 등지에서 다시 기포하였지만 해주 지방대에서 병사를 파견하여 그들의 거주지를 습격하고 주위를 탐문 수색하자 강원도 등지로 피신하였고,<sup>140)</sup> 이후의 소식은 알려지지 않는다.

한편 양력 11월 28일(음 11월 2일) 일본군의 군량을 사 모으기 위해 재령에 온 일본 상인 5~6명을 농민군 1천여 명이 급습하였다. 그중 모쓰 구라요이치(牟津倉嘉市)·사사노 로쿠마쓰(笹野六松) 등 2명은 살해되고 나머지는 도주하였다. 당시 재령에는 성만기(成萬基) 휘하에 2~3천 명이 모여 있었는데, 이들은 ‘탐학한 관리를 제거하고 인민을 보호할 목적’으로 안악으로 갈 계획을 표명하였다. 그러면서 일본인에게는 적의가 없으며 그들을 살해한 것은 자신들이 아니라 산곡조(山谷組)이고, 재령 관아를 공격하

---

138) 『東學道宗釋史』「第十二章 甲午東學黨革命及日清戰役」.

139) 『天道敎書』, 第2編 海月神師.

140) 『日新』, 光武 4년 3월 15일.

는 도중 이들 중 13명도 전사하였다고 주장하였다.<sup>141)</sup> ‘산곡조’는 ‘산곡첩’을 일본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령의 하리(下吏) 출신인 강달조(姜達祚)는 1894년 겨울 접주가 되어 여러 곳에서 부유한 사람들에게 곡식 수백 석을 징수하였다. 그는 1895년 봄 원용일이 수백 명의 농민군을 이끌고 신천군을 불 지르고 재령으로 향할 때 동학도를 이끌고 영접하였다. 이후 원용일 포와 함께 장수산에 들어가 활약하였고, 다시 돌아와서 청룡촌 강희열로부터 벼 27석을 징수하여 화포에게 나누어 주고, 장춘의 김첨사로부터는 잡곡 36석을 징수하여 농민들에게 나누어주었다.<sup>142)</sup> 강달조는 이 일로 체포되어 법무아문으로부터 『대명률(大明律)』 「조요서요언조(造妖書妖言條)」의 “무릇 요서와 요언을 만들어내거나 이를 전하고 사용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자는 참한다”라는 법률과, 「백주창탈조(白晝搶奪條)」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약탈하는 자는 장 1백, 도형 3년에 처한다”라는 법률과, 『형률명례(刑律名例)』의 “두 죄를 같이 지은 경우에는 무거운 죄로 논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교수형에 처하라는 훈령<sup>143)</sup>을 받고 해주부 감옥에 수감되었다. 그러던 중 농민군의 해주부 습격 시 혼란을 틈타 1896년 4월에 가까스로 탈옥에 성공하였고,<sup>144)</sup> 이후의 상황은 알려진 바 없다.

---

141) 『駐韓日本公使館記錄』 「載寧地方東學黨情況報告」, 1894년 11월 28일.

142) 『司法稟報』 「海州府觀察使李鳴善報告」, 1896년 1월 27일 제6호.

143) 『起案』(法部 刑事局), 1896년 3월 28일.

144) 『司法稟報』 「海州府參書官金孝益報告」, 1896년 4월 9일.

## 7) 평산

평산의 동학농민군은 15명이다. 평산부에서는 10월 13일 동학농민군의 봉기가 시작되었다.<sup>145)</sup> 해주로부터 나온 농민군 300여 명은 평산 누천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이때 모인 사람들은 해주 집주 임종현·최우현(최유현) 외에 김영하(金榮河)·홍성준(洪聖俊)·김양숙(金良俣)·이중칠(李仲七)·조국경(趙國景)·이치원(李致元)·박여달(朴汝達)·이용손(李龍孫)·김상진(金尙辰)·이원약(李元若)·이한봉(李漢鳳)·김창서(金昌瑞)·이도여(李道汝) 등이었다.<sup>146)</sup> 11월 4일에는 총과 창을 든 수천 명의 농민군이 관아에 들이닥쳐 관속과 주민들이 피난하였고 부사는 총수(葱秀)의 일본군 병참부에 급히 통지하고 금천병참부로 피신하였다. 그날 밤 10여 명의 일본군과 함께 좌우에서 공격하다 후퇴하였고 다음 날 아침에 다시 공격해서 농민군 수십 명의 머리를 베었다. 그 결과 농민군들은 흩어졌고 그 과정에서 관아 건물이 불타고 창고와 민가도 파괴되었다.<sup>147)</sup> 같은 기간 평산 북방 10리에서 일본인 기수(技手)가 공사 중 동학도 300여 명의 습격을 받아 금전과 물품을 약탈당했다. 이에 다음 날 아침 황주에서 온 8명의 일본 병참부 수비병은 평산에 진을 친 동학군을 공격하여 그중 12명의 목을 베고 화기와 도검 등 다수 노획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인부 1명이 부상하였다.<sup>148)</sup> 이때 부사는 흩어진 노비들을 불러 모으고 일본 병사들을 이끌고 가

---

146) 『駐韓日本公使館記錄』「東學黨征討關係에 관한 諸報告：當葱莠驛附近 東學黨事件에 관한 情況 概報」.

147) 『甲午軍政實記』「平山府使李彰烈爲牒報事」, 갑오년 11월 9일.

148) 『二六新報』「東學黨征伐公報」, 1894년 12월 5일.

서 수색하여 10여 명을 체포 수감하고, 이들 중 거괴와 접주는 효수하였다.<sup>149)</sup>

연안부사의 효유문에 따르면 11월 26일 평산의 접주 홍좌경(洪佐卿)과 조원회(趙元會)가 단자를 제출하고 귀화 의사를 밝혀 이들을 타이른 후 풀어주었다고 한다.<sup>150)</sup> 그러나 12월 13일 평산의 동학도가 재령과 신천의 농민군을 누천 장터에 소집하였다고 하는 후속 보고로 보아 이후에도 활동을 지속하고 있었다.<sup>151)</sup> 이는 이전 11월 23일 해주 안악의 수접주 임종현이 평산 수접주에게 ‘창의소’ 명문의 통문에 호응하여 창의 기포한 것으로 판단된다.<sup>152)</sup> 그러나 12월 15일 이용손 등은 관내 기린역과 용두촌 등지에 모여 관군·부상·민보군 등 연합토벌군과 총 5차례의 접전 끝에 패배하여 이들 중 10여 명은 참수되고 25명은 사로잡혔다, 평산부사는 “이들 비류 가운데 사로잡은 자들은 지난번에 잘 타일러 귀화했던 자들이었으나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한 번 싸우고는 목을 내놓고 두 번 싸우고는 달아났다”<sup>153)</sup>고 평가하였다.

## 8) 문화

문화의 동학농민군은 7명으로 구월산이 속해 있는 이곳에서도 10월 13

---

149) 『甲午軍政實記』 「平山府使李彰烈爲牒報事」, 갑오년 11월 21일.

150) 『甲午軍政實記』 「延安府使李啓夏爲牒報事」, 갑오년 12월 14일.

151) 『甲午軍政實記』 「延安府使李啓夏爲牒報事」, 갑오년 12월 21일.

152) 『黃海道東學黨征討略記』 「敬通, 平山 首接主」, 甲午 11월 23日 卯時 倡義所.

153) 『甲午軍政實記』 「平山府使李彰烈爲牒報事」, 갑오년 12월 24일.

일 동학농민군의 봉기가 시작되었다.<sup>154)</sup> 그러나 이 지역 출신으로 황해도 일대에서 동학농민군 봉기와 참여한 인물들은 확인되지만 관군 및 일본군과의 전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강익주(康益周)와 김익하(金益河)는 동학농민군 제2차 봉기 시 문화의 동학 두령으로 이에 동참하여 기포하였다.<sup>155)</sup> 동학농민군에 참여한 박승화(朴承和)는 자기 집에서 전판(錢板)을 만들어 이시화(李時化)·이용여(李用汝)·류길용(柳吉用) 등과 함께 사주전(私鑄錢)을 제조한 혐의로 체포되었다.<sup>156)</sup> 접주 윤기호(尹基鎬)와 임주엽(林周葉)·이흥림(李興林)·정종혁(鄭宗赫)은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신천·재령·송화·장연 등지에서 관군과 6~7차례 전투하였다.<sup>157)</sup>

## 9) 송화

송화의 동학농민군은 2명이다. 『갑오해영비요전말』 1894년 10월 14일 자에 따르면 “송화현·문화현·평산부·조니진·오우진·용매진이 모두 적에게 함락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주차 일본군의 후일 기록에도 “1894년 11월 하순 황해도 지방의 폭도는 평산·강령·연안·황주 부근 송화·장연의 각지를 소란스럽게 하여 병참사령부 역시 그 습격을 받았다”<sup>158)</sup>고 되어 있다. 『동학도종역사』를 저술한 양암(良菴) 강필도(康弼道)

154) 『甲午海營匪擾顛末』, 갑오년 10월 13일.

155) 『東學道宗釋史』「第十二章 甲午東學黨革命及日清戰役」.

156) 『司法稟報』「海州府觀察使李明善報告」, 1896년 1월 30일.

157) 『東學道宗釋史』「第十二章 甲午東學黨革命及日清戰役」; 『天道教書』「第二編 海月神師」.

158) 『駐劄日本軍歷史』「第三章 日清戰役間ニ於ケル帝國駐劄部隊ノ行動」.

는 접주 방찬두(方燦斗)와 같이 접주로서 기포 후 송화군의 동학군으로 참가했다.<sup>159)</sup> 한편 어은동의 구마가야(熊谷) 병참사령관의 전보에 따르면 양 1895년 1월 20일(음 1894년 12월 25일) 봉산에서 파견된 야마나카(山中) 소위의 부대가 송화에서 동학당 5백여 명과 조우해 1시간여 동안 고전한 끝에 그들 중 2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물리쳤다고 한다. 이때 일본군은 농민군들로부터 총 50정, 창 5자루, 깃발 3개, 기타 서류 등을 노획하였다.<sup>160)</sup>

## 10) 은율

은율의 동학농민군은 18명이다. 은율현을 대표하는 접주인 윤도경(尹道京)은 문화의 윤기호와 함께 1894년 가을 동학농민군 대봉기에 참여하였다.<sup>161)</sup> 이후 은율에서는 11월 4일 밤 400~500명의 농민군이 총을 쏘고 관아에 돌입하여 군기고를 부수고 무기 및 집기를 약탈하였다. 그 과정에서 관방 및 문호(門戶)와 집무실 등을 파괴하고 서류를 불태웠다. 이들은 현감에게 “너는 관장이 되어 무엇에 근거하여 일본 진을 왕래하는가. 또 무엇 때문에 각지 인민에게 명령하여 동학당에 입당하는 것을 막는 것인가?”라고 질책하였다고 한다.<sup>162)</sup> 당시 봉기에 참여한 농민군은 접주 정낙

159) 『東學道宗繹史』 「第十二章 甲午東學黨革命及日清戰役」.

160) 『東學黨ノ狀況』 「漁隱洞熊谷兵站司令官ノ電報」(58), 1895년 1월 30일.

161) 『東學道宗繹史』 「第十三章 松菴傳授戊戌曹難」.

162) 『駐韓日本公使館記錄』 「黃海道 東學黨情況에 관한 報告」, 「別紙 戊號: 東學徒殷栗縣襲擊奪取物品 書面陳述」, 1895년 1월 15일.



운(鄭洛云)·김계문(金季文)·정남종(鄭南宗), 접사 여규철(呂奎喆)·박성원(朴聖元)·방계국(方季國)·경내현(景乃玄)·한영국(韓永國), 도집 박제희(朴齊希), 영장 김준모(金俊模)·권광일(權光一)·경창일(景昌一)·서강순(徐江淳)·여인대(呂仁大)·황시우(黃時右)·정육종(鄭六宗)·홍태모(洪太模) 등이었다. 이들이 약탈한 물건은 총 340정, 탄환 2만발, 쇠장 300자루, 화약 1,500근 등이었다. 이들을 지휘한 사람은 당시 문화현 달천에 머물고 있던 수접주 임종현이었다. 은율에서는 이후에도 농민군이 활동하였는데, 1895년 5월 은율현감의 밀고에 따라 일본군 예비대 중에서 약 2개 분대를 파견해서 문화에서 3명, 은율에서 13명의 농민군 잔여세력을 체포한 바 있다.<sup>163)</sup>

## 11) 안악

안악의 동학농민군은 2명이다. 동학 대두령 김봉하(金鳳河)는 1894년 10월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에 참여하였고,<sup>164)</sup> 김석구(金錫龜)는 접주로서 재령 접주 안이정과 함께 참여하였다.<sup>165)</sup> 권병덕의 『갑오동학란』에는 원용일이 동학군을 이끌고 해주·송화·안악·재령·봉산군을 점령하였다고 되어 있다.<sup>166)</sup> 당시 일본군 병참사령부도 “(양 11월 23일; 음 10월 26일) 봉산과 점수의 수비병 일부를 재령과 안악 방

163) 『駐韓日本公使館記錄』 「殷栗과 文化에서 東學徒 逮捕」, 1895년 5월 12일.

164) 『天道敎書』 「第二編 海月神師」.

165) 『東學道宗釋史』, 335~336쪽.

166) 權秉憲, 1935 『甲午東學亂』, 大東斯文會.

면으로 파견하여 적을 진압할 것을 명 받았다. 다만 참으로 동학당인가 폭민(暴民)인가는 지금 취조 중이고 자세한 것은 이후 알 수 있다”라고 보고 하였다.<sup>167)</sup> 별군관 홍재준의 자필 보고서에 따르면 “(11월 10일) 동학도가 안악·신천 등지에 모여 일본군과 접전하려고 수천 명이 해주로 다시 들어와 영을 넘으려고 할 때, 일본군이 마침 당도하여 역습해서 포를 쏘아 죽인 자가 거의 백여 명이 되고 나머지는 흩어져 달아났습니다. 일본군이 뒤쫓았지만 어느 곳으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sup>168)</sup>라고 되어 있다. 이를 통해 이 지역에서도 큰 전투와 많은 농민군이 전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12) 봉산

봉산의 동학농민군은 15명이다. 김응중(金應鍾)은 접주로서 1894년 가을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봉기하여 신천·재령·송화·장연·해주·강령·문화 등지에서 관군과 여러 차례 전투를 벌였고,<sup>169)</sup> 접주 임중호(林仲浩)도 김응중과 함께 대봉기에 참여하였다.<sup>170)</sup> 12월 11일 일본군 검수수비대의 보고에 의하면 봉산 남쪽으로 대략 30리에 있는 냉정에 거주하는 박접주·노(魯) 접주·신원천(申園天) 등 3명의 거괴가 봉산군수에게 호소차 가는 도중인데 이들은 사리원과 서동에 모여 있는 동학도와 연락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보고에도 수많은 동학당이 장

167) 『二六新報』「朝鮮暴徒の襲撃 廣島特派員電報」, 1894년 11월 27일.

168) 『甲午軍政實記』「別軍官洪在駿爲手本事」, 갑오년 11월 14일.

169) 『東學道宗經史』「第十二章 甲午東學黨革命及日清戰役」.

170) 『東學道宗經史』「第十三章 松菴傳授戊戌曹難」.

연에 집합해서 일부는 재령과 봉산 사이의 은파에 집합해 있다고 되어 있다.<sup>171)</sup> ‘거괴’로 표현한 이순서(李順西)는 12월 13일 흥곡촌에서 일본군 토벌대에게 체포되어 연행하려 했으나 반항하고 명에 따르지 않아 총살되었다.<sup>172)</sup> 이후에도 일본군은 봉산 부근에 아직 동학도가 산재해 있다는 것을 듣고 1895년 1월 12일 두 개의 길로 척후병을 파견하여 7~8명의 농민군을 살해하고 접주 1명과 우두머리 6명을 포획해서 봉산병참부에서 조사하였다.<sup>173)</sup> 2월 8일 황주에서 파견된 조선군 130명이 봉산에 있던 조선군 150명과 협력해 은파 부근의 농민군을 격퇴하고 무기와 미곡을 노획하였다.<sup>174)</sup>

봉산군 사원참에 거주하는 송운화는 1895년 1월 농민군 화포수 이원조(李元早, 미등록자)에게 포살 당한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1896년 8월에 그를 잡아 관에 바친 일도 있었다.<sup>175)</sup> 재령의 동학도 수백 명이 이곳까지 진출하여 누구를 막론하고 만나는 대로 총으로 쏘아 죽이고 불을 지르며 쓸고 지나갈 때 죽은 사람이 40여 명이고, 불에 타 버린 민가가 300여 호였다고 한다. 이원조는 9월 법부에서 교형(絞刑)으로 판결 선고를 하였지만 형 집행 이전 ‘설사병’으로 옥중 사망하였다.<sup>176)</sup>

171) 參謀本部 戰史編纂準備書類, 『東學黨ノ狀況』 「漁隱洞熊谷兵站司令官ノ電報」 (58), 1895년 1월 30일

172) 『駐韓日本公使館記錄』 「豊川・瑞興・鳳山 등지 東學黨討伐 戰況에 관한 坂井大尉의 報告書 送付의 件」, 1895년 1월 19일.

173) 『東學黨ノ狀況』 「仁川今橋兵站司令官ヨリノ電報」 (朝報 58), 1895년 2월 7일.

174) 『東學黨ノ狀況』 「仁川高井兵站監ヨリノ電報」 (朝報 58), 1895년 3월 12일.

175) 『司法稟報』 「黃海道觀察使閔泳喆報告」, 1896년 8월 31일 제3호.

176) 法部 刑事局, 『起案』, 建陽 원년 9월 29일.

봉산군 봉의포(鳳儀包) 집주 신석권(辛錫權, 일명 辛錫滿)은 임종현의 지휘를 받아 임익운·김낙천·이규서 등과 함께 기포하였다.<sup>177)</sup> 그는 각도에 통문을 돌려 스스로 ‘청병의 전구(前驅, 선도자)’라 자임하면서 협력하여 반일 연합전선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였다.<sup>178)</sup> 신석권은 이후 1895년 9월 23일 수동포(壽東包)와 서북로 화포 도영장 양영석 등에게, “황해·평안 양 도의 도인이 청병 영접 차 이달 초 5일에 일제히 장수산성에 모여 기회를 보아 기포할 것이다”<sup>179)</sup>라는 내용의 경통(敬通)을 보낸 바 있다. 전직 병정 및 산포수 무리들로 ‘도인’을 표방한 신석권은 장수산성 김원교 부대의 일원으로 판단된다. 임종현도 패전 후 장수산에서 합류하였다. 신석권은 자신의 지역인 황해도뿐 아니라 평안도 동학교도와 함께 청병을 영접한다는 구체적 방안까지 제시하였다.

한편 한영화(韓永化)·한달중(韓達仲) 형제와 김영엽(金永燁)·이동식(李東植)·내석겸(乃錫謙)·박동번(朴東蕃)·김성오(金成五)·이선도(李善道) 등은 동학농민군이 아님에도 그 도당으로 몰려 일본군에게 붙잡혀서 일본 영사관에 구류되었다.<sup>180)</sup> 법무아문 재판소로 이송된 후 신문하니 전혀 아니었음이 판명되었다. 법무아문은 이들이 잘못 염탐하여 붙잡혔으며, 억박지르고 형벌을 가한 나머지 거짓으로 진술하였다는 것이다. 그 내용에

177) 천도교중앙총부교사편찬위원회, 1981 『天道敎百年略史』, 273~274쪽.

178) 韓祐勣, 1983 『東學과 農民蜂起』, 一潮閣, 185쪽. 한우근은 봉의포가 은전 1타(駄)를 사들여 갖고 있다는 점에서 순전한 농민군으로 보기는 어렵고 실제 청병과 연합하여 그 전위대 구실을 하여 저항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179) 『東京朝日新聞』, 「長壽山の亂徒」, 1895년 10월 8일.

180) 法部 編, 『東學關聯判決宣告書』 「判決宣告書原本 金永燁」, 개국 504년 3월 2일; 「判決宣告書原本 李東植 等 4名」, 같은 날; 「判決宣告書原本 李善道」, 같은 날.

는 봉산부 관속이 동학교도임을 빙자해 침학 토색하여, 한영화 형제의 집이 불타고 돈 55냥을 빼앗겼고 이동식은 농우 한 마리 등 가산을 녹탈당하였다고 한다. 법무아문은 한영화에게 빼앗은 돈과 이동식의 소 한 마리를 엄히 조사하여 찾아주도록 특별히 관문을 보내 처결하였다.<sup>181)</sup> 이들은 경성 일본영사 우치다 사다츠지(內田定槌) 입회 아래 법무아문 권설재판소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다.<sup>182)</sup> 반면 장경현(張景賢)은 “비류를 우대하여 그 사정과 행적이 의심스러울 만하다”는 혐의로 법무아문 재판소 심문 후 『대명률』 「잡범편(雜犯編)」, “그 범죄행위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범죄를 한 일의 사정이 무거운 자”의 명문을 적용하여 장형(杖刑) 80대의 형벌에 처해졌다.<sup>183)</sup>

### 13) 신천

신천의 동학농민군은 7명이다. 접주 김유영(金裕泳)은 1894년 가을경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봉기하여 신천·재령·송화·장연·해주·강령·문화 등지에서 관군 및 일본군과 수십 차례 전투하였다.<sup>184)</sup> 한화석(韓華錫)은 신천·재령 등지에서 일어나서 해주 취야장에 모였는데 이때 무리가 1만 인에 달하였다고 한다.<sup>185)</sup> 유해순(柳海珣)·장응봉(張應鳳)·차익환(車

181) 『司法稟報』 「鳳山에 보내는 관문」, 1895년 3월 4일, 제1호.

182) 法部 編, 『東學關聯判決宣告書』 「判決宣告書原本 韓達仲 等 3名」, 개국 504년 3월 2일.

183) 『東學關聯判決宣告書』 「判決宣告書原本 張景賢」, 개국 504년 3월.

184) 『東學道宗釋史』 「第十二章 甲午東學黨革命及日清戰役」.

185) 權秉憲, 1935 『甲午東學亂』, 大東斯文會.

翼環)도 2차 봉기에 참여하였고,<sup>186)</sup> 전석환(全錫煥)과 최지태(崔之泰)도 접주로서 동참하였다. 그해 10월 13일 평양에 주둔한 일본 병사들이 신천으로 진격하여 동학농민군 수십 명을 살해하였고, 14일에는 장연부·신천군·장수산성·수양산성이 농민군의 공격으로 함락되었다. 이에 황해도 감영에서 임명한 의려장 신천군 진사 안태훈이 포군 70명, 장정 100여 명을 모집하여 영장 3명을 사살하고 습득한 조총과 환도(還刀)·갑주(甲冑)는 감영으로 보냈다.<sup>187)</sup> 반면 11월 9일 수천 명의 농민군이 각기 창과 칼을 들고 관아를 습격하였다. 이에 포수 노제석이 70여 명을 이끌고 대적하여 18명을 쏜 죽였고 농민군들이 무너져 흩어지면서 진정되었다.<sup>188)</sup> 한편 일본 병사들이 신천읍으로 향했다는 소식을 들은 임종현이 6~7천 명을 이끌고 후영장 김명선을 선봉진으로 삼아서 전투준비를 하였지만 그들의 기습 총격을 받자 도주하였고 이들 중 23명은 참살되었다.<sup>189)</sup>

#### 14) 배천

배천(白川)의 동학농민군은 1명이다. 접주 변승명(邊承明)은 1894년 가을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봉기하여 신천·재령·송화·장연·해주·강령·문화 등지에서 관군 및 일본군과 전투를 하였다.<sup>190)</sup> 배천군수 윤기선

186) 『天道敎書』「第二編 海月神師」.

187) 鄭顯爽, 『甲午海營匪擾顛末』.

188) 『甲午軍政實記』「黃海監司鄭顯爽爲牒報事」, 갑오년 11월 18일.

189) 『甲午軍政實記』「黃海監司鄭顯爽爲牒報事」, 갑오년 11월 17일.

190) 康弼道, 『東學道宗繹·史』「第十二章 甲午東學黨革命及日清戰役」.

의 첩보에 따르면 11월 10일 비적 수천 명이 각각 창과 검을 휴대하고 읍 내에 돌입하여 문서와 장부를 모두 불태우고, 수리(首吏)를 묶어놓고 두들겨 패고 부호를 잡아다가 돈과 곡물을 빼앗고 이튿날 연안으로 물러갔다고 한다.<sup>191)</sup> 이를 진압하기 위해 일본군이 출동하였다. 소위 스즈키 아키라는 평산·배천·연안 등에서 적도들이 집합하고 있고 또 해주를 동서에서 협공하려는 것 같으며 배천 부근에 집합하는 것을 알았지만 일본군이 도착할 무렵에는 이 지역의 농민군은 해산하였다.<sup>192)</sup>

## 15) 연안

연안의 동학농민군은 1명이다. 연안부사 첩보에 의하면 11월 7일에 5~6백 명의 비도가 평산에서 갑자기 연안으로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강제로 몰고 가면서 문서와 장부를 불태우고 무기와 돈과 곡식을 강제로 빼앗았다고 한다. 이에 부사는 계책을 써서 “동도에 들어가지 않은 자들은 각각 성명을 쓰고 관인을 찍어 증거로 삼는 게 좋다”라고 하여 귀화를 회유 설득하자 군기를 거두어 바치고 목숨을 구걸하는 등 모든 동도가 귀화하였다고 주장하였다.<sup>193)</sup>

한편 11월 10일 배천에 들어온 수천 명의 농민군은 다음날인 11일 연안으로 물러갔는데<sup>194)</sup> 이는 일본군 출병 소식을 듣고 일시 해산한 것으로 보

191) 『甲午軍政實記』「黃海監司鄭顯爽爲牒報事」, 갑오년 11월 28일.

192) 鈴木彰, 『黃海道東學黨征討略記』.

193) 『甲午軍政實記』「延安府使李啓夏爲牒報事」, 갑오년 12월 14일.

194) 『甲午軍政實記』「黃海監司鄭顯爽爲牒報事」, 갑오년 11월 28일.

인다. 이후 같은 달 23일 도순무영에서는 연안부사에게 아직도 동도가 창궐하니 즉시 각 면과 동에 5가작통을 조직하고 치밀하게 수색하라고 명령하고 거괴를 체포하면 곧바로 효수하는 한편 각별히 보부상 두목에게 토벌에 신중하도록 지시하였다.<sup>195)</sup> 유근호(劉根浩)는 제2차 봉기 참여 후 체포되어 강령의 성재호와 함께 서울로 압송되어 12월 처형되었다.<sup>196)</sup>

## 16) 곡산과 풍천

곡산의 동학농민군은 2명으로 접주 김정석(金鼎錫)은 최재렴(崔在濂)과 함께 1894년 가을 동학농민군 대봉기에 참여하였다.<sup>197)</sup> 그러나 지역에서 농민군과 관군·일본군의 접전은 파악되지 않는다. 풍천의 동학농민군은 손두순(孫斗淳)·이달홍(李達弘) 2명으로 제2차 봉기에 참여하였던 사실이 기록상 확인된다.<sup>198)</sup>

## 17) 기타

기타 부·군·현 등 활동 지역이 확인되지 않아 황해도 농민군으로 분류된 인사는 곽홍(郭弘)·김기원(金基元)·김낙천(金樂天)·김익균(金益均)·김하영(金河榮)·민원장(閔元長)·백신배(白信培)·이규서(李奎瑞)·임익

---

195) 『甲午軍政實記』 「傳令延安府使李啓夏」, 갑오년 11월 23일.

196) 『侍天教宗繹史』 「第十一章 甲午教厄」(1915).

197) 康弼道, 『東學道宗繹史』 「第十三章 松菴傳授戊戌曹難」.

198) 『天道教書』 「第二編 海月神師」.



운(林益運) 9명이다. 그런데 이들 중 민원장은 강령접주, 김기원은 해주접주이고, 김낙천·이규서·임익운은 봉산에서 함께 농민군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곽홍과 김익균은 2차 봉기 당시 정양과 함께, 김하영은 임종현과 함께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하였다. 황해도 관찰사의 서목에, “적당(賊黨) 백신배를 효수하였습니다”라고 하여 백신배가 황해도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체포 처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199)</sup>

이 외에 강계의 이백초(李白樵)와 영유의 황찬수(黃贊洙) 등 평안도 2개 지역에서도 동학농민군 활동이 파악된다. 『시천교종역사』의 기사에 따르면, “(1894년) 평안도 강서·용강 등지의 교도 김사영(金士永) 등과 함흥부 김학수, 강계군 이백초 등이 각각 군중을 모아 포(包)를 일으켰다가 곧 해산하였다”<sup>200)</sup>라고 되어 있다. 현재 확인된 함경도 출신 참여자는 함흥의 김학수(金學水)가 유일한 사례이다. 1894년 10월 평곤(平糶, 평안도 병마절도사)의 서목에, “영유에 거주하는 황찬수가 전선을 절단하려다가 일본 병사에게 붙잡혀 복문 밖에서 효수당하였습니다”<sup>201)</sup>라고 되어 있다.

## 5. 맺음말

이상에서 서술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경기도는 대부분 개별 지역 단위로 충청도와 강원도 접경지역 중심으로 동학농민군이 활동하였다. 안성과 용인·음죽처럼 충청도 제천과 강원도 원주 등 인접 지역 군

199) 『官報』, 開國 503년 11월 21일; 朴周大, 『羅巖隨錄』 1894년 11월.

200) 『侍天教宗繹史』 「第十一章 甲午教厄」(1915).

201) 『官報』, 開國 503년 11월 27일; 朴周大, 『羅巖隨錄』 1894년 10월.

현과 도를 넘나드는 접주들 간에 연합전선을 펼치기도 하였다. 연천의 조한봉은 충청도 홍주에서 활동하다가 살해되었다. 이천과 음죽의 농민군들은 충청도 보은까지 진출하여 활동하였고 충주·제천·단양·영춘·목계 등 충청도 일대와 영월·평창·정선 등 강원도 영서 일대를 드나들기도 하였다. 반대로 충주에서 활동하던 서종철은 광주 곤지암으로 옮겨 항쟁을 지속하였다. 지평 농민군 중 일부는 강원도 홍천에서 활동하였다. 죽산의 박봉학과 이돈화는 충청도 괴산에서 체포되었다. 양지접주 정용전은 오랜 기간 호남집에서 활동하던 경험이 있었다. 반면 조선 정부는 농민군 활동이 치열했던 안성부와 죽산부는 성하영과 이두황을 부사로 파견하여 해당 지역뿐 아니라 인접 지역까지 농민군 진압에 주력하였다.

이천과 음죽의 사례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농민군에 투속하는 경우가 2건이 있고, 머슴이 적극 활동한 사례도 보인다. 진위와 안성에서는 3형제가 각기 농민군에 참여하였고 이 지역에서는 농민군을 배반하였음에도 총살 후 가산이 몰수되었고, 피신한 농민군도 자산이 몰수되었다. 민보군을 이끌던 지평현감 맹영재는 인접 지역인 여주까지 진출하여 도피한 농민군의 부인을 남편 대신 옥에 가두거나 어머니를 자식 대신 처형하기까지 하였다. 지평에서 그는 농민군 지도자 형제를 살해하였고, 양근에서는 자수한 인사까지도 처형하였다.

강원도의 동학농민군은 제2차 봉기 이전에 봉기를 하면서 해당 거주지역 단위를 벗어나 상호 간 연대하여 농민운동을 지속하였다. 특히 인제와 정선 등지에서는 일찍부터 최시형 휘하 동학 교단의 핵심 인사들이 활동하였고 최시형도 오랜 기간 이곳을 거처로 하여 은거하였다. 그 결과 『동경대

전』 초간본 목활자본 등 경전을 간행하는 한편 교단 조직도 활성화되었다. 그러던 중 1894년부터는 각지에 접을 설치하고 동학농민군과 결합하면서부터 지역간 연대를 통해 운동을 확산시켜 나갔다. 이 지역의 농민군은 강릉 수천 명, 평창 5천여 명, 홍천 1천여 명, 정선 3천여 명 등으로 대체로 인구가 희소한 산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인구에 대비하면 매우 많은 주민이 농민군이 참여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들은 영서에서 집결하여 대관령 등을 넘어 영동의 강릉으로 들어와 주도적인 활동을 하였다.

농민군 주력인 전라도 농민군의 제2차 봉기에 앞서 강원도 농민군은 1894년 9월 4일 강릉부를 점거하고 삼정을 바로잡고 보국안민의 개혁을 선포하는 방문을 내걸고 집강소와 유사한 자치 질서를 마련하는 등 큰 활동 성과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농민군 토벌에 각 면 단위 향촌 조직인 향회를 소집하고 5가작통제가 철저하게 관철되고 있었다. 평창과 정선·봉평에서는 민보군과 하부 단위로서 보부상과 포수(포군)·궁수·창수, 심지어는 장사들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였다. 이곳에서도 면임과 집강을 통한 농민군 토벌 인력의 동원이 이루어졌다. 이들의 식량은 각면 각통의 호구에 분배하는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다. 홍천의 경우는 현의 포수 외에 경기도 여주·양근·지평 및 강원도 춘천의 포군까지 동원하는 연합 토벌대를 편성하여 농민군을 진압하였다. 평창 주민들처럼 화약을 제조하여 농민군에게 판매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상도 보인다.

황해도의 초기 농민군의 활동은 임종현이 전적으로 주도하는 연합부대를 구성하여 그의 동선대로 진행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임종현은 초기 전투부터 황해도 관찰사가 집무하는 해주 감영을 점령하였고 강원도 강릉의

농민군과 마찬가지로 민폐와 읍막을 통렬히 개혁할 것을 요구하였다. 강령의 경우 조세를 바칠 필요가 없으므로 공납을 거두어 바치지 말자는 선언을 하는 등 조세 거부 운동을 전개하였다. 황해도는 서흥·토산·신계·수안·용진을 제외한 거의 전 지역에서 농민군이 활동하였다. 이 지역은 다른 지역에서 찾아보기 어렵게 일본군과의 전투도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이는 동 시기 청일전쟁과 연관되어 있다. 평양전투 이후 남만주와 요동 반도로 출병한 일본군의 병력과 군수지원, 전신선 가설을 위한 후발대 및 병참 부대가 인천과 서울을 지나 북상 과정에서 이들 지역을 통과하면서 징발과 인부 동원 등의 문제로 주민들과의 접촉과 마찰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었다.<sup>202)</sup> 은율 농민군의 경우 현감에게 일본 부대와 왕래하는 것을 질책하기도 하였다. 해주성 전투에서는 감영에서 800여 명의 사냥꾼을 동원하였고, 해주 감영과 일본 병사가 연합토벌대를 편성하여 이들을 진압하였다.

황해도의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하면 동학 교단의 영향력에서 비교적 멀어져 있던 지역이다. 최유현·오응선·정량·김구 등 접주로 임명된 인사들도 일부 있지만 임종현·원용일 등 가장 핵심적인 인사들은 동학 교단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았던 인물들로 농민군 주력과는 연계하지 않은 독자적 세력권을 형성한 것으로 출동한 일본군도 ‘가짜 동학당’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 지역 농민군의 대체적인 추세는 변란적 성격으로 집약되는 데 이는 삼남지역 농민군과는 다른 성격을 지닌 것으로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황해도 농민군 참여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을 제하면 핵심 조직은 화포영장과 산포로 화포영장은 산포 중에서 발탁하여 지도자

---

202) 조재곤, 2024 『조선인들의 청일전쟁』, 푸른역사, 546~566쪽 참조.

급의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해주성 점거에 중심 역할을 하였고, 재령 관아를 점령했던 산곡조도 산포로 판단된다. 백낙희가 주도하는 후기 황해도 농민군 주력인 장연의 산포는 1896년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하였고 그 물리력을 기반으로 지방정부를 구성하려는 계획까지 세웠다. 황해도 농민군의 일부는 장수산성 김원교 의진에 참여하여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의병으로 연결되었다.

## 참고문헌

<자료>

『各府報告書』

『甲午軍政實記』

『甲午東學亂』

『甲午實記』

『甲午海營匪擾顛末』

『啓草存案』

『官報』

『均菴丈林東豪氏略歷』

『起案』(法部 檢事局)

『起案』(法部 刑事局)

『東匪討論』,

『東學關聯判決宣告書』

『東學亂中記』

『東學道宗繹史』

『羅巖隨錄』

『兩湖右先鋒日記』

『臨瀛討匪小錄』

『司法稟報』

『先鋒陣各邑了發關及甘結』

『先鋒陣傳令牒』

『巡撫先鋒陣膽錄』

『承政院日記』

『侍天教宗繹史』

『日新』

『天道教百年略史』

『天道教書』

『天道教會史草稿』

『天道教會月報』

『崔先生文集道源記書』

『舊韓國外交文書』『日案』

『大阪朝日新聞』

『東京朝日新聞』

『東學黨ノ狀況』

『明治二十七年日清交戰從軍日誌』

『二六新報』

『駐韓日本公使館記錄』

『黃海道東學黨征討略記』

#### <단행본>

韓祐勛, 1983 『東學과 農民蜂起』, 一潮閣.

오길보, 1988 『조선 근대 반일 의병운동사』,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조재곤, 2024 『조선인들의 청일전쟁』, 푸른역사

#### <연구논문>

한우근, 1978 「동학농민군의 봉기와 전투: 강원·황해도의 경우」 『한국사론』 4.

박준성, 1995 「1894년 강원도 농민군의 활동과 반농민군의 대응」 『동학농민혁명의 지역적 전개와 사회변동』, 새길.

송찬섭, 1995 「황해도 지방의 농민전쟁의 전개와 성격」 『동학농민혁명의 지역적 전개와 사회변동』, 새길.

정은경, 1995 「1894년 황해도·강원도 지역의 농민전쟁」 『1894년 농민전쟁연구』(4).

표영삼, 2006 「경기지역 동학농민혁명운동」 『교사교리연구』 10.

강효숙, 2008 「황해·평안도의 제2차 동학농민전쟁」 『한국근현대사연구』 47.

조규태, 2009 「동학인 흥병기의 종교적 활동과 민족운동」 『한성사학』 24.

신영우, 2015 「강원도 홍천의 동학농민군과 풍암리 전투」 『동학학보』 37.

박준성, 「갑오군정실기를 통해 본 강원도 농민군의 활동」 『갑오군정실기를 통해 본 동학 농민혁명의 재인식』(2016년 10월 6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학술 세미나 발표문).

신영우, 2017 「1894년 경기도 지역의 상황과 동학농민군 진압」 『동학학보』 45.

왕현종, 2017 「광무양안으로 보는 수원지역 농민경제의 분화와 농민항쟁」 『동학학보』 45.

이영호, 2017 「황해도 동학군의 해주성 점령」 『동학학보』 44.

임형진, 2017 「경기도 여주의 동학에 관한 연구」 『동학학보』 45.

박상진, 2020 「동학농민혁명 시기 지평 민보군 연구」 『강원사학』 35.

이병규, 2022 「경기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성격」 『동학학보』 60호.

유바다, 「강원도 지역에서의 동학교단과 농민군 활동」 『인제, 동학정신에서 동학농민혁명으로』(2024년 8월 19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인제군청 주관 학술 세미나 발표문).







## 종합토론

좌 장 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토론자 신영우 (충북대학교 명예교수)

조광환 (동학역사문화연구소장)

전경목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정을경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성주현 (천도교 상주선도사)

박준성 (역사학연구소 연구원)



좌장  
신순철

---

저는 축하만 하면 편하게 발표를 듣는데 좌장을 맡게 되어서 오늘 열심히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청중석에서 이 시간까지 앉아 계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힘드셨을 것 같아요.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섯 분의 발표에 대한 토론과 답변이 오후 6시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75분이 남았는데 토론과 답변 시간을 10분으로 잡겠습니다. 토론자 6분, 발표자 답변 4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신 분들이 주최 측에서 포맷을 별도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발표해 주셨는데 그중에서도 공통 부분이 있고 또 자료가 소략해서 통계까지 접근하지 못한 발표도 있었습니다.

우선 예정 토론자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발표인 이병규 선생님의 발표와 관련해 신영우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토론자  
신영우

---

첫 번째 발표 주제는 토론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소감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되었을 때 다른 법하고 다르게 어색한 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했는데 참여자라는 용어는 학계에서 쓰지 않았던 말입니다. 지금은 관용어처럼 쓰이게 됐지요. 동학농민군이 아니라 ‘동학농민군 참

여자’라고 하면 동학농민군뿐만 아니라 물질 등으로 도와준 사람  
까지도 포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라고 하면 반대로 동학농민군으로 참여  
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진압한 사람까지도 포함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법률 용어가 된 참여자를 동학농민군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특별법 제정 이후 등록분과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처음  
부터 등록을 진행하는 과정을 봐 왔습니다.

동학농민군 진압자들은 1895년 직후부터 공적을 기록한 기념  
비를 만들었고 정부에서 포상을 했습니다. 관직을 주기도 했지요.  
그런데 광복 이후에 정읍에서 전봉준 장군 단소를 만들 때 처음으로  
반란이나 병란, 또는 반역이란 개념이 아니라 민주 창 의라고  
새겨 넣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교과서에서 동학란으로 가  
르쳤지요. 동학농민군이 명예회복을 시작한 것은 백주년에 와서  
입니다. 백주년에 와서 비로소 동학농민혁명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인 의미, 한국사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면을 보게 되었지요. 그  
것이 신문 방송에 많이 나오게 되고 국민도 알게 됐던 것이지요.

그에 이어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특별법을 만들  
어서 명예회복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한 인물  
만 아니라 모든 참여자에 관한 등록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은 매  
우 중요한 일이지요. 명예 회복 사업은 연구와 기념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동학농민군 등록 사업은 중요한 일이었지요. 동학  
농민군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국가 기관에서 이

름을 기록하고 활동 내용을 명기해서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유족으로 등록한 숫자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몇 차례 등록 인원 통계가 발표되었지만 현재까지 등록자 수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국민 세금으로 쓰면서 이런 규모의 등록을 하는 사업을 왜 하느냐는 하는 반론이 나올 수도 있지요.

그런데 광복 이후 지금까지 수행한 보훈 사업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훈부에서 1895년 을미의병을 시작으로 독립운동 유공자들을 국가가 조사하고 연구하고 지원해 왔지요.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독립유공자로서 지금 등록된 사람이 얼마가 되느냐, 의병은 2,739명입니다. 을미의병과 정미의병을 포함한 수입니다.

그리고 3.1운동 이후 국내외 독립유공자로 인정된 분들은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18,258명입니다. 갑오년에 활동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보다 더 가까운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들도 이 정도 밖에 등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세대와 4세대 이전, 즉 100년이 넘는 이전에 활동한 분들에 관해 근거 자료를 제시해서 인정받은 후 등록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직권 등록을 많이 합니다. 즉 사료에 나와 있던 활동 내용을 보고 인명이 나오면 등록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직권 등록과 관련해서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활동했는지, 어떤 집안인지 이것을 추적해서 확인하고 그것을 근거로 등록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법에 재단에 연구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동학농민혁명연구소에서 사료를 발굴 검토하고, 기록

을 분석하여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연구논문을 작성하는 것은 명예회복의 중요한 사업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재단의 연구소는 이름만 있고 인원,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연구소를 제대로 운영해야 하지요. 등록 사업 포함한 동학농민혁명 명예 회복을 위한 사업에는 연구 활동이 필요한데 연구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감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좌장  
**신순철**

네, 감사합니다.

이병규 선생님 말씀하세요.

발표자  
**이병규**

예. 간단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조사하고 등록하는 업무를 처음부터 실무를 맡아서 거의 20년 동안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같이 참여하셨던 신순철 이사장님이나 신영우 교수님도 초기부터 이 일을 같이 해오셨지요. 그리고 이런 조사에서 끝내지 않고 학술 연구의 영역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 연구 영역을 확장하고 더 발전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등록 결과를 보면 전국적인 상황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연구 기반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소의 체제는 학술 대회나 연구 용역 등에 기반을 두고 종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장  
신순철

---

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민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조광환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토론자  
조광환

---

예. 박정민 교수님 전북 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통계적 구조와 사회적 특성을 분석해 주셨습니다. 그에 따른 토론을 먼저 그 두 가지 측면에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박정민 교수님은 매우 유능한 관내의 젊은 역사학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진왜란 전공인데 동학을 이렇게 연구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평소에 동학농민혁명 연구 쪽으로 좀 끌어들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었는데 이게 첫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좀 기쁘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통계를 통해서 동학에 대한 구조나 사회적 특성을 살펴본다는 것은 이제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그런 참신한 연구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것이 젊은 학자의 감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전북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참여자가 많아서 고생이 많으셨을 거라고 짐작을 하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전북 지역 참여자의 군현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를 표로 제시하면서 남원이 98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이후로는 김제 다음으로 대도소가 설치된 세력 근거지였다고 했고요. 봉기 이후 진압 과정에 있어서도 무장 지역이 전국 전체 평균에 거의 세 배

에 달하는 61.5%라는 참여자 대비 처형률이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은 이들 손화중 장군의 근거지여서 그렇지 않을까, 그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전봉준 장군의 핵심 거점이자, 고부 농민 봉기와 황토현 전투가 있었던 고부군은 남원이나 태인 등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 또는 무장 등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 도내 열 번째로 참여자 수도 적고 처형률도 또한 낮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궁금한 점이 통계상 결과라서 대답하기 곤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결론에서 언급하신 내용인데 “전북 지역 동학농민군 참여자 86.4%가 20대에서 40대까지의 청장년 남성으로 구성되었다”라고 하시고 또 이 점이 “동학농민혁명이 단순히 우발적인 민중 봉기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전개되었음을 시사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타의 우리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전투, 전쟁, 민란이라든가 이런 민중 봉기에도 전투 능력이 있는 20대에서 40대의 청장년층 남성들이 핵심 주체로 나섰다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핵심 주체로 나선 것만 가지고 단순히 우발적인 민중 봉기가 아니라는 근거가 될 수 있겠나 하는 의문입니다.

아까 김양식 선생님께서도 발표하시는 갑신정변의 주역들도 2~30대 그 혈기 왕성한 그런 나이였기 때문에 이렇게 용기 있게 나섰을 것이지 나이가 좀 들면 아무래도 실행력이 떨어져서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질문을 던져 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세

번째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단에 있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데이터베이스 중에 직권 등록으로 의결한 참여자 대부분이 2009년에 심의·의결된 것들입니다. 그러고도 15년 흘렸는데 업데이트가 안 된 건 아닌가 그 이후에 나왔던 연구 성과들을 반영하면 수정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선행되었더라면 이번 연구가 좀 더 세밀해지고 정확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장  
**신순철**

예, 감사합니다.  
바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  
**박정민**

네. 먼저 발표문에 공감해주시고 의미 있는 지적을 해주신 조광환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점들은 제가 다 공감하고 있고 저도 수정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겁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아무래도 저는 통계적으로 분석을 하다 보니 통계의 함정에 빠졌을 수도 있는데 그런 점들에 대해서 답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의미 부여를 하고 싶어서 과도하게 해석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질을 알리는 질문들을 해주셔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고 또 여기 계시는 대가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부 지역 고부 참여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처형률도 낮은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앞서 발표 때도 말씀드렸지만 임

실이라든지 부안의 사례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구역이 1894년에 변화되어서 지금의 백산면 일대가 부안으로 바뀐니다. 그래서 부안의 참여자 수가 증가하고 고부의 참여자 수가 줄어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임실도 오수 일대가 동학 세력이 강했던 지역인데 오수 일대가 임실로 바뀌면서 임실의 참여자 수가 많아지고 남원의 참여자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단에서 제공한 원본 데이터에 이 부분까지 나와 있지 않아서 저도 아쉽게 생각했던 부분인데 이 정도로 쓸 수밖에 없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청장년 남자 중심의 구성만으로 조직성과 근대성을 논할 수 있는가? 저는 이 질문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제가 무리해서 해석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평소 스타일이라면 이렇게 쓰지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쓴 이유는 이들이 동학 내에서 가지는 위상 때문입니다. 즉, 이들이 맡고 있던 직책이 대접주, 접주 등 주체 세력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해당 지역에서 동학의 인적 지역 자원망을 활용해서 병력을 동원한다든지 전투에 참여한다든지 했던 점들이 두드러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을 생략하셨지만 잠시 말하자면 임형진 선생님 논문이 있어서 제 논문에서는 살짝만 언급했습니다. 임형진 선생님 논문이라든지 내포나 태안 지역의 사례들을 봤을 때 동학 지도자가 대부분 그 조직을 이끌고 가는 현상이 발견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본다면 조선 후기 민란들과 다른 점은 동학의 조직 동원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청장년층들에 대해서 좀 더 의미 부여를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의 조직성을 좀 강화하자라는 취지로 서술했습니다. 그리고 근대성이 조금 무리인 단어인지는 알겠지만 그래도 시도해봐서 선생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해보고 안 되면 수정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데이터베이스의 신뢰성, 이 부분은 저 역시 공감합니다. 제가 이 부분 때문에 고생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냥 재단에서 준 자료만 가지고 통계를 쓰면 훨씬 더 쉽게 논문을 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걸 보정하는 작업이 이 논문을 작성하는데 반절 이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두 페이지 넘게 어떻게 보정했는지에 대해서 작성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이 통계 자료가 그래도 신뢰도가 있게 된 것을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는 너무 좋은 자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재단에서 이 부분은 반드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아니면 연차 사업이라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단 내부에서 할 수 없다면 외부 용역을 주더라도 일률적으로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은 이 신뢰성이라든지 후속성이 보완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귀중한 관점을 주신 점에 감사드리고 본 연구의 한계점을 잘 수용해서 제가 잘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장  
신순철

네. 고부가 숫자가 적은 이유는 당시 행정구역과 현재 행정구역을 명확하게 비교해야 알 수 있습니다. 전라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1894년 행정구역과 지금의 행정구역을 명확히 비교해 가면서 통계를 내야만 정확한 통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단이 가지고 있는 자료의 오류는 착오도 있지만 추후에 발견된 자료가 있기 때문이며 오늘 발표에서도 몇 분이 지적을 하셨지만 새로운 자료에 의해서 수정해야 될 부분들도 생겨났기 때문에 이 작업은 반드시 재단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발표 김희태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전경목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토론자  
전경목

예. 전경목입니다. 제 토론문은 113쪽에 있습니다. 토론문을 읽겠습니다. 김희태 선생님의 연구는 그 제목과 부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전라도 서남부에 해당하는 무안, 함평, 영광 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이 동학농민혁명 중에 어떠한 역할을 했고 그 역할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선생님 그 발제문 제2장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활동에서는 전라도 서남부 지역에 기반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활동을 하나하나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정리하여 이 세 지역 출신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을 제세 시기와 참여 시기, 당시 연령, 직책, 직업, 참여 지역, 처형 여부, 등록 구분 등을 세세히 살펴서 일목요연한 세 개의 도표로 작성하였

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록으로 제시한 전라남도 서남부 동학 농민 혁명 참여자 관련 연표는 자료와 기존의 연구 결과를 꼼꼼히 정리한 것으로 앞으로 전라도 서남부 지역 동학농민혁명 연구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열정적으로 자료와 연구 성과를 정리해서 도표와 연표로 작성해주신 김희태 선생님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3장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성격을 소개하고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지향하거나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나주 김씨 김응문 일가의 사례를 통하여 농민군과 유학자의 구분이 가능하며 과연 의미가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상세히 논했습니다. 사실 직업이란 개념이 우리 사회에 도입된 것은 일제의 영향입니다. 문서학적으로 보면 직업이 등장한 것은 갑오개혁 이후 신호적(新戶籍)을 작성하게 된 이후입니다.

이전 전통 시기에는 사농공상이라는 신분 분류만 했습니다. 신호적 작성을 하면서 직업을 기재하도록 했는데 당시 이를 작성하던 사람들이 직업이란 용어가 생경하고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신분이 양반이란 뜻에서 ‘사(士)’ 또는 ‘유(儒)’라고 쓰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실제 자신들이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농(農)’이라고 썼으며 또한 사람들은 이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한 끝에 절충적으로 ‘사(士)’와 ‘농(農)’을 함께 기입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시 양반 출신으로 서당에서 글공부를 한 유학자들도 동학농민 혁명에 참여하여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신분을 ‘농(農)’이라고 했

지만 사실은 ‘사(士)’가 아닌가 하는 것이 김희태 선생님께서 주목하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아가 동학농민군의 지도층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신순철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접장을 역임한 동학농민혁명 지도층의 일부는 그 지역의 유명한 유학자의 문인이었으며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신도 시골에서 학동을 가르치는 서당 훈장 출신이었습니다. 이들은 먹고 살기 위해 이 지역 저 지역으로 떠도는 유랑 지식인이었으며 그랬기 때문에 사회의 모순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 대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밀도 있게 진행된다면 이와 같은 유랑 지식인들의 지도자가 없이 전국 각지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났다가 실패한 민란과 식견과 대안을 가진 지도자들이 주도했던 동학농민전쟁과의 구분이 더 명확해지며 동시에 민란과 동학농민혁명의 사회 발전적 연결 고리를 설명할 수 있을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묻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생략하고 세 번째 선생님께서는 고창 현감이었던 이경인이 자신 역시 동학 교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동학도 이태형과 동학에 협조적이었던 함평 현감 권풍식을 밀고하여 처벌받고 파면되게 했던 사건을 ‘교도와 밀고’라는 항목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통 시기 왕조 국가에서 일어난 이와 같은 사건에는 항상 변절과 밀고 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경우도 전봉준을 밀고한 김경천, 김개남을 고발한 임병찬, 영광의 송문수를 살해해서 바친 이현숙 등이 배신과 밀고를 한 인물로 거론되었습니다. 혹시 전라남도 서남권에는 이 세 지역에 이경인과 이현숙과 같은 인물로서 더 소개할 사람이 있는지요. 그리고 이경인처럼 동학 교도였다가 후에 배교한 사람들을 동학 참여자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처리했으면 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의 보충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두 가지 질문으로 저의 토론을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장  
신순철

네. 감사합니다.  
바로 김희태 선생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발표자  
김희태

예. 고맙습니다. 글을 쓸 때마다 약간 떨리는데 격려 말씀을 해주셔서 힘이 솟습니다. 좋은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민란’과 동학이 구분이 되는 지점이라면서 유학자 말씀을 하시는 데 그런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유학 관계 자료들이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이같은 유학 기반에 동학이라는 종교 기반이 함께 해서 동학운동, 동학혁명으로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민란’하고는 구분될 수 있었지 않았냐하는 생각입니다. 그 실례로 장흥 대접주인 이방언의 자료를 제가 찾은 게 있습니다. 이방언이 동학 입교전 1890년 8월에 면암 최익현에게 본명인 이정석 이름으로 보낸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방언의 부친 이충길은 장흥 남면(현 용산면) 면

약의 도정(道正)으로 활동하고 노사 기정진이 편지를 보내오기도 합니다. 이방언은 1891년에 동학에 입교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1892년에는 오남 김한섭 같은 분들과 같은 동문이었는데 유학과 동학으로 서로 나뉘기 때문에 갈라서게 되고 결국은 동문록에서 삭적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1892년 7월에 남면 어른 장례 관련 조객록에, 이방언이 자기 본 이름인 이정석으로 문상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동학과 유학으로 나뉘어져 있어도 파문 삭적이 됐어도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는 지키고 그것이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배신과 밀고 이런 경우는, 그 전해지는 얘기는 가끔 몇 군데 봤는데 기록으로 확인되어 나오는 경우는 이현숙과 이경인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구전 자료라도 더 추적해서 정리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장  
신순철

예. 이경인 등의 사례를 참여자로 봐야 되는지하는 두 번째 질문이 그 핵심일 것 같습니다.

발표자  
김희태

예. 발표할 때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참여자의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항상 고민입니다.

얼마 전에도 임진왜란 관련 주제에서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 나온 사람들을 전부 임진 전쟁 참여자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는 제대로 군율을 안 지켜서 형

장을 맞거나 처벌을 받거나 이런 사람들도 올라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후손들은 우리 할아버지도 임진왜란 참전해 공을 세웠다고 생각하고 그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중간에 변절한 사람은 참여자로 인정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입니다. 인정되어서도 안 되겠지요. 다만, 변절은 했지만 결국은 일본 군에게 처형당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 변절 정도라든지 여러 사례들을 더 많이 찾아서 집성을 하고 참여자와는 별도로 어떤 기준을 좀 세부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밀고자 중심으로 ‘이고창 밀고 사건’ 이렇게 표기하고 있지만, 동학농민혁명군이 주어가 되는 용어 사용이나 그같은 서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좌장  
**신순철**

네. 알겠습니다.

조사위원회나 심의위원회가 이번을 계기로 해서 더 좀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처리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양식 선생님 충청지역 발표에 대해서 정을경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토론자  
**정을경**

김양식 선생님 발표문은 진도 참여자의 한정에서 참여자에 대한 분석을 한 것으로 굉장히 좋은 주제라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연구 지평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김양식 선생님께서 한정된 자료에서 유의미한 분석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시각과 방법을 통해서 연구

를 진행하셨습니다.

몇 가지 의문과 함께 고민해볼 문제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양식 선생님은 충청지역 출신이 충청도에서만 활동한 참여자가 94%라고 분석하셨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이 대부분 자신의 출신지에서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저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가 늘 저도 궁금했는데 제 추정으로는 지도층 몇몇을 제외하고는 당시 시대상황과 함께 활동에 대한 제약 때문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은 출신 지역 활동지가 동학농민혁명의 경우처럼 높은 비율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동학이의 특별한 제도나 조직 구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을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발표자가 동학농민혁명 이후의 생애에 대해 분석한 부분이 흥미로웠습니다. 저 역시 동학농민혁명과 독립운동의 연관성에 대해 충남지역 동학농민군 분석을 통해서 논지를 전개하는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일제강점기 자료에 입각해서 추정할 때 당시 동학교도 수는 70에서 80만 명으로 추정되고 이 중 충남 출신 교인 명부를 통해서 파악되는 동학교인은 전체 교인의 1/10에 해당하는 2,237명으로 확인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에 참여를 해서 총살, 화형, 행방불명된 인물 405명을 제외하고 천도교에서 활동한 인물은 총 67명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67명은 일정한 직책을 맡은 경우에만 한정되었다는 점

에서 높은 수치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67명 중 동학농민혁명 당시에 접주 등의 지도자 위치에 있었던 분은 24명이었고 충남지역 동학농민혁명에 여러 차례 참여한 사람은 18명이라는 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즉 80%가 넘는 이 인물들이 동학농민혁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후 천도교에서도 중요 직책을 맡았지요. 동학 내의 위치와 참여도가 천도교 내에서도 지속해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발표자의 혁명 이후 참여자의 생애에 대한 분석이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추후의 연구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충남지역 천도교의 독립운동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재단의 등록 참여자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별 분류에 남아 있는 명단을 분석했습니다. 이 부분을 확장해서 참여자에 대해서 폭넓은 분석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도 전달드립니다. 끝으로 함께 고민해 볼 문제는 출신지 중심 분석과 활동지 중심 분석입니다. 어떤 시점이 더 효율적인지 연구자들이 고민하는 장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적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장  
**신순철**

네, 감사합니다.

김양식 선생님 말씀에 답변을 해 주시죠.

발표자  
**김양식**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첫 번째 문제 제기는 결국 동학의 연원제 문제인 거 같아요. 아

시다시피 동학 연원제는 포접 조직이잖아요. 포접 조직 기반이 거의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 출신이 동학 농민군으로 전환되는 것은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근데 포의 지역적 범위가 광역으로 확대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충청도만 놓고 보면은 서포와 관동포인 것 같아요. 서포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증명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학자가 서장옥 포로 보고있습니다. 서장옥은 비중이 큰 인물이기 때문에 서포가 강경한 세력이었고 3월부터 서포 동학농민군들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는데, 그 지역이 청주, 금산, 진잠, 회덕, 옥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전라북도 지역하고도 연계성, 연결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구체적인 자료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 다음에 관동포가 있습니다. 관동포의 지역적 범위는 3개도에 걸쳐 있죠. 그래서 강원도의 정선, 영월, 그 다음에 충청도의 단양, 청풍, 경상북도의 예천 등 광역에 걸쳐서 백두대간을 따라서 분포해 있습니다. 상호 연계하여 활동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동학의 포접 조직과 동학농민군의 참여는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적하신 것은 기존에 연구된 게 많이 있으나 발표자료라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혁명 이후 참여자의 생애 문제는 충청도만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어떤 특수성이나 하면은 3대 교주가 손병희잖아요. 그리고 4대는 박인호. 그렇다 보니까 충청도 출신 동학농민군들이 천도교에 많이 가담할 수밖에

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충청도만의 특징이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른 지역도 생존한 동학농민군들이 천도교 활동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작년에 발표한 남원지역의 경우에도 동학 농민군 출신들이 천도교를 이끌어갑니다. 이런 예를 보면 충청도 출신들이 천도교에 많이 가담한 사실은 특수성과 일반성이 동시에 찾아져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신지가 우선이나 활동지가 우선이냐의 문제는 그냥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참여자를 정리한 엑셀 데이터 자체가 모호합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참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출신지가 좀 명확한데 직권 등록한 경우에는 대부분이 사망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출신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나누기가 쉽지 않습니다.

좌장  
신순철

네, 감사합니다. 농민군과 천도교 또는 3.1 운동과 관련한 것은 아마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대부분 특히 임실이나 전라북도 지역을 보면 대개 농민군 참여자가 3.1 운동으로 연결이 돼서 거사를 준비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국적으로 일반적인 현상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진희 선생님 경상도 지역 참여자를 발표하셨는데 성주현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진희 선생님의 토론을 맡은 성주현입니다. 저는 경상도 지역의 참여자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앞에서도 많이 언급했던 것처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록이 4천 명 정도 되는데 경상도 지역이 245명, 그것도 많게 잡아 245명입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는 많아서 고생했다고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저는 신진희 선생님이 가장 고생을 하지 않으셨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많아도 고민이지만 적으면 더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유의미한 분석을 해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발표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신진희 선생님 토론을 맡으면서 한두 가지 보완할 점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합니다.

발표문을 보게 되면 경상도 지역 경우는 상주진과 진주진이 참가자들이 많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발표문에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이 지역이 좀 많았었는가. 그런 것에 대한 분석들이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동학 조직이라든가, 전투 현황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조금만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참여자와 관련한 분석이 더 많았으면 좋지 않았었겠는가 합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연구를 보면 동학농민혁명 당시만 주로 분석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 이후에 활동이 어떠했었는가가 굉장



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3·1운동이라든가 이후에 많은 독립 운동, 민족운동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거기까지 연결 고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발표문 자체에서도 그런 한계점이 있겠지만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동학농민혁명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 간단한 <표>를 제시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병덕 선생 같은 경우는 충청도 지역에서 활동했던 인물인데, 상주라는 지역에 의외로 들어가 있어서 상주에서 어떤 활동을 했을까 궁금했었는데,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 부분은 연구자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도교는 신파와 구파로 나뉘어져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구파는 독립투쟁이고 신파는 일제 식민통치 수용이라는 걸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아닙니다. 박인호 선생에 대해서 교주로 추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문제가 핵심적인 논쟁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운동도 달라지고 활동도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마 천도교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데 한번쯤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발표문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 혈연과 지연과 연관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천도교 내 교적부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교적부를 보면 혼인 관계라든가, 지연 관계 등을 더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참여자뿐만 아니

라 앞으로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연구에 더 많이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장  
**신순철**

네, 감사합니다.  
답변 듣겠습니다.

발표자  
**신진희**

지금 경상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등록 참여자가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안동진 쪽으로 글을 조금 썼는데 참여자의 이름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밝혀내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니다.

최근 발견된 자료에서는 한두 명씩 이름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참여자로 등록되면 더 풍성한 분석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론문의 첫 번째 질문은 상주진과 진주진의 등록 참여자가 다른 지역보다 많은데 그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동학 조직의 관련성, 그리고 전투 상황과의 관계성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관점을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하는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하자면, 상주진 같은 경우에는 발표에서도 언급했듯이 충청도 보은에서 벌어진 복실 전투가 있습니다. 그 전투에 상주 사람들이 많이 가서 참여를 하거든요. 또 최근에 자료가 조금 더 많이 발굴이 되었기 때문에 등록 참여자로 등록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주 지역 같은 경우에도 고성산 전투만 언급했는데요. 『주한일본공사관기

록』에 고성산 전투에서 8백여 명이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가 계속해서 발굴되고 또 진주나 하동의 동학농민혁명 유족 기록(증언록 등)을 남겨 놓았기 때문에 참여자로 등록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연구가 진행이 되면 더 많은 참여자를 확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등록 참여자에 대한 활동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했었습니다. 너무 간략하게 기록해서 읽는 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는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독립운동사에서 일제하 천도교 활동을 대부분 신파, 구파로 구분하거든요. 그 인식에서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 좌장 신순철

동학농민혁명 연구가 백주년 때만 해도 천도교 자료를 거의 안 보려고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런데 30년이 지나고 보니까 백주년 때 동학을 빼 버리고 갑오농민전쟁 이런 용어들이 생겨났죠. 그러니까 동학과 갑오년의 사건을 철저하게 분리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지역 연구를 하고 연구 성과가 쌓이다 보니까 동학을 제외하고는 갑오년의 사건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요.

더 나아가서 천도교 이후의 천도교 자료들도 동학농민혁명 연구에 활용할 필요를 느낍니다. 그 점을 성주현 선생님께서 지적해주셨습니다.

다음 마지막 발표 조재곤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박준성 선생님이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토론자  
**박준성**

예, 반갑습니다.

마지막 토론을 하기 전에 전체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자들이 등록된 참여자들을 지역별로 나눠서 각각 다양하고 개성 있게 연구했기 때문에 생각할 폭을 넓혔습니다.

그런데 연구에 앞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3,913명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하는 기준이나 지표를 함께 설정해서 각 지역을 나누어 검토했으면 전체를 통일적으로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재곤 선생님 발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겠습니다. 참가자들의 지역을 표시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출신지인가, 주요 활동지인가, 희생지인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창 출신 이원팔은 관동대접주지요. 2차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이원팔은 강원도에서 활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금치나 충청도 쪽에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지역을 평창으로 설정을 했어요. 관동수접주 최맹순은 춘천 출신이에요. 이원팔하고 최맹순은 같은 관동포이고 경상도 예천에서 활동할 때 같

이 참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 지역을 어느 곳으로 설정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그 다음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활동 내용을 논문의 본문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서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 선생님은 참여자들을 상당히 꼼꼼하게 다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역사 조형물이 고부면 신중리에 있는 ‘무명동학농민군위령탑’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무명’이 아니라 이름은 있으되 이름을 알 수 없는 농민군이죠. 그런 이들의 이름을 발굴하고 역사서 안에서 호명해 주는 게 우리 연구자들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강원도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세히 서술하고 어떤 사람들은 활동지가 분명한데도 본문 서술에서 빠졌어요. 넣고 빼는데 어떤 기준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주 제기되는 문제입니다만 당시의 관할 지역과 요즘 소속 지역이 다를 때 어느 곳으로 중심으로 삼아야 할까요? 저도 강원도 동학농민군 활동을 다룰 때 늘 부딪치는데 농민군 활동이 활발했던 내면이 현재는 홍천군이지만 당시에는 강릉부에 속했어요. 홍천 대접주 차기석의 근거지도 내면으로 알려졌구요. 또 봉평에서도 농민군 활동이 활발했는데 당시 강릉부에 속했어요. 지금은 평창군에 속하지요.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곳이 많은데 참여자의 활동지역을 과거, 현재 가운데 어느 곳으로 비정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동학농민혁명은 동학운동, 민란, 변란의 흐름이 합류해서 거대한 역사의 사건을 만든 것인데 황해도 해주의 농민군 활동 가운데는 변란적 성격이 강한 곳이 있습니다. 남쪽에서도 집

강소 시기에 농민군 2대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김개남이 임실 상이암에 들어가 활동했어요. 상이암은 왕건이 기도해서 고려를 건국하고 왕이 되었고, 이성계가 기도한 뒤 조선을 건국하고 왕이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곳입니다. 김개남이 상이암에 들어갔던 것은 이런 전설과 무관하지 않았고, 그래서 왕이 되려고 한다는 소문이 헛소문만은 아니었지요. 해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이러한 변란적 성격의 활동을 1894년 동학농민혁명 전체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조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좌장  
신순철

네, 감사합니다.

네 가지 정도 질문인데요. 답변 듣겠습니다.

발표자  
조재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여러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답변이 가능한 것도 있고 쉽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전체 발표에서도 거론됐었지만 출생지와 활동지, 체포 처형지 어느 곳이 중심무대로 설정하는가 하는 문제는 모두 고민이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지금 재단에서는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재단 분류 중 3,900여 명을 분류한 기준이 있습니다. 저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대안이라고 하면 체포 처형지 탄생지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최대 공약수를 말하는, 가장 그 중심적으로 활동한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것도 혹시 대안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맹순

도 말씀하셨는데 최맹순이란 사람이 춘천 출신인데 활동은 경상도에서 하고 이원팔 같은 경우는 강원도 평창 출신인데 충청도, 심지어는 우금치에서 활동하고 있지요. 최맹순 같은 경우는 경상도로 보아야 되고 이원팔은 충청도로 분리되겠지만 지금은 최맹순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원팔은 강원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처음 글 쓸 때 이름을 다 거론하다 보니까 원고지가 400매가 거의 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단순 활동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후일 자료로서 권병덕 기록에서 나오는 동학 활동지로 나오는 것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또 전체 농민군의 숫자는 각 지역별로 했지만 자료상 미미한 부분은 빼버리다 보니까 주요 내용만 정리하면서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는 것도 있었지요. 그 다음 현재 지역 지명과 과거 지명이 혼재된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도 음죽과 장호원, 평택이 지금은 경기도죠, 과거에는 충청도였고. 강원도 부분에서 저도 차기석을 강릉사람이냐 아니면 홍천사람으로 잡을 것인가, 혹은 당시 지명으로 강원도 강릉부의 내면인데 경계는 홍천이었고, 또 나중에 홍천에 포함되지요. 그래서 차기석하면 홍천 대접주로 파악해서 재단 분류에도 홍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차기석을 홍천으로 잡았지만 엄밀히 분류하면 강릉으로 해야 되겠죠. 홍천 전투의 성격도 달리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해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주목한 것은 황해도 농민군의 변란적 성격입니다. 황해도 농민군이 한두 명이 그런 것이

아니라 원용일이나 그런 사람들이 황해도에서는 거의 변란으로 갑니다.

저는 예전에 발표할 때 황해도 농민군의 포커스를 전라도 농민군으로서 황해도 농민군들과 관계를 주목했지요.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농민군 중 유일하게 모반 대역죄로 처형당하는데 그걸 뒤에서 교사한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아이러니컬하게 전라도 남원 출신의 농민군인 김형진이라는 사람입니다. 동학농민군 중에서도 나중에 의병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김형진이 그런 경우이지요. 김형진은 백범 김구랑 같이 중국을 두 번 갑니다. 저는 이병규 선생님과 김형진 손자 집을 찾아갔습니다. 손자 되시는 분의 말을 들었습니다. 백범이 귀국해서 전주까지 찾아와서 『백범일지』를 김형진의 아들에게 주고 또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백범이 준 그 『백범일지』를 직접 보았습니다.

김개남과 김형진이 어떤 관계인지는 자료상 기록은 없지만 적어도 남원에서 활동하다가 피신을 해서 나중에 황해도를 들어갔다가 백범 김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김형진이 김구와 안동 김씨라고 하는 친밀성을 가지고 있던 것 같습니다. 김형진은 정감록 사상을 토대로 해서 활동하지요. 백범 김구가 전라도 남원의 김진사라고 말한 사람이 김형진인데, 주모자 백낙희의 정치적 모델은 김형진이었고 김형진은 정감록 토대로 해서 새로운 신국가를 구상하지요. 뭔가 좀 황당하지만 이씨 왕조를 무너뜨리고 정감록 토대로 해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런 것이 황해도 일대에 퍼지다 보니까 원용일이란 사람도 감사를 자칭



하고 군수 현감까지도 곳곳에 만들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 것 같고 앞으로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좌장  
신순철

예. 감사합니다.

아마도 오늘 선운사 마애불 배꼽비결로부터 시작해서 당시 민간 신앙과 연결 고리를 충분히 누가 깊이 있게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재단이 가지고 있는 로우 데이터를 이제 좀 세밀하게 다시 검토해서 작성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발표나 말씀 듣고 보니까 출생지와 활동지, 사망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활동지는 여러 곳인 사람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여러 부분을 고려해서 로우 데이터를 정리해야 정확한 논의가 이루어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첫 번째 발표하신 박정민 선생님 같은 통계를 전라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분석하고, 그 토대 위에서 각 지역 활동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박준성 선생님이 포맷이 서로 달랐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로우 데이터를 수정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3900명 이상의 전국적 분석을 연령별, 직업별 그리고 활동 지역별, 출신 지역별, 그리고 사망 지역별로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중에도 전라도는 2~30대가, 김희태 선생님 나주 함평 영광이었지요? 20대가 46%라고 나왔는데 충청도 전라도는 30

대가 가장 많았지요, 과연 전국 통계를 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지적되었습니다만 지역별 활동의 연구는 기본적으로 1894년 당시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행정구역으로 다시 통계를 내는 절차를 거쳐야 혼동하지 않겠지요. 제 기억에 1894년에 전국의 군현수가 330 몇 군데입니다. 오늘 발표된 군현 수를 보니까 191개예요. 오늘 지금 발표에서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그리고 강원도 황해도 경기도까지 망라된 농민군 출신 지역이 191개니까 55% 정도 되지요. 전국 전체 고을의 절반 이상이 갑오년에 봉기했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동안에는 한 120여개 고을이라고 생각했지요. 330여개 고을 가운데 190개니까 절반 이상의 고을에서 봉기했다는 게 오늘 확인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정확하게 통계 숫자로서 볼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진전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3,913명이 지금 등록돼 있습니다만 등록된 사람만 가지고 동학농민혁명의 전체를 본다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참여하고 죽었고 도망갔던 사람들 그리고 후손에게도 내가 참여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했던 분들까지 포함되는 이야기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재까지 등록된 분들이 어떤 분들이었나하는 연구는 앞으로 더 진전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회의가 중요한 성과를 낸 것

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오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지역별 활동과 성격이라는 주제로 여섯 분의 발표와 여섯 분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발표 토론을 해 주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동학농민혁명연구소 학술총서 3

총괄      김양식(동학농민혁명연구소장)  
기획      이병규(연구조사부장)  
편집      오주연(연구조사부)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지역별 활동과 성격

인쇄      2025년 12월 1일  
발행      2025년 12월 3일  
발행인    신순철  
발행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홈페이지    www.1894.or.kr  
전화      063-530-9438  
편집인쇄    달디자인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25

\* 발행처의 승인 없이는 본서의 무단복제를 금함